

젠지(土肥原賢二) 소장과 오오사꼬 미찌사다(大迫通貞) 대좌가 직접 지휘했다.

같은 해 여름 '화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오사꼬는 아동회사의 두 친일파(韓奸)인 이웅(李雄, 또는 林炳雄)과 정봉진(鄭鳳鎭, 또는 鄭武林)에게 명령하여 장개석을 죽이고 항주 비행장을 폭파하도록 거액의 활동자금과 무기탄약을 제공했다. 이웅은 즉시 남경으로 가서 중앙호텔에 투숙해 국민당 제 5 차 전국대표대회를 개최하는 기회를 틈타서 남경의 조선인들을 이용하여 장개석 및 기타 남경정부 요원들을 죽이고 항주비행장을 폭파하고자 계획했다. 이를 위해 이웅은 동향 사람을 통해 인맥관계를 맺고, 금전으로 인심을 매수했다. 결국 황국주(黃國柱), 현철진(玄哲鎭), 최진무(崔震武), 왕춘수, 이인룡(李麟龍), 한복, 고문해(高文海), 문정일(文正一, 또는 李雲龍), 최창한(崔昌漢), 정봉한(鄭鵬翰, 또는 鄭如海, 馬維新), 김학무 등 10 여 명의 회원들이 숙임수에 빠져 제남(濟南)으로 가서 이웅에게 의탁했으며 시내 위일로 흥운리(緯一路興雲里) 116 호 셋집에 배치됐다. 이어 이웅, 정봉진 두 사람은 다음 작전을 위해 중앙군관학교의 조선인학생들을 불러 장개석을 암살하며 항주비행장을 폭파할 방법을 강구했다. 김학무, 왕춘수, 황국주, 현철진 등은 곧 남경으로 가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웅의 음모와 계략은 이미 남경의 조선혁명단체에 의해 간파되었고 민족혁명당 총서기 김원봉은 이웅의 경력을 김학무에게 알려주었다. 1936 년 1 월 말, 김학무 등은 제남으로 돌아가 이웅을 죽여버린 다음 흥운리 셋집의 회원들을 남경으로 데려갔다.

그 후 현재 직면한 경제적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혁명동지회는 다른 당파에 가입하여 자신의 비밀조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1936 년 봄 여름 사이에 대다수 회원들은 개인 신분으로 조선민족혁명당에 가입했다. 김학무도 같은 해 5 월 민족혁명당의 일원이 됐다.

1936 년 말 또는 1937 년 초 최창익(崔昌益, 별명 李健宇), 허정숙(許貞淑, 별명 鄭文珠), 한빈(韓斌, 별명 王志延) 등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남경으로 가서 조선민족혁명당에 입당했다. 이후 혁명동지회 회원뿐만 아니라 조선민족혁명당 계열의 청년 당원들도 점차 그들의 주위에 모였다. 이에 따라 최창익은 늘 김학무, 김인철, 석성재(石成才, 또는 張志民) 등 급진적인 청년당원들과 친밀한 접촉을 가지고 민족혁명당내의 비밀그룹 즉 '혁명동지회'를 '공산주의자전위동맹'으로 재조직하여 최고 지도자로 자처하면서 민족혁명당과 대립하는 행보에 나섰으며 나아가 민족혁명당의 지도권을 장악하려고 기도하였다.<sup>③</sup>

## (2) 조선청년전시복무단(전위동맹 전신)

1937 년 7 월 7 일 노구교사변이 중일전쟁의 서막을 열었다. 민족혁명당은 기관지 『전도(前途)』와 각종 팜플렛, 삐라 등을 통해 재중국조선동포들에게 중국항일전쟁에 직접 참가하라고 호소하는 한편, 중국 국민정부와 협의하여 소속

<sup>③</sup>[韩]秋宪树编《资料韩国独立运动》第二卷, 延世大学出版部, 1972 年, 第 78-79 页。

특무대 대원 및 새로 모집한 청년당원들을 중앙육군군관학교 특별훈련반으로 소집하여 그들에게 대일작전에 필요한 군사훈련을 시키기로 결정했다. 1937 년 12 월 11 일 남경, 상해, 광주, 화북 및 동북에서 온 당 소속 청년 84 명이 직접 강서성 성자현(星子縣, 지금의 廬山市)에 운송되어 중앙육군군관학교 특별훈련반(제 6 기 4 중대)에서 군사훈련을 받았다. 남경이 함락될 무렵 특별훈련반은 성자현에서 호북성 강릉(江陵)으로 옮겨 훈련을 계속했다.

조선인학생들은 특별훈련반에서 반년 정도 훈련을 받으면서 상호 간의 이해를 증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훈련반 내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주장에 감화돼 급진적인 혁명운동에 찬성하기 시작했다. 이 변화 과정에서 조선인 교관 왕지연은 극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훈련반 졸업을 앞두고 김학무 진일평(陳一平), 김인철, 석성재, 마춘식(馬春植, 또는 李鴻炎), 임평(林平), 주창손(朱昌孫, 또는 安昌善, 崔孫), 김창만(金昌滿), 한득지(韓得志, 또는 李根山), 호일화 등은 이미 전위동맹의 골간으로 성장해 청년당원들 사이에서 선두적인 모범 역할을 했다.

1938 년 5 월 19 -21 일 민족혁명당은 강릉에서 제 3 차 임시 전당 대표대회를 개최하였다. 최창익을 비롯한 전위동맹의 급진파가 당 주력부대의 앞으로 사업 방향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대회에서 원칙적으로 당 주력부대가 동북에 진출하기로 결정했다.

강릉대회 폐막 이후 같은 해 5 월 24 일 특별훈련반 제 6 기 졸업식을 거행하게 되어 김원봉, 최창익 등 8 명의 중앙집행위원들이 참석했다. 6 월 2 일 강릉대회의 결의에 따라 조선인 상좌 교관 왕웅(王雄, 본명 金弘壹)이 졸업생들을 이끌고 호북성 한구(漢口) 교외에 도착해 대공중학교(大公中學校)에서 숙영하였다.

그동안 국민정부 군사위원회정치부 제 2 청 청장 강택(康澤)은 김원봉에게 조선인졸업생들을 동원해 관내지역에서 중국군대를 도와 중국항전에 참가시킬 것을 제안했다. 결국 김원봉을 비롯한 당의 지도자들은 중국군사당국에 타협을 하여 강릉대회에서 결정한 동북으로의 무장진출 방침에 대해 망설이면서 이전의 입장을 바꾸었다. 그러자 처음부터 동북 진출을 단호하게 주장하던 전위동맹의 지도자들은 같은 해 6 월 10 일에 퇴당을 선포했다. 당시 탈당분자는 최창익, 허정숙, 신익희(申翼熙, 또는 王海公), 김학무 등 집행위원과 김인철, 석성재, 마춘식 등 후보위원을 비롯해 총 49 명 (당원 14 명, 졸업생 35 명)을 포함했다.

민족혁명당을 이탈한 전위동맹의 멤버들은 동북 진출 문제를 잠시 방치해 두고 열던 무한보위전을 지원하기 위해 무한시내에서 선전활동을 벌이였다. 이들은 공개적인 활동 편리를 위해 한구로 옮겨 일본조계 철로 구외(鐵路口外)의 영청신로(永清新路) 37 호를 본부로 하여, 그해 7 월 4 일 조선청년전시복무단(戰時服務團)을 설립했다. 이견우 단장은 전시복무단을 설립한 동기는 중국을 떠돌아다니는 조선혁명청년들이 직접 중국항전에 참가함으로써 『중한민중들은 단합하여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자』는 슬로건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sup>④</sup> 실제로 전시복무단은 공산주의전위동맹이 겉모습만 바꾸어

<sup>④</sup>重慶《新蜀報》，1938年8月20日。

민족혁명당과 지위가 동등하게 공개적인 조직으로 재편성됐다. 이후 전시복무단은 단원 수가 늘어나 같은 해 8월 중순에는 총 68명에 달했다.

전시복무단이 독립활동을 시작한 이후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원천이 부족한 것이었다. 민족혁명당이 그들의 생활에 상당한 정도로 도움을 주었지만 생계를 유지하는데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일제정보문서에 따르면, “조선민족전선연맹은 매달 중국측에서 3000 원의 원조금을 받았으나 전시복무단은 그중 500 원만 받고 있다. 물가가 급등하여 생활 곤경에 처해 팔로군(홍군)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있으며 되레 김원봉에게 원조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한다. 김원봉을 비롯한 간부들도 말꼬리를 물고 돈을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단원들은 연맹에 대한 반감을 느낀다.”고<sup>⑤</sup> 한다.

전시복무단이 선전활동에서 봉착한 또 다른 어려움은 언어적 의사소통이었다. 단원들 중 절반 정도는 중국어로 비교적 유창하게 말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대충 알아듣기만 하고 회화가 유창하지 못했다. 따라서, 때로는 한 사람이 한국어로 강연을 하면 다른 한 사람이 중국어로 통역했다.

이렇듯 전시복무단이 독립활동을 펼친 약 두 달 동안 중화민족해방 선봉대처럼 밤낮으로 가두 연설, 가무 퍼포먼스, 삐라 살포 등에 의한 항일 선전활동에 진력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지원이 부족해 독립활동을 견지할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팔로군무한사무처도 그들에게 정치경제적 지지와 도움을 주지 못했으며 동북진출 구호도 당분간 실현할 수 없었으므로 부득이 중국정부가 지원하는 조선민족전선연맹으로 복귀하게 되었던 것이다.

1938년 9월, 전시복무단은 민족전선연맹의 지도하에 모든 반일 혁명투쟁을 추진하기로 선언하고, 본단명을 조선청년전위동맹으로 바꾸었다. 이로써 최창익, 허정숙, 신익희 등 중년들이 주도적 지위에서 물러나고 김학무, 한지성(韓志成), 이익성(李益星), 임평, 진일평, 김창만 등 젊은 세대가 전위동맹의 주역이 됐다.

### 3. 조선의용대의 성립

한편, 1938년 7월 초 김원봉은 국민정부 군사위원회에 일본혁명자 아오야마 카즈오(青山和夫)가 기초한 “국제의용군 제 1대 조직계획방안”을 제출했다. 같은 해 9월 사이에 장개석은 조선의용대 설립을 비준했다. 이를 위해 10월 1일부터 중국군사위원회정치부 구성원과 조선민족전선연맹 이사가 연일 준비 업무를 마치고 10월 10일 한구의 일본조계내의 한구신사(漢口神社)에서<sup>⑥</sup> 성립대회를 개최하고 『성립 선언』을 발표했다. 네덜란드 영화 감독인 유리스 이문스(Joris Ivens)가<sup>⑦</sup> 성립대회에 참석해 전체 대원들을 위해 단체 사진을 찍었다. 10월

<sup>⑤</sup> [日] 金正明編《朝鮮獨立運動》第Ⅱ卷, 東京原書房, 1967年, 第618-619頁。

<sup>⑥</sup> [日] 朝鮮總督府警務局《中南支那北、中米在留朝鮮人ノ概況》, 昭和十五年(1940年)。

<sup>⑦</sup> 尤里斯·伊文思(1898-1989), 荷兰著名电影导演, 于1938年经香港来到汉口, 拍摄中国人民的抗日战争纪录片《四万万人民》。他还在汉口与军事委员会政治部副部长周恩来会见, 并拍摄了八路军召开重要军事会议的场面。次年, 他离开中国的时候, 曾把一台自用M摄像机和数千张胶片留给中国导演。该M摄像机现藏于中国历史博物馆。

13 일 저녁에는 한구중화기독교청년회 강당에서 연예회(遊藝會)를 열고 조선의용대 성립을 경축하였는데, 현장에 참석한 관중은 무려 700여 명에 달했다.<sup>⑧</sup>

조선의용대 초기 편제는 지대부(支隊部)와 산하 2 개 구대부(區隊部)로 나뉘었으나 1939 년 10 월에 재조직을 단행하여, 지대가 총대(總隊)로, 구대가 지대로 각각 승급하였으며, 최초의 2 개 구대가 3 개 지대로 확대 편성되었다. 제 1 구대(지대)와 1939 년 10 월에 증설된 제 3 지대는 전원이 민족혁명당 당원들로 구성되었고 제 2 구대(지대)는 전원이 전위동맹원으로 구성되었다.<sup>⑨</sup> 그리고 조선의용대 지도위원회와 지대부(총대부)는 민족전선연맹(민족혁명당, 전위동맹, 해방동맹, 혁명자연맹) 소속 멤버들로 구성되었다. 처음에 제 1 구대는 장강 이남의 제 9 전구(戰區) 장관사령부(長沙)에 분배되었고 제 2 구대는 장강 이북의 제 1 전구 장관사령부(洛陽)와 제 5 전구 장관사령부(호북성 老河口)에 분배되었다.

조선의용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최창익은 “중국국민당 통치하에서 김구, 김약산 등만이 활동할 수 있고, 공산주의자는 결코 활동할 여지가 없다고 여겨 심복 동지 18 명을 동반하여 서안에 가기로 결심했다.”<sup>⑩</sup> 최창익이 이끄는 이 '18 명'은 모두 전위동맹의 급진분자로, 조선민족전선연맹 및 조선의용대를 이탈한 후 1938 년 10 월 말 서안에 이르러 한동안 항일선전활동을 벌였다.<sup>⑪</sup> 이들 중에는 이유민, 석성재, 마춘식, 주운용(周雲龍, 또는李克), 윤공흠(尹公欽, 또는李哲), 이철중, 이홍빈(李鴻斌, 또는田榮) 등 남성대원들과 허정숙, 김난영(金蘭英, 또는金英淑), 장정영(張靜英, 또는石英), 조명숙(趙明淑, 또는張明淑) 등 여성대원들도 있었을 것이다.

이후에도 이념적인 문제로 당과의 분열이나 합병이 계속되어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었다. 사료에 따르면 “조선민족혁명당내에서 당원 왕지연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청년일파는 민족혁명당을 완전히 공산당단체로 전변시킬 것을 주장하면서 이견우의 국부적 분열 행위에 반대해 나섰다. 왕씨는 당의 활동에 불이익을 주어 당으로부터 무기정권처분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왕씨가 지도하던 10 여 명의 청년들은 1940 년 여름 민족혁명당에서 이탈했다.”고<sup>⑫</sup> 한다. 이번 분열도 민족혁명당에 대한 타격이 매우 커서 당초 민족주의 각 당과의 통일된 정당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또 사료에 따르면 “1940 년(1941 년?)가을 '전위동맹'과 '해방동맹' 및 민혁명당의 이정호파(李貞浩派)는 합병하여 조선민족해방투쟁동맹을 조직하였는데, 이로써 그들은 또다시 민족전선연맹을 이탈하여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로

<sup>⑧</sup>汉口中华基督教青年会礼堂旧址位于今武汉基督教青年会(汉口黎黄陂路10号)正前方。上世纪八十年代被拆除,在原址修建了一所幼儿园。

<sup>⑨</sup> 南京中国第二历史档案馆藏:全宗772号,案卷13号,1939年。

<sup>⑩</sup> [韩]秋宪树编《资料韩国独立运动》第二卷,延世大学出版部,1972年,第78-79页。

<sup>⑪</sup> 《新华日报》1938年12月16日。

<sup>⑫</sup> [韩]秋宪树编《资料韩国独立运动》第二卷,延世大学出版部,1972年,第72页。

되었다.”<sup>⑬</sup> 이와 같이 조선민족전선연맹도 이미 유명무실해져 이전의 가맹체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으며 각자 스스로 정치를 했다.

이 무렵 민족혁명당과 그 가족은 경제생활이 매우 궁핍하여 다수의 당원들을 조선의용대에 편입시킴으로써 심각한 경제난을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했다. 사료에 따르면, "조선의용대는 1, 3, 9, 5 각 전구에서 활동한 지 3 년이나 되었고, 성적 표현도 아직 나쁘지는 않지만 정치부에 소속되어 있어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겨져, 전시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경비지출이 점차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심지어 대원들의 생활도 유지하기 어렵다. 김약산은 각 당과 투쟁하려면 반드시 대량의 당원 및 대중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1941 년(1940 년?) 여름 대원들을 모두 낙양에 집결시킨 다음 곧 하북으로 들어가 적후방 활동을 벌이게 하였다.”고<sup>⑭</sup> 한다. 이것도 조선의용대 주력부대가 북상항일을 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다.

### Ⅲ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의 조직체계

#### 1. 화북조선청년연합회와 조선의용대

1941 년 1 월 10 일 화북조선청년연합회는 산서성 요현(遼縣, 지금의 左權縣) 동육진 상무촌(桐峪鎮 上武村)에서 성립을 선언했다. 이는 화북지역에 산재한 조선청년들의 대중조직이자 중국공산당이 지도하는 재중국조선공산주의자들의 기본 정치조직이기도 하였다. 팔로군 포병단장 무정이 회장을 겸임하였고, 조직부장은 이유민, 선전부장은 장진광(張振光), 경제부장은 이근산, 초기 회원은 최창익, 유신(柳新, 또는 金容燮, 張維輔), 마춘식, 이철중, 김란영, 장명숙, 송은산(宋銀山, 또는 余省三), 윤공흠, 왕극강(王克強, 또는 金昌奎), 등철, 한경(韓璟, 또는 千甲伊, 曹晃), 장해운(張海雲, 또는 魯民), 주운룡 등 20 명이었다. 조선청년연합회가 성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운룡, 장해운, 왕극강 등 회원들이 국민당통치구역(낙양, 중경)에 파견되어 조선혁명단체 간부 왕지연 등과 연계를 취하여 조선의용대 북상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sup>⑮</sup>

1941 년 봄 여름 사이에 조선의용대 주력부대는 태행산 항일근거지에 들어가 7 월 7 일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로 재편성되어 산하에 3 개 대(隊)를 두었으며, 총병력이 약 150 여 명에 달했다.<sup>⑯</sup>

화북조선청년연합회는 창립 초기에 총회(동맹본부)를 제외하고 4 개 분회(分會)를 설립했다. 분회는 지회(支會) 또는 지부(支部)라 불리웠고, 그 밑에는 약간의 소조(小組)를 설치하였다.

##### (1) 진기에(산서·하북·하남)변구분회

회장 진광화(陳光華, 또는 金昌華), 부회장 석정(윤세주), 기관지 『조선청년』.

⑬ [韩] 秋宪树编 《资料韩国独立运动》 第二卷, 延世大学出版部, 1972 年, 第 79 页.

⑭ [韩] 秋宪树编 《资料韩国独立运动》 第二卷, 延世大学出版部, 1972 年, 第 74 页.

⑮ 韩国史编纂委员会藏:《朝盟报告草案》, 第 449 页;《在支不逞鲜人团体组织系统表》(1942 年 8 月);“《在支不逞鲜人团体组织系统表》(1944 年 2 月)”.

⑯ [韩] 廉仁镐著 《朝鲜义勇军的独立运动》, 罗南出版社, 2001 年, 第 102 页.

산하에 3 개 지회 및 유수대(留守隊)를 설치했다.

제 1 지회 회장 호철명, 아래에 2 개 소조(그룹, 팀)를 설치, 제 1 소조 조장(팀장) 장중진(張重鎭), 제 2 조 조장 오계승(吳桂升), 조원(組員) 이한중(李漢中), 김기억(金基億), 윤치평(尹治平, 또는 尹瑞童), 한철익(韓鐵翼), 최봉원(崔鳳元, 또는 崔東光), 김성만(金成萬), 관건(關鍵, 또는 黃載衍), 최아립(崔亞立).

제 2 지회 회장 유신, 조직위원 허금산(許金山, 또는 金榮濟, 池一清, 金延), 선전위원 김학철(金學鐵, 또는 洪性傑). 아래에 2 개 소조를 설치, 제 1 소조 조장 한청도(韓淸道, 또는 崔鐵鎬, 崔明根), 조원 김강(金剛), 조열광(趙烈光, 또는 李英秀, 金鐵城, 金海鐵, 金龜泳), 최봉록(崔鳳祿) 고상철(高相喆, 또는 高哲), 봉오식(奉五植), 장예신(張禮信), 김흠(金鑫, 또는 金興), 최계원(崔啓源, 또는 崔重基, 張源一), 신용순(申容純); 제 2 소조 조장 문명철(文明哲, 또는 金逸坤, 韓光), 조원 이동진(李東鎭), 송은산, 김성국(金聖國), 곽동서(郭東曙), 박철동(朴喆東, 또는 張傑), 왕현순(王賢淳, 또는 李正淳, 韓大成), 조소경(趙少卿, 또는 李聖根), 조관(趙寬), 손일봉(孫一峰, 또는 朴孝敬).

제 3 지회 회장 신억(申億, 또는 申益晟, 愼海龍, 蔣元福, 韓靑), 아래에 2 개 소조를 설치, 제 1 소조 조장 이동호(李東浩, 또는 李貞達, 王德山, 李志成), 제 2 소조 조장 주문파(朱文波, 또는 鄭滄波), 조원 김운국(金雲國), 장평산(張平山, 또는 申聖國, 申聖鳳), 김화(金華, 또는 金剛一), 진국화(陳國華), 양계(楊界), 이화림(李華林, 또는 李春實).

유수대 대장 이달(李達, 또는 鄭鳳翰).

(2) 진찰기(晉察冀-산서·차하르·하북)변구분회: 1941 년 12 월 10 일 설립, 회원 채야화(蔡野火, 또는 蔡國藩, 金浩), 석성재, 임평, 허정숙 등 약 20 명.

(3) 연안분회: 1941 년 7 월 7 일 설립, 회장 정율성(鄭律成, 또는 鄭富恩)★, 회원 약 20 명.

(4) 산동분회: 회장 주혁(朱革) 회원 약 5 명.

## 2. 화북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

화북조선청년연합회는 1942 년 7 월 11 -14 일에 산서성 요현 간후촌(看後村)에서 제 2 차 대표대회를 열고 \* 청년연합회 명칭을 ‘화북조선독립동맹’으로 변경하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조선의용군 화북지대로 개칭했으며 하남성 북부의 칠원(七原) 근처에 상주했다.

### A. 총맹(동맹본부)

화북조선독립동맹 중경파견원: 하진동(何振東, 또는 何奉禹)

(1)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최창익★, \* 무정★, 채국번★, 이유민★, 왕지연, 이익성, 김학무, 김백연(金白淵, 또는 金科奉), 석성재★, 박효삼(朴孝三), 이춘암(李春岩, 또는 李範奭, 潘海亮), 양민산(楊民山), 김창만★.

(2) 보선(補選)위원: 진한중, 김세광(金世光, 또는 金世日), 장진광★.

\* 《解放日报》1942 年 8 月 29 日.

\* ★表示中共党员.

(3) 중앙상무위원: 최창익★, 이유민★, 김학무, 박효삼, 김창만★, 무정★.

(4) 중앙상무위원회 직속기관:

ㄱ. 서기부: 서기 최창익★, 선전원 문정일.

ㄴ. 조직부: 부장 이유민★, 간사(幹事) 이근산★, 김창만★.

ㄷ. 선전부: 부장 김학무(1943년 5월 반소탕 중 희생), 부장 대리 이홍염★, 장진광★, 양계.

인쇄국 책임자 임상수(林相秀), 조원(新) 김호(金乎), 봉학(奉學).

ㄹ. 경제위원회: 1943년 5월 하남성 하남점(河南店)에서 설립, 아래에 경제위원회 특별지부를 설치. 책임자 김창만★, 위원 윤신영(尹信泳), 이종철(李鍾哲, 또는 李光)★, 특별지부서기 홍림(洪林, 또는 白正, 金泳烈)★, 관할연락조(조장 김흠, 조원 한철익, 조관, 최아립★, 이명선(李明善, 또는 文鍾三), 고봉기(高峰起)★, 특별생산조(미정), 이발관조 왕휘(王輝), 토지생산조 조장 주동욱(朱東旭), 조원 한영덕(韓永德), 이성림(李盛林), 이성호(李成鎬), 강위민(姜爲民), 김백선(金白先), 김연★, 사진관조 조장 송은산★, 조원 정광호(鄭光浩) 등 2명, 병원조 조장 백은도(白殷道), 조원 김화(金華), 신태식(申泰植), 김철원(金鐵遠, 또는 鄭求麟, 鄭麟), 이화순(李化順), 이화림(李華林), 합작사조 조장 임석근(任錫根), 조원 이한준(李漢俊), 유성(劉盛), 여정(呂庭), 행상(行商) 진광화, 공작원(工作員) 이철(李哲), 심청(沈淸), 광동서.

ㅁ. 함락구사업(淪陷區工作)위원회: 책임자 무정★, 연락책임자 김창만★, 연락원 이명선, 문정일, 장립청(張立淸), 유신, 왕자인(王子仁, 또는 崔能善, 崔仁). 화북 제 1 구(正定, 開封), 공작원 이명선; 화북 제 2 구(正定, 山海關) 공작원 이극; 화북 제 3 구(산동지역) 공작원 김도건이(金島健二); 함락구(북경) 경제공작원 윤신영(尹信泳, 또는 白島一), 만주국 봉천방면 공작원 이준(李俊, 또는 胡一華, 1942년 10월 정식으로 파견).

ㅂ. 군사부: 부장 박효삼, 아래에 조선의용군 화북지대 및 화중지대를 설치.

## B. 분맹 (1944년 2월 말):

화북조선독립동맹은 총맹 밑에 분맹 또는 지맹, 지부를 설치하였다. 처음에 동맹중앙집행위원회는 그 밑에 2개 분국(分局)을 설치했다.

(1) 연안분국: 책임자 무정★, 위원 왕지연, 김백연, 이춘암, 양민산.

1941년 7월 7일 연안분국을 연안지회(지부)로 변경했다. 주석 김백연(김두봉), 회장 주덕해(朱德海)★, 간부 왕외(王巍, 또는 朴一禹)★, 회원 이달(정봉한), 광진(郭震, 또는 楊大峰), 윤치평, 정원형(鄭元衡, 또는 柳文華), 등철★, 조열광, 왕수익(王守義, 또는 崔明)★, 왕극강, 장지복(張志福), 방우용(方禹鏞, 의사), 김엽(金燁, 이하 여성), 김연군(金燕軍), 문정원(文正元), 장수련(張守連) 등 20여명.

(2) 진찰기분국: 책임자 채국번★, 위원 이익성, 장지민, 기관지 『활로(活路)』.

1941년 12월 10일 하북성 평산현(平山縣) 진찰기지부를 설립, 서기 신억★, 위원 홍림, 풍중천(馮仲天), 맹원 오민성(吳民星)★, 최봉록, 최봉원,

이대성(李大成, 또는 蔡東龍, 蔡廷傑), 장평산(張平山), 최지남(崔指南), 고생호(高生鎬), 고상철, 김강, 김무(金武), 주연(朱然, 또는 裴俊逸), 이성만(李成萬), 주문과, 장중진, 진국화, 공명우(孔明宇, 또는 朱星)★ 등 30 여 명.

(3) 태약지부(太岳支部): 1943 년 6 월 설립, 서기 장백운(張伯雲).

(4) 태항지부(太行支部): 서기 안창순(安昌順, 또는 安創善, 朱昶孫).

(5) 산둥지부: 1942 년 5 월 18 일 설립, 서기 노민★, 위원 주혁 등 2 명, 맹원 왕신호(王信虎, 또는 金雄)★, 한락산(韓樂山, 崔萬聲, 千水峰, 千龍九)★, 김경운(金景雲)★, 이성호(李成鎬)★, 한경, 이명(李明, 또는 羅仲敏)★ 등 80 여 명.

(6) 진기예(晉冀豫-산서·하북·하남)지부: 1942 년에 설립. 맹원 정율성★, 호철명, 왕자인, 이근산★, 양계, 유신★, 김창만★, 문정일, 김기덕(金基德), 장립청, 봉학, 왕자청(王子淸), 김평(金平), 박성호(朴成浩), 진동명(陳東明, 또는 白落七), 장진광★, 이지강(李志剛, 또는 李相勛, 李定洙), 박무(朴茂, 또는 朴泳瑀), 임상수, 관건, 김운국, 마춘식★, 이한중, 황신호(黃信鎬), 임성근(林盛根), 진한중, 이철중★, 김란영(이하 여성)★, 조명숙★, 김마리(金馬利), 유순희(劉順姬), 조연희(趙連伊), 오환덕(吳煥德), 등 60 여 명.

(7) 진서북 (산서성 북부)지부: 1942 년 11 월 13 일에 설립, 서기 김세광.

(8) 진노예(晉魯豫-산서·산둥·하남)변구지부: 소재지는 산동성 관성현(觀城縣) 근처, 1943 년 2 월 일본인반전동맹에서 분리하여 설립, 서기 유등(劉登, 또는 柳東浩).

(9) 진동남(산서성 동남부)지부: 서기 박무, 위원 양계, 임상수, 맹원 문정일, 심청(沈淸, 또는 沈淸澤), 김엽나(金燁娜).

(10) 기서(하북성 서부)지부: 서기 허정숙★, 위원 반치중(潘治中)★, 김세광, 최채(崔采, 또는 黃允祥) 등 6-7 명.

(11) 화중지부(華中지부, 또는 淮北支部): 소재지는 안휘성 사현 반성집 사장(泗縣半城集謝庄), 서기 송원주(宋元周), 맹원 방근민(方根民), 촌산홍남(村山洪南) 등 6-7 명.

#### IV 평가

화북조선독립동맹 및 조선의용군화북지대는 조선(한)민족해방투쟁의 선봉대이었으며, 또한 강력한 조선민족항일무장단체이기도 하였다.

첫째, 중국항일전쟁 시기 화북조선독립동맹 및 조선의용군은 중국의 항일동맹군으로서 중국공산당의 지도와 팔로군의 지휘 아래 중국 항일전쟁의 마지막 승리를 위해 매우 큰 공헌을 하였으며,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

호가장(胡家莊)전투와 십자령(十字嶺)전투는 화북조선청년연합회 및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태항산 항일근거지에서 벌인 두 차례의 유명한 포위돌파전이었다. 1941 년 12 월 호가장전투에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대원



4 명이 총에 맞아 숨졌고 1 명이 중상을 입고 포로되었으며 3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942년 5월 십자령전투에서 팔로군 부총참모장 좌권 장군과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간부 석정, 진광화 2 명이 장렬히 희생되었다. 이 두 차례의 전투는 비록 부득이하게 벌인 포위 돌파전이었으나 그 영향이 매우 심원하였으며 한중 두 민족 연합 항전사에 빛나는 한 페이지를 장식해 놓았다.

둘째, 가열처절한 항일전쟁 중에서 화북조선독립동맹 및 조선의용군은 한중 두 민족의 반일 투지를 격발하고 피압박민족의 국제적 연대와 전투적 친선을 강화하였으며 조선민족의 국제위상을 가일층 높임으로써 국제사회의 존중을 받는데 일조하였다.

셋째, 화북조선독립동맹 및 조선의용군 화북·화중지대는 중국의 항일근거지에서 학교를 꾸려 조선민족의 수많은 당정인재와 군사간부를 양성하였다. 이후 그들은 동북해방전쟁과 조선전쟁에 투신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중국 조선족의 형성을 위해 중대한 공헌을 했다.



# 中共东北党组织关于朝鲜民族抗日革命斗争的方针政策

(初稿, 仅供学术会议讨论)

金成镐

(延边大学朝鲜半岛研究院历史研究所)

## 摘要:

本文主要根据中国共产党东北组织的文献史料, 并综合分析中国学界的研究成果, 试图探讨 20 世纪 30 年代前后时期中共东北党组织关于朝鲜民族抗日革命运动的方针政策以及朝鲜民族共产主义者的历史地位和作用问题。

东北朝鲜民族是 19 世纪中叶以来, 以越境迁入而逐渐形成的新的跨境少数民族。自 1910 年 8 月朝鲜被日本吞并以来, 朝鲜爱国志士纷纷转移到中国东北地区, 以朝鲜民族社会为基础, 继续进行反日民族解放斗争。中国共产党始终如一地遵循马列主义的民族理论, 一开始就对东北朝鲜民族的抗日斗争持同情和支持的态度, 坚持不懈地为实现各民族的平等、团结和解放进行了长期的斗争。1930 年以来, 东北朝鲜民族共产主义者根据共产国际“一国一党”的组织原则和现实斗争的主客观条件, 大都加入了中国共产党组织, 直接投入于中国革命。中国共产党在统一领导东北朝鲜民族共产主义者进行抗日革命斗争中, 进一步了解和深刻认识东北朝鲜民族, 并在不断地总结经验教训, 逐渐制定和完善了符合东北朝鲜民族的历史特点及其抗日革命特殊性的一系列正确的方针政策, 如重用朝鲜民族干部、支援朝鲜革命和提出建立东满朝鲜民族“自治区”等。在中共党的统一领导下, 朝鲜民族共产主义者肩负着“双重革命使命”, 与各族人民紧密团结在一起, 在东北抗日革命斗争中起到了重大的作用, 作出了突出的贡献。在这一过程中逐步形成了以金日成将军为首的朝鲜共产主义运动的坚强的领导核心队伍, 也培育了中国朝鲜族社会的首批革命干部群体。这无疑是中国共产党制定和执行英明的民族政策的伟大历史记录, 是东北各民族实现大团结、共同争取抗日革命胜利的历史凯歌, 又是中朝两国人民联合抗日, 并肩战斗在东方反法西斯战场, 用献血奠定现代中朝两国革命友谊的光辉历史篇章。

**关键词:** 中国共产党    朝鲜民族抗日革命    方针政策    伟大历史

## 一、中国东北朝鲜民族的历史特点与抗日革命斗争的特殊性

中国东北朝鲜民族是从 19 世纪中叶开始通过越境迁入而定居在东北地区逐渐形成起来的一个新生的少数民族，具有其特定的历史文化属性和时代特殊性。

首先，在邻近故国的中朝边境地区形成了民族聚居区域。据有关统计，东北朝鲜民族的人口 1919 年为 43 万余人，1925 年为 53 万余人，1931 年为 67 万余人。其地区分布状况为奉天（辽宁）省 16 万余人；吉林省 49 万余人；黑龙江省 1 万 6 千余人。<sup>1</sup>据另一统计资料，1932 年末的朝鲜民族人口分布状况为：吉林省 48 万余人（其中东满地区为 410,578 人），奉天省 14 万余人，黑龙江省 1 万 8 千余人，内蒙古 617 人，辽宁省南部的关东州 2,278 人，热河省 638 人，山海关以南的关内地区 3,582 人。<sup>2</sup>朝鲜民族人口的 73.5% 定居于吉林省，其中的 62.2% 又集中于吉林省东南部的东满（现延边地区），在那里形成了中国朝鲜民族最大的聚居地。东满朝鲜民族人口状况则是 1907 年为 73,000 人，1911 年为 127,500 人，1919 年为 279,150 人，1926 年为 356,210 人。

3

迁入中国东北中朝边境一带的朝鲜人，绝大多数都定居在偏僻的农村和人烟稀少的未开拓地带，从而自然地形成了一块块民族聚居地。客观上来讲，这一状况同当时中国东北人口稀少、未开拓地广阔，且腐败无能的封建清朝及其后的国民党军阀统治势力衰微等较为落后的社会发展以及中华文化的巨大包容力有直接的关系（与在日朝鲜民族社会相比较则这一特点尤为明显）。主观上来讲，主要有三个原因。一是，朝鲜半岛三国统一之后，朝鲜民族作为单一民族在半岛生活了千余年，逐步形成了朝鲜民族特有的历史文化属性。二是，朝鲜民族业已形成了作为近代民族的几乎所有的社会文化特性之后才开始了越境迁入。三是，与在东北地区作为越境迁入而刚刚得以形成的一个弱小民族的现实状况有关。

以东满地区为例，朝鲜民族则在那里成为了多数民族，在当地人口中，朝鲜民族的比例，1907 年为 80.0%，<sup>4</sup>1926 年为 80.2%，<sup>5</sup>1930 年底则为 76.4%。<sup>6</sup>这样，在东满地区自然而然地形成了日益适应于中国社会文化，但还保持着自己的相对独立性且与朝鲜故国有着千丝万缕联系的朝鲜民族社会文化生活圈。正因为如此，当时东满地区甚至被

<sup>1</sup> 伪满州国民政部总务司调查科编，《在满朝鲜人事情》，大同二年（1933）12 月 14 日，第 5～6 页。

<sup>2</sup> 朝鲜总督府编，《最近に於ける朝鲜治安状况》，1966 年版，第 290 页。

<sup>3</sup> 沈茹秋，《延边调查实录》（1931 年）延边大学出版社，1987 年版，第 15～16 页。

<sup>4</sup> 在满日本帝国大使馆编纂，《在满朝鲜人概况》，昭和 9 年版，第 58 页。

<sup>5</sup> 沈茹秋，《延边调查实录》（1931 年）延边大学出版社，1987 年版，第 15 页。

<sup>6</sup> “满州国”军政部顾问部《满洲共产匪の研究》，第一辑，康德三年（1936）。1969 年版，第 545～546 页。

称为“朝鲜的延长线”。<sup>7</sup>

其次，朝鲜民族的反日革命斗争尤为强烈。朝鲜人绝大多数因为遭受日帝侵略和贫穷所迫不得不以个人身份而来，<sup>8</sup>没有任何生产资料和生活基础，又深受日帝及地方封建军阀势力和地主阶级的多重的压迫和剥削，因此其生活环境非常恶劣而不稳定，生活极度贫困。1910年8月朝鲜被日本强行“合并”之后，东北的“朝鲜人由于没有国家，没有势力而又没有财产，沦为全世界最底层的民族”<sup>9</sup>，被置于毫无政治权利且极其悲惨的社会命运当中。东北朝鲜民族在其生活环境、经济基础和思想文化等诸方面，具有更为强烈的反日斗争精神和社会革命要求。“韩国农民之革命意识比诸中国农民，而其水准最高昂。这是韩国农民则自日本并合韩日以后，不堪其压迫和剥削，被逐渡满，所以反帝的意识成为第二天性，对于帝国主义的敌忾心，很为高昂”。<sup>10</sup>毫无疑问，这是因为日本的侵略和吞并朝鲜所造成的。当时，无论是日本帝国主义所作出的东北“各地的共产主义运动无一例外地都开始发生于朝鲜移住农民当中”<sup>11</sup>的分析，还是中共党作出的“东满的革命影响一般的较高于其他地方。……韩国民众因为长期的受日本帝国主义的压迫，及国民党那时的非人待遇，及生活恶劣等原因，斗争与认识，一般的高于中(国)人”<sup>12</sup>的评价绝不是偶然的。

再次，东北朝鲜民族最初的思想政治运动是在“朝鲜的延长”线上开展的。中国虽然有50多个少数民族，但却没有像朝鲜民族这样在近代通过越境迁入而刚刚形成不久的民族。所以，中国朝鲜民族最为突出的社会历史文化特性之一就是拥有朝鲜这样一个自己原有的祖国。尽管朝鲜人从定居东北形成民族社会开始，事实上业已成为中国一个少数民族，而且一部分人业已加入中国国籍，成为名副其实的中国人，但是，在朝鲜半岛数千年作为单一民族生活过来的他们，其传统的历史文化意识以及乡土观、祖国观等却不可能在短时间内发生根本的变化。何况他们当中的绝大多数是由于贫穷和为日帝所逼，才不得不寻求一条生路的人，而且一部分人是身怀反日独立斗争大志的爱国志士。

众所周知，1910年朝鲜被强制合并为日本的独占殖民地，朝鲜民族的反日独立运动

<sup>7</sup> 《朝鲜共产党满洲总局的报告》，1930年1月30日。中央档案馆、辽宁省档案馆、吉林省档案馆、黑龙江省档案馆合编，《东北地区革命历史文件汇集》（以下简称《东北文件汇集》），（甲4），1989年版，第395页。

<sup>8</sup> 据资料，朝鲜人越境迁入到中国东北的动机、理由中生活困难和挣钱等经济原因占94.6%，政治原因等其他占5.4%。参照李勋求，《满洲和朝鲜人》，平壤崇实专门学校出版，1932年版，第102~103页。

<sup>9</sup> 《昭和7年3月25日附在间岛冈田总领事发信芳泽外务大臣宛》，《外务省警察史（间岛の部）》，1—1，外务省，第7703页。

<sup>10</sup> 《江宇给中央的报告》，1931年5月11日。《东北文件汇集》（甲31），1989年版，第65页。

<sup>11</sup> 军政部顾问部，《满洲共产匪の研究》，第一辑。1969年版，第128页。

<sup>12</sup> 《中共东满党团特委工作报告》，1933年10月25日。《东北文件汇集》（甲30），1989年版，第8页。

便成为时代所赋予的最主要的使命。朝鲜国内的反日运动都遭到了日帝极为严密残暴的镇压，一部分爱国志士和反日义兵队伍被迫转移到国外。1910年前后开始转移到中国的朝鲜爱国志士和义兵们抱着亡国恨和民族仇，把东北地区视为“祖国光复之策源地”<sup>13</sup>，求得中国地方当局和人民的理解和支持，以朝鲜民族社会为基础，组织了众多的反日民族团体，积极准备着反日武装斗争。

1919年朝鲜全民族性的“三·一运动”遭到日帝的血腥镇压后，中国东北的朝鲜民族反日力量就举起了武装斗争的旗帜。这一时期延边地区就有朝鲜民族反日武装约3千名。<sup>14</sup>他们以东北为抗日武装根据地积极进入朝鲜国内进行武装活动的同时，与侵入到中国东北的日帝侵略势力也进行了激烈的武装斗争，其突出事例就是1920年6月凤梧洞战斗<sup>15</sup>和10月青山里战役<sup>16</sup>。尽管他们主要是在单纯的民族主义旗帜下为了朝鲜的独立解放而进行反日武装斗争，也给中国带来不少外交问题，但他们毕竟是在东北大地首先打响了抗日武装斗争的第一枪。

进入1920年代以来，朝鲜民族的民族主义反日运动逐步转向为共产主义革命运动。1925年4月在首尔成立的朝鲜共产党于次年5月16日在中国黑龙江省珠河县（现尚志市）一面坡正式组织了满洲总局，下设东满、南满和北满三个区域局。不久，东北的朝共党组织分裂为几个派别，但“他们还是各自团结了一部分共产主义者和革命力量，组织了群众团体，坚持了反对日本帝国主义，争取民族独立和民族解放的宣传和斗争，对于推动朝鲜民族解放运动起了重要的作用”<sup>17</sup>。尽管当时东北的朝共党活动只以“朝鲜革命之延长”来进行，“唯一斗争的对象只有日本帝国主义”<sup>18</sup>，没有直接参加中国革命，但他们在东北朝鲜民族社会广泛地宣传马列主义理论和反日革命思想，在思想上和组织上为1930年代以来的抗日武装斗争准备了较为坚实的社会基础和骨干力量。

<sup>13</sup> 《江宇关于住满韩侨之情势报告》，1929年7月25日。《东北文件汇集》（乙2），1991年版，第21页。

<sup>14</sup> 朝鲜总督府警务局编，《朝鲜の治安状况》，昭和二年（1927年）版，第279页。

<sup>15</sup> 1920年6月7日朝鲜独立军在吉林省图们市凤梧洞以埋伏战杀伤了驻朝日军第19师团安川小佐指挥的“越江追击大队”100余名。

<sup>16</sup> 1920年10月21～26日间，洪范图、金佐镇等领导的朝鲜独立军在吉林省和龙县青山里一带与日本讨伐军进行了大小数次战斗，杀伤了日军官兵数百名。参照尹炳爽著，《独立军史》，知识产业社，1991年版，第158～194页。

<sup>17</sup> 李鸿文，《30年代朝鲜共产主义者在中国东北》，东北师范大学出版社，1996年版，第23页。

<sup>18</sup> 《中共满洲省委巡视员廖如愿关于巡视东满吉敦路沿线各县的工作报告》，1930年9月20日。《东北文件汇集》（甲5），1988年版，第200页。

## 二、“九一八事变”之前中共党关于东北朝鲜民族抗日革命斗争的方针政策

以马克思列宁主义武装起来的中国共产党，从她诞生伊始就把“全世界无产者联合起来！”作为自己的国际主义原则。1921年7月成立的中国共产党的“第一个纲领”第四条规定，“凡承认本党纲领和政策，并愿成为忠实党员的人，经党员一人介绍，不分性别、国籍，均可接收为党员，成为我们的同志”。<sup>19</sup>1922年7月中共全国代表大会所通过的第一个“章程”的第一章第一条规定，“本党党员无国籍、性别之分，凡承认本党宣言及章程并愿忠实为本党服务者，均得为本党党员”。<sup>20</sup>从此，居留在中国的朝鲜民族革命者就有可能加入中共党组织，直接参加中国的反帝反封建革命运动。1923年以韩乐然<sup>21</sup>在上海加入中共党为嚆矢，居留在中国的朝鲜人纷纷加入中共党组织。如1927年中共江苏省委上海法南区“韩人特别支部”的建立以及朝鲜革命者150余人参加广州起义等。

中共满洲省委始终如一地坚持和执行无产阶级国际主义立场和党的民族政策，以争取民族平等、民族团结和民族解放为原则，早就注视和同情、支持东北朝鲜民族的反日革命斗争。1928年2月中共满洲省委的“东边道工作决议案”指出，迁入到中国东北的一百余万朝鲜农民的生活“比中国的农民更有难形容的痛苦”，他们自己组织“政府”、“民族党”和“广大群众的组织”，还有一千名左右的反日武装力量，“这种力量不仅只是日本帝国主义的死敌，而且是中国土地革命一支生力的农军”，提出了“在满洲的朝鲜农民有土地！反对中国军阀地主虐待朝鲜农民、夺取朝鲜农民的土地！……中国农民与朝鲜农民平等！”等口号，并且提出了与朝鲜共产党满洲总局“接洽”的必要性。<sup>22</sup>同年4月15日中共满洲省临委又发表“告满洲朝鲜农民书”和“满洲的朝鲜农民问题”等文件，全面分析东北朝鲜民族情况，指出“亲爱的朝鲜农友们：我们所受的痛苦是一样的，我们的敌人是一样的，我们奋斗的目的也是一样的，我们奋斗的步骤与行动，也应当是一样的”，<sup>23</sup>“朝鲜农民是我们反日的友军，是我们满洲革命的农民的一部分。我们再不能旁观中国的军阀地主和日本帝国主义者去蹂躏朝鲜农民，我们当联合这部分可

<sup>19</sup> 《中国共产党第一个纲领》，1921年。《中共中央文件选集》第一册，中共中央党校出版社1992年版，第3页。

<sup>20</sup> 同上，第93页。

<sup>21</sup> 韩乐然（1898—1947），又名韩光宇，出生于吉林省龙井。1919年参加龙井“三·一三反日示威”后去俄国沿海州，次年去上海。1923年在上海美术学校学习期间加入中共党，是中国朝鲜民族中最先加入中共党的人。参照崔龙水《革命艺术家韩乐然》，《朝鲜族研究论丛》（3），延边人民出版社1991年版，第271～285页。中共延边州委党史研究所编《延边历史事件·党史人物录》，1988年版，第43～44页。

<sup>22</sup> 《东边道工作决议案》，1928年2月29日。《东北文件汇集》（甲1），1988年版，第357～360页。

<sup>23</sup> 《中共满洲省临委告满洲朝鲜农民书》，1928年4月15日。《东北文件汇集》（甲2），1988年版，第10页。

亲爱的革命群众，在斧头镰刀交叉的红旗下面，共同作反日运动，作土地革命运动，作谋夺取政权的斗争”。<sup>24</sup>

1930年1月，中共满洲省委将“以朝鲜革命运动来推进反帝工作及组织一般革命的群众”当作“策略的总路线”之一。<sup>25</sup>当年2月满洲省委又指出“以朝鲜革命运动来提高反帝运动。……我们可站在被压迫民族的同情地位上，须要热烈地援助朝鲜革命运动，当然扩大援助朝鲜的独立运动，也就是提高了满洲民众反帝的情绪”，并决定迎接3月1日“韩国独立纪念日”，开展示威活动，把“援助韩国革命运动”当作一个“中心口号”。

26

这些事实说明，东北朝鲜民族是在1920年前后已开始走在抗日武装斗争的前列，起了先锋模范作用；而中共党一开始就重视和支持朝鲜民族的抗日革命运动，并视之为反帝反封建革命运动的同盟军。

至1920年代末为止，东北的中共党组织和朝共党组织只有过一些组织接触，<sup>27</sup>还没有直接的联合活动和共同斗争，但朝共党组织“在满洲朝鲜人中有群众，有组织，也有革命斗争”。<sup>28</sup>当时东北的中共党组织和朝共党组织的发展情况相比较，大体上可归纳以下几点：一、中共党在大城市以工人、知识分子和青年学生为主要的对象，农村工作则还没有开始。<sup>29</sup>朝共党则因为朝鲜民族绝大多数生活在农村，其工作重点自然是农村和农民。二、1929年7月东北的中共党员只有208名，<sup>30</sup>而朝共党各派党员已达1,200余名。<sup>31</sup>相对来说，朝共党组织社会群众基础较好，其发展较快，已建立了较为系统的组织网和群众团体。如东满地区，1927年7月朝共党各派领导下的革命群众组织就有116个，其组织成员已达9千7百余名；<sup>32</sup>1929年9月火曜派满洲总局组织就有党员3百余名、团员380余名、农民组合成员4千余名和青年会员2万名。<sup>33</sup>三、中共党组织人员虽少，但完全而严密地统一在一个完整的组织体系内；朝共党组织人员虽多，但分裂为火曜派、ML派、京上（汉城·上海）派等几个派别，没能形成一个统一而严密的组

<sup>24</sup> 《满洲的朝鲜农民问题》，1928年4月15日。《东北文件汇集》（甲2），1988年版，第17页。

<sup>25</sup> 《中共满洲省委给中央的报告》，1930年1月22日。《东北文件汇集》（甲4），1989年版，第124页。

<sup>26</sup> 《中共满洲省委通告第九号》，1930年2月5日。《东北文件汇集》（甲4），第147页。

<sup>27</sup> 1929年9月15日中共哈尔滨市委书记张洛书和火曜派满洲总局宣传部主任张时雨在阿城会谈，讨论组织联系和朝共党员加入中共党组织等问题。参照《东北文件汇集》（乙2），第65~72页。

<sup>28</sup> 《访问周保中同志谈话记录整理》，1959年12月28~29日。

<sup>29</sup> 《中共满洲省委组织状况一览表》，1928年11月9日。《东北文件汇集》（甲2），第394页。

<sup>30</sup> 《中共满洲省委廖如愿关于省委工作情况给中央的报告》，1927年7月。《东北文件汇集》（甲3），1988年版，第233页、第236页。

<sup>31</sup> 《中共满洲省委廖如愿关于省委工作情况给中央的报告》，1927年7月。《东北文件汇集》（甲3），第233页、第236页。

<sup>32</sup> 《间岛珲春地方朝鲜人结社团体概况》，楣村秀树、姜德相编，《现代史资料》（29），第535页。

<sup>33</sup> 《中共满洲省委转录哈尔滨市委的报告》，1929年9月24日。《东北文件汇集》（乙2），第68页。



织。

1930 年春天以来东北朝共党组织根据朝共党中央机构已被解体的实际情况和共产国际“一国一党”组织原则，主动解散各派组织，其大多数党员以个人身份加入中共党，成为满洲省委各级组织的成员。当年 7 月 1 日中共满洲省委和共青团满洲省委联合发表“公开信”指出，“共产主义运动即是国际的革命运动，凡是一个共产主义者必须参加其所在地的革命运动……中国共产党满洲省执行委员会站在国际党的立场上，站在整个革命的利益上，号召凡属在满洲的韩国共产主义者须彻底肃清派阀观念，加入中国党，参加中国革命……共产主义者应当是，而且必须是国际主义者，站在共产国际的组织原则上，在中国的韩国共产主义（者）应当加入其所在地的共产党——中国共产党。然而，要加入中国共产党，一定要赞成中国共产党的党纲，执行党的策略和决议，遵守党的章程，能在党的组织中从事工作，参加中国革命的实际行动”，<sup>34</sup>并且审查接收了大量的朝共党员为中共党员。这是朝鲜共产主义者“在中国进行韩国革命运动”、<sup>35</sup>“在满洲做朝鲜革命”和“在满洲实行韩国独立”<sup>36</sup>所具有的不可克服的客观局限性所带来的必然结果，是作为“国际革命运动”的共产主义运动本身的必然发展要求，又是中国革命的发展和中共党的正确路线所促成的必然选择。从当时东北朝鲜民族共产主义者所处的主、客观条件来讲，他们独立地开展和发展单一的朝鲜民族反日革命运动，应该说是根本不可能的。<sup>37</sup>这使得他们自然而然地肩负起直接参加中国革命的同时，必须完成朝鲜革命的双重历史使命。有一段时期，他们甚至自行提出过“在满朝鲜人共产主义者应撒手朝鲜运动”<sup>38</sup>的口号，且有着加入中共党后必须要“中共党化”<sup>39</sup>的前提条件，但这绝不意味着他们完全放弃了以中国革命“斗争支援朝鲜革命”<sup>40</sup>的基本方向与民族革命的目标。他们始终如一地坚持打倒日本帝国主义，争取中朝两国人民的独立解放的“双重革命使命”，并在实践活动中坚定不移地坚持了以中国革命的胜利促进朝鲜革命的战略方针与目标。

从此，东北的朝鲜共产主义者肩负“双重使命”即直接参加中国革命的同时准备或

---

<sup>34</sup> 《中共满洲省委、团满洲省委致在满韩国共产主义者的公开信》，1930 年 7 月 1 日。《东北文件汇集》（甲 5），1988 年版，第 58～60 页。

<sup>35</sup> 同上，第 58 页。

<sup>36</sup> 《中共满洲省委关于‘八一’反战运动节工作计划》，1933 年。《东北文件汇集》（甲 17），1989 年版，第 18～19 页。

<sup>37</sup> 参照金成镐《1930 年代民生团事件研究》，（韩国）白山资料院出版，1999 年版，第 423～436 页。

<sup>38</sup> 军政部顾问部，《满洲共产匪の研究》，第一辑，附录第 4 页。

<sup>39</sup> 《中共东满特委书记冯康的报告（之八）》，1935 年 12 月 20 日。《东北文件汇集》（甲 30），第 378 页。

<sup>40</sup> 军政部顾问部，《满洲共产匪の研究》，第一辑，附录第 4 页。

支援朝鲜革命。原中共东北党和军队的主要领导者周保中回忆说，中共满洲省委“逐步地按中国共产党的要求接受解散后的朝鲜共产党员，那时的党员干部人数在两千人左右，几乎多于中共东北原有的党员好几倍”。<sup>41</sup>他们“一方面在中国党领导下执行中国党的路线，担负着祖国解放战争的任务；另一方面他们又在中国抗日战争中以同盟方式参加中国革命，锻炼自己蓄积力量，为解放自己的祖国作准备，这是我们允许的，赞成的。这是合乎国际主义精神的，也合乎历史发展的实际情况”。<sup>42</sup>

东北党组织历来就主张“国际上联合苏联、朝鲜、蒙古各革命民族，以中国工农为主体反抗日本，推翻奉系军阀，扫除绅豪势力”，<sup>43</sup>“切实进行中国农民中的工作，使中国农民成为农民运动中的主力”。<sup>44</sup>但是，由于“左”倾路线的影响、中共党组织力量的微弱以及东北农村的具体情况，党在农村农民中的宣传组织工作没能得到充分的发展。

就东满情况而言，1930年夏天原朝共党各派组织成员“几乎全部加入”中共党东满特委组织。<sup>45</sup>1930年3月末中共东北党组织只有30个支部，206名党员。<sup>46</sup>当年10月，东北党组织内的朝鲜民族人数已占全体党员数的90%以上。<sup>47</sup>1931年3月末，全东北的中共党员共有1190名，而东满特委的636名党员中朝鲜民族占96.5%；南满特委的200名党员中朝鲜民族占98.5%。<sup>48</sup>这一时期，东北共青团组织也出现“韩国同志占全数百分之九十五，单就农村而言则占百分之九十八”<sup>49</sup>的局面。根据共青团满洲省委于1931年1月3日提出的1930年12月份“组织报告”则全东北的共青团员共约1千5百名，其中“在东满、南满的团员中，百分之九十以上为韩国青年贫农……中国团员在东满仅有十二人，南满二人，北满除哈（尔滨）市二十五人为中国团员外，各县团员几全数为韩国青年……统计起来全满团员中国人占不到十五分之一”。<sup>50</sup>

由此可见，正因为原朝共党、团员的大量加入，中共东北党、团组织得到了迅速的发展壮大。当时东北人口约3千万，其中朝鲜民族只有1百万左右，而东北党组织内出现的上述畸形的民族比例情况，正反映了东北朝鲜民族特殊的历史背景和社会基础，也说明了朝鲜民族较高的抗日革命热情和较为充分的思想、组织准备情况。周保中回忆说，

<sup>41</sup> 《访问周保中同志谈话记录整理》，1959年12月28～29日。第11页。

<sup>42</sup> 《访问周保中同志谈话记录整理》，1959年12月28～29日。第14页。

<sup>43</sup> 《中共满洲省临委给中央函》，1928年3月21日。《东北文件汇集》（甲1），1988年版，第393页。

<sup>44</sup> 《中共满洲省委通告第二十号》，1930年12月9日。《东北文件汇集》（甲6），1988年版，第253页。

<sup>45</sup> 《中共东满党团特委工作报告》，1933年10月25日。《东北文件汇集》（甲30），第17页。

<sup>46</sup> 《中共满洲省组织状况表》，1930年3月30日。《东北文件汇集》（甲4），第377页。

<sup>47</sup> 《江宇给中央的报告》，1931年5月31日。《东北文件汇集》（甲31），1990年版，第68页。

<sup>48</sup> 《中共满洲省委给中央的报告》，1931年4月24日。《东北文件汇集》（甲8），1988年版，第16～19页。

<sup>49</sup> 《团满洲省委工作报告》，1931年3月31日。《东北文件汇集》（乙1），1991年版，第99页。

<sup>50</sup> 《团满洲省委十二月份组织报告》，1931年1月3日。《东北文件汇集》（甲7），1988年版，第239～240页。

“在斗争中接受了大批的朝鲜同志。(19)30年时县委书记差不多通常是朝鲜同志，区委书记也如此……延边四个县和勃利、汤原、饶河、宝清、虎林、依兰等地的县委书记也都是朝鲜同志，县委委员大部分是朝鲜同志。这部分干部是党的财宝”<sup>51</sup>。1930年以来，东北党组织“农村中的工作有很大开展，主要是对朝鲜民族，以朝鲜民族为基础，扩展到中国农民中间”。<sup>52</sup>通过朝鲜民族农民宣传和组织各民族农民群众，为“九·一八事变”后的敌后抗日武装斗争准备了广泛的社会基础和基本力量。

中国共产党充分认识东北朝鲜民族的历史特点及其在抗日革命斗争的“双重使命”。中共满洲省委就根据中共中央的指示，一方面主张在东北地区的朝鲜民族有与中国境内各民族平等的权利，号召朝鲜民族推翻日满统治，在聚居地有权建立起民族区域自治；另一方面，始终把支援朝鲜反日民族革命看做党的一个重要工作。这两个原则，在中共东北党组织的历次决议、指示、告示等文件中都有充分体现。

1930年8月，朝鲜民族共产主义者大量加入中共党组织的时候，满洲省委作为“政治任务”之一来谈论朝鲜革命问题，明确指出“中国革命与韩国革命是分不开的。满洲革命的爆发首先便要掀起韩国革命，便要促进日(本)帝国主义更快的死亡。满洲紧接着韩境，在地理上完全是一个版图。在满韩国一百四十万的移民已参加中国革命运动，这更是掀起韩国革命的原动力。……满洲党拥护和援助韩国殖民地革命，便是直接拥护苏联、保障中国革命的胜利，这是目前满洲党主要任务之一”。<sup>53</sup>到了9月，满洲省委又指出“党必须在民族自决的原则下，极力援助韩、蒙革命”，并强调“特别是满洲韩国农民暴动普遍爆发，成为满洲革命势力中的一支有力军队，党应坚决地领导这些暴动，使这些影响发展深入到韩国内部去，以推动韩国革命的进展”。<sup>54</sup>10月，满洲省委给东满特委发函，指示“为开发建立朝鲜国内的工作，成立朝鲜国内工作委员会，直接由省委管辖(省委内的分工)，暂时委托东满特委指挥执行，建立布置朝鲜国内的一切工作”。<sup>55</sup>该时期，满洲省委确定“援助韩国革命”是一项重大的“国际任务”，<sup>56</sup>并努力付诸实践。

1931年2月，东满特委遵循省委指示，通过了“对于朝鲜国工作的决议”，确认“中

<sup>51</sup> 《访问周保中同志谈话记录整理》1959年12月28~29日。第11~12页。

<sup>52</sup> 廖如愿，《1930年前后满洲省委的情况》，《中国共产党东北地方组织的活动概述》，黑龙江人民出版社，1994年版，第211页。

<sup>53</sup> 《中共满洲省委给中央的报告》，1930年8月8日。《东北文件汇集》(甲5)，1988年版，第97页。

<sup>54</sup> 《中共满洲省委关于满洲政治形势与党的工作任务的报告》，1930年9月。《东北文件汇集》(甲5)，1988年版，第280页。

<sup>55</sup> 《中共东满特委给省委的信》，1931年2月23日。《东北文件汇集》(乙2)，第259页。

<sup>56</sup> 《满洲目前的政治形势与党的任务及工作路线》，1930年11月16日。《东北文件汇集》(甲6)，1988年版，第137页。

国党应担负起援助朝鲜革命的任务。中国党必须从满洲朝鲜群众剧烈的斗争中提出些积极勇敢、坚决没有派争观念的同志，派遣到朝鲜国内工作，领导群众斗争，建立朝鲜党，介绍到国际直接的指导下，是对朝鲜国内工作更实际、更具体的援助。在满与朝鲜关系更是非常的直接！东满（朝）鲜国群众约百万人，急剧的斗争更须实际的来担负起援助朝鲜革命的中心任务。东满党必须要把这一口号深入到一般的群众中”。<sup>57</sup>“同时中国党满洲的革命也必须得到朝鲜国内工作的配合，援助朝鲜革命同样是开展了满洲的工作”。<sup>58</sup>该“决议”的主要内容是，一、成立以中共东满特委书记为书记的“朝鲜国内工作委员会”；二、派遣部分同志赴朝，在咸兴、平壤和汉城等地开展群众工作，逐步建立党组织；三、“积极向朝鲜国内发展”，促使琿春、开山屯等边境地区的党组织在朝鲜国内开展工作；四、以东满特委和满洲省委的“朝鲜国工作委员会”名义，向朝鲜群众发布“援助朝鲜革命”的“宣言”；五、要求朝鲜国内革命组织的一名代表到中国东满，担任“联络员”；六、“朝鲜国内工作委员会”每月活动经费为 200 元等。<sup>59</sup>实际上诸如延吉县开山屯区委等边境地区党组织早已着手图们江南岸的朝鲜国内工作，业已组织了数十名群众。<sup>60</sup>东满特委组建“朝鲜国内工作委员会”后，又先后秘密派遣了约 20 人的朝鲜民族党员到朝鲜国内开展工作。<sup>61</sup>

同年 5 月，满洲省常委会通过“关于满洲韩国民族问题决议案”，指出“在满洲的韩国民族虽然离开了朝鲜，但是仍然受着日本帝国主义的直接统治。日本帝国主义是在满韩国民族最主要的敌人。……在满韩国工农群众应当与中国工农群众联合起来，一致反对共同的敌人日本帝国主义和中国国民党、军阀、豪绅地主、资产阶级！……援助韩国革命是中国党特别是满洲党最中心的实际任务之一，……特别要揭破日本帝国主义和中国统治阶级挑拨中韩民族的反动宣传，积极宣传中韩劳苦群众中韩革命联合的意义和必要！……只有在中国共产党的领导下而斗争，在满韩国民族才能得着真正的解放。……派韩国同志回国工作问题，是党的重要任务之一，东满过去曾经进行了这一工作，须继续进行。南满应即开始准备进行这一工作”，决定在业已组织省委的“少数民族委员会”和“韩文翻译科”的基础上，准备出版朝鲜文报纸，并且指示东满、南满和北满特委各

<sup>57</sup> 《中共满洲省委朝鲜工作委员会对于朝鲜国工作的决议》，1931 年 2 月 22 日。《东北文件汇集》（乙 2），第 254 页。

<sup>58</sup> 《中共东满特委给省委的信》，1931 年 2 月 23 日。《东北文件汇集》（乙 2），第 261 页。

<sup>59</sup> 《中共东满特委给省委的信》，1931 年 2 月 23 日。《东北文件汇集》（乙 2），第 261～262 页。

<sup>60</sup> 《中共开山屯区委给县委的信》，1931 年 1 月 14 日。《东满地区革命历史文献汇编》（以下简称《东满文献汇编》）（上册），2000 年版，第 588 页。

<sup>61</sup> 《廖如愿谈朝共党员加入中共问题》，1961 年 12 月 20 日。

自组织“少数民族委员会”或“韩国民族委员会”以及组织各级“中韩反帝同盟”。<sup>62</sup>6月，满洲省委机关刊物《进攻》第一期发表文章指出，“……在满韩国工农群众的唯一的出路，就是和中国工农劳苦群众亲密的巩固的联合起来，打倒帝国主义、国民党军阀、地主、豪绅、资产阶级，实行土地革命，建立苏维埃政权！只有这样才是唯一的出路，只有这样才能真正实现民族自决，才能解脱一切民族压迫，才能得到自由和权利！”。<sup>63</sup>9月21日，满洲省委通过的“关于朝鲜国内工作的决议”认为，中共党派遭到朝鲜的工作人员在那里新发展的组织成员成为将要组建的“韩国党的基础”，不能成为中共党员；将来经过共产国际的批准，正式成立朝鲜党时“所有在朝鲜发展的同志，以及过去派去的工作同志，都将他们转到朝鲜的党，而与中国党脱离组织关系”。<sup>64</sup>

这说明，1931年9月12日即“九一八事变”爆发前6天为止，中共东北党组织不仅理解和支持东北朝鲜民族共产主义者的“双重革命使命”，而且为了促进和发展朝鲜抗日民族解放斗争在组织上也作了直接的积极努力。

### 三、“九一八事变”之后中共党关于东北朝鲜民族反日革命斗争的方针政策

1931年“九一八事变”后，中国东北也沦落为日帝的殖民地。1932年东北义勇军的抗战失败以来，中共党直接领导下的山区农村武装斗争便成为东北抗日游击战争的主要形式和基本内容。

在中共党领导下东北朝鲜民族率先组织各种形式的游击队，积极主动而英勇顽强地开展抗日武装斗争，在东北各族人民中起到了先锋带头作用。这是因为，一是东北朝鲜民族早已饱受亡国奴的悲惨生活，深知日帝野蛮的侵略野心，对日帝抱有满腔的民族仇恨；二是，他们在思想上和组织上已有较好的历史基础。这是有批判性地继承和发展1894年10月以来的甲午农民军、反日义兵、朝鲜反日独立军斗争和朝共党活动而来的结果；三是，他们已经历了长时期的各种形式的反日斗争，在血和泪的经验教训中认清了只有拿起枪杆子才有民族解放的道路，唯有在中国共产党的统一领导下与东北各民族人民并肩战斗才能战胜凶恶的日本帝国主义的道理。四是，有义兵和独立军抗日武装斗争的宝贵的经验教训，也有一定的物质基础。如有独立军出身者和遗留下来的一些武器装备等。五是，初期游击队活动地方大都是原朝鲜独立军活动区域，具有较为坚实的群众基础以

<sup>62</sup> 《中共满洲省委关于满洲韩国民族问题决议案》，1931年5月26日。《东北文件汇集》（甲8），1988年版，第134～141页。

<sup>63</sup> 《白色恐怖的先锋韩民族主义者》，1931年6月27日。《东北文件汇集》（甲8），第396页。

<sup>64</sup> 《中共满洲省委对东满特委关于朝鲜国内工作的决议》，1931年9月12日。《东北文件汇集》（乙2），第291页。

及地形优势等。

1932年9月初，满洲省委为纪念“8·29 韩国亡国”22周年，发表“决议”指出，“满洲已经成了韩国的第二，满洲三千万被压迫的中国民族与一百七十万在满洲的韩国被压迫民族没有什么分别。中韩工农劳苦群众的共同敌人，统统是日本帝国主义与中韩地主资产阶级。中韩劳苦群众的利益是一致的，中韩劳苦群众的革命行动是不可分离的，因此中韩民族共同起来打倒日本帝国主义必须结成密切的联合战线”，指示“发动各地反日反帝同盟，动员中韩劳苦群众举行‘8·29’韩国亡国纪念，援助韩国革命”，“为了具体的实现帮助韩国革命运动，东满、南满的党，应该选派得力的党员与团员以及忠实积极的贫农、雇农份子回韩国进行群众的工作”。<sup>65</sup>

1933年1月，满洲省委指示东满特委，“帮助韩国发展党的组织与建立群众工作，东满党仍须尽可能的派一部分干部（注意决不能派继续派争的分子去），执行这一任务。东满党要把开辟与发展韩国工作，看做东满党中心任务之一。同时这一工作与东满的工作的发展与配合是息息相关联的”。<sup>66</sup>满洲省委将东北的抗日革命和朝鲜革命密切联系起来，指示“要向中国与朝鲜群众解释中国革命与朝鲜革命的关系”，强调“满洲韩国群众参加中国革命，一方面是保护中国，一方面也是为恢复朝鲜国土而斗争”。<sup>67</sup>同年6月东满特委发表“告民众书”指出，“中国共产党认为，中韩民众必须联合起来，以反对共同敌人日本强盗。……坚决主张：在满洲的韩国少数民族有和中国民族完全平等的权利，主张少数民族有完全自决权。……中国共产党号召在满洲的韩国民众：你们应该坚决和中国民众联合起来，参加中国革命运动。中国革命的每一个胜利都是朝鲜革命的推动力量，中国共产党领导你们，鼓励并帮助你们为恢复朝鲜国土而斗争。……中国民族独立与领土完整万岁！朝鲜民众为恢复国土的革命运动万岁！中韩民众联合战线万岁！”。<sup>68</sup>同年12月，中共满洲省委和团省委联合发表“告韩国民众书”指出，“日本强盗用灭亡韩国的方法，强占了满洲，使东北三千万民众也同你们一样的悲（惨）命运，做了日本强盗的奴隶。东北三千万民众同你们一样深感亡国之痛！你们同东北三千万民众处在同样的奴隶地位，日本帝国主义是东北三千万民众与你们共同敌人，你们应当与东北三千万民众亲密的联合起来，打倒共同敌人（日本帝国主义），才能获得民族的解放。在

<sup>65</sup> 《中共满洲省委关于‘八·二九’韩国亡国纪念决议》，1932年9月4日。《东北文件汇集》（甲11），1988年版，第71～74页。

<sup>66</sup> 《中共满洲省委关于当前的任务给东满特委的指示信》，1933年1月1日。《东北文件汇集》（甲12），1988年版，第28页。

<sup>67</sup> 《中共满洲省委关于‘八一’反战运动节工作计划》，1933年。《东北文件汇集》（甲17），1989年版，第18～19页。

<sup>68</sup> 《中共东满特委告民众书》，1933.6.10日。《东北文件汇集》（甲29），1989年版，第290～293页。

满洲，同样在东满，韩国民众的命运与中国民众的命运密切的联系着，中国民众获得民族的解放，同样韩国民众也能获得解放；中国民众没有得到民族解放，韩国民众绝对不可能单独先得到解放。因为中韩民众的民族共同敌人是日本帝国主义，不把日本帝国主义逐出满洲，全满洲的中韩民众就无由获得民族的解放。因此，中韩民众应当亲密的结成弟兄同盟，与共同敌人日本强盗斗争到底”，<sup>69</sup>号召东北朝鲜民族同中国民众结成反日联合战线，为中朝两国的民族解放努力奋斗。

中国共产党的正确领导下，东北朝鲜民族更加积极地投入到抗日革命斗争，发挥了重大的作用。1933年，朝鲜民族党员在东北党的主要活动地域的组织人员比例是：北满的阿城特别支部内占100%，珠河县委内占90%，宾县特别支部、汤原中心县委和饶河中心县委内均占99%，绥宁中心县委内也占多数；而作为南满中心活动地域的磐石中心县委内占99%；<sup>70</sup>东满则“我党组织最强，在全满洲占第一位……党员有一千二百人，团员有一千一百人。有广大的群众组织。但是，党的组织也好，群众的组织也好，95%是韩国同志”。<sup>71</sup>这一时期，全东北的中共党员共有2千1百余名，其中朝鲜民族占80%以上。<sup>72</sup>1934年5月，东满特委的中共党员和共青团员共计2,300多人，其中汉族、满族等其他民族成员为80多人，仅占3.5%，其余全部是朝鲜民族。<sup>73</sup>1935年2月，东满第二军独立师内朝鲜民族约占90%。<sup>74</sup>据当年12月东满特委书记魏拯民的报告，东满中共党员（东北人民革命军除外）的95%以上和游击区人民的95%以上均为朝鲜民族。<sup>75</sup>

由于在东满开展的抗日革命运动以朝鲜民族为主，所以当时甚至有人将中共东满特委组织和革命活动称为“高丽共产党”<sup>76</sup>、“高丽人叛乱”<sup>77</sup>等，在抗日游击区内组织的苏维埃革命政府一时被误解为“韩人苏维埃”、“韩国苏维埃”。<sup>78</sup>1932年以来，东满各县开始组织抗日游击队的时候，也正式使用过“中韩游击队”<sup>79</sup>、“赤色中韩游击队”、“中

<sup>69</sup> 《中共满洲省委、团省委关于反对日本强盗奸细民生团及派争告韩国民众书》，1933年12月7日。《东北文件汇集》（甲16），1989年版，第133~134页。

<sup>70</sup> 《xx同志关于满洲民族革命战争，工农、士兵斗争形势以及我们的工作、组织状况的报告》，1933年1月17日。《东北文件汇集》（甲12），1988年版，第295页。

<sup>71</sup> 《满洲事变与满洲的中国共产党》，1933年10月。《东北文件汇集》（甲17），1989年版，第275页。

<sup>72</sup> 《xx同志关于满洲民族革命战争，工农、士兵斗争形势以及我们的工作、组织状况的报告》，1933年1月17日。《东北文件汇集》（甲12），1988年版，第295~296页。

<sup>73</sup> 华西里，《满洲工人阶级的情形与革命职工运动的任务》，1934年5月。《东北文件汇集》（甲20），1990年版，第177页。

<sup>74</sup> 《中共东满党团特委第一次联席扩大会议的报告》，1935年2月。《东北文件汇集》（甲30），第215页。

<sup>75</sup> 《中共东满特委书记冯康的报告（之八）》，1935年12月20日。《东北文件汇集》（甲30），第368, 375页。

<sup>76</sup> 《团满洲省委特派员（钟）巡视东满工作的报告》，1934年。《东满文献汇编》（下册），第1188页。

<sup>77</sup> 《中共汪清县委启事》，1933年8月10日。《东北文件汇集》（甲35），1989年版，第359页。

<sup>78</sup> 《中国共产党代表在大小汪清群众会上的报告》，1933年8月14日。《东满文件汇编》（上册），第549页。

<sup>79</sup> 《延吉、汪清、珲春、和龙中韩游击队与汪清反日别动队告反日士兵书》，1933年3月。《东北文件汇集》

韩赤色游击队”<sup>80</sup>和“中韩工农游击队”<sup>81</sup>等组织名称。

在极其艰难、复杂和尖锐的抗日游击战争环境中，中共党在关于朝鲜民族抗日斗争问题，也曾犯过一些“左”倾错误。1932年10月至1936年2月的三年四个月期间，中共东满特委在党、团组织和抗日游击区内部以朝鲜民族同志对象所进行的反“民生团”斗争，<sup>82</sup>忽视、否认和歪曲朝鲜民族抗日斗争历史的特点，错误地把朝鲜民族主义者、朝鲜共产党“派争分子”和朝鲜民族亲日派组织“民生团”三者完全等同视之，怀疑排斥和逮捕审查数千人，其中错杀五百余名革命干部和群众骨干（原吉林省第一任省长周保中同志曾说有两千余名朝鲜民族干部和群众被错杀）。<sup>83</sup>这一错误的反“民生团”斗争，无情打击东满朝鲜民族抗日革命热情，严重破坏中朝人民抗日联合战线，几乎断送了东满抗日革命运动。

笔者认为，这一“民生团事件”发生的主要的客观原因可概括为：第一、东满社会历史特点，包括地理环境和地域人口的民族构成等；第二、朝鲜反日民族解放斗争的特殊性和东满抗日革命武装斗争的艰难残酷、尖锐复杂的特殊性；第三、日帝的阴险毒辣的民族离间政策和朝鲜民族亲日派的恶劣作用等。其主观原因可概括为：第一、中共党的当时“左”倾路线影响和东满特委部分领导干部的认识错误和政策水平问题；第二、抗日革命队伍内部中朝民族关系上不可避免地存在的一些误解、偏见和内部矛盾问题；第三、东满朝鲜民族所具有的客观局限性和内在脆弱性等特点问题。<sup>84</sup>

1935年2月，满洲省委吉东巡视员吴平（杨松）在致东满特委的信中明确指出，“在东三省间岛的韩国人，云南省、贵州省的苗人、瑶人，东三省某些区域内满人，有全权成立自己的民族自治区，加入将来的大中华苏维埃共和国。因为，在这些区域内，这些民族占大多数，有自己语言、文字、经济、风俗、习惯等特点；但是，同时人口少，不够成立共和国。而我们所以主张间岛成立脱离日满统治的民族自治区，归入将来的东三省人民革命政府管理，而不归朝鲜，因为间岛是中国的领土，……我们应把‘韩国民族独立’作为中心口号之一。……中国领导同志为着彻底明了韩国群众情形和便于领导起

---

（甲44），1990年版，第1～5页。

<sup>80</sup> 《珲春县中韩工农游击第二大队告反日士兵书》，1933年5月3日。《东北文件汇集》（甲44），第7～10页。

<sup>81</sup> 《别动队和汪清、延吉、珲春、和龙中韩工农游击队为走狗同山好进攻别动队事件告中韩民众书》，1933年5月31日。《东北文件汇集》（甲44），第11～12页。

<sup>82</sup> 参照金成镐著，《1930年代延边民生团事件研究》，（韩国）白山资料院出版，1999年；《东满抗日革命斗争特殊性研究——以1930年代“民生团事件”为中心》，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2006年。

<sup>83</sup> 《访问周保中同志记录》，1960年5月30日。李长浦、陈铁健访问，陈铁健整理。

<sup>84</sup> 金成镐，《东满抗日革命斗争特殊性研究》，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2006年版，第257～359页。



见，应学韩国语。”<sup>85</sup>同年12月中共东满特委书记魏拯民在报告书上就明确指出，“每个中国同志学习高丽语，研究高丽民族的语言、风俗、人情、习惯等民族特性”，要“提出正确（的）高丽民族的政治口号”。<sup>86</sup>这是深刻总结和接受反“民生团”斗争的经验教训而提出来的实事求是的科学认识和正确主张。

同年3月，东满党团特委在“反‘民生团’斗争的决议”当中就决定“派部分武装过境开始游击运动，真正的来帮助高丽人独立”。<sup>87</sup>在同月举行的第二军独立师“政委联席会议”上也决定进军朝鲜国内“造成中韩游击区”。<sup>88</sup>在朝鲜和中国东北都沦为日帝殖民地的现实形势下，作为中朝两国人民联合抗日武装队伍的第二军，试图在中朝边境一带创立“中韩游击区”应该是顺理成章的。

1936年初，中共东北党组织根据共产国际第七次代表大会通过的建立世界反法西斯人民战线的精神和中共驻共产国际代表团的指示，决定进一步巩固和扩大抗日民族统一战线，将东北地区的抗日武装统一改编为东北抗日联军。同时，关于东北朝鲜民族的抗日斗争提出了新的方针政策：“对于东北韩国民族问题，吾党中央主张：a、中韩民族联合共同抗日，争取中韩民族独立；而对于东满间岛，吾党中央主张‘中韩民族联合起来，推翻日满统治，建立间岛韩人民族自治区’。B、将目前东满人民革命军改为中韩抗日联军，并在东满成立单独的韩国民族革命军，到韩国内部去游击，争取韩国民族独立。C、在韩人内联合一切不愿当日本亡国奴的人，建立韩人内部反日联合战线。为除吸收忠实的韩国工农加入中国共产党外，还组织韩国民族革命党，其目的在推翻日本在韩国的统治，恢复韩国之独立，保护韩国祖国”。<sup>89</sup>

这是中共党在领导东北朝鲜民族进行长期的抗日革命斗争过程中，进一步深刻认识到东北朝鲜民族及其抗日革命斗争的特殊性，并在经历了如反“民生团”斗争这样的经验教训后，在更为充分和肯定地理解朝鲜民族共产主义者的“双重革命使命”的特殊性的基础上所采取的新的实事求是的正确方针。如果说，中共党在此前尚对朝鲜民族共产主义者单纯地、一刀切地要求“中共党化”<sup>90</sup>，只把朝鲜民族看成是国内各民族的抗日统一战线对象的倾向，或单纯从国际主义义务和战略战术角度上考虑支援朝鲜革命的话，

<sup>85</sup> 《中共满洲省委吉东巡视员（吴）致东满特委的信》，1935年2月10日。《东北文件汇集》（甲21），1988年版，第55～56页。

<sup>86</sup> 《中共东满特委书记冯康的报告（之六）》，1935年12月20日。《东北文件汇集》（甲30），第340页。

<sup>87</sup> 《中共东满党团特委关于反‘民生团’斗争的决议》，1935年3月1日。《东北文件汇集》（甲30），第229页。

<sup>88</sup> 《东北人民革命军政委联席会议》，1935年3月21日。《东北文件汇集》（甲44），第432页。

<sup>89</sup> 《中共吉东省委致饶河中心县委及四军四团的信》，1936年3月12日。《东北文件汇集》（甲28），1989年版，第10页。

<sup>90</sup> 《中共东满特委书记冯康的报告（之八）》，1933年12月20日。《东北文件汇集》（甲30），第378页。

那么，现今则是在世界反法西斯人民战线的更高层面上对他们有了重新认识，开始正确认识到东北朝鲜民族共产主义者不仅是中共党统一领导下的东北抗日革命的一支主力军，又是朝鲜革命的一个主体。而朝鲜民族共产主义者则在倾注了更高的抗日热情和付出了更多的牺牲之后，终于恢复了自己的正当地位，开始正正当地开展了“以朝鲜独立为目标的活动”。<sup>91</sup>

但是，以金日成将军为首的朝鲜民族共产主义者却从中朝两国人民联合抗日斗争和朝鲜革命的现实条件出发，在策略和形式上并没有另行组织独立的民族部队和民族政党。虽然中共党正式提出过单独组织“民族革命党”和“民族革命军”的问题，但他们周密地考虑到中国东北是他们主要的武装斗争地区，又切实需要同占地区人口绝大多数的汉族、满族等其他兄弟民族紧密的团结，从必须进一步巩固和发展中朝两国人民的抗日联合战线的战略高度出发，决定在形式上继续采用原来的统一的民族联合部队进行活动，并决定在汉族地区将之称为东北人民革命军，而在东北的朝鲜民族聚居地和进军朝鲜国内进行活动时则称为“朝鲜人民革命军”。<sup>92</sup>这无疑是最为明智的选择。

这样，自1936年3月起，在抗日联军这一统一组织体系内的朝鲜民族部队和成员，得以在东北朝鲜民族聚居地和朝鲜国内正式使用“朝鲜人民革命军”这一组织名称。当年5月，东北抗联第二军新编第三师“金日成部队”在长白山地区又正式成立了东北朝鲜民族的抗日统一战线组织“在满朝鲜人祖国光复会”，开始出版其机关刊物《三·一月刊》。<sup>93</sup>不仅如此，“祖国光复会”积极向朝鲜国内发展，开始在朝鲜咸镜南道甲山郡等地，组织“朝鲜民族解放同盟”等朝鲜国内反日统一战线组织，<sup>94</sup>并且打响了进军朝鲜国内的普天堡战斗（1937年6月4日）等。东北人民革命军第二军和1936年夏之后改编的抗联第一路军第二军，主要转战于朝鲜民族大量聚居的东满地区和鸭绿江北岸的东边道地区以及朝鲜北部的边境地区，在那里坚持抗日武装斗争。从这个意义上考虑，第二军从狭义上讲是东北各兄弟民族的联合抗日革命队伍，而在广义上则可看作是中朝两国人民的抗日联合队伍。1963年毛泽东主席和周恩来总理也曾明确指出，“应该认定东北抗联实际上是中朝两国人民的联合军”。<sup>95</sup>

---

<sup>91</sup> 军政部顾问部，《满洲共产匪の研究》，第一辑，第126页。

<sup>92</sup> 《金日成回忆录，与世纪同行》（4），朝鲜劳动党出版社1993年版，第249页。

<sup>93</sup> 同上书，第441～470页。

<sup>94</sup> 参阅辛珠柏著，《满洲地域韩人的民族运动史（1920～45）》，（韩国）亚西亚文化社出版，1999年版，第454～461页。

<sup>95</sup> 中共吉林省委党史研究室、吉林省东北抗日联军研究基金会编，《韩光党史工作文集》，中央文献出版社，1997年版，第65页。

1940年开始战略转移到苏联远东地区的抗联部队，于1942年8月统一改编为苏联远东红旗军特别第八十八旅（又称国际旅，回东北又称抗联教导旅）。<sup>96</sup>及至1945年7月面临日帝的败亡，中共东北党委员会（1942年8月成立，书记为崔庸健）<sup>97</sup>决定，将派大部分朝鲜同志返回到朝鲜工作，并成立了以金日成、崔庸健、金策为核心的“朝鲜工作团”，<sup>98</sup>使朝鲜民族共产主义者以自己民族独立的组织力量准备迎接朝鲜解放。当时朝鲜还没有独立建党的情况下，朝鲜工作团就是朝鲜革命的领导核心力量。<sup>99</sup>可以说，朝鲜工作团的成立，是继承1930年的“朝鲜国内工作委员会”和1936年5月“在满朝鲜人祖国光复会”的必然的历史结果，是东北朝鲜民族共产主义者特定时代“双重使命”的必然归属。

根据国家正式统计资料，在延边地区牺牲的抗日革命烈士共3,125名，其中朝鲜族是3,026名，占96.8%。<sup>100</sup>由此可见，东北朝鲜民族尤其是延边朝鲜民族人民为抗日革命斗争作出突出贡献并付出了极大的牺牲。在20世纪30年代后期和40年代初期朝鲜民族著名共产主义者金日成（东北抗联第一路军第二军第六师师长、第二方面军指挥）、崔庸健（抗联第七军党委书记、代理军长、第二路军总指挥部参谋长、中共东北党委员会书记）、金策（抗联第三军政治部主任、中共北满省委书记）、许亨植（抗联第三路军总参谋长，第七军军长）、李学福（抗联第二路军第七军军长）、李红光（第一军第一师师长兼政委）、李东光（南满反日总会会长、中共南满特委书记、南满省委组织部长）等担任东北党组织和军队主要领导职务，是中共党制定和执行正确的朝鲜民族政策的具体体现，是与朝鲜民族共产主义者在东北抗日游击战争中的特殊地位和突出的先锋模范作用是分不开的。

历史实践证明，中共东北党组织在制定和执行关于朝鲜民族抗日革命的方针政策上尽管存在一些这样那样的不足、缺点甚至犯过东满党组织内部反“民生团”斗争等严重错误，但在执行党的马克思列宁主义的民族政策和无产阶级国际主义原则方面，应该说基本上是正确的。中共党在长期的斗争、认识、再斗争、再认识的过程中，进一步全面了解和深刻认识东北朝鲜民族，并在不断地总结经验教训，逐渐制定和完善了符合东北

<sup>96</sup> 《征途岁月——陈雷回忆录》，黑龙江人民出版社，1991年版，第249页。

<sup>97</sup> 《访问周保中同志谈话记录整理》，1959年12月28~29日。

<sup>98</sup> 此时，中共东北党委员会也进行改组，书记为周保中。参照《访问周保中同志谈话记录整理》，1959年12月28日~29日。

<sup>99</sup> 金成镐，《论东北抗联教导旅朝鲜民族群体及其历史地位》，《延边大学学报》，2019年第1期，第43~51页。

<sup>100</sup> 崔圣春主编，《延边人民抗日斗争史》，延边人民出版社，1997年版，参照附录《延边抗日烈士情况表（1）》。

朝鲜民族的历史特点及其抗日革命特殊性的一系列英明、正确的方针政策，如重用朝鲜民族干部、支援朝鲜革命和提出建立东满朝鲜民族“自治区”等。在中共党的统一领导下，朝鲜民族共产主义者肩负着“双重革命使命”，与各族人民紧密团结在一起，在东北抗日革命斗争中起到了重大的作用，作出了突出的贡献。在这一过程中逐步形成了以金日成、崔庸健、金策等为首的朝鲜共产主义运动的坚强的领导核心队伍，也培育了中国朝鲜族社会的首批革命干部群体。

这一历史过程，无疑是中共东北党组织制定和执行正确的民族政策的斗争历史记录，是东北各民族实现大团结、共同争取抗日革命胜利的历史凯歌，又是中朝两国共产主义者共同抗日，并肩战斗在东方反法西斯战场，用献血奠定现代中朝两国革命友谊的光辉历史篇章。

**（7月16日，全文19400余字，本文14800余字，注释100个）**

## 특대형의 성노예범죄를 덮어버리려는 현 일본정부의 파렴치한 책동에 대하여

송현원  
(조선사회과학원)

과거 일제는 수십만의 조선여성들에게 세계전쟁사상 그 류례를 찾아 볼수 없는 비참한 성노예생활을 강요함으로써 가장 야만적이고 잔인무도한 제국주의로서의 정체를 다시금 만천하에 보여주었다.

일본군성노예문제는 과거 일본이 조선여성들에게 저지른 몸서리치는 반인륜적죄악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당사자들을 법적으로 엄하게 처벌하며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철저히 사죄하고 배상하는 문제로서 일본당국은 극악한 전쟁범죄, 특대형의 여성인권유린범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니고있다.

하지만 일본은 국제사회앞에 지닌 책임과 의무를 실제상 회피하면서 범죄의 진상을 흑막속에 묻어두려고 집요하게 시도하여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죄많은 과거를 덮어두고서는 관계개선이란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반동적지배층은 저들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도리어 미화분식하고 정당화하며 그것을 영영 묻어버리려고 분별없이 책동하고있습니다.》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 21 권, 23 페이지)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엄연한 역사적사실마저 부정해나서는 일본지배층의 행위는 전범자혈통의 아베정권에 의하여 절정을 이루고있다. 특대형의 성노예범죄를 덮어버리려는 현 일본정부의 파렴치한 책동은 무엇보다도 일본군성노예범죄를 개별적인 《업자들의 소행》으로 오도하고 그 피해자들을 《위안부》, 《매춘부》로 모독하면서 범죄의 사실을 마구 외곡하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2015년 3월 일본수상 아베는 미국신문기자와의 회견과정에 일본군성노예피

해자들을 《인신매매의 피해자》라고 발언하였으며 이해 7월 28일에는 일본자민당이 정부에 《전시중에 위안소가 설치되고 여성들을 민간업자가 모집하여 일을 시킨것은 사실》이라는 내용이 담긴 제언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긍정의사를 표시하였다. (미국신문 《워싱턴포스트》 전자판 2015년 3월 27일, 《로동신문》 2015년 8월 10일)

이것은 타국여성들의 정조와 육체를 무참히 짓밟은 반인륜적죄악의 책임을 개별적인 업자들에게 밀어붙여 그에 대한 국가적, 법적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서 현 일본정부에 있어서 성노예범죄에 대한 사죄의사가 전혀 없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2016년 10월초 일본시민단체가 수상명의로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에게 사죄편지를 보낼것을 요구한데 대하여 외상 기시다와 수상 아베는 거절해나섰다.

한편 일본지배층은 성노예범죄의 피해자들을 모독하는 발언들을 마구뱌치면서 력사의 진실을 감히 외곡하려 들고있다.

2014년 1월 일본의 NHK 방송협회 회장이란 자는 어느 한 기자회견장소에서 위안부는 어느 나라에나 있었다, 도이쉴란드나 프랑스 등에서도 있었으므로 일본만 비난받아서 안된다고 망발하였다.

2016년 1월 14일 자민당출신의 중의원 의원 사쿠라다 요시다까는 당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일본군성노예들에 대해 직업적인 매춘부였다고 하면서 그 무슨 《선전공작》에 현혹당해서는 안된다고 떠벌였는가 하면 2017년 6월에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주재 일본총령사 시노즈카 다카시가 《리포터 뉴스페이퍼》와의 인터뷰에서 일본군이 조선녀성을 포함해 여성들을 성노예로 삼았다는 증거는 없다고 하면서 그들은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이 아니라 매춘부라고 망언을 늘어놓았다.

성노예범죄의 피해자들을 모독하는 일본보수정객들의 망발들은 피해자여성들을 돈에 팔리워 매춘에 종사한 여성, 전쟁터에서 음주접대나 가무 등으로 장병들을 위로한 위안부들과 동일시하여 범죄진상을 오도하고 저들이 저지른 엄청난 죄

악을 정당화해보려는 비열하고도 어리석은짓이다.

일본군성노예범죄의 목격자인 전 일본군 군의 유아사 겐은 1997 년 4 월 《일본의 전쟁책임자료센터》가 주최한 모임에서 《고릉스러워도 도망칠수가 없었다. 그렇기때문에 성의 노예였던것이다. 그러한것을 한것이 타민족을 지배한 우리 (일본인) 들이었다.》라고 증언하였다.

2017 년 2 월에도 일본에서는 구일본해군의 인도네시아특별경찰대가 《200 명 정도의 부녀를... 군부의 명령에 따라 발리섬에 데리고 들어갔다》, 《다수의 부녀가 란폭한 수단으로 위협과 강요를 당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바따비아재판 <제 25 호사건>》 문건이 다시금 공개되었다. (《로동신문》 2017 년 4 월 25 일)

현 일본정부가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을 위안부로 둔갑시키며 말장난으로 세상사람들을 우롱하려 들고있지만 특대형·여성인권유린범죄의 책임에서 벗어나보려는 파렴치한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성노예범죄를 덮어버리려는 현 일본정부의 파렴치한 책동은 다음으로반인륜적죄악에 대한 국가적배상을 한사코 거부하고 피해자녀성들에게 몇푼의 돈을 주는것으로써 범죄사실을 은폐하려는데서 나타나고있다.

지난날 조선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여성들을 침략전쟁터에 대량 끌어가 그들의 존엄과 인권, 청춘과 정조를 여지없이 유린한 일본의 경우성노예범죄에 대한 국가적배상은 너무나도 당연한 의무이다. 더우기 성노예생존자녀성들속에서 사망자가 날로 늘어나고있는 조건에서 일본의 국가적배상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절박한 문제이다.

때문에 국제대사령은 2010 년 8 월 13 일 성노예피해자들에게 조속히 배상할 것을 일본정부에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2015 년 2 월 25 일에는 세계의 인권상황에 관한 보고서에서 성노예범죄에 대한 배상을 계속 거부하는 일본을 단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성노예범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부인하려는 관점과 태도로부터 출발하여 저들이 지닌 의무까지도 거부해나서고있다.

일본은 1995 년에 이미 《여성들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이라는 것을

내오고 일본국민들로부터 끌어모은 기부금을 성노예생존자들에게 《자선금》, 《위문금》을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국가적배상의 책임에서 벗어나려다가 규탄과 배격을 받은 전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1월초 일본내각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성노예 문제를 재산청구권문제에 밀어붙이면서 그 문제는 이미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떠벌였으며 다음해 12월에는 일본정부가 성노예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에 적절한 배상 등 포괄적인 해결을 요구한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샌프랜시스코평화조약 등에 의해 이미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교도통신》 2015년 1월 9일, 《도쿄신보》 2017년 10월 31일)

그에 대하여 미국의 한 신문은 《국제법에는 임의의 국가가 일본이 <위안부> 사건에서 감행한 것과 같은 엄중한 인권유린 및 인도주의법위반행위들을 감행한 경우 그 정부가 그러한 행위를 조사하고 책임있는자들을 기소하여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보상하고 그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일본은 샌프랜시스코강화조약에서 배상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해석은 법률적으로 볼 때 옳지 않다.》는 글을 게재하였다. (《로동신문》 2017년 11월 13일)

일본지배층은 어떻게하나 과거의 성노예범죄에 대한 국가적배상의 의무에서 벗어나고 그를 무마시켜보려고 피하면서 갖은 오그랑수를 다쓰고 있다.

일본지배층은 2015년 12월 일본군성노예문제와 관련한 그 무슨 《합의》를 조작해냈으며 다음해 7월 28일에는 《화해, 치유재단》이라는것을 만들어 10억 쉼의 돈으로 성노예생존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범죄사실을 영원히 덮어버리려고 또다시 기도하였다.

범죄적인 《합의》를 통하여 일본당국은 성노예문제의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하고 과거의 성노예범죄에 대한 정부의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의 책임을 회피하려 들었다.

일본수상 아베는 일본군성노예문제와 관련한 《합의》 후 성노예 《합의》는 《전쟁범죄를 인정한것이 아니》라고 공공연히 떠벌였다. (《로동신문》 2016년 1



월 29 일)

2017 년 11 월 14 일 일본의 인권상황을 심사하는 유엔인권리사회 실무그룹회의에서도 일본측은 이전 성노예들에게 성의있는 사죄와 배상을할데 대한 권고를 거부해버렸다.

성노예범죄에 대한 공식사과와 국가적배상의 의무, 법적 및 도덕적책임을 회피한 일본의 파렴치한 태도는 성노예생존자들과 국제사회계의 규탄과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2016 년 3 월 7 일 유엔여성차별제거위원회는 일본군성노예문제와 관련한 《합의》가 《피해자들의 입장에 선 대응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2017 년 5 월에는 유엔고문반대위원회가 《합의》내용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과 재발방지약속 등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평가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합의》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고 요구해나섰다. ( 《로동신문》 2016 년 3 월 11 일, 2017 년 5 월 16 일)

국제적항의와 비난이 비발치는 가운데 2018 년 12 월 성노예범죄를 무마시키려고 조작되었던 《화해, 치유재단》이 끝내 해산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일본의 집권자와 외상, 내각관방장관 등 고위인물들은 《국가간 합의》이니, 《받아들일수 없다.》고 양탈을 부렸으며 자민당패거리들도 해산결정을 반대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대응조치를 요구하는 《결의안》까지 채택하였다. ( 《로동신문》 2018 년 12 월 4 일)

이로써 일본지배층에게 성노예범죄에 대한 반성과 배상의 의지가 조금도 없으며 범죄의 사실을 회유기만과 오그랑수로 덮어버리려는 일본의 파렴치한 태도가 또다시 드러나게 되었다.

특대형의 성노예범죄를 력사의 흑막속에 덮어버리려는 일본정부의 파렴치한 책동은 다음으로 날로 확대되는 일본군성노예문제의 해결을 위한 세계적흐름에 역행하면서 범죄사실을 부정해나서는데서 표현되고있다.

일본군성노예범죄는 사상 류례없는 특대형의 여성인권유린범죄로서 절대로

묵인할수 없고 되풀이되게 하여서는 안될 중대범죄이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속에 국제기구들과 피해국들, 세계 여러 나라들은 물론 일본국내에서도 일본군성노예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적극 벌어지고있다.

하지만 정치대국의 꿈을 이루며 군국주의해외팽창의 기반을 마련하려고 광분하고있는 일본지배층은 성노예범죄사실이 대내외적으로 확산되는것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하나 그를 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2013 년에 일본수상의 외교정책고문은 성노예문제를 국제문제로 만들면 패전국인 일본은 고립된다는니, 국내의 교육현장에서는 성노예문제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말해야 한다는니 하고 하였으며 아베자신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성노예문제는 《조용한 마당에서 력사가나 전문가들이 논의해야 한다》 느니, 《이 문제를 정치문제, 외교문제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느니 하였다.

2015 년 7 월 28 일에는 일본자민당이 성노예문제에 관한 외국의 보도나 출판물에 대해 술선 웹브사이트나 신문에 투고하여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며 《성노예》 라는 표현을 담고있는 비나 조각상을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있는 각국의 지역에 영향을 줄것을 요구하는 제언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수상 아베가 수긍해나섰다. (《로동신문》 2015 년 8 월 10 일)

이것은 일본정부가 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움직임의 국제화를 막고 범죄의 사실을 은폐하는것을 국가정책으로 내세우고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일본지배층은 일본국내에서 성노예범죄문제에 대한 외곡선전에 열을 올리었다.

2013 년 11 월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교과서개혁계획》 을 내놓고 중,소학교 교과서검정기준을 수정하면서 일본의 침략력사, 일본군의 전쟁중의 폭행, 성노예 문제 등을 폭로한 지면을 약화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2014 년 12 월에도 문부과학성은 일본고등학교의 공민교과서를 발행하는 스겐출판사의 정정신청에 허가를 내려 현대사회교과서와 정치경제교과서들에서 《중군위안부》 와 《강제련형》 문구를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교과서의 《전시중의 일

본의 강제련행과 종군위안부에 대한 보상 등 개인에 대한 여러가지 전후보상문제도 논의되고있다.》는 서술이 《전시중에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개인이 사죄를 요구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재판을 제기하고있다.》로 외곡되게 되었다.

(〈교도통신〉 2015년 1월 9일, 《로동신문》 2015년 1월 17일)

2016년에는 일본군성노예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되었다.》는 내용이 삽입되고 대신에 《성노예동원에 군이 관여했다.》는 이전의 문구는 삭제된 역사교과서들이 검정에서 통과되었다. (《로동신문》 2017년 1월 18일)

치욕스러운 성노예범죄를 감추어버리고 자국민들에게 그릇된 역사인식을 심어줄 목적길에 교과서와 출판물들에 외곡된 내용의 글과 기사들을 담도록 강요하는 일본지배층의 행위는 후안무치와 파렴치성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하기에 2015년 어느 한 나라의 역사협회는 일본군성노예는 성노예시스템의 본질을 보여주고있다고 하면서 일본정부가 출판사나 역사학자들에게 연구결과를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는데 대하여 항의를 표시하였으며 2017년 5월 유엔인권리사회는 성노예범죄를 외곡서술한 역사교과서를 국가검정에서 빼것이 통과시킨 일본정부를 비난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일본지배층은 국내에서 성노예범죄를 거부하고 외곡선전하는것도 모자라 성노예범죄와 관련한 국제적여론의 확대를 막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그것을 무마해버리려고 획책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벌어지는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을 가로막아나섰다.

2015년에 아베정부는 성노예문제에 관한 유엔보고서에서 일본정부가응당한 책임을 지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할데 대한 내용을 취소할것을 공공연하게 요구하였으며 2016년 2월 스위스 제비바에서 열린 유엔녀성차별제거위원회에 《일본군위안부강제련행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빼것이 제출하였다.

다음해 5월 상순에도 일본정부는 성노예문제와 관련한 유엔고문반대위원회의 보고서에 반발하면서 《반론문서》를 제출하고 성노예예라는 표현이 《사실과 어긋나며 부적절》 하다고 항의해나섰으며 유엔녀성지위에 관한 위원회 제

62차회의에서 일본대표단은 20 만명이라는 성노예수자는 근거가 없는것이라고 망언을 늘어놓았다. (《로동신문》 2017 년 5 월 28 일, 2018 년 3 월 29 일)

이러한 망언과 망동들은 국제적여론을 되돌려세워보려는 부질없는 행위로서 일본의 도덕적저열성과 파렴치성을 그대로 드러내보였다.

일본지배층은 성노예범죄의 역사를 잊지 않고 세상사람들과 후대들에게 교훈을 심어주기 위한 활동에 방해를 놓고 압력을 가하는 추태도 서슴지 않았다.

2014 년 12 월 일본당국은 외국의 고등학교교과서에 일본군성노예관련내용이 서술되는것을 막기 위해 5 억 US\$의 자금까지 쏟아부었으며 2015 년 10 월에도 우익대변지 《산케이신보》 으로 하여금 성노예문제가 조작됐다는 내용이 담긴 2 권의 서적을 만들고 세계 여러 나라의 교수, 학자, 전문가들에게 집중배포하게 하였다.

일본정부는 2015 년에 중국, 일본, 네델란드를 비롯한 8 개나라의 시민단체들이 성노예관련자료의 세계기록유산등재를 신청하자 유네스코에 대한 자국의 분단금지급을 보류할것이라고 압력을 가하였으며 2017 년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10 여개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한 《<위안부>의 목소리》의 세계기억유산명부 등록을 방해하여 끝내 보류되게 하였다.

일본반동들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성노예피해자들을 추모하고 범죄의 사실을 후세에 전하기 위한 동상, 조각상건립활동도 발악적으로 가로막아나섰다.

2015 년 봄 일본내각관방장관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지방재판소가 글렌데일시에 설치된 성노예상의 철거를 요구한 일본계주민들의 호소를 기각한것을 두고 《위안부상설치는 우리 정부의 립장이나 활동과 완전히 어긋나므로 매우 유감이다.》라고 떠벌였으며 2016 년 10 월 24 일에는 중국의 상해사법대학에서 2 개의 《성노예》 조각상을 건립한데 대하여 량국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느니,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느니하면서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 과도하게 초점을 두지 말고 미래에 낫을 돌리는 자세로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과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망발하였다.

2017 년에도 일본정부는 《평화의 소녀상》이 부산주재 일본총영사관앞에 설

치되는데 대한 대응으로 자국대사와 총령사를 소환하고 예정되어있던 경제협상들을 중단, 연기하는 추태를 부렸다.

2018년 8월 15일에는 중국대북에서 일본군성노예동상을 세운데 대하여 내각관방장관으로 하여금 기자회견을 통하여 《세계각지에서 위안부상이 설치되고 전시되는것은 일본정부의 립장 그리고 지금까지의 노력에 배치되는것으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라는 망발을 늘어놓게 하였다.

같은해 10월 2일 일본의 오사카시는 성노예상을 설립한 미국의 샌프랜시스코시와의 자매관계를 단절하였다. 이날 오사카시장 요시무라는 시관청에서 기자들에게 성노예상과 《성노예로 된 수십만명의 녀성들》이라는 글이 찍여진 비문에 대해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지 않고있다. 이것은 일본때리기이다.》라고 꾸짖하였다.

모든 사실은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비롯한 죄악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과거청산을 회피하려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이 그 도수를 훨씬 벗어나 절정에 이르렀음을 말하여준다.

일본의 역사부정행위를 막고 일본군성노예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는것은오늘 국제사회계앞에 나선 중대과제의 하나이다.

우리들은 일본군성노예범죄의 진상을 낱낱이 발가놓으며 국가적책임과 법적배상의 의무에서 벗어나보려는 일본의 파렴치한 책동을 단호히 짓밟개버려야 할 것이다.



2019

第二届朝鲜半岛研究国际学术会议

제 2 회 조선반도연구 국제학술회의

# 문화분과

코리언 생활문화의 차이성과 공통성





# 金日成—金正日主义的本质特征和历史地位

张寿

( 延边大学人文社会科学学院 )

**摘 要：**金正恩同志自 2011 年年底上台执政以来，将朝鲜劳动党的指导思想确定为金日成—金正日主义，宣布党的最高纲领是全社会的金日成—金正日主义化。金日成—金正日主义作为朝鲜主体思想的深化发展，是保证朝鲜主体革命伟业取得最后胜利的唯一指针和旗帜。鉴于此，本文试图就金日成—金正日主义的创立过程、本质特征、以及历史地位等进行粗浅的探讨，以期为正确把握金日成—金正日主义提供新的思路，起个抛砖引玉的作用。

**关键词：**金日成—金正日主义；本质特征；历史地位

## 一、金日成—金正日主义指导思想的创立

2011 年 12 月，金正日同志的突然逝世，拉开了金正恩时代的帷幕。自金正恩同志上台以来，朝鲜多次强调要坚持主体思想、先军政治和遵循金正日同志的“10.8”遗训。2012 年 4 月 6 日金正恩同志发表著作《竭诚拥戴伟大的金正日同志做我们党永恒的总书记，胜利完成主体革命事业》，指出：“朝鲜劳动党的指导思想是伟大的金日成—金正日主义”。也就是说，金正恩同志接班后将金日成同志的“主体思想”和金正日同志的“先军政治”正式定名为“金日成—金正日主义”。

同年 4 月 11 日召开的朝鲜劳动党第四次党代表者会议通过修改党章将金日成—金正日主义确定为党的唯一指导思想。并宣布党的最高纲领是全社会的金日成—金正日主义化。这表明，金日成—金正日主义是朝鲜劳动党的“唯一指导思想”、党的建设和活动的“出发点”、巩固组织思想的“基础”以及领导革命和建设的指导方针。

2014 年 2 月，金正恩同志在朝鲜劳动党第八次思想工作者大会上发表重要讲话，强调“坚定不移地高举伟大的金日成—金正日主义旗帜，早日争取朝鲜革命的最后胜利，这是我国军民的信念和意志，是时代和历史的意愿。我们要把全社会的金日成—金正日主义化为党的最高纲领高高地举起来，依靠思想的力量、一心团结的力量一定完成朝鲜革命。”

在 2016 年 5 月份召开的朝鲜劳动党第七次代表大会上，金正恩同志明确指出：“金日成—金正日主义是伟大的金日成同志创立的，由金日成同志和金正日同志深化发展的主体思想和根据其所揭示的关于革命和建设的理论和方法的专门性的体系”，因此，要“高举全社会金日成—金正日主义化的旗帜，继续迈进革命大道，辉煌完成社会主义伟业。”这表明，金正恩时代朝鲜将继续遵循金正日同志时期既定的政策方向，继续坚持“主体思想”和“先军政治”路线，不会偏离既有轨道。

目前，朝鲜正深入开展全社会金日成—金正日主义化的运动，而这一运动主要通过“金正日爱国主义”教育活动来推进，即从现场指导工作中逝世的金正日同志对祖国和人民的献身精神中，寻找“金正日爱国主义”的内在根据，并主张它是由金正日同志无限崇高的祖国观、人民观、后代观所组成，强调“金正日爱国主义教育是全社会金日成—金正日主义化事业的重要一环”，是把社会所有成员培养成为祖国和人民斗争的真正爱国者的明亮灯塔和斗争的指针。

今后，朝鲜将以金日成—金正日主义作为党的唯一指针，继续推进全社会的金日成—金正日主义化，努力实现人民群众的自主性，尤其是实现全社会的思想一色化和统一团结，进一步巩固政治思想强国地位，圆满完成人民群众的自主伟业，乃至主体的社会主义强国建设伟业。

## 二、金日成—金正日主义的本质特征

朝鲜把党和国家的指导思想从主体思想更改为金日成—金正日主义，这不仅是名称的变化，也有本质特征的与时俱进。金日成—金正日主义就其本质特征而言，是一种自主的革命思想，是区别于其他一切思想理论的，具有独创性的、科学的自主伟业的革命思想。

### 1、以主体思想为精髓的人民大众第一主义

一般来讲，革命思想主要根据其精髓、基本理念和基本精神，呈现出显著的特征。金日成—金正日主义是以主体思想为精髓，独创性地揭示革命和建设指导性原则的革命的、思想理论体系。也是人民大众第一主义作为基本理念和基本精神的革命思想。

所谓革命思想的精髓，即指在革命理论结构体系中成为其思想理论基础和方法论基础的精要部分。通常，革命思想以其精髓为出发点，形成系统的理论体系。金日成同志曾指出：“主体思想是构成我们党革命思想的精髓。”主体思想是一种把人放在哲学考察中的中心位置，在与人的关系中提出、解决所有哲学问题的以人为中心的崭新的哲学思想。这种主体思想成为金日成—金正日主义的核心，成为金日成—金正日主义所有内容和结构体系的（思想理论、方法论）基础和出发点。在金日成—金正日主义中，成为核心的正是主体思想所揭示的“人是一切的主人，人决

定一切”的思想，即人是自己命运主人的思想。因此，金日成一金正日主义自然而然就成为指引人们开拓自己命运，发挥自身地位和作用的主体的革命理论和领导方法。

还有，革命思想的本质特征不仅表现在其精髓，还体现在贯通其的基本理念和基本精神上。贯通金日成一金正日主义的基本理念和基本思想就是人民大众第一主义。金正恩同志指出：“金日成一金正日主义就其本质而言，就是人民大众第一主义，把人民当作天来崇拜，并全心全意为人民服务的人才是真正的金日成一金正日主义者。”说金日成一金正日主义是人民大众第一主义，是因为：它是一种把人民大众当作世界上最宝贵的、最有力量的存在，并且一切为人民服务，一切依靠人民大众解决所有问题的革命思想。

金日成一金正日主义不仅揭示了人是具有自主性、创造性、意识性的社会存在，还揭示了人民大众是人的社会本性的真正体现者。金日成一金正日主义正是在全面分析总结人类社会发展中人民大众的志向和活动方式的基础上，阐明了人民大众是根据人的社会本性的自主要求和创造活动的共同性有机结合起来的社会集团。由此，进一步阐明了对于人民大众的科学见解，以及对待人民大众的最为正确的、革命的观点。那就是人民大众是一切的主人，是决定一切的基本因素，是在这个世界上最宝贵的、最有力量的存在，像天一样的存在。换句话说，革命和建设的真正主人就是人民大众，促进革命和建设向前发展的推动力也在于人民大众。

金日成一金正日主义还强调，在社会历史发展过程中，在革命和建设过程中，所有一切都应该为人民大众服务，满足人民大众的切身利益和要求，从而努力实现人民大众的自主理想，使其真正成为世界和自己命运的完全主人，这是金日成一金正日主义的总体目标和崇高理想。正是由于金日成一金正日主义以彻头彻尾为人民

服务贯通其身，并且体现其要求、精神和目标，所以才能够成为名副其实的人民大众第一主义。

## 2、主体的思想、理论、方法的专一性的体系

每个革命思想都具有自身独特的结构体系，并且，由此集中体现出其所固有的本质特征。金日成—金正日主义具有与以往革命思想完全不同的结构体系，即主体的思想、理论和方法专一性的理论体系。金正恩同志指出：“主体思想作为一种由以人为中心的哲学思想和以人民大众为中心的革命理论、领导方法体系化的革命思想，是照亮人民大众自主性斗争光明前途的成熟的、革命的指导思想。”

通常，革命思想以其精髓出发，构成自身独特的理论体系。金日成—金正日主义是一种由主体思想、主体的革命理论和主体的领导方法等三大部分构成的具有内在连贯性的、专一性的思想理论体系。它那深奥的、丰富的、所有的原理、命题和内容均由主体的思想、理论、方法的专一性体系所集大成。

其中，主体思想是金日成—金正日主义最为重要的组成部分。主体思想是构成金日成—金正日主义精髓的哲学思想，并且，以此为基础和出发点，金日成—金正日主义的其他所有内容和组成部分得到展开和体系化。主体的革命理论是金日成—金正日主义必不可少的组成部分。由于金日成—金正日主义把主体的革命理论作为自身必不可少的组成部分，所以才能够把人民大众的自主性放在中心位置，以革命和建设中所占据的地位和所发挥的作用为基础，完整地解答了革命斗争和建设事业中面临的所有理论和实践问题。主体的领导方法是金日成—金正日主义密不可分的组成部分。在金日成—金正日主义中，领导方法问题就是关于党和领袖领导自主伟业主人——人民大众的原理、原则、体系和方法的问题。金日成—金正日主义在历史上首次揭示了革命斗争中领导方法问题所具有的独特意义，并且，把它当作自身重要的组成部分。也就是说，金日成—金正日主义通过全面揭示和确立主体的

领导方法，最大限度地提升了人民大众的地位和作用，并且有力推动了自主伟业的胜利前进和发展。

构成金日成—金正日主义的主体的思想、理论和方法体系是最为革命的、完备的思想理论体系。因为主体的思想、理论和方法体系本身是一种包括解决革命和实践中面临的所有问题的结构体系。在这个结构体系当中，包括作为革命主人的人民大众应树立的科学的、革命的世界观，还包括在革命和建设当中当作指针的理论和战略战术，甚至包括党和领袖有力地组织动员广大人民群众参与革命和建设的原则、体系和方法等。因此，只有把金日成—金正日主义当作指针，才能圆满解决革命和建设中出现的所有问题，并且能够把人民大众的自主伟业引向最终胜利。

### 3、以先军得到保障的革命思想

一般来讲，革命思想的本质特征还体现在其保障革命胜利的方面。金日成—金正日主义主要通过先军思想有效保障人民大众自主伟业的胜利前进和完成。金日成—金正日主义自创立之日起，在艰苦卓越的革命斗争过程中，通过先军思想的威力，保障了朝鲜主体革命的胜利前进。金正恩同志指出，“先军思想作为在体现主体思想的实践斗争中深化发展的思想，是一个最完备、最全面地实现主体思想要求的科学的革命理论。”

先军思想是为了在实践中体现主体思想的原理、原则和要求而创立的斗争指针，而且，是在体现主体思想的革命斗争过程中逐步深化发展的革命思想。从这一点上看，先军思想和主体思想的创立时期是相同的，并且，二者始终贯穿于朝鲜革命的整个过程。

金日成—金正日主义又是以枪杆子来开拓朝鲜革命的，即重视枪杆子的独创性的革命思想，它以先军革命思想作为自身所固有的核心内容。先军革命思想在实现人民大众自主性的革命实践过程中，逐步发展成百战百胜的思想理论武器和指导方

针。金日成—金正日主义同这种先军思想密不可分，也就是说，它主要通过先军思想体现在革命实践当中，其胜利前进也通过先军思想得到保障。可见，金日成—金正日主义的本质特征主要体现在它是一种依靠枪杆子来彻底保障革命斗争的终极目标、实现人民大众自主性的革命思想这一点上。

正因为先军思想植根于主体思想，并且全面体现主体的革命原理、战略战术、以及主体的领导方法和领导艺术，因此，在金日成—金正日主义中，占据重要地位。金日成—金正日主义主要以对枪杆子、革命军队地位和作用的新见解和新观点为基础，全面揭示了先军革命的原理和原则、以及先军政治理论。先军革命思想则集中体现金日成—金正日主义所揭示的革命原理和原则、革命的各个阶段的战略战术，以此保障其全面实现。主体的革命理论主要揭示了革命和建设的主人是人民大众，革命和建设的推动力在于人民大众的革命的根本原理，阐明了革命胜利的根本因素就是强化革命主体，增强其作用。

先军思想揭示革命军队是在革命斗争中需要牢牢依靠的一支重要的政治力量，并且，在科学地分析革命军队的地位和作用，及其革命性、组织性和战斗力的基础上，深刻阐明了革命军队在革命斗争中真正成为主力军这一事实。

金日成—金正日主义体现重视枪杆子的观点和立场，圆满解决了有效保障革命胜利的社会主义基本政治方式问题。金日成—金正日主义还揭示了革命斗争中确立科学的革命方式、政治方式的重要性，在与革命的第一武器——枪杆子的关系中，圆满解决了这一问题。

金日成—金正日主义揭示的重视枪杆子、依靠枪杆子的革命方式正是先军政治方式。先军政治是一种把军事当作第一国事，以革命军队作为核心、主力军，保卫祖国、革命和社会主义，有力推进整个社会主义建设的政治方式。也就是说，先军政治是百般强化枪杆子，通过依靠枪杆子的方法，解决革命和建设中的所有问题的

革命方式、政治方式。这种先军政治又是一种在与帝国主义的尖锐斗争中，能够实现自主、民族、团结、仁德的社会主义政治理念，并且，能够牢固确保人民大众自主伟业胜利前进的百战百胜的政治、万能的宝剑。因此，它能够成为社会主义的基本政治方式。金日成—金正日主义确立的先军政治方式通过依靠枪杆子的方式为革命地、战斗地解决革命和建设中出现的一切问题提供有力保障。

要之，金日成—金正日主义把重视枪杆子的革命原理和原则，以及先军政治理论作为自身重要的思想理论财富，所以，在革命和建设实践中能够把其正当性和生活力发挥得淋漓尽致，尤其是最终成为将把革命建设不断向前推动的最强有力的、最具生活力的革命思想。

### 三、金日成—金正日主义的历史地位

通常，一个革命思想的历史地位，主要是从人类思想和时代发展的高度上进行评价和规定的。只有代表人类思想发展和时代发展要求的思想，才具有重要的历史地位。金日成—金正日主义是反映现时代发展和劳动阶级革命思想发展要求的思想体系，在历史发展中，占据重要的地位。

第一，金日成—金正日主义是富有独创性的革命思想。

独创性是规定革命思想所占据的历史地位的重要因素。没有新意或者主要以继承性为主的革命思想必然无法摆脱现有革命思想的条条框框。革命思想的历史地位主要取决于它相对于现有思想有哪些新内容，有什么样的创新之处。金日成—金正日主义是在现有的劳动阶级革命思想——马克思列宁主义理论框架内无法解释的新的、富有独创性的革命思想。正因为以独创性贯穿到整个内容体系，所以，它能够成为超过现有革命思想历史地位的新的更高阶段的革命思想。



首先，构成其精髓的哲学思想，即主体思想是完全新颖而独到的。

主体思想作为代表人类哲学发展新阶段的哲学思想，提出了一系列新的哲学问题，并且对此给予了科学回答。具体说，主体思想在新的哲学的基本问题，即人和世界的关系问题上，提出了人在世界上所占据的地位和所起的作用问题，并且给予了正确回答。主体思想还提出了人作为社会存在的本质属性问题，并且，以此为基础，科学地阐明了世界的主人是谁，改造世界的力量在哪里等问题，以及以人为主对待世界的新见解。在这个意义上，主体思想是人们应具有的科学的 worldview，而且是人们认识和改造世界的一般的方法论。金日成—金正日主义的独创性主要由这一主体思想的独创性所规定，同时，正因为其精髓具有独创性，所以，它在革命思想发展中占据重要的历史地位。

其次，其革命理论和领导方法，是完全新颖而独到的。

金日成—金正日主义所阐明的革命理论和领导方法是一种以人民大众为中心的独创性的革命理论和领导方法。也就是说，它是一种把人民大众放在革命和建设的主人、推动革命和建设的决定力量的重要地位，以解决革命和建设所有问题的新的革命的指导理论和指导方法。

金日成—金正日主义把人民大众放在中心，独创性地阐明了革命的一般性原理，并且，还阐明了阶级解放、民族解放、人的解放，以及自然改造、社会改造、人的改造等方面的新理论。还有，金日成—金正日主义的领导方法是在革命思想史上，首次把领导方法问题当作关系到革命和建设成败的重大问题来提了出来，并且，崭新地阐明了人民大众作为革命和建设的主人充分发挥作用的领导方法。的确，金日成—金正日主义是在劳动阶级的革命思想发展过程中，实现伟大转变的新的革命思想，并且，由此成为革命思想发展的新的更高阶段。

第二，金日成—金正日主义是十分完备的革命思想。

通常，革命思想的完备程度是规定一个革命思想历史地位的另一个重要因素。一个革命思想虽然提出来很多新的观点、内容，但如果不完备，那就不能代表思想发展的最高阶段。革命思想的独创性并不在于其本身，而在于它是否体现时代和革命发展要求的最科学、最完备的革命思想上。

首先，金日成—金正日主义是克服现有革命思想局限性的完备的指导思想。

从革命思想发展的层面上看，马克思列宁主义作为反映过去人民大众革命斗争要求的革命思想，具有一定的局限性。简言之，其局限性在于它只以欧洲发达资本主义国家为前提，揭示出劳动阶级打倒资产阶级，建立社会主义制度的革命理论和战略战术，而且，仅以物质经济关系为主，展开其理论体系。金日成—金正日主义克服现有革命思想，即马克思列宁主义所具有的这一局限性，形成完备的革命思想。

还有，革命思想的完备程度离不开其结构体系。现有的革命理论主要从思想理论渊源出发，逐步形成哲学、政治经济学、科学社会主义等结构体系。这种结构体系对批判地吸收当代进步思想理论方面，提供一定的借鉴帮助，但对人民大众的革命斗争所面临的理论与实践问题，无法提供科学的答案。

金日成—金正日主义揭示了劳动阶级和人民大众进行思想和革命斗争的科学原理、原则和战略战术，阐明了引导人民大众依靠自身力量实现自身要求的领导方法。由此，克服了现有革命思想的局限性，逐步建立起了思想、理论、方法较为系统的完备的结构体系，最终成为最革命的指导思想，并且，使劳动阶级的革命思想达到自身发展的最高阶段和最完备境地。

其次，金日成—金正日主义的精髓主体思想是以人为中心的完备的哲学思想。

哲学要具有完备性，就应该揭示符合自身历史使命的哲学原理。哲学的根本使命在于揭示开拓人类命运之路。只有正确揭示开拓人类命运的根本途径，才算是完备的哲学思想。

现有的劳动阶级的哲学思想主要以揭示物质世界的本质及其变化规律当作自身的哲学任务，因此并没有从根本上揭示了开拓人类命运的根本途径。与此相反，主体思想根据哲学的历史使命，科学地揭示了人的本质特征和社会属性，阐明了人在世界中的地位和作用，以及开拓人类命运的哲学原理。也就是说，主体思想科学地阐明了人是自己命运的主人，人是通过自主性的、创造性的、意识性的活动，改造和变革自然和社会，不断开拓自己命运的思想观点。

再次，主体的革命理论和领导方法也是完备的指导理论和指导方法。

现有的革命思想主要从客观物质经济关系层面上，揭示了革命斗争的形成发展和劳动阶级的阶级解放条件。当然，革命斗争条件能够起一定的作用，但它绝不是关键因素。过去，革命斗争并不是在生产力高度发达的资本主义国家里进行的，而是像俄罗斯那样资本主义不够发达的国家和殖民地、半殖民地国家里首先爆发和最后取得革命胜利的。这一历史事实是最好的例证。

主体的革命理论克服了现有革命思想具有的局限性，即它并不是从客观条件出发，而是以主体因素为根本，科学地揭示了革命斗争的前进道路，强调了革命的根本方法和途径是强化集领袖、党和大众为一体的革命的主体，并且不断提升其作用。那么，即使处于生产力发展较低的阶段，也能够进行革命斗争，甚至取得革命斗争的最后胜利。并且，它还阐明了革命斗争的根本目的在于清算所有的压迫和剥削，完全实现自主性，为此，在建立社会主义制度之后，也要继续革命的观点。

特别是主体的革命理论还阐明了根据革命斗争规律和要求，重视和强化军事和枪杆子威力，从而进一步加强革命的主体，并且发挥革命主体的作用，进一步巩固

和发展革命胜利果实的独创性的思想观点。此外，主体的领导方法科学地阐明了革命领导在其本质上，就是劳动阶级的政党和领袖正确引导人民大众享有他们应享有的革命主人的地位、及发挥应尽的作用，并以此为基础，全面解决革命领导中所面临的一切理论和实践问题的思想观点。

总之，金日成一金正日主义不仅是区别于现有革命思想的富有独创性的革命思想，而且是符合革命发展要求的，克服现有革命理论局限性的完备的革命的指导思想，由此，最终成为革命思想发展的新的更高阶段的革命思想。

## 조선실학사상의 중요특징

리순범  
(박사 부교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실학사상은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입니

다.》(《김정일전집》 제 5 권 443 페이지)

조선과 중국, 일본을 포괄하고있는 동아시아에서 17세기부터 19세기 전반기까지의 시기를 실학이 등장하여 개화한 시대 즉 실학의 시대라고 부르고있다. 이 시기 진보적학자들은 해당 나라 봉건사회의 갖가지 폐단과 변화된 현실을 목격하면서 공리공담을 배격하고 쓸모있는 학문을 연구하자는 구호를 내세웠으며 이로 하여 어느 나라에서나 실학사상이 대두하게 되었다. 매개 나라의 실학사상은 봉건사회말기 사회발전을 요구하였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서로 다른 사회력사적환경과 사상발전으로 하여 서로 구별되는 일련의 특징도 가지고있다.

조선실학사상의 중요특징은 첫째로 조선의 토양에서 자라나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줄기찬 발전을 이룩한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실학사상은 16세기에 뿌리를 두고 17세기에 발생하여 18세기의 전성기를 거쳐 19세기중엽까지 줄기차게 발전하였다.

조선실학사상은 16세기 진보적사상리론의 합법칙적계승이며 발전이다. 우리 나라 중세철학사에서 16세기는 유물론과관념론의 투쟁이 가장 첨예하게 벌어진 시기였으며 이 대립속에서 유물론도 관념론도 최대의 리론발전을 이룩한 시기였다. 당시 유물론은 서경덕의 기일원론으로, 관념론은 리황의 리일원론과 리이의 리기이원론으로 발전의 봉우리에 올라섰으며 여기에서 사회발전을 지향한 진보적사상리론들이 그후 실학사상발생의 토대를 이루었다. .

서경덕은 16세기의 유물론을 대표하는 철학자이다.

서경덕은 선행한 유물론사상을 계승한 기초우에서 당시 지배적이던 성리학의

객관관념론, 불교의 주관관념론과 로자의 허무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과정에 유물론적견해의 정당성을 확신하고 자기의 독창적인 유물론철학을 내놓았다. 태허 즉 기에 의한 세체의 물질적통일성, 물질적기는 발생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으며 시초와 종말도 없다는 기불멸사상, 리는 물질적기에 내재하는 법칙성에 불과하다는 리재기중사상, 사물의 운동변화의 원인은 사물 그 자체에 있다는 기자이사상 등으로 이루어진 서경덕의 기일원론은 우리 나라의 유물론철학발전을 추동하였으며 이것은 실학자들의 철학적전해가 유물론적경향으로 나아가도록 작용하였다.

특히 리이의 진보적인 사회정치사상은 실학사상발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었다.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파의 정치학설을 체제화하고 집대성한 리이는 당시 불공평한 사회제도와 법들을 개혁하고 왜적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방위하기 위한 대책안들을 내놓았다.

《조종의 법》이라도 무조건 옳은것이 아니며 사회발전의 견지에서 고칠것은 고쳐야 한다는 변법사상에 기초하여 전개된 리이의 정치제도, 경제제도개혁사상, 10만양병설을 핵심으로 하는 애국적국방사상은 당시에 있어서 매우 가치있는것으로서 실학사상발생발전의 귀중한 밑거름으로 되었다.

실학자들은 주로 리이의 영향밑에서 성장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권력에 의한 강렬한 《이단》 배척으로 유물론철학이 기를 펴지 못하고있었으며 리이가 유학자들의 존경을 받고있던 당대의 환경에서 실학자들은 대체로 리이의 진보적사상을 영양소로 하여 성장할수 있었다.

초기실학의 대표자인 류형원은 《만언봉사》, 《동호문답》을 비롯한 리이의 저서속에서 노비제도와 관직제도, 군사제도와 교육제도 등 사회제도개혁에 대한 안내를 받았으며 리익과 홍대용 역시 《률곡은 정치적수완이 깊었고 조선봉건왕조이래 시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성호새설류선》 권9 하 룰곡비), 《률곡선생 리이는 우리 나라의 대단한 학자이다.》(《담헌서》권3서 여엄구용)라고 리이를 높이 평가하면서 그의 진보적사상을 주요한 밑천으로 삼았다.

이러한 력사적사실은 조선실학이 결코 외래적인것이 아니라 조선봉건왕조시기 진보적사상의 합법칙적발전과정에 발생한 사상조류이라는것을 보여주며 이로써 《실학은 중국에서 발생하여 그후 조선, 일본 등의 름접국으로 전파》(《한중실학사연구》 실학과 과학 524 페이지 참고)되었다는 주장의 부당성을 명백히 알수 있

다.

16 세기에 뿌리를 두고 17 세기에 발생한 조선실학사상은 19세기 중엽까지 200 년이 넘는 기간 줄기찬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실학사상은 초기, 중기, 말기라는 발전의 세단계를 거치었으며 매 발전단계마다 시대적변화를 반영하면서 자기의 내용을 풍부히 하였다.

한편 일본실학은 크게 세 시기로 즉 첫번째 시기는 후지와라 세이카로부터 오규 소라이에 이르는 에도막부 전기이며 두번째 시기는 오규 소라이로부터 아이자와 세이시에 이르는 18 20년전후의 에도막부 후기이며 세번째 시기는 1820 년대부터 명치유신에 이르는 시기로 나누어 설명되지만 (《동아시아의 전통철학》 380 페이지 참고) 진정한 의미에서 《실(實)을 숭상하고 허(虛)를 배척하는》 일본실학의 출현은 19세기 중엽이다.

이 시기 일본으로 밀려든 서양의 실증주의와 공리주의철학의 영향하에 일본실학이 형성되었으며 따라서 일본의 근대국가건설에서 실증주의가 사상적무기로 되었다.

외래적요인에 의하여 형성된 일본실학이나 침체를 거듭한 중국실학과는 달리 자기의 토양에 뿌리를 박고 줄기찬 발전을 이룩하였다는데 조선실학사상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가 있다.

조선실학사상의 중요특징은 둘째로 민족의 자주권고수를 열렬히 지향한것이다.

조선의 실학자들이 념원한것은 부국강병, 부국유민이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폭넓은 사회개혁사상이 제기되었는데 여기에서 남달리 주목되는것은 민족의 자주권을 고수하려는 애국정신이다. 따라서 실학연구자들은 《조선의 실학자들은 조국의 위기를 구원하고 부강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사대주의를 극복하여야 한다고 인식하고 독립자주적으로 자기 나라의 문화유산을 연구하고 다른 한편 자주적인 립장으로부터 외국의 선진적과학기술을 학습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조선의 문명개화를 촉진시키였다.》(《중일조실학비교》 중문 철학연구 1995년 4 호)라고 평하고있다.

우리 나라 실학자들이 다른 나라의 실학자들과는 달리 민족의 자주권고수에 주되는 관심을 돌리게 된것은 조선봉건왕조 후반기의 사회력사적환경과 관련된다.

16 세기 말에 있는 임진조국전쟁을 계기로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려는 우리 인민의 자주의식은 보다 양양되었다.

우리 인민은 7 년간에 걸치는 일본사무라이들과의 치열한 전쟁에서 나라의 자주권을 고수하기 위한 싸움을 벌림으로써 침략군을 몰아내고 민족의 존엄을 영예롭게 지켜낼수 있었다.

당시 사무라이들의 대규모적인 불의의 침략으로 하여 조성되었던 불리한 전쟁국면을 유리하게 전환시킨것은 민족의 자주권수호에 떨쳐나선 애국적인 인민들과 군인들이었다.

군사제도가 문란하고 국가적인 방어조직과 통일적지휘조차 없었던 탓으로 전쟁첫시기에 관군은 거의 와해상태에 빠지고 적들은 짧은 기간에 함경북도지방까지 기여들었다. 참으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엄중한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시기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애국적인민들과 군인들의 용감한 투쟁에 의하여 불리한 형세는 수습되고 아군은 점차 반공격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각지에서 인민들과 일시 흩어졌던 군인들이 의병부대들에 참가하여 거족적인 항쟁을 벌려 도처에서 침략자들에게 심대한 군사적타격을 줌으로써 아권앞에는 전면적인 반공격으로 넘어갈수 있는 국면이 열려지게 되었다.

실로 임진조국전쟁에서의 승리는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애국적투쟁의 빛나는 결실이였으며 전쟁과정에 드높아진 우리 인민의 민족자주정신이 실학사상에 반영되었다.

우리 나라에서 사대주의는 오랜 역사적뿌리를 가지고있었다. 봉건통치배들은 비과학적인 지리학적견해에 기초한 화이론적세계관에 물젖어있었으며 이것은 극도로 쇠약해진 조선봉건왕조 후반기 고질적인 악습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당대 사회의 곳곳마다 사대주의적풍조가 만연되었으며 우리 나라의 역사, 언어, 지리 등이 망각되어갔다.

실학자들은 봉건량반들내부에 뿌리깊이 침습한 사대주의풍조를 반대하여 우리 나라를 세계의 중심에 놓고 우리 나라의 찬란한 역사와 언어, 지리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였다. 그들은 절대적인 그 무엇을 가상하는 관념론적세계관을 타파하고 지구에 대한 과학적인 견해로써 자기 나라 중심론을 근거지었으며 자기의것에 대한 정력적인 연구를 통하여 방대한 서적들을 내놓았다.

우리 나라의 역사연구로는 안정복의 《동사강목》, 리공익의 《연려실기술》, 박지원의 《열하일기》, 류득공의 《발해고》, 정약용의 《아방강역고》, 한치윤의 《해동역사》, 김정희의 《금석과안록》 을 들수 있으며 우리 나라의 지리연구로는 리



중환의 《택리지》, 정상기의 《팔도도》, 성해응의 《동국명산기》,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대동지지》를 들수 있으며 우리나라 언어연구로는 신경준의 《훈민정음운해》, 정동유의 《훈민정음론》, 류희의 《언문지》 등을 들수 있다.(《실학파의 철학사상과 사회정치적견해》 6-7페이지 참고)

이처럼 우리 인민의 민족자주정신이 양양되고 봉건량반들속에 사대주의가 극심하게 류포되었던 조선봉건왕조 후반기 특유의 사회상이 우리의 실학자들로 하여금 민족의 자주권고수와 관련된 문제들에 적극적인 관심을 돌리도록 이끌었다.

조선실학사상의 중요특징은 셋째로 《리용후생》을 남달리 중시한것이다.

우리 나라 실학자들은 학문연구의 목적을 《리용후생(利用厚生)》에 두고 실지 쓸모있는 학문 즉 《실용지학》을 주장하면서 《낡은 나라를 일변》시키기 위한 학문연구에 전심하였다.

우리 나라 실학사상사는 《리용후생》이 정립되고 중시되며 그 내용이 풍부화된 과정이다. 조선의 실학사상가들은 《정덕리용후생》이라는 전통적인 유학사상의 틀을 대담하게 벗어나 《리용후생》을 실학연구의 주요대상으로 삼았다.

우리 나라 실학사상사를 보면 초기실학에서 백성들의 생활에 쓸모있는 학문연구로써 주자학의 공리공담과 구별되는 리정표가 세워지고 중기실학에서 《리용후생》이 학문연구의 목적으로 뚜렷이 정립되었으며 말기실학에서 시대발전에 맞게 《리용후생》의 내용이 풍부화되었다.

류형원을 비롯한 초기실학자들은 당시 봉건유학자들속에서 성행하던 주자학적 공리공담을 비판하고 백성들의 생활에 쓸모가 있는 《실용지학》연구를 주장하였다.

류형원에 있어서 학문연구의 목적은 날로 어지리워지는 정치와 날로 파탄되어 가는 백성들의 생활을 바로잡아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백성들을 구원하는것이였다. 이러한 견해는 고루한 량반들이 《소인들은 재물을 중히 여기며 의리를 경시한다》는 립장에서 독선적인 유교도덕만을 운운하던 당시의 형편에서 실지 생활적 문제에 관심을 돌릴것을 요구한 진보적인 견해였다.

이로부터 류형원이 집필한 《반계수록》에서는 사회현실적문제들을 경시하는 공리공담이 비판되고 백성들의 만사에 관계되는 구체적이며 현실적문제들이 주요하게 논의되였다. 특히 류형원은 《재물은 토지에서 나온다》는 원칙이 지배하고있었던 조건에 맞게 토지제도개혁문제를 구체적으로 연구하였다.

원래 조선실학은 후생실학이라고 불리울만큼 우리 나라 실학자들은 생활에 실지로 도움이 되는 학문연구에 치중하였다.

《리용후생》에 도움이 되는 문제가 조선실학자들의 주되는 관심대상이었으며 여기에서 선차적인것이 토지와 관련한 문제였다. 이것은 봉건사회에서 기본생산수단이 토지이며 당시 극도로 문란해진 토지제도가 봉건국가의 존립에 파국적후과를 미치고 인민생활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었던것에 기인된다.

쓸모있는 현실적문제들에 관심하는 류형원의 진보적립장은 공리공답과 대치되는것으로서 그후의 실학자들이 《리용후생》을 학문연구의 목적으로 정립케하는 리정표로 되었다.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정약용을 대표자로 하는 중기실학에 이르러 《리용후생》은 학문연구의 목적으로 뚜렷이 정립되었다.

어려서부터 《결코 문장이나 글귀를 따지기만 하는 고루한 선비가 되지 않고 일상생활에 관제되는 일을 하여야 한다.》는 지향을 가지였던 홍대용은 사회와 생활에 실지 유용한 학문연구에 전념하였으며 박지원은 당시 수천리되는 우리 나라가 락후하고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그토록 가난하게 된것은 선비와 벼슬아치들이 실용적인 학문을 연구하지 않는데 원인을 두고있다고 보면서(《과농소초》참고) 《리용후생》에 이바지하는것을 당시 선비들이 하여야 할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라고 강조하였다.

박제가도 《리용후생》이 학문연구의 목적이고 정치와 도덕의 기본으로 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정약용도 역시 학문연구의 목적이 나라의 부강과 백성들의 일상생활을 위한 실용에 있다고 보았다. 정약용에 있어서 선비는 마땅히 시무에 밝아 실지 일을 처리할수 있어야 하며 《리용후생》의 실질적인 학문이 선비들이 하여야 할 연구대상이다. 따라서 그는 국력이 빈약한 조건에서 농기구, 직조기 등 백공의 기술 발전을 주관하는 기관인 《리용감》의 설치가 급선무로 나선다고 주장하였다.(《경세유표》2권 제 4 공조 리용감 참고)중기실학에 의하여 정립된 《리용후생》의 실학은 그후 말기실학자들인 리규경, 최한기를 통하여 그대로 계승되었다.

최한기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버리고 학문을 하려는것은 허공에 매여달린 학문이기때문에 실지로 일을 처리하는것으로 학문연구의 우결함을 평가할것을 요구하였다. 이미 최한기에 와서는 학문연구의 목적인 《리용후생》의 내용에서 실질적

인 학문과 정치에서의 실무적처리에 관한 학문 특히 자연과학적문제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이것은 봉건사회에서 움터나는 자본주의적관계, 자라나는 시민계층의 요구를 반영한것이다.

이처럼 《리용후생》에 대한 실학자들의 견해의 변천과정을 보면 초기실학에서는 실지 생활에 쓸모있는 현실적문제에 관심을 돌림으로써 《리용후생》을 중시하는 리정표를 세웠다면 중기실학에서는 《리용후생》이 학문연구의 목적으로 뚜렷히 정립하고 그 중시가 도덕의리를 넘어섰으며 말기실학에서는 학문연구의 목적으로 정립된 《리용후생》의 내용이 자라난 시민계층의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실천적이며 현실적인 문제들로 풍부화된것을 알수 있다.

조선실학사상의 중요특징은 넷째로 철학적견해와 선진적인 자연과학지식이 밀접히 결합된것이다.

조선의 실학자들은 대체로 철학자, 정치사상가인 동시에 자연과학자들이였다.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학과에서 모여온 실학자들에게는 부국강병, 부국유민의 대전제아래 하나로 합류될수 있는 공통적인 기질이 있었다. 그것은 애국심과 반항의식 그리고 강한 지식욕이였다.

실학자들의 가슴속에는 뒤떨어진 나라를 걱정하고 자기 민족,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는 애국심이 자리잡고 있었으며 나라와 민족을 도탄에 빠뜨리고 저들을 권력체계에서 밀어낸 당대사회에 대한 불만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이와 함께 부국강병, 부국유민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자연과학을 깊이 연구하고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려는 강한 지식욕이 충만되어 있었다.

실학자들은 강한 지식욕을 가지고 자연과학을 《인간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과목》으로 중요시하였으며 자연과학연구에 적극적인 관심을 돌리였다. 그러므로 자연과학기술을 발전시키자는 사상은 실학자들의 기본지향이었으며 실학사상의 주요한 내용의 하나였다.

이에 따라 조선의 실학자들은 대체로 당시에 있어서 뛰어난 자연과학자들이였다. 그들은 공리공답에 반발하여 실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자연과학기술에 주목하였으며 직결 연구사업에 달라붙어 선진적인 자연과학성과들을 이룩하고 그에 기초하여 철학적견해들을 전개하였다.

그 대표적인물은 홍대용이다.

홍대용이 이룩한 자연과학성과에서 핵심적인것은 우주무한설이다. 그는 대담하

제도 다른하계설을 제기하여 우주는 무한하다는것을 증명하였다. 그가 내놓은 다른하계설을 요약하면 큰 고리형태로 되어있는 우리 은하계는 태양과 지구를 비롯한 수천만의 별들을 포괄하고있으면서 우주공간에서 하나의 큰세계를 이루며 우리 은하계밖에도 수많은 은하계가 있다는것이다. 따라서 헤아릴수 없는 은하계가 분포되어있는 우주는 공간적으로 무한하며 사람들은 자기의 작은 눈에 의거하여 경솔하게 우주의 공간적유한성을 결정짓지 말아야 한다.(《담헌서》 내집 권4 의 산문답 참고)

홍대용의 은하의 형태에 대한 이론과 다른하계설은 현대천문학에 의해 비로소 확증된것이다. 그가 활동하던 당시까지 은하계에 대한 이론은 어느 철학자, 천문학자에 의해서도 제기되지 못하였다. 서양에서는 《은하는 무수한 별들로 되었다》는 데모크리토스의 견해이상으로 전개된 이론은 17 세기말까지는 전혀 없었다. 다만 칸트가 1755년에 내놓은 자기의 가설에서 은하의 구조와 형태에 대하여 약간의 이론을 제기하였으며 천문학자 람베르트가 1761 년에 그보다 조금 전진한 이론을 내놓았다. 현대천문학에 의하여 우리 은하계의 형태와 그밖에 타원은하계, 나선은하계, 불규칙은하계로 구분된 수만개의 은하계가 있다는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다.

근대천문학에서는 확신하기 힘들었으며 현대천문학에 의해서 확증된 은하계에 대한 이론에 기초하여 홍대용의 철학적견해가 전개되었다. 그는 《우주공간에 충만된것은 기이다》라는 견해를 전제로 하고 다른하계설로써 우주는 무한하다는것을 론증하면서 유물론적기불멸설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조선실학과 일본》에서는 《홍대용은 기철학자인 동시에 뛰어난 천문학자, 수학자였다.》(《조선실학과 일본》 39 페이지, 65 페이지)라고 평가하였다.

원래 철학과 자연과학은 밀접히 련결되어있다. 철학은 자연과학연구의 지침으로 되며 자연과학은 자체의 성과들로써 철학발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이론적으로 안받침하여준다. 따라서 철학적견해는 해당 시기의 자연과학의 발전수준과 철학자가 소유하고있는 자연과학지식수준과 깊은 련관을 가지고있다.

조선실학자들의 철학적견해는 탁상우에서의 논의나 순수한 사변적탐구로 이루어진것이 아니라 그 자신들이 직접 이룩한 선진적인 자연과학지식과 밀접히 결합되어 전개되었으며 여기에 우리 나라 실학사상이 가지는 중요특징의 하나가 있다.

이에 대하여 《중일조실학비교》에서는 《조선의 실학자들은 대다수 천문학 등 자연과학연구중에서 기철학에 관한 사상을 형성하였다. 이때문에 그들의 기철학 이론은 건실한 자연과학적 이론에 립각하고있다. 》라고 서술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이나 일본의 실학과 대비속에서 조선실학의 중요특징을 연구해보면 줄기찬 발전, 민족의 자주권고수에 대한 열렬한 지향, 《리용후생》에 대한 중시, 철학적견해와 자연과학지식의 밀접한 결합 등으로 찾아볼수 있다.



# 1930년대 식민지 아카데미즘의 맑스주의적 헤겔철학수용: 신남철을 중심으로

박민철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통일인문학연구단 HK교수)

## 1. 1930년대 서양철학 연구에 있어서 아카데미즘적 이해의 심화

일제강점기의 서양철학

수용은 단순히 학문적인 관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보다는 식민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강한 문제의식을 동반하고 있었다. 예컨대 1919년 3.1운동의 실패로 인해 민족주의 운동이 계급적으로 분화되면서 민족해방을 위한 새로운 이론적 토대가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민족해방을 위한 사상적 무기로서 맑스주의 사상이 수입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시기 헤겔철학 수용은 맑스주의의 수용과 그 성격을 같이하고 있다. 헤겔철학 수용의 내용적 특징은 헤겔철학 그 자체에 집중되었다기보다는, 맑스주의와 연관된 흐름이 주도적이었던 점에 있다. 요컨대 20년대의 사회운동적 맥락에서 맑스주의 세계관의 수용이 폭넓게 진행되었으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헤겔철학의 수용 역시 이뤄졌다.

그런데 1920년대 후반과 30년대의 초반에서 발생한 서양철학 연구의 결정적인 변화는 근대학문의 제도가 확립됨으로써 서양철학연구 및 수용의 본질적인 변화가 이뤄졌다는 점에 있다. 이를테면 맑스주의와 헤겔철학의 연구는 1930년대 전반기의 시대적 배경 아래서 이전 시기와는 달리 제도적인 학문영역에서 수용되기 시작했다. 1930년대의 전문적인 철학연구가 본격화된 것에는 ‘경성제국대학 철학과’의 성립 및 졸업생의 배출이라는 객관적 조건이 중요하게 작동했다.

결과적으로 1930년대 헤겔철학 수용의 특징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1920년대와 확연히 구분된다. 1930년대에 이르러 헤겔철학 수용주체 측면에서는 사회주의 이론가와 운동가로부터 전문 학술연구자로의 이행이 진행되었으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계몽적 소개 수준을 벗어난 ‘아카데미즘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바로 이러한 흐름은 ‘1930년대 헤겔철학의 아카데미즘적 수용’이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무엇보다 아카데미즘적인 헤겔철학 수용 양상은 1929년에 접어들어 경성제대 법문학부 출신들이 만든 『신홍』의 발간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이것은 전 시대와는 달리 보다 전문화된 철학교육을 받은 연구자를 통해 헤겔철학이 수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신홍』에는 헤겔철학만을 다루는 논문이 8편이나 등장하고 있다. 요컨대 아카데미즘적 수용 양상은 무엇보다 ‘경성제국대학’이라고 하는 근대 학문공간, 그리고 외국 유학생과 경성제대 철학과 졸업생이 만들기 시작한 ‘전문 학술지’ 『신홍』이라는 두 가지 요인 덕분에 가능했다. 1926년 경성제대 설립은 ‘남한의 근대학문 연구의 출발점’되었으며, 경성제대에 철학과가 설치됨으로써 이제 철학은 제도적 장치와 공간 속에서 체계적으로 연구되고 그에 따른 ‘서양철학연구 1세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조건들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면서 30년대 전반기는 33년의 <철학 연구회>의 설립과 기관지 『철학』의 간행, 33년 6월 <조선경제학회>의 설립, 1933년 후반의 ‘조선학운동’의 전개, 1934년 5월 <진단학회>의 설립과 『진단학보』의 간행, 그리고 연회전문의 『연회』와 보성전문의 『보전학회론집』의 간행 등 근대적 학회와 기관지 발행이 급속도로 이루어졌다. 전문 학술지가 발간되었다는 점은 한편으로 경성제대라는 학문 연구의 제도적 틀의 확립을 통해 가능했다(조희영 1972: 2).

정리하자면 1930년대 전문적인 철학연구자들의 등장과 연구를 통해 헤겔철학 수용 및 연구경향은 그 시기만의 특징을 드러낸다. 첫째, 서양철학연구1세대들은 헤겔철학의 변증법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은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단순한 사유의 논리를 거부



하고, 식민지라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적 열쇠’로서 헤겔 변증법을 선호한다. 물론 헤겔 변증법은 이미 1920년대 사회주의 이론가를 통해 헤겔 철학의 핵심으로서 수용·연구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1920년대와 30년대 변증법에 대한 관심은 내용적 차이를 갖는다. 1920년대 헤겔 변증법에 대한 관심은 맑스주의와의 연관선상에서 변증법적 논리에 집중되었다면, 1930년대는 맑스주의적 해석보다는 각각의 철학적 문제의식에 따라 헤겔의 변증법적 논리 자체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탐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둘째, 따라서 철학적 문제의식은 이론과 실천의 변증법적 통일임에도 불구하고, 헤겔철학에 대한 이들의 해석은 서로 차이가 난다. 안호상, 박종홍, 이재훈, 이종우 등은 이론과 실천의 통일, 주체와 객체의 변증법적 통일을 역설하지만, 자신들의 철학적 입장에 따라 변증법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우선 안호상의 입장은 이론과 실천의 변증법적 통일을 강조하면서도, 헤겔의 『논리학』에서 설명되고 있는 변증법적 논리를 통해 ‘이성적으로 파악된 실천’, ‘실천을 제약하는 이론’에 강조점을 둔다. 반면 박특히 신남철 등은 이론보다는 ‘행위적 차원의 실천’을 강조하면서 변증법을 자신의 철학적 입장에 따라 독창적으로 재해석한다. 그러나 그는 헤겔철학이 식민지의 역사적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변증법적 원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절대적 관념론의 철학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한다.

셋째, 1930년대 헤겔철학에 대한 연구수준은 1920년대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한마디로 말해 1920년대가 맑스주의에 대한 관심 속에서 사회주의 운동가를 통한 계몽적 수준의 수용이었다고 한다면, 『신흥』과 『철학』의 발간과 더불어 1930년대에 오면 헤겔철학에 대한 보다 심화된 연구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예컨대 1930년대에 발간되는 학술지에 등장하는 헤겔철학에 대한 내용에는 『법철학』은 물론이고 『정신현상학』, 『논리학』, 『역사철학』 등 헤겔의 주요저서의 내용들이 폭넓게 등장하고 있으며, 독일어 원서를 통해 헤겔철학이 연구되

기 시작했다. 헤겔철학 수용과 연구에서 나타난 이러한 질적인 발전은 이후 헤겔철학의 아카데미즘적 이해의 확장과 심화를 가능하게 만든 바탕이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학문연구에 강력한 규정력을 행사하는 사회역사적 조건 역시 이전 시기와는 판이하게 달라졌다. 1930년대 초반 일본 군국주의가 강화됨에 따라서 한반도에는 파시즘의 억압적 지배체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한반도의 모든 영역에서 일제의 집요한 탄압이 강화되었으며, 결과적으로 1920년대의 치열한 해방의 이념적 무기와 이론적 토대에 대한 모색은 힘들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철학의 연구경향 역시 1920년대의 실천적 관심 속에서 이뤄지던 성격을 벗어나 1930년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아카데미즘적 내지 관념적 경향으로 선회하게 된다.

## 2. 헤겔 변증법의 아카데미즘적 이해의 심화: 헤겔 변증법 대(對) 맑스 변증법

헤겔철학의 아카데미즘적 수용과 연구의 초기적 모습은 1930년 『신흥』 제3호에 실린 진오의 「사유재산권의 기초 -헤겔 ‘法理學’에 나타난-」과 1931년 1월 제4호에 실린 안용백의 「헤겔 현상학중의 개체의식과 사회의식의 범형」에서 잘 드러난다. 진오의 논문이 헤겔 『법철학』의 내용 중 일부를 꼼꼼히 설명하고 있는 최초의 개설서이자 주해라면, 안용백의 논문은 『정신현상학』에 대한 외국 연구서를 최초로 번역해서 실은 글이다. 이 두 편의 논문 모두 『법철학』과 『정신현상학』을 직접 해석하거나 번역하고 있다는 점에서 헤겔철학에 대한 아카데미즘적 연구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알린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진오는 글 서두에서 이 글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 즉, 그는 이 글의 목적이 재산권에 대한 법철학적 논의를 살펴보는 데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그의 텍스트를 가지고, 조금 상세히 추적(진오 1930: 44)”해 볼 것

을 주장한다. 따라서 이 글은 ‘방법의 진보성과 체제의 한계’를 지적했던 헤겔철학에 대한 1920년대의 일반적인 연구경향을 이어가면서도, 동시에 헤겔철학에 대한 독자적이고 학문적인 관심 역시 등장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안용백의 「헤겔 현상학중의 개체의식과 사회의식의 범형」은 출처가 정확히 기입되어 있지 않지만, 미국의 신헤겔주의자인 로이스(Josiah Royce)의 책 중 일부를 번역한 글이다.<sup>1</sup> 이 글은 “문헌학적인 연구만이 설명할 수 있는 소위 헤겔의 『정신현상학』”(안용백 1931: 71)이란 안용백의 후기처럼, 아카데미즘적 관심 아래 외국의 헤겔연구자가 집필한 헤겔연구 관련 2차문헌을 최초로 번역한 글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1930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헤겔철학에 대한 아카데미즘적 관심은 1931년에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1931년 7월과 12월에 발간된 『신홍』 제5호와 제6호에는 매우 드물게 헤겔철학 논문이 무려 6편이나 발표되었다. 이것은 헤겔 사후 100주년을 맞아 일본에서도 진행된 ‘헤겔 부흥’의 영향, ‘헤겔 르네상스 운동’을 활발히 전개했던 유럽 철학계의 학문분위기를 동시대적으로 유지하려는 태도, 그리고 식민지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해외로 눈을 돌리려는 당시 철학연구자의 의지와 의식에 따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여기에는 헤겔철학에 깊은 관심을 지닌 신남철이 필진으로 참여하는데, 그가 쓴 논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는 1930년대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헤겔철학을 연구한 ‘헤겔철학연구1세대’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신홍』에 등장하는 필진들 중 철저히 맑스주의적 입장에 서서 헤겔철학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가 바로 신남철이다. 그는 1931년과 32년에 걸쳐 『신홍』에 헤겔 관련 논문을 2편 발표한다. 이것들은 모두

---

<sup>1</sup>Josiah Royce, *Types of Individual and Social Consciousness in Hegel's Phaenomenologie, Lectures on Modern Idealism*, Yale Univ, 1919, p. 161-182

까 지 를 번 역 한 것 이 다 .

‘헤겔 사후 백년제’를 즈음해서 부흥한 신헤겔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우선 「헤겔백년제와 헤겔 부흥」<sup>2</sup>에서 신남철은 “다 같이 헤겔을 말하면서도 프롤레타리아트의 세계관으로서의 변증법적 유물론과 부르조아 철학에 있어서의 헤겔에 대한 문제가 서로 그 노선을 달리하는 이유와 근거”(신남철 1931: 59)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국제 헤겔 연맹(Der internationaleHegelbund)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헤겔 르네상스가 진정한 헤겔적 정신에 입각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음을 비판한다. 이러한 방식의 헤겔 르네상스는 신남철에 의하면 “헤겔의 미명하에 맑스주의를 수정, 개정하여 무력화시키고 변질화시키려는 저의”(신남철 1931: 63)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헤겔의 철학은 ‘자유의 철학’으로서 ‘부정’과 ‘변화’라는 혁명적 계기를 지닌 철학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헤겔 르네상스는 헤겔의 변증법적 논리에 현상학적, 존재론적인 비역사적인 논리를 끼워 넣어서 헤겔 이론의 혁명적 요소를 제거해버렸다는 것이다. 신남철이 봤을 때, 진정한 헤겔 르네상스는 ‘헤겔 체계의 정신 내용을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혁명하는 심장과 개혁하는 두뇌’와 같이 “역사운동의 원동력이 되는 사물간의 물질적인 모든 관계”(신남철 1931: 66)를 철학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헤겔 르네상스는 역사사회적 구체성을 여실히 파악하는 변증법적 사유에 대한 부흥이 되어야 한다. 이때의 핵심은 관념론적 이론을 배제하며, 객관적이고 사회적인 존재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해 ‘사회적 실천’을 문제시 하는 ‘변증법적 유물론’이라고 할 수 있다.

---

<sup>2</sup>봉기는 신남철의 이 논문에 대해 세 가지의 커다란 의미를 부여한다. 그에 따르면 이 논문은 첫째, 신남철의 역사철학적 견해를 처음으로 선보였다는 점. 둘째, 자신의 고유한 철학적 견해를 제시했다는 점. 셋째, 신남철이 이차문헌 뿐만 아니라 일차문헌에 대한 연구 역시 진행했다는 점을 꼽는다(봉기 2009: 23), 신남철의 철학사상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9, 23쪽.

신남철이 주장하는 헤겔 철학에 대한 맑스주의적 해석은 1932년에 발표된 「신헤겔주의와 그 비판」에서 보다 강하게 반복된다. 신남철에 의하면 신헤겔주의는 자본주의 몰락기에 등장하는 이데올로기의 하나로서, 맑스주의의 혁명적 방법을 이른바 헤겔의 정신으로써 온건화시키는 일종의 ‘관념학’에 불과한 것이다. 다시 말해 신헤겔주의에 있어서 생철학적 흐름이든 신칸트학파적 흐름이던지 간에 이들 양자 모두는 사실상 계급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인간생활의 모든 형태를 다만 인식론적-형이상학적으로만 문제 삼았을 뿐이며, 역사적으로는 자본주의에 대한 수정과 맑스주의에 대한 비판을 통해 ‘최고의 관념형태’인 파시즘으로 이어졌을 뿐이다. 신남철 비판의 핵심은 신헤겔주의가 결국 혁명적인 방법론인 헤겔의 변증법을 온전히 계승하지 않고,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성격을 추상화시켜버린 방법론적 변형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신남철은 헤겔철학의 진정한 의미가 레닌이 말한 바와 같이 헤겔의 유물론적 독해, 즉 ‘부정’의 이론적이고 실천적 파악 그리고 역사적 유물론의 법칙과 세계관을 확립하는 데 있음을 다시 한번 역설한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 시기 헤겔철학 수용 및 연구에 대한 형식적·내용적인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첫째, 헤겔철학 수용과 관련해 전문적인 헤겔 연구자들의 논문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 시기 중요하게 보아야 할 헤겔 연구자는 특히 신남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안호상과 더불어 그는 ‘근대 남한철학1세대’이자 ‘헤겔철학연구1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헤겔 관련 외국 원서를 직접 인용하면서 헤겔철학의 해석과 연구수준을 일층 심화시킴으로써 맑스주의와의 연관성에서가 아닌 헤겔철학 자체의 독자적인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둘째, 헤겔철학에 대한 주된 관심이 ‘변증법’ 방법론에 집중되긴 하지만, 단순히 그것으로만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신흥』에 등장하는 헤겔철학 관련 논문들은 『정신현상학』을 비롯하여 헤겔철학의 인식론 및 존재론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 셋째, 유심론적 철학에 대한 비판의 내용 그리고 변증법적 원리의 구체적인 적용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띈다.

다는 점이다.<sup>3</sup>

### 3. 헤겔 변증법에 대한 이해의 확장: 신남철의 ‘신체 변증법’

1930년 후반기부터 해방에 이르기까지 남한의 철학계는 일제의 강력한 사상통제로 인해 사실상 암흑기에 가까웠다. 1936년 『철학』이 제3호를 끝으로 폐간되었으며, 1년 후인 37년 『신흥』도 제9호를 끝으로 폐간된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1920년대부터 30년 전반기까지 이어져왔던 철학자들의 실천적·현실지향적 문제의식은 일본의 서양철학연구의 영향을 받아 관념지향적·현실추수적인 연구경향으로 변모하게 되었다.<sup>4</sup>

하지만 일본의 직접적인 영향에 따른 현실추수적, 관념지향적 연구경향이 주를 이루었다고는 해도, 이 시기 남한철학계의 연구경향을 단순히 자생력을 갖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일본 학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1930년 후반기에도 철학의 학문적 역량을 끊임없이 키워오고 모색해왔던 연구가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

<sup>3</sup>위상복은 “헤겔이 소개되기 시작한 1930년대의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변증법, 내지는 변증법적 논리학을 헤겔철학 그 자체 속에 깃들여 있는 ‘혼’으로 이해하지는 않았으며, 일정하게는 단지 맑스철학에 이르기 위한 방편적인 다리에 지나지 않다는 선입감과 편견”이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1930년대 헤겔철학 수용과 연구경향을 특징짓고 있다(위상복 1998: 198). 하지만 이러한 위상복의 평가는 한편으론 타당하면서도 1930년대 헤겔 연구경향을 전부 포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후 김계숙과 안호상의 헤겔연구는 맑스주의적 맥락이 아니라 헤겔철학 자체의 독자적 의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맑스주의자인 신남철조차 단순한 ‘맑스철학에 이르기 위한 방편적 다리’가 아니라 헤겔의 철학적 사유가 지닌 중요성을 지속적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sup>4</sup>이것과 관련하여 근현대 남한철학계의 형성특징을 김재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남한에 있어서 근대학문의 성립과정은 (.....) 일본이라는 ‘제국주의의 기획 하에 은폐되어 있는 식민화언설’로서 일본에 의해 근대학문이 이식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김재현 2007: 186쪽)

들어 1930년대 초 『신흥』과 『철학』을 통해 시작되었던 헤겔철학의 아카데미즘적 연구는 1930년 후반기 한층 심화된 수준을 보여주는 연구성과들이 등장한다.

이들 연구의 핵심은 헤겔철학을 두고 이론과 실천의 연관성 및 통일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아카데미즘 내 연구자들에게현실은 20년이 넘게 지속된 암울한 식민지 상황이었으며, 따라서 이들에게 철학은 단순한 이론적 탐구가 아닌 식민지 현실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적 방향을 제공하는 학문으로 여겨졌다. 이때 헤겔철학은 맑스주의의 함께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철학이었다. 물론 헤겔철학 연구자 모두는 현실을 강조하는 ‘현실지향적 철학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현실파악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차이는 크게 이론과 실천의 통일에 있어서 이론철학에 보다 관심을 두고 있는 ‘로고스(logos)적 경향’과 현실변혁에 보다 관심을 두는 ‘파토스(pathos)적 경향’,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sup>5</sup>

이때 파토스적 경향에 속하는 이가 바로 신남철이다. 이미 1930년대 초부터 맑스주의적 입장에서 다수의 글들을 발표했던 신남철은 1937년 『신흥』 제9호를 통해 「인식과 신체, 그리고 역사」<sup>6</sup>를 발표한다. 이 논문에 주목해야만 하는 이유는 신남철은 바로 이 논문에서 헤겔 변증법에 대한 유물론적 독해, 즉 ‘신체의 변증법’을 공식화하고 있는데, 신체의 변증법은 식민지 현실에 맞서 주체적 실천을 모색하는 신남철 역사

---

<sup>5</sup>헤겔 철학, 더 나아가서 철학함의 원칙 및 목적과 관련해서 로고스적 경향과 파토스적 경향이 구분된다. 로고스적 경향은 진리의 영원성을 강조하고 이론철학에 관심을 두고 있는 데 반해, 파토스적 경향은 진리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현실변혁에 관심을 둔다(이병수 2006: 86).

<sup>6</sup>이 논문은 1948년 신남철이 저술한 『역사철학』에 다시 실리게 된다. 다만 『역사철학』에서는 기존의 제목 대신에 「역사철학의 기초론 -인식과 신체-」란 제목이 사용된다. 이하에서 이 논문을 인용할 때에는 「인식과 신체, 그리고 역사」란 제목은 그대로 유지하되, 쪽수의 표기에 있어서는 1948년 『역사철학』을 따르기로 한다.

철학의 이론적 기초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남철의 문제의식은 한마디로 맑스주의의 변증법적 인식론에 기초하여 피와 살을 지닌 인간의 역사적 실천의 논리를 재구성함으로써 식민지 현실에서 요구되는 해방적 실천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신남철은 인식의 인식론적 의미를 서술하면서 “논리적 타당성만을 인식 성립의 불가결의 요건”(신남철 1948: 5)으로 간주하는 태도를 비판한 후, 헤겔철학에 대한 레닌의 해석을 수용하여 인식론·변증법·논리학의 동일성을 주장한다.

이제 새로운 인식론을 정립하기 위해 신남철은 막스라파엘(Max Raphael)의 인식이론을 빌려와 인식의 과정을 수용(Aufnehmen), 가공(Verarbeiten), 표현(Entäußern)으로 설명한다(신남철 1948: 17). 예를 들면 인식의 과정은 감각적 대상의 모사로서 ‘수용’, 감각적으로 수용된 내용을 해석과 판단하는 것으로 ‘가공’, 오성적 가공에 따른 것을 다시 물질 속에서 신체화하는 것으로서 ‘표현’으로 전개된다. 그런데 신남철은 헤겔 『정신현상학』의 예를 들면서 ‘수용-가공-표현’이 결국 하나의 변증법적 발전과정임을 주장하며, 이렇게 물질적 대상의 운동과 발전에 대응해서 만들어내는 인식의 변증법적 발전과정을 ‘인식의 자기운동’으로 주장한다(신남철 1948: 14). 따라서 신남철의 말하는 ‘인식의 자기운동’은 육체의 감각적인 ‘모사’에서 시작하여 오성의 작용을 통해 그것을 가공하고 표현함으로써 신체적 인식에 이르는 변증법적 과정인 것이다.

그런데 신남철은 헤겔 『논리학』의 변증법적 원리를 활용하여 자기운동의 이중성을 이끌어낸다. 즉 신남철에 의하면 ‘인식의 자기운동’은 곧 ‘이중의 자기운동’인데, “첫 번째 자기운동은 존재(대상)인식의 주체적 과정이고, 두 번째 자기운동은 실천적 인식으로서의 객체적 역사적 실천인 것이다.”(신남철 1948: 16)그런데 신남철이 보기에 보다 근본적인 것은 ‘인식이 출발한 역사적 현실로의 귀향’하여 그것과 맞부딪치며 어떠한 행위를 실천하는 한다는 두 번째 자기운동이다. 따라서 신남철



은 인식은 이론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완성하는 것으로써 그 임무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제 신남철은 인식에 있어서 이중의 자기운동의 주체를 구분함으로써 자신만의 고유한 ‘신체의 변증법’을 정립한다. “인식의 변증법은 신체의 변증법이고 동시에 ‘역사의 변증법’으로 전화하게 된다.”(신남철 1948: 25) 즉 신남철의 논의에는 두 가지 변증법이 등장한다. 제 1의 변증법은 ‘수용-가공-표현’이라는 인식의 변증법이며 이는 곧 ‘신체의 변증법’이다. 신남철은 제1의 변증법이 발생하는 토대를 ‘신체적 계열’로 두고 이것을 학문적으로 ‘인식론’으로 규정한다. 또한 제2의 변증법은 제1의 변증법으로 도달한 신체의 인식을 신체적 실천으로 규정하면서 그것을 다시금 역사적 실천과 통일시키는 과정이다. 따라서 신남철에 의하면 제2의 변증법이 발생하는 토대는 ‘역사’이며 학문적으로는 ‘역사학’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제2의 변증법을 통해 ‘총체적인 인식상태’로 도달하게 되는 ‘역사적 실천’이 비로소 완성된다. 신남철은 이러한 변증법적 통일에 있어서 주체는 ‘진정한 주체’로서 가능하며, 인식은 ‘즉자대자적인(an und fürsich) 인식’로서 존재가능하다고 말한다(신남철 1948: 21-23).

이 논문의 궁극적인 문제의식은 논문의 마지막에 잘 나타나 있다. 신남철은 무엇보다 ‘근원적인 실천’을 강조한다. “근원적 실천은 역사적 계열에서의 모든 과정이 신체와 피부에 침투하여 절실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자기의 몸을 그 과정의 운행에 내던지는 파토스적 행위만이 참 의미의 실천으로 이해될 것이다.”(신남철 1948: 27). 신남철이 실천적 의미를 담보한 신체적 인식론을 이론적으로 정립한 이유는, 식민지 현실을 타개할 주체들의 실천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험난한 역사의 과정에 자신의 운명을 내던지는 파토스적 행위로서 이 근원적 실천은 신남철이 1945년 해방정국에서 발표한 「역사의 발전과 개인의 실천」의 중요한 주제가 된다.

#### 4. 신남철의 헤겔연구의 특징 : 전환기의 역사적 실천

신남철은 일제강점기 말기에 있었던 헤겔철학의 아카데미즘적 이해의 확장을 가장 중요한 장면을 보여준다. 신남철은 헤겔철학의 수용 이후부터 마지막까지 헤겔 변증법에 대한 유물론적 독해에 치중했다. 신남철은 인식의 출발점으로서 역사적 현실로의 귀향을 헤겔 『논리학』의 존재론에 나오는 ‘자기내귀향(Insichgehen)’으로 설명한다. 헤겔은 존재논리학에서 변증법적 형식을 ‘타자로의 이행’으로 정식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직접적인 존재개념의 발전인 동시에 존재가 자기관계인 본질로 귀환하는 형식이다. 여기서 헤겔은 이렇게 존재가 본질로 귀환하는 것을 ‘자기내귀향’으로 설명한다. 그런데 신남철은 존재의 본질로의 귀향에 있어서 ‘본질’을 ‘역사적 현실’로 설정하여 헤겔 변증법에 대한 독특한 유물론적 독해를 수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맑스주의의 역사적 흐름에서 헤겔철학의 유물론적 독해란 맑스의 『자본론』 서문과 레닌의 『철학노트』를 전범으로 삼아 헤겔철학의 관념론적 성격을 유물론적으로 전도하는 해석경향 일체를 가리킨다고 알려져 있지만, 신남철은 이러한 경향을 받아들이면서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역사현실에서 헤겔이 말하고자 한 진정한 의미를 살리는 방향으로 해석한다. 이는 헤겔의 ‘이성의 간지’와 세계사적 개인에 대한 그의 해석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신남철이 1946년에 발표한 「역사의 발전과 개인의 실천」<sup>7)</sup>에는 전환기 시기를 맞이하는 인민들의 역사적 실천에 대한 그의 강렬한 관심과 주장이 담겨 있다. 이 논문은 1948년에 신남철의 『역사철학』 제2장으로 재수록되는데, 이 책의 서문에서 신남철은 해방정국을 맞이한 철학

---

<sup>7)</sup>원래 이 논문은 신남철이 1945년 11월 <조선학술원> 발기인 대회에서 강연한 글이며, 그 후 <조선학술원>의 기관지인 『학술』을 통해 발표되었다. 이하의 글에서 이 논문을 인용할 때는 1948년 『역사철학』의 쪽수로 표기하겠다.

자는 시대의 현실을 단순하게 ‘정관(靜觀)’하거나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네인(批判)’하고 마케인(抗爭)하는 ‘호프로드모로스(先驅者)’”(신남철 1948: 3)가 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이와 같은 학문적 문제의식은 신남철로 하여금 해방 직후 당시의 정세에서 긴박하게 요구되었던 역사적 현실에 대한 실천적 참여로 나아가게 하며, 바로 이것이 이 논문의 주된 내용을 구성한다.

한마디로 이 논문의 핵심 내용은 무엇보다 헤겔 역사철학에 대한 비판적 독해를 통해 해방정국에 임하는 개개인의 역사적 실천의 성격과 방향을 논증하는 데 있다. 신남철은 역사철학의 의미에 대해서 헤겔의 그것처럼 ‘절대이념의 자유로운 자기발전의 체계’가 결코 아니며, ‘역사적 사회가 발전하는 근원적 원리의 의미를 당시의 인민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서술하는 것으로 설명한다(신남철 1948: 3). 즉 역사발전의 원동력은 헤겔의 절대이념과 같은 관념론적 성격의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에서 작용하는 인간의 실천이다.

이제 신남철은 구체적인 개인의 실천을 역사발전의 필연성과 연결시키기 위해 「역사의 발전과 개인의 실천」에서 헤겔의 ‘이성의 간지(List der Vernunft)’ 개념을 유물론적으로 재해석한다. 헤겔은 역사를 이성이라는 절대이념이 자신의 목적인 자유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보았는데, 이 목적 실현을 위한 방법을 ‘이성의 간지’라는 말로 표현했다. 역사의 발전으로서 자유의 점진적인 실현은 특수한 관심과 정열에 기초한 인간의 다양한 행위에 의해서 실현되지만, 결과적으로 역사는 인간의 행위의도와 무관하게 자립적인 운동을 전개한다. 즉 이성은 개별적인 인간의 행위에 방해받지 않고 인간의 관심과 열정을 자기 목적 실현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활용한다. 따라서 ‘이성의 간지’ 개념은 자유의 실현이라는 역사 발전과정에 있어서 목적론적 필연성의 원리를 의미한다.

그런데 신남철은 “헤겔은 개인의 개인으로서의 역할이 역사 발전에서 중요한 하나의 계기이지만, 그것은 끝까지 세계정신이 자기를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밖에 보지 않는 점, 또한 그러한 운명을 가진 것으로

만 본다.”(신남철 1948: 44)는 점에서, 헤겔 역사철학은 인간 개인의 주체적-의식적 실천과 활동을 도외시한다고 비판한다. 오히려 신남철은 헤겔의 ‘이성의 간지’ 개념을 ‘물질성’에 바탕한 개인 희생의 ‘엄숙성에 관한 논리’로 전환한다. 개별적 인간의 행위를 통한 자유의 실현은 헤겔의 설명처럼 단순한 수단이나 우연적인 성질의 것이 아니라, 세계사적 자유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런데 이것은 자유의 원리에 대한 철저한 자각을 동반하는 ‘비판하는 인간’의 엄숙한 희생을 통해서 마련된다. “지금 이곳에서 요구되는 개인은 그것을 비판하며 부정적으로 전화 통일시키는 과정에서 자기를 헌신하고 방기하는 개인이 아니면 안된다.”(신남철 1948: 49)<sup>8</sup>. 하지만 이때의 개인은 단순히 개별적인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신남철에 의하면 그 개인은 세계사적 개인으로서 영웅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이 요청하는 자기헌신의 열정적 자각을 소유한 ‘집단적 개인’인 것이다. 따라서 신남철은 “역사 발전의 진상은 헤겔에게서처럼 신적 자유의 자기 실현이 아니라, 이러한 비판을 하는 개인의 집단 부대의 노동 실천”(신남철 1948: 49)임, 그리고 바로 이것이 “역사의 유물변증법적 발전”(신남철 1948: 50)이 의미하는 것임을 역설한다.

신남철의 핵심적인 의도는 헤겔의 역사철학을 실마리로 하여 전환기의 실천논리를 이끌어 내려고 한다는 점이다. 헤겔의 역사철학에 등장하는 ‘세계사적 개인’과 ‘이성의 간지’에 의한 희생의 논리는 특히 역사적 전환기에 처한 당대의 현실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기서 신남철은 이러한 헤겔의 역사철학으로부터 전환기에 처한 개인의 실천을 위해 두 가지 실천논리를 이끌어 낸다.

---

<sup>8</sup>이 규성은 신남철이 강조하는 역사적 전환기에서 개인의 희생적 실천에 대한 자각을 ‘비극적 변증법’으로 규정한다. “신남철의 비극적 변증법을 이끌어가는 ‘하나이자 모든 것’이라는 생의 통일성은 그에게 자기를 제물로 바침으로써 ‘민족공동체’와 인류의 도덕적 자존심을 회복하게 하는 이념이었다.”(이규성 2012: 667-668)

첫째, 개인의 행복과 불행은 역사 발전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성의 간지’에서 신남철이 주목하는 것은 개인이 자기 행위의 역사적 의미를 자각하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영욕이나 성공 여부에 상관없이 오히려 개인적 행복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진행되어가는 역사의 냉혹함과 엄숙성에 있다. 삶의 안락함과 자기실현을 위한 개인의 욕망과 정열은 역사에서는 냉혹하게 무시되지만 현실의 모든 인간에게 숙명처럼 달라붙어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운명적 비극성’이 있다. 당대의 역사적 과제를 위해 실천하려는 개개인은 이러한 역사적 엄숙성을 자각하여 자기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 개인의 자기희생적 실천은 당대의 역사적 과제를 철저히 자각한 바탕위에서 조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신남철은 ‘세계사적 개인’에 부여된 역할을 ‘자기헌신의 정열적 자각을 지닌 집단적 개인’의 역할로 바꾸어 놓고 있다. 다시 말해 개인의 실천은 고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당’을 매개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개인은 아집과 어두운 정열에서 벗어나 ‘무명의 혁명가라는 위대한 의식’ 아래 역사적 실천을 다하게 된다. 이러한 혁명적 의식은 달리 말해 역사적 전환기에 있어서 자기의 희생을 각오하는 일종의 새로운 정신의 탄생인 것이다.

1930-40년대 일제강점기와 해방공간에서 해방철학 연구는 무엇보다 식민지 시기의 민족적 억압에 대한 해방의 원리라는 실천적 과제를 가진다. 일제강점기는 일제 식민지라는 시대의 모순에 대한 극복이 주된 시대정신으로 떠오른 시기였다. 그러한 요구 속에서 맑스주의는 급속하게 수용되었다. 비슷한 시기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맑스주의는 우리에게 민족해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사상적 무기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상적 정황은 해방정국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해방정국은 일제강점기의 잔재들을 청산하고 민족해방의 구체적인 형태로서 새로운 독립국가건설이라는 요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시대를 살았던 철학자들은 바로 이러한 시대정신 속에서 철학함의

의미와 실천적 역할에 대해 고민했다. 헤겔철학은 그러한 시대적 맥락과 더불어 맑스주의와의 연관선상에서 끊임없이 수용되고 연구되었다. 요컨대 일제강점기와 해방정국 당시 철학연구에서 특징적인 것은, 식민지 현실에 저항하고 새로운 독립국가를 건설하려는 첨예한 학문적 문제의식을 동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헤겔철학은 주로 맑스주의의 이론적 전사(前史)로서 연구되었다. 특히 이 시기는 민족해방의 핵심 방법으로 부각된 변증법에 대한 관심이 주도적이었다. 그리고 헤겔철학은 맑스주의적 변증법의 이론적 뿌리로서 끊임없이 연구되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와 해방 공간의 헤겔철학 연구는 ‘시대모순’에 대한 투쟁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변증법’의 탐색이라고 할 수 있다. 신남철은 그 과정을 함께하고 첨예하게 수행했던 철학자였다.

## 참고문헌

김재현(2007), 「남한에서 근대적 학문으로서 철학의 형성과 그 특징-경성제국대학 철학과를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제18권 3호, 남한철학사상연구회.

봉기(2009), 「신남철의 철학사상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박사학위 논문.

신남철(1931), 「헤겔백년제와 헤겔 부흥」, 『신흥』 제5호.

신남철(1948), 『역사철학』, 서울출판사.

위상복(1998), 「남한에 있어서 헤겔철학의 연구 및 수용과 그 반성: 그의 『논리학』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제68권, 대한철학회.

안용백(1931), 「헤겔 현상학중의 개체의식과 사회의식의 범형」, 『신흥』 제4호.

이규성(2012), 『남한현대철학사론』,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이병수(2006), 「1930년대 서양철학 수용에 나타난 철학 1세대의 철

학함의 특징과 이론적 영향」, 『시대와 철학』 제17권 2호, 남한철학사상연구회.

조희영(1972), 「남한과 일본에 있어서의 서양철학의 수용형태에 관한 비교연구」, 『용봉논총』 제7집, 전남대학교.

진오(1930), 「사유재산권의 기초 -헤겔 ‘法理學’에 나타난-」, 『신흥』 제4호.





# 전후 1950년대 남북여성의 의복문화: “현모양처”와 “조선녀성”의 차이와 공통성

도지인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 1. 서론

본 연구의 1950년 전후 남북 여성들의 의복문화를 중심으로 남북의 공통성과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sup>1</sup> 남북은 전후 복구/재건의 과정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체제확립과 경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된다. 이러한 체제 경쟁과 각 체제의 공고화의 정치 경제의 제도적 측면은 기존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 경쟁과 공고화가 사람의 삶과 일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그 삶에 대한 변화가 성별, 연령별, 세대별, 부문별로 어떤 양상을 보였는지, 아울러 남북 주민들의 경험이 서로 어떻게 비교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하다.

이 논문은 여성의 의복 문화로 나타나는 당국의 여성담론과 생활문화를 바탕으로 각 체제가 근대성과 전통의 관계를 어떻게 재구성하고 정의하였는지 분석한다. 특히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조선옷” 또는 “한복” 착용에 대한 담론을 중심으로 하여 여성의 의복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연속성이다. 남북의 여성들은 모두 전후 1950년대를 겪으면서 의복문화에 변화를 경험하게 되지만, 남북에서 체제 확립기에서 공통적으로 유지된 가부장제 국가주의의 영향으로 근대화 과정에서도 남북 여성은 전통적 가치의 구현자로 남아있어야 했다.

이러한 점에서 북의 “조선녀성”과 남의 “현모양처”는 다른 옷을 입고 있어도

---

<sup>1</sup>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민족공통성과 통일의 길』, 경진출판, 2015; 김성민·박영균, 「인문학적 통일담론과 통일인문학: 통일패러다임에 관한 시론적 모색」, 『철학연구』 제 92집, 철학연구회, 2011; 이병수, 「민족 공통성 개념에 대한 고찰」, 『시대와철학』, 제22권 3호 (2011), 남한철학사상연구회.

비슷한 역할을 하도록 요구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각 체제에서는 해방 이후 여성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대와 경제개발로 여성의 삶이 전근대적 속박과 차별로부터 점차 “해방”되었다. 그러나 전후 복구/재건기 1950년대 남북의 여성은 양 체제에서 모두 가부장적 국가의 규율의 대상이자 객체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향후 남북 여성이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연대하여 바람직한 통일문화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을지 모색하고자 한다.

## 2. “조선녀성”과 조선옷

1946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성립 이후 “북조선” 그리고 “북조선 녀성”이라는 두 정체성이 위로부터 창조되기 시작했다. “조선녀성”은 1946년부터 새롭게 탄생한 존재로, 그 정체성, 가치, 역할은 반제국주의, 반수정주의, 그리고 주체의 담론 안에서 규정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1946년부터 여성담론의 이론적 사상적 기반이 남과는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유교 가부장적 개발주의 분단국가의 규율은 남북을 아우르는 공통점이다. 본 연구는 이 차이와 공통성이 의복문화로 어떻게 확인되는지 분석한다.

1946년 “남녀 평등권 법령”은 여성에 대한 봉건주의적 억압과 차별을 철폐하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북조선 여성 해방의 출발점이자 상징이 되었다. “녀성 해방”의 역사는 일제 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936년 5월 5일 조국광복회 10대 강령의 일곱 번째 조항에는 “량반, 상민 기타 불평등을 배제하고 남녀, 민족, 종교등 차별 없는 인륜적 평등과 부녀의 사회상 대우를 제고하고 여자의 인격을 존중히 할것”을 명시하였다. 이를 계승하여 여성조직으로는 1945년 11월 18일 박정애를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민주녀성동맹이 창립되었다. 이듬해 1946년 7월 30일에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결정 제45호에 따라 총9개 조의 ‘북조선의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공포했다. 제1조는 “국가 경제 문화 사회 정치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녀성들은 남자와 같은 평등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북은 “일본식민지정책의 잔재를 숙청하고 낡은 봉건적 남녀간의 관계를 개혁하고 녀성으로 하여금 문화적, 사회 정치적 생활에 전면적으로 참여시킬 목적”이라고 하며 남녀평등권법령의 목적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이어서 북조선민주녀성동

맹은 1946년 9월 6일 기관지 월간잡지 《조선녀성》을 창간하였고, 10월16일에는 국제 민주여성연맹에 가입하였다. 1946년 5월 1차 대표자회 당시 북조선민주녀성동맹은 12개, 89군, 616면에 총 800,000회원이 있었다. 1946년말 북의 여성인구는 6,000,000이었는데 여맹의 회원수는 1,030,000으로 이는 여성인구의 20퍼센트에 달하는 규모였다.<sup>2</sup>

그런데 해방된 “녀성”들에게 “조선옷”을 입힌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해방된 “조선녀성”에게 전근대 시대의 의복인 “조선옷”을 강조한 것은 탈식민주의라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해할 만 하지만, 기본적인 모순이 있어 보인다. 봉건주의의 굴레와 구시대의 악습에서 여성을 해방시키고자 하면서도, 그러한 전근대 시대의 유산으로 차별 받고 고통 받았던 여성들이 착용했던 옷을 계속 입으라고 하는 것은 모순적인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 북은 혁명적 어머니, 혁신적 노동자라는 정체성을 아이러니하게도 매우 봉건적이고 전통적 가치의 구현 속에서 제시하고 유교/가부장적인 용어와 인식의 틀 안에서 여성들에게 혁명적 과업을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조선여성”은 우리의 옛 어머니들처럼, 온전히 자신을 희생하여 국가와 가족에게 봉사하는 신민이 되어야 했다. 사회주의 개조와 혁명이 목표로 제시되었으나, 그것을 행하는 주체는 여전히 전통적인 “조선”의 여성상을 간직하여야 했다. 다시 말해서 북의 “조선녀성”은 혁명적 어머니, 혁신적 노동자로서 유순하고 순종적이면서 희생정신을 갖춘 여성인 것이다.<sup>3</sup> 반제국주의와 국가주의 담론으로 안에서 정의된 “녀성 해방”은 남성의 정의로 규정되는 “여성성”을 고착시켰다.

중국에서는 공산당 당국이 여성들에게 전통 의상인 “치파오(qipao)”를 입지 못하게 한 점이나 1950년대에는 소련식 의상 “불라지(bulaji)”를 장려한 것과 비교하더라도, 또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조선과 중국의 입장이 달랐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북에서 유독 여성의 의복에 대해서 만큼은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보다는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혁명적 어머니, 혁신적 노동자의 정체성

<sup>2</sup> Suzy Kim, “Revolutionary Mothers: Women in the North Korean Revolution, 1945–1950,”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Vol. 52, No. 4, 2010, p. 750.

<sup>3</sup> 박영자, 『조선 여자: 탄생과 굴절의 70년사』, 엘피, 2017, 228쪽.

을 위로부터 부여하고 강제하려고 했다는 점은 매우 특이하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것은 중국혁명의 과정에서와 다르게 북에서는 어떤 법률이나 정치적 캠페인도 전통 또는 유교 그 자체를 비방한 적이 없다는 것과 연관 지어서 생각해볼 문제이다.<sup>4</sup> 수지김(2010)의 지적대로, 탈식민사회에서는 전통적 젠더 역할이 민족 정체성 회복과 정립에 활용되었기 때문에, 탈식민화된 북에서도 과거 전통과 혁명의 현재 사이의 관계는 모호했다. 북에서 사회주의 개조는 “봉건”과 “식민 잔재”를 겨냥한 것이지 전통의 모든 것을 거부한 것이 아니었다. 남녀 평등권 법령에서도 축첩이나 조혼같은 봉건적 또는 식민지 시대의 관습을 불법화시킨 것이지, 유교 전통 그 자체를 사회악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었다.

1955년 12월 28일 발표된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는 주체를 처음 제기한 연설로 알려져 있다. 이 연설에서 “쏘련혁명”도 “중국혁명”도 아닌 “조선혁명”의 특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예문에 “조선녀성”의 의복이 등장한다.

쏘련의 경험을 배우는데 형식만 따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쁘라우다》지에서 《우리 조국의 하루》라고 제목을 달면 우리 《로동신문》도 《우리 조국의 하루》라고 제목을 답니다. 그런것까지 따를 필요야 어디 있습니까. 의복입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조선녀성들에게는 아주 훌륭한 조선의복이 있는데** 무엇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어울리지 않는 복장을 하고 다녀야 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녀맹일군들에게 **우리 녀성들은 될수 있는대로 조선의복을 입도록하자고 말하였습니다**(강조는 저자).<sup>5</sup>

“주체”가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된 시점이 비록 1955년 12월이더라도, 모든 사업을 “조선식”으로 해야한다는 정신은 이미 정권 수립기부터 존재했다. 주목되는 것은 “조선식”에 대한 강조를 “녀성”의 옷에 대해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들의 의생활에 대한 관심과 정책방향을 밝힌 것은 「북조선민주녀성동맹 제1차 대표자회에 참가한 공산당원인 녀맹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sup>4</sup> Suzy Kim, 앞의 논문, p. 745.

<sup>5</sup>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9』,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478쪽.

“일제식민지통치에서 해방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가 나아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조선식으로 건국사업을 해나가야 합니다. 조선 사람에게는 미국옷도 맞지 않고 소련옷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맞지도 않는 다른 나라의 옷을 입을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맞는 조선식 옷을 만들어 입어야 합니다. 려선생도 알고있는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장기간 일제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해방이 되었지만 사회의 모든 분야에 악독한 일제잔재와 봉건잔재가 그대로 뿌리깊이 남아있습니다. 일제잔재와 봉건잔재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나라의 완전독립도 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도 이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단계에서의 조선혁명의 성격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강조는 저자).”<sup>6</sup>

여성이 조선옷을 착용한다는 것은 반제국주의 및 사회주의의 의미를 가지면서 북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반제국주의와는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일제 강점기 때 소수 상류층 여성들이 착용했던 양장과 같은 것은 반제국주의 정서로 인해서 용인될 수 없었다. 왜색왜풍 복식을 청산하고 근로인민대중의 노동과 난천적 생활에 어울리며 당시의 사회적 요구와 민족적 전통에 맞는 옷차림은 조선옷으로 귀결되었다.<sup>7</sup> 탈식민의 조건에서 “조선옷”이라는 전통은 봉건적인 구습이 아니라 민족적 순결성의 가장 근원적인 보고(reservoir)였다.<sup>8</sup> 아래의 《조선 여성》의 글 〈조선옷의 아름다운 전통을 살리자〉는 모델로서의 “조선 여성”의 가치 이미지를 제시한다.

옛날부터 우리 조선 여성들은 손재주도 좋거니와 정서적인 감정이 풍부하여 아름다운 자기의 마음을 담아 수놓기와 바느질하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의 옷 뿐만 아니라 부모나 남편 자녀들의 옷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어울리도록 만들 것인가에 애썼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 옷의 치수만을 외워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의 옷 치수까지 다 외워가지고 있었으며 옷의 치수만 아니라 그 치수의 기본에 의하면서 각 개인의 몸의 특성을 주의 깊게 고려하여 옷 만들이를 하였습니다. 우리 조선 옷은 옷선에서나 색깔의 기본 체제를 잘 구성한 우수한 전통이 있을뿐만 아니라 옷

<sup>6</sup> 김일성, 「북조선민주여성동맹 제1차대표자회에 참가한 공산당원인 녀맹일군을 앞에서 한 연설」, 『김일성 저작집 2』,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25쪽; 신돌숙, 「조선여성의 의복변화연구」, 인제대학교 통일학박사논문, 2016년 6월, 20-25쪽.

<sup>7</sup> 신돌숙, 위의 책, 42쪽

<sup>8</sup> Suk-Young Kim, “Dressed to Kill: Women’s Fashion and Body Politics in North Korean Visual Media (1960s-1970s),” *East Asia Cultures Critique*, Vol. 19, No. 1 (2011), pp. 169.

차림을 단정하고 아름답게 하는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전통을 살릴 대신에 그것을 파괴하는 옷 차림을 볼 수 있습니다. 꼬리치마와 저고리 위에 실로튼 겹저고리를 걸치고 다니는 것은 아주 보기 거북합니다. 또한 치마 밑으로 내복 바지가 나오게 입는 것 특히 짧은 치마에 내복 바지를 양말 겹해 입는 것은 보기 흉합니다.<sup>9</sup>

식민지 시대 여성들이 양장을 대대적으로 착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조선옷 착용에는 특별한 캠페인이나 교육이 필요도 없었다. 따라서 1950년대 전후복구기 남성은 노동복인 카키색의 인민복을, 여성은 검정치마, 흰저고리의 무명 한복을 착용하였다. 탈식민화의 조건에서 전개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정책이 달랐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김숙영(2011)이 지적한 대로, 북의 여성성은 두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한편으로는 군복을 입은 여성을 영웅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가정적 여성성의 이상을 높이 사는 것이다. 전통적 유교 가치를 그대로 유지한 북의 남성 지배자들 사이에서 여성성은 “국가, 또는 더 구체적으로 남성 국가 지도자”들이 “수여한 선물”이었다.<sup>10</sup>

따라서 “조선녀성”의 “조선옷” 착용에 대한 장려는 탈식민화, 반제국주의, 민족의 회복이라기 보다는 여성에 대한 남성우월적이고 유교가부장적인 전통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이제 사회주의적 개조와 함께 혁명적어머니에서 혁신적노동자까지 되어야 했던 여성들에게 사회주의적 규율을 내면화시키기 위해서는 전통과의 단절을 필요로 했으나, 동시에 이 여성들은 충성심, 희생, 남성에 대한 종속성, 수동성과 전통적 유교적 가치와 분리되어서는 안되었다. 이것은 생활습관에서의 비근대성, 예를 들어서 문맹률 퇴치라던가 조혼 금지와는 구별해서 생각할 문제이다. 문맹퇴치와 같은 변화도 전근대적 관습을 타파하는 동시에 권력의 규율을 내면화 시키는 가장 기초적인 대중사업이었다. 해방 직후 북반부에는 230여만명의 문맹자가 있었는데 이중 65퍼센트가 여성이었다.<sup>11</sup>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사고하고 행동하고 소비하는 여성상이 논의 된 것은 아니었다. 여성들은 ‘사치하고 한담’을 한다거나 ‘미신을 믿고 낭비’하는 존재로 여겨져 남성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사회주의적 규율을 더 필요로 하는 존재로 여겨졌다.

<sup>9</sup> 김무삼, <조선옷의 아름다운 전통을 살리자>, 《조선녀성》, 1960. 12. 20., 39쪽.

<sup>10</sup> Suk-Young Kim, *op.cit.*, p. 161.

<sup>11</sup> 박영자, 앞의 책, 157쪽.

절약을 위한 투쟁에서 오늘 우리 여성들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 식당, 상점, 경공업 부문 등 우리 여성들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이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일부 여성들 중에는 절약에 대한 관심이 적으며 되는 대로 살며 가정을 아담하고 실속 있게 꾸리지 않고 시치하고 불필요한 부문에 수입을 망탕 지출하여 낭비하는 현상이 적지 않습니다....**녀맹 단체들은 **여성들 속에서 나타나는 개인 리기주의의 본질과 해독성을 철저히 해석 침투시키며 개인 리기주의의 온갖 표현들을 반대하여 원칙적인 사상 투쟁을 조직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여성들 속에서 반동적 부르주아 사상의 침습을 반대하며 낡은 사상의 표현인 락후하고 낡은 습관과 관습을 극복하기 위한 사상 투쟁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여성들 속에서 과학적 무신론 선전과 반종교 선전을 강화하며 낡은 봉건적 자본주의적 생활 유습을 청산하기 위한 사업을 인내성 있게 조직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강조는 저자).<sup>12</sup>

1946년 9월 6일 《조선여성》 창간호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 되었다.

우리가 내는 여성잡지는 무엇보다도 장군님 사상으로 모든 여성들을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을 새 조선 건설에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상적 무기로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녀맹기관지를 내려고 하는 기본 목적입니다.....이와 함께 우리는 잡지를 통하여 여성들을 문화적으로 계몽시키고 교양하는 문제도 해결하여야합니다. **정치사상의식수준에서 뿐만아니라 문화수준에서도 상대적으로 뒤떨어져있는것이 오늘 우리 나라 여성들의 실정**이니만큼 이 잡지가 여성들을 위한 문화 교양의 수단으로 되어야 합니다 (강조는 저자).<sup>13</sup>

이제 여성은 계획경제의 초과달성을 위한 노동동원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사회주의 노동자, 또 군대, 직장, 학교, 당의 집단 활동에서 충성스러운 신민들을 출산하고 교육하고 지원하는 어머니, 아내가 되어야 했다.

전통적 악습과 결별했으면서도 전통적 가치를 고수하는 여성의 가장 극명한 징표와 상징이 무엇인가? 바로 조선옷이었다. 해방되었으나 “조선 여성”으로 남아 있어야 했던 복의 여성은 다음과 같은 정신으로 조선옷을 입을 것이 장려되었다.

그러나 일부 여성들은 생활에서 검박하지 못하며 언어와 행동, 옷차림에서 단

<sup>12</sup> 김옥순, 앞의 책, 9-12쪽.

<sup>13</sup> 허정숙, 앞의 책, 103쪽.

정하지 못하며 극히 부분적 사실이기는 하나 **부패하고 타락적인 서구라과 양키문화에서 오는 퇴폐적인 생활 풍습을 모방**하려는데서 보기에다 흉하고 천한 모양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찬란한 민족문화 유산을 계승하고 있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특히 천리마 시대의 녀성들의 기상에 합당하지 않은 수치스러운 일들입니다. 녀맹 단체들은 이와 같은 현상들과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며 녀성들 속에서 고상하고 건전한 공산주의적 도덕 품성과 생활풍습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선조들로부터 물려 받은 미풍량속을 더욱 발전시켜** 언어와 행동,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윗 사람을 존경하며 서로 돕고 협력하는 미풍을 더욱 발양시켜야 하겠습니다. 특히 녀성들 속에서 정서 교양 사업을 강화하며 알뜰하고 섬세한 우리 나라 녀성들의 풍부한 감정과 고유한 품성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sup>14</sup>

### 3. 양장을 입는 “현모양처”

해방 이후 남한에서도 여성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교육의 기회는 점차 확대되었다. 1946년 9월 16일에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여성관련 행정부서인 ‘부녀국’이 설치되었다. 1949년 교육법에 의해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았다. 아울러 교육의 내용에서도 국가는 일제시기 수신교육에서 강조했던 순종, 정절 등의 덕목을 지양하고 근대적이고 평등한 교육을 실행하여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하고자 했다.<sup>15</sup>

그러나 해방 후 남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근대화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가부장적 질서를 기초로 민족국가를 건설하고자 한 제1공화국과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전파자로서의 정치적 문화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고자 했던 미국의 영향이 공존했기 때문이다.<sup>16</sup> 특히 일본제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문화적 주체를 강조한 북과 다르게 남한은 미국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입하였다는 점에서 남한여성의 근대적 경험은 “조선녀성”과 차이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가부장적 개발국가의 여성담론에서 이상형으로 제시된 “현모양처”는 “조선녀성”과 유사하기도 하

<sup>14</sup> 김옥순, 앞의 책, 15쪽.

<sup>15</sup> 김은경, 「1950년대 여학교 교육을 통해 본 ‘현모양처’론의 특징」, 『남한가정과교육학회지』, 제 19권 4호, 남한가정과교육학회, 2007, 137-151쪽.

<sup>16</sup> 김윤경, 「1950년대 미국문화의 유입과 여성의 근대경험: 최정희의 『끝없는 낭만』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제 34호, 남한비평문학회, 2009, 51쪽.



다.

해방 후의 여성에게 강조된 “현모양처”는 일제시대와 같은 예속 규범이 아니라 형식적 평등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근대적’ 성별 분업에 따른 것이었다.<sup>17</sup> 그렇다면 “현모양처”는 어떤 정신과 태도를 가진 여성인가? 남한의 공식적 담론에서 강조한 여성상은 “서양의 물질문명에 현혹되지 않고, 민족 공의 정신문명을 계승한 정숙한 여성”이었다.<sup>18</sup> 당시의 대표적 여성잡지 『여원』을 보면 당시 외래풍조에 젖어 있는 여성들에 관한 기사가 자주 거론되었고 계몽의 모델로 “현모양처”이념이 제시되었다.<sup>19</sup> 이는 문화적 서구화에 대한 강한 경계심과 맞물려 있었다. 한복의 착용이 여전히 대중적으로는 일반적이었지만, 양장점이 등장했고, 처음으로 서구식 패션쇼(1956)가 열렸으며 미스코리아 대회(1957)가 개최되었던 시기다.<sup>20</sup> 1955년 무렵 서울 명동에 양장점은 ‘한양장점’과 ‘국제양장사’ 두군데만 있었고, 이후 송옥, 국제, 노라노(노명자), 아리사(서수연), 엘리제, 마드모아젤, 노블, 보그 등이 등장하였다.<sup>21</sup> 옷을 만드는 직업을 디자이너라고 부르기 시작한 때도 해당 시기인 1950년대 중반부터이다.<sup>22</sup>

그렇다면 문화적 서구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남한에서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제시된 “현모양처”는 어떤 옷을 입어야 했는가? 표면적으로는 북에서 전후 복구기 진행되고 있었던 “조선녀성”의 “조선옷”착용에 대한 강조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한복은 비실용적이고 육체의 굴곡을 무시하며, 건강상 해롭고, 교양 없는 자세를 유발하는 의복으로 여겨졌다.<sup>23</sup> 당시 젊은 층은 양장을 많이 입었지만, 여전히 다수의 사람들은 한복을 일상복으로 입었다.<sup>24</sup> 양장의 실제 소비는 소수층에 제한되어 있었다. 주 고객은 ‘양공주’를 선두로 시작하여, 유명 배우나 가수 같은

---

<sup>17</sup> 김은경, 앞의 논문, 139쪽.

<sup>18</sup> 김윤경, 앞의 논문, 51쪽.

<sup>19</sup> 김현주, 「1950년대 여성잡지 여원과 '제도로서의 주부'탄생」김현주 『대중서사연구』 제13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07, 394쪽.

<sup>20</sup> 김수진, 「여성의복의 변천을 통해 본 전통과 근대의 젠더정치」, 『페미니즘연구』, 제7권 2호, 남한여성연구소, 2007, 281-320쪽.

<sup>21</sup> 김수진, 위의 논문, 303쪽.

<sup>22</sup> 김미선, 『명동아가씨: 근현대 여성의 공간의 탄생』, 마음산책, 2012, 119쪽.

<sup>23</sup> 김현주, 앞의 논문, 394쪽.

<sup>24</sup> 김은경, 「1950년대 신생활운동 연구-가정개량론과 소비통제를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제11권, 남한여성사학회, 2009, 215쪽.

연예인, 그리고 고위층 부인들이었다.<sup>25</sup>

그러나 한복으로부터 점차 양장이 수용되고 있더라도, 서구적 풍조가 확산되는 것은 반전통, 사치, 성적 자유와 같은 부정적인 상징과 결부되었다. 따라서 문화적 서구화를 무분별하게 절대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극도로 경계되었다. 주목할만한 문제는, 서구화에 대한 비판 여론이 대상은 늘 “양장을 한 여성”이었다.<sup>26</sup> 당시 여성의 양장보다 남성의 양복이 훨씬 고급이고 가격이 비쌌는데도, 서구화의 비판의 대상은 여성으로 고정되어있었다는 것은, 여성에 대한 의복 담론이 의복 자체에 대한 규율을 넘어서 젠더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북과 마찬가지로 남한에서도 여성의 소비는 사치로 보는 시각이 존재했다. 1950년대 여성의 소비는 남북통일의 과업과 외국경제원조의 현실을 망각한 사치와 허영으로 규정되었다.<sup>27</sup> 문제는 여성들 자신 조차도 이러한 남성중심적 가부장적 시각에서 스스로의 소비를 부정적으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1959년 4월 5일 경향신문에 이룡자라는 여성화가가 쓴 글에서 이러한 사실을 읽을 수 있다: “남한은 1945년에 해방되었지만 해외 원조를 받고 있는 처지이며, 남북통일이라는 커다란 과업이 놓여 있다....이 판국에 귀걸이 목걸이가 다 무슨 소용인가...이와 같은 어리석은 허영의 대가가 자기 자신을 망치고 모든 남성들을 현혹시켜 최악의 씨를 뿌리고 있다..남한 여성들이여! 외국의 침해를 만지 말고 자립합시다. 남자의 노리개감이 되지 맙시다. 우리들은 진실한 남한의 어머니가 됩시다.”<sup>28</sup> 여성의 소비를 사치와 직결시키는 논리 자체는 일제시대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그 자체는 새롭지 않다. 문제는 여성들 자신도 남성중심적 시각에서 스스로를 사유했다는 점이다.

#### 4. 결론

---

<sup>25</sup> 김수진, 앞의 논문, 281-320쪽.

<sup>26</sup> 김은경, 위의 논문, 217쪽.

<sup>27</sup> 김미선, 앞의 책, 119쪽.

<sup>28</sup> 이룡자, <거리에서의 느낌>, 《경향신문》, 1959. 4. 5., 김미선, 앞의 책, 119쪽 재인용.

2차 대전 이후 국가 건설의 이념이 무엇이 되었던 (서구)패션에 대한 각 나라의 반응과 그 결과는 복잡적이고 양면적이었다. 북에서 현실적으로 양장과 같은 옷이 여성들에게 보급되고 있었지만 공식담론으로는 조선옷 착용이 장려되었다. 남한에서는 양장이 점차 늘어났지만 그 서구적 상징성은 경계되었다. 중국에서는 전통여성의상 치파오 보다는 인민복 및 소련식 블라지(bulaji)가 장려되었다.<sup>29</sup> 1950년대 중반 탈스탈린화의 배경속에서 소련과 동유럽에서 문화적 자유화의 흐름이 나타자나 서구 패션에 대한 여성의 동경과 욕망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체제수립 당시에는 퇴폐 자본주의와 직결되었던 서구 패션이 아주 제한적이나마 수용되기 시작했다. 동독에서 1955년 창간한 Sibylle이라는 잡지는 런던, 뉴욕, 비에나, 파리의 패션 트렌드를 소개했다. 폴란드에서도 미국 패션잡지 보그(Vogue)에 실린 사진들을 소개하였다.<sup>30</sup>

그러나 북에서는 “조선식”을 강조했고, 특히 여성의 옷—더 확장해서 여성의 신체—에 대해서 장려되었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갖는다. 이것은 북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그만큼 반제국주의, 탈식민주의에 충실하고자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녀성해방” 담론에서 가부장성이 그대로 유지된 것 역시 간과할 수 없는 특성이다. 해방된 “조선녀성”은 “조선”의 “녀성”으로써만 의미와 역할을 가질 수 있었다. 이것은 남한의 “현모양처”도 마찬가지다. 여성이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현모양처”가 되어야 했다. “현모양처”는 과거와 같이 정조와 정숙을 강요당하지는 않았지만 가부장제 국가주의로 인해서 순종적이고 보조적이며 절약하는 충실한 국민으로 역할을 해야 했다. “현모양처”는 자유롭게 새로운 문화적 트렌드를 경험하고 소비하기 보다는 노동의 효율을 위해서 한복을 벗피 서구적 풍조를 경계하고 전통을 지키는 존재로 남아야 했다.

민족화합의 과정은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차별 받았던 여성들의 권리와 역할이 공평하게 평가 받는 변화를 반드시 수반하여야 한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남북 여성들이 이러한 변화를 남성중심적 정치제도가 이루어주기를 기대하기 보

<sup>29</sup> Juanjuan Wu, *Changing Clothes in China*, Berg, 2009, pp. 206-227.

<sup>30</sup> D. Bartlett, *Fashioneast: The Specter That Haunted Socialism*, MIT University Press, 2010, p. 142.

다는 스스로 인식을 바꾸고 기회와 권리를 확대해나가는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인권에 대한 의식은 보편적으로 모두가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남북여성들의 협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조선녀성”과 “현모양처”의 생활양식과 존재가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스스로 교육과 노동, 육아와 가사의 현장에서 이를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공동의 노력으로 통일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끝//

[국문참고]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민족공동성과 통일의 길』, 경진출판, 2015,

김무삼, 〈조선옷의 아름다운 전통을 살리자〉, 《조선녀성》, 1960. 7. 20., 39쪽.

김미선, 『명동아가씨: 근현대 여성의 공간의 탄생』, 마음산책, 2012.

김성민·박영균, 「인문학적 통일담론과 통일인문학: 통일패러다임에 관한 시론적 모색」, 『철학연구』 제 92집, 철학연구회, 2011.

김수진, 「여성의복의 변천을 통해 본 전통과 근대의 젠더정치」, 『페미니즘연구』, 제7권 2호, 남한여성연구소, 2007.

김옥순, 〈너맹 단체들의 사업 체계를 확립하며 사업 방법을 개선할 데 대하여〉, 《조선녀성》, 1960. 7. 20., 9쪽.

김윤경, 「1950년대 미국문화의 유입과 여성의 근대경험: 최정희의 『끝없는 낭만』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제34호, 남한비평문학회, 2009, 51.

김은경, 「1950년대 여학교 교육을 통해 본 ‘현모양처’론의 특징」, 『남한가정과교육학회지』 제 19권 4호, 남한가정과교육학회, 2007.

\_\_\_\_\_, 「1950년대 신생활운동 연구-가정개량론과 소비통제를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제11권, 남한여성사학회, 2009.

김일성, 「북조선민주녀성동맹 제1차대표자회에 참가한 공산당원인 녀맹일군을 앞에서 한 연설」, 『김일성 저작집 2』,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25쪽.

\_\_\_\_\_.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9』,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0, 478쪽.

김현주, 「1950년대 여성잡지 여원과 ‘제도로서의 주부’탄생」, 『대중서사연구』, 제13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07.

리영순, 〈조선 녀성들의 영광스러운 애국전통과 혁명적 절개〉, 《노동신문》, 1960. 2. 28, 3쪽.

박영자, 『조선 녀자: 탄생과 굴절의 70년사』, 엘피, 2017.

박순성·선동명, 「1950-60년대 조선의 사회주의공간 정책화 생활체계」, 『현대조선연구』, 제9권 1호, 조선대학원대학교, 2006.

신둘숙, 「조선여성의 의복변화연구」, 인제대학교 통일학박사논문, 2016년 6월.

이병수, 「민족 공통성 개념에 대한 고찰」, 『시대와철학』, 제22권 3호, 남한철학사상연구회, 2011.

이세영, 「1950년대 조선 노동자층의 형성과 의식변화」, 『남한사연구』, 제163호, 남한사연구회, 2013.

허정숙, 『조선 녀성 운동의 지도자를 모시고』,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신동삼, 『신동삼 컬렉션: 독일인이 본 전후복구기의 조선』, 눈빛, 2013.

**[영문참고]**

C. Armstrong, *The North Korean Revoluti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4.

D. Bartlett, *Fashioneast: The Specter That Haunted Socialism*, MIT University Press, 2010.

A. Buzo, *The Guerilla Dynasty: Politics and Leadership in North Korea*, Westview Press, 1999.

S. Kim, "Dressed to Kill: Women's Fashion and Body Politics in North Korean Visual Media (1960s-1970s)," *East Asia Cultures Critique*, Vol. 19, No. 1 (2011), pp. 159-191.

S. Kim, "Revolutionary Mothers: Women in the North Korean Revolution, 1945-1950,"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Vol. 52, No. 4, 2010.

—. "Mothers and Maidens: Gendered Formation of Revolutionary Heroes in North Korea,"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19, No. 2, 2014.

G. Lipovestky, *Empire of Fashion: Dressing Modern Democrac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K. Park, "Women and Revolution in North Korea Author," *Pacific Affairs*, Vol. 65, No. 4, 1993.

R. Scalapino and C. Lee, *Communism in Kore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J. Wu, *Chinese Fashion: From Mao to Now*, Berg, 2009.

# 중국조선족전통문화발전과 그 특징 및 영향

## —연변지역민속문화를 일례로

리용식

(연변대학교 인문사회과학학원 역사학부)

중국조선족은 조선반도로부터 중국에 이주하여온 과경민족의 후예로서 그 전통문화에 있어 조선반도의 민족전통문화를 계승하였을 뿐 아니라 중국에서의 여러가지 문화영향을 받으면서 점차 자기의 특색을 지니게 되었다. 본고는 중국조선족전통문화의 발전상황을 정리하면서 아울러 특징적인 부분에 주목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민속문화유형과 특징이 지역발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살펴보았다.

키워드: 중국조선족, 전통문화, 민속문화유형, 지역특징, 여행산업

1. 들어가는 말
2. 중국조선족전통문화의 발전
3. 중국조선전통문화로서의 민속문화유형과 그 특징
4. 중국조선족민속문화의 지역발전에 끼치는 영향
5. 나오는 말

### 1. 들어가는 말

중국조선족은 19세중엽에 대량 월경이 이루어지면서 점차 중국동북지구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한 과경민족이다. 19세기 80년대 두만강이북지역으로 이주한 이주조선인들이 연변지역에 집거구를 형성하면서 조선족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20세기 10년대 간민회등 단체의 결집등으로 조선족사회의 형성을 이루게 된다. 조선족은 한반도 문화를 계승하는 동시에 중국문화와 그리고 주변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복합적인 변연문화계통<sup>1</sup>을 가지게 된다. 연변지역이 지역적 우세로 말미암아 그리고 다문화적인 우세로 인하여 변연복합문화구역을 형성하고 독특한 문화를 창출하였다.

조선족의 문화성격에 관하여 여러 학자들이 모두 과경민족이 갖고 있는 지연특성과 종족인문인소등을 강조하였었다.<sup>2</sup> 조선족전통문화를 놓고 말하면 풍부하고 다채롭다. 일반적으로 주거(건축), 복식, 음식, 세시명절, 인생예의, 민간금기등 여러가지 문화가 있다. 조선족은 한반도로부터 중국에 이주하여 생활해 오면서 당시 주민들과 주변 민족들과 문화적인 마찰과 융합의 과정을 거쳤다. 그리하여 조선민족이 갖고 있는 특징<sup>3</sup>을 잘 보여주는 동시에 변연다원문화의 우세를 형성한 것이다.

그러나 세계화의 추세에 직면하여 조선족전통문화는 전승에 있어서 어려움에 처하였는데 주요한 원인으로 조선족들의 대량적인 인구유동을 들 수 있다. 물론 인구유동을 초래하게 된 근원으로 시장경제와 도시화등이다. 전통문화는 조화로운 사회발전의 주요한 영향인소로서 특히 변강지역 소수민족사회에서 전통문화건설은 조화로운 민족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때문에 전통문화의 전승과 보호 및 개발에 대한 연구를 더욱더 활성화 해야 한다. 조학령, 이원과는 자기의 글에서 조선족전통문화전승과 현대화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바 경제적인 지원과 사회문명건설 및 학교에서의 전통문화교육에 대한 중시등 도경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았다.<sup>4</sup> 정원원은 민족교육의 각도에서 전통문화와 민족교육을 정확히 인식하여 민족학교의 흡인력을 증강하고 민족학교를 세우는 방식등로 조선족전통문화의 전승위기를 극복할 것을 건의하였

---

<sup>1</sup> 변연문화계통의 개념에 있어 김강일, 《변연문화의 문화공능과 중국조선족사회의 문화우세》, 동강학간, 2002, 제 1 기. 변연문화이론을 참조.

<sup>2</sup> 정판룡교수의 조선족 이중성문화론이라든가 박금해교수의 변계성문화론, 이승룡교수의 변연복합문화론등에서 모두 조선족문화성격에 대해 지연특성과 종족인문인소등을 강조하였다.

<sup>3</sup> 조선민족은 자연을 숭상하고 하늘을 경외하는 사상이 결합된 순박함을 갖고 있으며 생활을 열애하고 진, 선, 미를 추구하는 낙관적이고 활달한 기질을 갖고 있다. 그리고 악을 징계하고 선을 선양하며 강포에 굴하지 않는 강의한 성격을 가졌다. 또한 배우기를 즐기고 선뜻 외래문화를 참작하여 받아들이는 개방적인 성격도 갖고 있다.

<sup>4</sup> 赵鹤龄、李爱波, 《在现代化进程中我国朝鲜族传统文化传承问题的思考》, 黑龙江民族丛刊, 2010 年第 1 期。



다.5 그리고 근래에 주목되는 바는 비물질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연구이다. 조선족의 비물질문화유산의 정의, 내용, 특징등에 대해 서술하면서 비물질문화유산에 대해 전승, 보호할 중요성을 분석 강조하였으며 어떻게 비물질문화유산을 개발할 데 관해 구체적인 방안과 가능성건의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조선족전통문화를 연구하고 계승함에 있어 새로운 활력소라고 할 수 있다.

## 2. 중국조선족전통문화의 발전

중국조선족은 한반도에서 이주하여 온 과경민족으로서 조선민족이 공동으로 갖고 있는 민족속성과 문화전통을 지니고 중국에 들어왔다.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주변 여러 민족문화의 영향을 받았으며 중화민족대환경하에서 형제민족들의 문화를 흡수하면서 자기의 민족문화를 발전시켜나갔다. 동시에 자체만의 문화특징을 형성하였다. 문화특징과 문화전통은 민족을 식별하는 중요한 표지중의 하나이다. 매개 민족은 모두 다른 민족과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조선민족은 문화전통에 있어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다. 세세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사유방식, 행위준칙, 가치관념이 내재되어 있을 뿐아니라 강렬한 역사성, 유전성을 지니고 있으며 다른 한 면으로 생생한 현실성, 변이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민족 구성원들한테 끊임없이 영향을 주면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데 역사적 근거와 현실적 기초를 만들어 준다.

조선족전통문화의 발전과정에서 주요한 문화인소인 물질문화로서는 수렵문화와 농경문화가 결합된 전통생계방식이 있다. 제도문화로서는 촌락공동체특징과 종법제도원칙의 사회운영기제와 인간관계가 있으며 정신문화영역에서 살만교성질의 무속문화가 있다. 경제유형이론의 시각에서 볼 때 조선민족의 문화는 고고시기의 북방계통수렵문화와 남방 벼농사문화- 농경문화로부터 기원되었다. 조선민족의 선민들이 남긴 문화유물가운데서 많은 비중을 갖는 것은 수렵도구이다. 그중 돌출한 것이 궁전(활)이다. 이러한 상황은 농업의 출현이 수렵경제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수렵과 농업이 결합된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였

<sup>5</sup> 郑媛媛,《朝鲜族传统文化传承面临的问题及解决方案—以延边朝鲜族自治州区域为例》, 亚太教育, 2015年, 第26期。

음을 보여준다. 조선민족의 오래된 문화는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때문에 조선민족은 민첩하고 활동성이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민족에게 있어 수렵문화는 문화기억속에서 소실되지 않았으며 일종의 문화원형으로 민족문화심리에 간직되었고 완강하게 전래되어 오래동안 존속되어 왔다.

수렵과 마찬가지로 농경도 고고시기 조선민족의 주요한 생계방식의 하나였다. 조선민족은 오래전부터 벼를 재배하였으며 경작문화를 형성하였다. 남방벼재배문화의 전파는 조선민족이 재배업을 기본생산방식으로 하는 농경시대가 시작되게 하였다. 벼재배를 핵심으로 하는 농경문화는 조선민족문화의 하나의 중요한 기본이다. 사회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조선민족의 농경문화특색은 점차 민족문화심리속에 축적되었으며 전통적인 수렵문화와 함께 일종의 문화원형으로 자리하였다. 공동으로 노동하고 함께 축제를 즐기는 공동체적인 생산방식과 생활방식은 공동노동을 수요로하는 벼생산 즉 농경문화로서 가능하였고 또한 끈끈한 민족적인 공동체 의식을 키워냈다.

조선민족문화가 의지하는 사회결구는 비교적 짙은 종법제색채를 나타낸다. 종법제도는 동족의 혈연관계와 동향의 지연관계 양자의 결합에 기초한 것으로서 모체는 친연관계이다. 종법제의 영향하에서 조선민족의 사회심리는 짙은 “효친”정감을 나타낸다. 이러한 정감은 이미 세상 뜬 선조에 대한 융숭한 제사로 자기들의 후대가 흥성하고 가족이 창성하기를 기원하는데서 체현된다. 뿐만아니라 살아있는 장년배들에 대하여 절대 순종하고 효경하는데서 체현된다. 모종의 의미에서 말한다면 조선민족의 도덕본위는 바로 “효친”이다. 조선민족의 문화에서 효도는 일체 도덕규범의 핵심과 모체로서 충군, 효장, 존상등 모두 효도의 파생물이다. 이것은 조선민족으로 하여금 각별히 인간윤상관계를 주의하게 하며 조선민족전통문화의 윤리화를 조장하였다.

전통적 관념의식방면에서 북방 살만교 성격을 갖고 있는 고유의 무속문화는 조선민족문화의 중요한 정신지주이다. 조선민족의 무속문화는 그 역사를 거슬러 고고의 청동기시대까지 갈 수 있다. 무속문화는 조선민족 선민들이 장기간의 역사속에서 형성된 관념의식을 내재하는바 조선민족 선민들의 전통문화심태가 축적되어 있으며 조선민족선민들의 다방면의 문화창조가 깃들여 있어 풍부하고 다양

한 민족고유의 문화를 보존하였다. 조선민족의 현세주의 낙생주의등을 특징으로 하는 전통가치관과 문화심리인소는 민속문화가운데서 적지않게 그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족문화의 역사기원은 조선민족의 전통문화가운데서 찾아야 한다. 조선족은 세세대대로 고유의 민족문화를 보존하고 전승시켜 온 것이다.

조선반도에서 중국에 온 조선족은 바로 고유의 전통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면서 또 주변의 형제민족과 공동으로 삶의 터전을 개척하고 가꾸어 갔다. 그 과정에서 지역적 특성을 지닌 자기만의 문화를 발전시켜 나간것이다. 민족속성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은 민속문화이다.<sup>6</sup> 조선족전통문화로서의 민속문화의 유형과 특징을 살피는 것이 조선족전통문화를 이해하는 주요한 내용인 것이다.

### 3. 조선족전통문화로서의 민속문화의 유형과 특징

#### 연변조선족 민속문화의 유형

중국조선족이 가장 많이 집거하고 있는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천하명산 장백산 기슭에 위치하여 풍부한 자연 문물유적과 함께 농후한 조선족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킴으로써 특색있는 지역문화를 이루고 있다. 그 일례로 연변조선족이 갖고 있는 풍부한 민속문화를 의식주행 등의 생활방식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식문화이다. 조선족은 본디 흰색소복을 입기 즐겨한다. 그리하여 “백의민족”이라 불리우기도 한다. 성대한 명절 혹은 중대한 축하자리에서 조선족은 남녀모두 흰색옷을 입는다. 그리하여 “백의 나라”라고 까지 불리운다. “흰색”은 조선민족의 깨끗함을 좋아하고 소박한 특징을 나타낸다. 천입초기 조선족은 편벽한 산간마을에 많이 거주하였다. 옷의 원료는 주요하게 자기절로 심고 짜는 마포 혹은 토포가 위주였다. 20세기초 기계로 짠 천과 비단, 사등의 옷감이 많이 사용

---

<sup>6</sup> 김동훈, 김려호, 《조선족문화》, 길림교육출판사, 1990 년.

되면서 복식의 색상도 다양화되어 갔다. 조선족복장은 연령, 성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현재 조선족의 일상복식은 이미 지역특색을 잃어가고 있고 전통복장도 명절이나 각종 의식에서나 찾아 볼 수 있다.

둘째, 음식문화이다. 조선족이 집거하고 있는 곳에서 입쌀을 많이 생산하는데 쌀이 주식이다. 다음으로 조선족특색의 전통음식으로는 냉면, 김치, 쌀로 만든 떡, 찰떡, 시루떡, 오곡밥, 송편, 약식, 된장국, 보신탕, 민간에서 자체로 빚은 쌀술”막걸리”등이다. 민속여행자원으로서 이러한 민간음식의 제작과정이나 방법, 식용방식예의등은 이러한 식품보다 더욱 민족특색을 띠기도 한다. 조선족은 짜고 매운 맛을 위주로 김치의 종류가 아주 많다. 그 색깔도 고와서 입맛을 당긴다. 매운 고추는 매개 조선족가정의 필수 조미료이다. 조선족은 매운것을 아주 즐겨 먹는다. 조선족의 음식특징중의 하나는 바로 식사때에 반드시 국을 곁들이는 것이다. 뼈를 우려내어 끓인 구수한 국을 선호하는 바 주요 식재료로 소고기, 개고기, 닭고기, 토끼고기등이다.

셋째, 건축 및 주거문화이다. 조선족집 건축은 한족과 비슷하면서도 자기만의 특징을 갖고 있다. 주민 대다수가 치솟은 청기와에 흰 담장의 건축을 즐겨한다. 도시의 주택에서 간단한 정원과 담장이 있을뿐 농촌에서는 보통 담장이 없이 이웃집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온돌방은 집안 내부 구조중 제일 특별한 통징이다. 온돌의 면적은 일반적으로 집안 면적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동시에 부엌, 객방, 작은 방으로 나뉜다. 방안 모두 온돌이어서 집에 들어가면 바로 온돌에 올라간다. 과거 온돌위에 모두 석까래 혹은 수수갱이 짚으로 엮은 깔개를 편다. 현재는 섬유판 혹은 유황판지, 인조무늬가죽등 씻기 편리하고 미관이 있는 질긴 자료들을 사용한다. 방안의 장식에서 조선족은 물, 돌, 소나무, 불로초, 거부기, 학등 장생물을 즐겨하는 바 이러한 경물은 흔히 병풍, 그림, 회화거울등 형식으로 나타난다.

넷째, 인생예의문화이다. 조선족 인생예의에는 유아에 대한 축원성 예의와 관례, 혼례가 있으며 화갑연, 진갑연, 팔갑연, 회혼례등 장수를 경하하는 예의가 있다. 그리고 장례가 있다. 이러한 조선족의 각종 예의는 모두 선명한 특색을 갖고 있다. 조선족은 일찍부터 같은 종친, 사촌지간에 통혼을 절대 금하는 미풍양속이

있었다. 혼례 절차는 번다한바 조선족 혼례는 화갑연과 같이 흥상할 가치가 아주 높다.

다섯째, 문예오락문화이다. 민간음악, 무용, 희극, 유희, 오락, 경기등 방면의 민속사항이다. 조선족은 아름다운 민족문화예술을 갖고 있으며 조선족은 춤을 잘 출고 노래 잘 부르기로 정평이 나 있다. 민간무용에는 장고무, 상모춤, 농악무, 승무, 칼춤, 물동이춤 등이 있다. 경기종목으로는 바줄 당기기, 씨름, 그네, 널뛰기등이 있으며 민족 악기로는 가야금, 통소등이 있다. 가야금은 조선 전통 현악기의 으뜸으로서 우리민족의 부드러운 정감을 잘 나타내는 민간 악기이다. 때문에 가야금 연주 노래는 조선족들이 즐겨 보고 듣는 일종의 표현 형식이다. 통소는 조선족 민족음악 가운데서 중요한 악기로서 그 음색이 아름답고 휴대하기 편리하다. 매년 설명절이나 경축모임이 있으면 노래와 춤을 즐기는 조선족들은 명절 복장을 차려입고 네 댕의 통소와 한개의 장고 반주에 맞춰 춤추고 노래한다. 조선족 전통예술 가운데서 제일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아리랑”이다.

여섯째, 전통명절문화이다. 조선족의 전통명절은 주요하게 춘절, 정월대보름, 청명절, 단오절, 추석등이다. 제일 중요한 명절은 춘절 (음력설)로서 정월 초하루 날이 밝은 후 우선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낸다. 다음 어린애들이 화려한 전통복장을 입고 노인과 어른들께 머리조아려 세배하면서 그들의 건강 장수를 축원한다. 정월 대보름날에는 남녀로소를 물론하고 “오곡밥”을 먹고 “귀밝이 술”을 마인다. “귀밝이 술”을 마인다는 것은 새로운 한해에 좋은 소식을 더 많이 듣게 된다는 의미를 부여하였다. 청명과 추석에는 흙을 울리고 풀을 베어 무덤을 정리한 후 고인에게 술을 올리고 절을 함으로서 애도를 표한다. 단오절에는 전통활동으로 씨름, 널 뛰기, 그네등이 있다.

#### 조선족민속문화의 특징

연변조선족 민속문화는 그 내용이 풍부하고 또한 지역적 특징을 지니는 등 여러가지 선명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것에 대해 간략히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첫째, 다채롭고 풍부한 내용이 그 특징이다. 조선족들의 의, 식, 주, 행의 물질

문화로 부터 생산, 교역의 경제문화 및 인생예의와 민간예술의 정신문화등을 살펴보면 내용이 풍부하고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하다.

둘째, 지역적 특징을 지닌것이 주목된다. 연변지역으로 이주한 조선족 다수가 조선함경북도 출신이다. 중국에 온 후 장기간 한족과 기타 다른 민족과 잡거하여 살면서 그들 민속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때문에 연변지역의 민속여행자원으로서 지역적 특징이 돋보인다.

셋째, 대중적인 특징이다. 조선족문화는 민간에서 오고 민간에서 유행되면서 농후한 대중기반을 갖고 있다. 민간에서 창작된 지역특색의 문화작품들 예를 들면 연변문학작품, 연변동요, 연변노래, 연변소품, 연변방언등 문화작품들은 연변지역에서의 조선족들의 삶을 반영한 구수하고 깊은 정취를 자아내는 작품들로서 연변 대중들의 사랑을 깊게 받고 있다.

넷째, 시공적인 제한을 아주 적게 받는다. 조선족 민속은 静态形式으로 표현되어 일반적으로 관상할 수 있다. 통태적인 표현문화 역시 실내에서 진행됨으로 시간이나 조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수요에 의해 조절할 수 있다.

이상의 특징을 지닌 연변조선족 민속문화는 지역의 여행문화의 주요한 품목으로서 지역경제발전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 4. 조선족민속문화의 지역발전에 끼치는 영향

민속문화는 여행문화가운데의 한가지 주요한 품목이다. 각 민족간의 사상문화교류의 선두에서 그것은 인류문화를 전파하는 교량중의 하나이다. 여행산업의 함양을 풍부하게 하는데 있어 거대한 주동 작용을 한다. 조선족민속문화역시 지역 여행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연변지역 여행산업에 풍부한 여행자원을 제공한다.

민속여행자원이란 여행자에게 흡인력을 갖게 할 뿐더러 개발이용될 수 있으며 사회경제 효익을 산생할 수 있는 각종 민속사상을 가리킨다.<sup>8</sup> 조선족전통민속은

<sup>7</sup> 천수산, 《연변지구 여행산업가운데서 조선민족민속문화의 작용을 논함》, 료녕민족출판사, 2001, 602 쪽

<sup>8</sup> 杨桂华, ‘民俗旅游资源是指对旅游者产生吸引力, 并且能够被开发利用, 产生社会经济效益的各类民

풍부한 내용을 갖고 있어 여행자원의 보고라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조선민족들의 복식은 시대의 발전과 더불어 양식도 다양해지고 색상도 다채롭다. 조선족들이 입는 한복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함께 여행기념상품으로 인기가 많다. 그리하여 여행자들이 호기심으로 한복을 입고 기념촬영을 한다거나 기념품으로 구매하여 가는 것이다. 그리고 조선족들의 주거문화도 독특한 특색을 갖고 있는 것으로 민속촌같은 주거문화로서 여행관광지는 여행자들을 흡인하기에 충분하다. 곁들여 민속마을에서 조선족문예공연을 한다거나 민족음식을 만들어 체험하게 하는 등 다양한 민속여행자원은 여행자들로 하여금 보는 것이 즐겁고 먹는 것이 행복하여 민속촌에서 다양한 체험을 함으로 깊은 인상을 받는 등 조선족 민속문화는 여행자원으로서 잠재력이 풍부하다.

지역적 문화 내용으로서 여행정감을 더한다. 두만강을 넘어 중국에 이주하여온 과정민족으로서의 조선족은 우리나라에서의 역사는 길지 않다. 그러나 민간문화의 토양은 비옥하다고 해야 할 것이고 지역적 문화특색을 선명하게 나타낸다. 지역 곳곳에 지방 특산물이 있고 곳곳마다 구수한 지역전설이 전해져 내려온다. 예를 들면 장백산과 천지에 관한 전설, 찰떡, 순대, 막걸리 등 전통음식에 깃든 이야기 등이다. 이러한 민속전설, 풍물이야기는 여행객들한테 재밌는 여행스토리를 만들어줌으로 여행정감을 더해준다. 이러한 전설을 통해서 여행자들에게 연변지역에 대한 강렬한 인상을 갖게 한다. 강렬한 인상은 제일 좋은 선전효과를 냄과 동시에 연변지역 여행산업의 발전을 추진한다 할 수 있다.

두만강 유역 민속여행업의 특색을 더해준다. 조선족민속특색을 지니었을 뿐만 아니라 함경도풍속의 풍격을 많이 띠고 있어 지방특색이 농후하다. 물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많은 변화를 가져 왔지만 연변조선족들은 그 전통을 많이 계승하고 있다. 때문에 한반도에서 사라지고 있는 전통민속이 일부 보존되고 있어 한반도에 온 여행자들 한테도 또 다른 흥미와 호기심을 준다. 게다가 조선족민속문화에서 적잖은 습속은 오락성과 참여성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줄 당기기, 씨름, 그네, 널뛰기 등 전통경기종목은 민속촌과 같은 곳에서 공연할 뿐더러 여행자들도 직접 참여하여 체험하게 함으로 문화특색과 오락특색을 더하여준다.

---

俗事象。’, 《旅游资源学》，云南大学出版社，1994年，4~5页。

한마디로 민속문화는 여행산업과 결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조선족전통문화를 홍보할 뿐더러 여행업을 활성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한다. 물론 조선족 전통문화도 민속문화의 끊임없는 개발과 이용으로 더욱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 5. 나오는 말

조선족은 과경민족으로서 중국에 이주할 적에 이미 자기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갖고 있었다. 물론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점차 자기만의 특색을 가지기도 하였다. 본고는 연변조선족의 전통민속에 대해 살펴보는 동시에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 나름대로의 서술을 하였다. 그리고 조선족민속이 지역여행산업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 바 우리가 이러한 민속문화를 발굴하고 이용하여 조선족전통민속문화를 활성화 할 수 있음을 자부할 수 있다. 자기민족을 사랑하고 자기민족 전통문화를 자부할 수 있으면 살아가는 것이 더욱 행복하고 즐거울 것이다.

참고문헌:

김동훈, 김려호, 《조선족문화》, 길림교육출판사, 1990

《중국조선족문화연구》, 1993, 연변대학출판사

季基云, (图们江地区开发与旅游经济的发展), 《延边大学学报》, 2000, 第3期  
潘龙海, 黄有福主编, 《跨入二十一世纪的中国朝鲜族》, 延边大学出版社, 2002

김강일, 《변연문화의 문화공능과 중국조선족사회의 문화우세》, 동강학간, 2002, 제 1기

李承律, 《东北亚国际合作时代朝鲜族社会文化功能研究【D】》中央民族大学, 2006  
曹保明, (保护图们江朝鲜族农耕文化的‘根’和‘源’), 《中国民族学报》, 2010, 第11期  
赵鹤龄、李爱波, 《在现代化进程中我国朝鲜族传统文化传承问题的思考》, 黑龙江民族丛刊, 2010, 第1期  
许辉勋, (中国朝鲜族民俗形成与演进), 《延边大学学报》, 2011, 第6期  
郑媛媛, 《朝鲜族传统文化传承面临的问题及解决方案—以延边朝鲜族自治州区域为例》, 亚太教育, 2015, 第26期



## 《도톨밤의 노래(橡栗歌)》의 작가와 문화사적지위문제

김진국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과학연구에서 력사주의원칙을 옳게 구현하여야 지난 기간에 제기되었거나 오늘 실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옳바로 밝혀내고 공정하게 평가할수 있으며 그것이 지금은 물론 먼 앞날에 가셔도 과학적인 가치를 가지게 할수 있습니다.》 (《주체의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하여》 제1권 306 페이지)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한 강토에서 하나의 피줄을 이어오며 세상에널리 사랑할만 한 우수한 민족문화유산들을 수많은 창조하여왔다.

선조들이 이룩하여놓은 문화유산들은 그 하나하나가 다 민족문화의 찬란한 발전력사를 전하여주는 귀중한 문화적재부들이다.

그런것만큼 선행시기의 문화유산을 과학적으로 고증하는것은 오랜 전통을 사랑하는 우리 민족문화의 발전력사를 옳바로 정립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문제로 된다.

특히 오랜 력사적과정을 거쳐오면서 이리저리한 사정으로 잘 알려지지않았던 작가나 작품들을 옛 문헌자료들에 기초하여 과학적으로 발굴고증하는것은 민족문화의 발전행로에 자취를 남기었던 작가와 작품의 문학사적지위를 옳바로 밝혀내고 해당 시기 문학발전의 합법칙성을 해명하는데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수 있다.

지난 시기 우리 문예학계에서는 우수한 민족문화유산들을 과학성의 원칙과 력사주의적원칙에서 더 많이 발굴고증하고 옳게 계승발전시켜나갈데 대한 당의 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중세문학연구에서 일부 미해명으로 남아있었거나 정확하게 분석평가되지 못하였던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정확히 고증하기 위한 사업을 벌리는 과정에 우리 나라 중세문학의발전력사를 문학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정립하는서 적지 않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그중의 하나가 고려말기 사실주의시문학의 대표적작품의 하나인 《도톨밤의 노래》가 리곡의 작품이 아니라 윤여형의 작품이라는것을 새롭게 해명한것이다.

《도톨밤의 노래》가 윤여형의 작품이라는것이 고증됨으로써 고려후반기 김극기와 리규보의 시문학에서부터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한 사실주의적경향의 시문화이 고려말기까지 여러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의 정향성을 띠고 활발히 진행되었다는것이 립증되게 되었으며 당대의 진보적시문학발전면모가 보다 뚜렷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로부터 본 톤문에서는 《도톨밤의 노래》의 작가와 문학사적지위문제에 대하여 언급하려고 한다.

#### - 《도톨밤의 노래》의 작가문제

일정한 력사적시대의 문학예술발전면모는 당시에 창작된 문학예술작품들을 통하여 표현된다. 그러므로 해당한 력사적시대에 창작된 주요작품들의 내용과 그 창작가를 정확하게 밝히고 전면적으로 고증하는것은 그시대의 문학예술발전의 면모와 사상예술적특성을 해명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되며 유산연구에서 나서는 주되는 과업의 하나로 된다.

우리 나라 중세문학유산가운데는 작가가 알려진것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일부 작가가 잘못 소개된것도 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이리저리한 사정으로 작품을 실고있던 개인시문집이나 작품집들이 류실인멸되었던 사정과 후세사람들이 여기저기에 한두편씩 널려있던 작품들을 수집하여 개인시문집, 작품집을 만들거나 이미 있던 책을 다시 편찬하면서 편찬상착오를 범하였던 사정과 관련된다고 할수 있다.

《도톨밤의 노래》를 한 윤여형의 작품이 아니라 리곡의 작품으로 잘못 소개하였던것도 이러한 사정과 관련되어있었다.

그러나 《동문선》의 본문내용과 목록과의 대조검토 그리고 다른 여리문헌사료들을 통하여 《도톨밤의 노래》의 창작가가 리곡이 아니라 윤여형이라는것을 명백히 밝힐수 있게 되었다.

시 《도톨밤의 노래》의 작가가 리곡이 아니라 윤여형이라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근거로써 확증할수 있다.

첫째로, 《동문선》의 본문내용과 목록을 대조검토하여보면 이 작품의 작자가 리곡이 아니라 윤여형이라는것을 알수 있는것이다.

문헌기록으로 볼 때 《도톨밤의 노래》를 처음으로 실은 책은 《동문선》이다.

《동문선》은 서거정, 로사신, 강희맹, 량성지를 비롯한 20 여명의 문인, 학자들에 의하여 편찬된 작품집이다. 책은 앞선 시기에 나온 작품집들인 《동국문감》, 《동인지문》의 자료들과 편찬경험에 기초하면서 시와 산문유산들을 보다 광범히 수집하여 보충하는 방향에서 편찬되었는데 삼국시기로부터 15 세기말엽에 이르는 기간에 창작된 2 000 여수의 운문과 1 600 여편의 산문이 실려있으며 대부분은 고려시기에 창작된것들이다. 《동문선》의 편찬은 1478 년 2 월에 시작되어 1481 년에 완성되었으며 그 이듬해에 출판되었다. 그후 여러차례에 걸쳐 재판되었으며 1914 년에는 7 책으로 된 활판본이 출판되었다. 《동문선》에는 일정한 력사적시대의 대표적인 작가, 문인들의 작품들뿐아니라 당지에 이름은 비록 널리 알려지지 못하였으나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작품을 남긴 사람들의 시와 산문도 적지 않게 들어있다. 또한 15 세기 이전시기에 쓰인 운문과 산문의 다양한 형태들을 거의다 포괄하고있기때문에 당시 문학의 발전면모와 각종 문화형태들이 발생발전하여 온 력사적과정 및 그 특성을 연구하는 자료로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현재 남아전하는 《동문선》은 15 세기에 편찬된 원본이 아니라 1914 년조선고서간행회에서 원본 《동문선》에 기초하여 편찬발행한 활본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이 활판본 《동문선》을 문헌적자료로 리용하고있는것이 통례로 되고있다.

이 활판본 《동문선》은 모두 7 책 130 권으로 되어있으며 마지막에 상, 중, 하로 된 목록이 붙어있다.

활판본 《동문선》에서 시 《도톨밤의 노래》는 1 책 7 권 7 언고시편에 실려있는데 리곡의 작품들가운데서 제일 마지막에 올라있다. 이 책의 편찬방식을 보면 한사람이 창작한 여러 작품을 련달아 리는 경우에 맨 앞의 작품에만 이름을 밝히고 나머지 작품들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있다.

이에 비추어보면 《도톨밤의 노래》는 리곡의 작품이라고 할수 있다.

이런데로부터 한때 이 작품을 리곡의 작품으로 소개하였던것이다.

그러나 《동문선》의 내용과 상, 중, 하로 되어있는 작품목록을

대조검토하고 엄밀히 따져보면 이 작품의 작가가 리곡이 아니라 윤여형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그것은 7 권에서는 《도톨밤의 노래》를 리곡의 작품에 런던아 실었는데 목록(상)에서는 《도톨밤의 노래》의 작가를 윤여형이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기때문이다.

물론 목록에 윤여형이라고 밝히었다고 하여 이 작품의 작가가 윤여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부와 시를 신고있는 1 권부터 22 권까지의 본문내용과 작품목록을 엄밀히 따져보면 1914 년 조선고서간행회에서 편찬한 《동문선에 일부 결함들이 있다는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수 있으며 그것은 이 작품의 창작가가 윤여형이라는것을 알수 있게 하여준다.

유산연구에서 모든 사료의 정확성여부를 확증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료를 신고있는 문헌자체를 검토해야 하며 그 문헌의 정확성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도톨밤의 노래》를 처음으로 실은 원판본 《동문선》은 전하지 않고 활판본 《동분전》 만 전해지는 조건에서 이 활판본의 정확성여부를 확인하는것이 선차적인 문제로 나선다.

《도톨밤의 노래》와 시형식이 같은 7언고시작품들이 실린 6 권부터 8 권까지 내용의 정확성여부를 검토고증한 결과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활판본 《동문선》 6 권부터 8 권까지의 사이에 길린 7 언고시작품들가운데서 《도톨밤의 노래》의 경우와 똑같이 목록에 작가의 이름이 있고 본문에는 이름이 없는것이 6 건이나 된다.

우선 6 권의 첫 작품인 《홍천원에게 부치노라》의 경우를 보면 목록에는 그 작가를 립춘이라고 밝히었는데 본문에는 이름이 없다.

활판본 《동문선》의 판찬관례를 볼 때 이 작품은 7 언고시의 첫 작품인것만큼 응당 그 작가의 이름이 기록되여야 하며 만약 작가를 알수 없는작품이라면 《무명씨》라고 써야 할것이다. 그러나 본문내용에는 작가의 이름도 없고 《무명씨》라는것도 밝히지 않았다. 그런데 이 작품은 립춘의 시문집인 《림서하집》 3 권에 실려있는것만큼 립춘의 작품이 명백하다는것을 알수 있으며 따라서 목록의 내용이 정확하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다음 6 권에 있는 《칠석에 내리는 비》와 《홍왕사에서 리미수의 아들을

보고 시를 지어주노라》 등 두 작품은 목록에서 그 작가를 리규보라고하였는데 본문내용에는 이름이 없다. 그리하여 앞에 있는 작품의 작가인 김극기가 지은것으로 이해할수 있게 되어있다.

이 두 작품 역시 리규보의 시문집인 《동국리상국집》 2 권에 실려있으므로 그 작가가 김극기가 아니라 리규보라는것이 명백하며 따라서 작품목록이 정확하다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또 같은 6 권에 있는 시 《월궁에 놀면서》는 목록에는 그 작가를 리윤보라고 하였는데 본문내용에는 이름이 없으므로 그 앞에 있는 작품의 작가인 진화가 지은것으로 이해할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진화인 시문집초판본인 《매호집》에는 물론 그 증보관인 《매호유고》에도 그 작품은 실려있지 않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볼 때 이 작품의 작가도 진화가 아니라 목록에 밝힌대로 리윤보의 작품으로 보는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6 권에 있는 《감도해》는 목록에서 그 작가를 궤예라고 하였는데 역시 본문내용에는 이름이 밝혀져있지 않다. 그리하여 그 작가를 앞에 소개된 백문절로 이해할수 있게 되어있다. 이 작품의 작가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대조고증할수 있는 문헌자료가 없기때문에 똑똑히 밝힐수는 없다. 그러나 앞에 지적한 작품들의 경우로 미루어보면 궤예라고 보는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7 권에서 본문과 목록이 차이나는 부분은 《도톨밤의 노래》 외에 권한공의 작품들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목록에는 권한공이 창작한것으로 되어있는 《정사공에게 부치노라》, 《부벽루차운》 등 5 편의 작품이 있는데 본문내용에는 권한공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 5 편의 작품도 본문내용을 보면 권한공이 창작한것이 아니라 리연중이 지은것으로 이해할수 있게 되어있다.

권한공이나 리연중의 시문집을 볼수 없기때문에 다는 알수 없으나 《부벽루차운》은 권한공이 지은것이라는것을 확인할수 있다. 그것은 이 작품이 《신증동국여지승람》 51 권 평양부 루정항목의 부벽루조에 실려있는 그 작자를 권한공이라고 하였기때문이다. 이로 미루어보면 나머지 네편의 작품도 역시 그 작가가 권한공임을 알수 있다.

이밖에 1 권부터 22 권까지 본문내용과 목록을 대조해보면 작가를 밝히는데서 서로 차이나는 곳이 무려 15 군데나 되며 그가운데는 본문 9 권 5 언륜시편에서

《비오는 밤 느낀바 있어》를 그 작가를 인빈(印份)이라고 쓰고 목록에서는 인의(印毅)라고 서로 차이나게 밝힌것이라든가 14 권 7 번째를편에서 제일 마지막작품인 《북경가는 길에서》는 원문에 박항으로 되었는데 목록에서는 이 작품자체를 올리지 않은것을 비롯하여 원문내용과 목록이 서로 틀리는 곳도 있다.

이것은 1914 년에 간행된 활판본 《동문선》에 인쇄상착오가 적지 않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따라서 6 권부터 8 권까지에 실린 7 언고시작품들의 목록과 본문내용이 서로 다르고 본문에 이름이 없는것은 인쇄상착오이며 작가를 밝힌 목록이 대체로 정확하다는것을 짐작할수 있게 하여준다.

여기에 《도톨밤의 노래》를 리곡이 창작한것으로 본 이전의 견해가 일면적이고 사료적근거가 명확치 못하며 이 작품의 작가가 리곡이 아니라 윤여형이라는것을 증명하여주는 하나의 근거가 있다고 할수 있다.

《도톨밤의 노래》를 윤여형의 작품으로 보는 근거는 둘째로, 이 작품이 리곡의 시문집인 《가정집》에 실려있지 않다는것이다.

활판본 《동문선》 7 권에 《도톨밤의 노래》가 리곡의 작품으로 올라있는만큼 리곡의 시문집인 《가정집》을 살펴보지 않을수 없다.

현재 전해지는 리곡의 시문집인 《가정집》 20 권은 18 세기초엽(영조년간)에 간행된것이다.

물론 《가정집》은 이때에 처음으로 간행된것이 아니다.

원래 《가정집》의 초판본은 고려말에 리곡의 아들인 리색이 집에 있는아버지의 유고를 정리하여 20 권으로 편찬한것이다. 《가정집》초판본서문이 1384 년에 씌여진것으로 보아 이 시문집의 편찬사업이 대체로 이때를 전후하여 끝났으리라는것을 짐작할수 있다.

《가정집》은 그후 17 세기 초엽(인조년간)에 리색의 시문집인 《목은집》과 함께 간행되었고 17 세기 말엽인 1686 년에 다시 《가정집》만을 떼여 새로 찍어 발행하였다.

18 세기초엽에 나온 《가정집》은 17 세기 말엽의 재판본을 기초로 하여 다시 간행한 책이라고 할수 있다.

초판본으로부터 시작하여 4 차례에 걸쳐 찍어낸 《가정집》판본들가운데서

초판본을 제외한 나머지 판본들은 모두 《도톨밤의 노래》를 싣고있는

《동문선》이 편찬된 다음에 찍어낸 책들이다.

그런것만큼 《도톨밤의 노래》가 리곡이 지은것이면 그 후손들이 《가정집》을 여러번에 걸쳐 다시 찍어내면서 그 작품을 시문집에 올리지 않을수 없었을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도톨밤의 노래》의 작가가 리곡이 아니라 《동문선》의 작품목록에 있는대로 윤여형이라는것을 말해준다.

근거는 셋째로, 《도톨밤의 노래》의 작가가 윤여형이라는 기록이 《대동운부군옥》에 실려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이 작품의 작가가 리곡이 아니라 윤여형이라는것을 보여주는 제일 유력한 증거라고 할수 있다.

《대동운부군옥》은 18세기말엽에 권문해가 편찬한 사전류의 책으로서비교적 정확하고 믿을수 있는 문헌유산이라고 할수 있다.

이 책은 우리 나라 력대 문헌들속에 들어있는 고사와 사적들을 뽑아서주석한 책으로서 인용된 책목록을 보면 우리 나라 책이 175종이며 외국책이 15종이나 된다.

그가운데는 리곡의 《가정집》도 있고 리곡의 아들인 리색의 《목은집》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편찬자인 권문해는 제 18권 《상률》 항목의 주석에서 원본 《동문선》에 실린 《도톨밤의 노래》를 인용하면서 그 작가를 윤여형이라고 명백히 밝히었다.

그 주석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상률 : 윤여형 작 상률가

도톨밤 도톨밤 밤아닌 밤

그 누가 불렀는가 이것을 도톨밤이라고

맛은 썸바귀보다 쓰고 빛은 숲과 같으나

끓주릴 때 먹으면 황정보다 근기가 있다네

몇만길 높고높은 산벼랑에 기여올라

원숭이떼들과 다투면서 매일 이것을 주어야 하네》

권문해는 마지막에 이 시의 출처를 《동문선》이라고 밝히었다.

이것은 원본 《동문선》에는 《도톨밤의 노래》의 작가가 윤여형이라는것을 명백히 밝히고있었음을 말하여준다.

이로써 《도톨밤의 노래》의 작가가 리곡이 아니라 윤여형이라는것을 앞완전히 확증할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이 작품의 작가문제가 제기되게 한 활판본 《동문선》의 7 권 본문내용에 윤여형의 이름이 없는것이 편찬과정의 착오라는것도 뚜렷이 밝혀지게 되었다.

#### -문학사적지위문제

《도톨밤의 노래》의 작가가 리곡이 아니라 윤여형이라는것이 확증된만큼 작가와 작품의 문학사적지위를 옳바로 밝히기 위해서는 시인으로서의 윤여형의 생애와 그의 시창작적경향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문헌기록상 윤여형의 생애와 관련한 구체적자료들은 찾아보기 힘들며 단편적인 자료들만을 통해 그의 대체적인 생애에 대하여 파악할수 있을뿐이다.

고려왕조의 역사를 서술한 《고려사》나 《고려사절요》를 보면 여기에는 근 1000 여명의 인물전기들이 실려있지만 윤여형에 대한 자료는 한건도 취급된것이 없으며 그 이후시기의 옛 문헌들에도 윤여형과 관련한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대동운부군옥》, 《동문선》, 《신증동국여지승람》, 《동인시화》, 《익재집》 등 여러 문헌들과 개인시문집들에 윤여형과 그의 시작품들에 대한 단편적인 자료가 실려있을뿐이다.

이 가운데서 윤여형의 생애에 대하여 어느 정도 파악할수 있게 하는것이 《대동운부군옥》 뿐인데 그나마도 매우 간단하게 소개되어 구체적인 생애와 창작활동에 대해서는 알수 없다.

《대동운부군옥》 7 권에는 12 자로 된 윤여형의 간단한 략력이 소개되어있는데 거기에는 《윤여형 고려말 사람으로 벼슬은 함문지후에 이르렀고



시로써 이름이 있었다》라고 되어있다.

그리고 《대동운부군옥》 18 권과 《동문선》, 《신증동국여지승람》, 《동인시화》, 《익재집》 등에는 윤여형의 시작품들과 일부 작품들에 대한 시평, 윤여형과 관련한 시작품들이 약간씩 실려있다.

《대동운부군옥》 18 권에는 우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상률》 올림말 항목에 《도톨밤의 노래》의 작가가 윤여형이라는것과 이 시의 일부가 소개되어있으며 《동문선》 9 권, 15 권, 21 권과 《신증동국여지승람》 36 권, 39 권에는 윤여형의 시 《촌에 살면서》, 《설날에 생각되는바를 쓰노라》, 《길손으로 령광동쪽 자복사에 묵으며》, 《고향을 생각하며》, 《관동지방에서 밤을 맞으며》, 《산길》 등 6 편의 시작품이 실려있다.

그리고 《동인시화》 하권에는 윤여형의 시작품에 대한 2 의 시평이 실려있다.

그중 하나는 윤여형이 지은 시 《관동지방에서 밤을 맞으며》에 대한 평가와 관계된것으로서 《두견새를 지은 선배들의 시들가데 그 말과 운률이 맑고 아름다운것을 많이 보게 된다. 집의 리견간의 시... 지후 윤여형의 시... 집의 최원우의 시... 부령 조계방의 시 ... 등을 그리한 레로 들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다른 하나는 《고향을 생각하며》에 대한 평가로서 거기에는 《지후 윤여형의 시 ... 정언 리성의 시...라고 한것이 있어 두 로대가의 높은 뜻과 고상한 품격을 가히 짐작할만 하다.》라고 기록되어있다.

리제현의 시문집인 《익재집》 2 권에는 리제현이 윤여형에게 보낸 시 《9 월 15 일 새벽에 일어나 느낀바가 있어 학유 윤여형에게 써보내노라》가 실려있다.

이러한 몇가지 문헌자료들만을 가지고는 윤여형의 생애와 창작활동, 시창작적경향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통하여 그의 간단한 경력과 대체적인 창작경향을 알수 있으며 그가 《도톨밤의 노래》와 같은 작품을 창작할수 있는 생활체협과 창작적재능을 가지고있었으리라는것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여러 문헌사료들을 통하여 알수 있는것은 윤여형이 고려말기에 활동한재능있는 문인이라는것이다.

리제현이 윤여형에게 시를 지어 보낸 사실을 두고볼 때 윤여형은 대체로 리제현과 같은 시대 즉 14 세기에 활동한 사람이였으며 《대동운부군옥》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고려봉건정부에서 그리 높지 않은 벼슬을 지냈다.

윤여형이 당대에 명망이 높은 학자였고 진보적인 시인이였던

리제현과교우관계를 맺고있었고 리제현이 그에게 시를 지어보낸 사실, 그리고 조선봉건왕조초기의 이름있는 학자였고 《동문선》의 편찬자의 한사람인 서거정이 그의 시를 평하면서 높고 깨끗한 뜻을 가진 로대가로 평가한 사실, 또 18 세기의 이름있는 학자였던 권문해가 《고려사》나 《고려사절요》에도 없는 윤여형의 경력을 《대동운부군옥》에 소개하면서 《시에 이름이 있었다》라고 한 사실 등을 보면 윤여형이 당대에 재능있는 시인의 한사람으로서 명망이 높았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과 함께 그가 지은 시작품들을 분석하여보면 그의 생활처지와 창작경향, 당대의 현실에 대한 태도 등을 엿볼수 있다.

시 《도톨밤의 노래》를 제외하고 현재 전하고있는 6 편의 작품들은 그제목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모두 당대의 현실생활에 환멸을 느끼고 벼슬에서 물러나 방랑생활을 하였던 윤여형의 불우한 생활처지와 생활감정을 반영하고있다.

6 편의 작품가운데서 시 《고향을 생각하며》, 《촌에 살면서》, 《설날에 생각되는바를 쓰노라》 등 3편의 작품들에는 긍정할수도 찬양할수도 없는 당대의 정계생활과 사회현실에 대한 불만의 감정이 반영되어있다. 이 작품들을 통하여 윤여형이 통치배들의 정사에 불만을 가지고 불합리한 사회현실을 비판적으로 대하면서 생활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런가 하면 《관동지방에서 밤을 맞으며》, 《길손으로 자복사에 묵으며》, 《산길》 등의 작품들을 분석하여보면 그가 벼슬살이에서 물러난 후 오랜 기간 방랑생활을 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리고 《이르는 곳마다 오랑캐 장사치들이 분주히 돌아치니 세월은 흘러 수염이 텃수룩하여도 방랑객의 주머닌 빈털터리라오》라고 한 시 《길손으로 자복사에 묵으며》의 마지막 두련과 시 《촌에 살면서》의 첫 련인 《나라 위한 옳은 대책 세우지 못할바에는 책을 버리고 농사를 배우리라》, 시 《관동지방에서 밤을 맞으며》의 첫 련인 《하늘땅은 가없이 넓어도 나에게는 집이 없어라 하루밤 등불아래 아홉번씩 일어나 한숨만 짓네》등을 서로 련관시켜보면 그가 벼슬살이를 그만두고 여러 지방으로 떠돌아다니게 된 리유가 어디에 있으며 불우하고 고달픈 처지에서도 마음속깊이에 파고드는 만갈래의 근심과 걱정이 무엇이었던가를 어느 정도 짐작할수 있게 한다.

이처럼 얼마 되지 않는 자료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윤여형에게 당대의현실을 그처럼 진실하고 생동하게 그려낸 《도톨밤의 노래》와 같이 우수한

사실주의작품을 창작할수 있는 충분한 생활체험이 있었으리라는것을 능히 짐작할수 있다.

시 《도톨밤의 노래》는 당대 사회현실에 대한 윤여형의 립장과 비판정신, 사회정치적견해가 집중적으로 반영된 작품이라고 할수 있다.

시는 봉건통치배들의 끝없는 탐욕과 수탈행위로 하여 형언할수 없는 고통속에 살아가는 당대 최하층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처지를 생동한 시적형상으로 펼쳐보여주고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예리하게 발가넌것으로 하여 고려후반기 사실주의시문학의 가장 우수한 대표작의 하나로 되고있다.

시에서는 먼저 썸바귀보다 쓴 도토리를 유일한 량식으로 여기고 그것을 얻으려 험산속을 헤매는 농촌마을 늙은이들의 고생스러운 모습을 생동하게 묘사하고있다.

농촌마을 늙은이들 도시락밥 걸머지고  
첫새벽 닭울음소리에 길을 떠나  
만길 높은 산벼랑에 기여오르네  
가시녕쿨 헤집고 원숭이와 싸우며  
해종일 주어도 광주리는 차지 않는데  
두 다리는 저러오고 배속에선 쪼르륵소리  
추운 날씨에 하루해는 저물어  
우중충한 골안에서 밤을 지새며  
솔가지모닥불에 산나물 뜯어끓이네  
깊은 밤 찬서리는 몸적시는데  
할아버지는 신음하고 할멈은 흐느낀다  
쳐량한 그 소리에 가슴은 저러나네

시는 이처럼 첫부분에서부터 산속에 들어가 모진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며 이른새벽부터 도토리를 주어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해가는 당시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처지를 생동하게 그려보이면서 그들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이 어디에

기인하고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있다.

시는 다음부분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예술적해명을 주기 위하여 시인의 질문에 늙은이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시를 엮어나가고있다.

왜 이리 고생해야 하느냐고 묻는 시인에게 농촌늙은이는 이렇게 대답한다.

《요즈음 권력있고 세도쓰는 자들이  
백성들의 논밭을 함부로 빼앗아  
산기슭, 시내가에 패밭을 박고는  
관청을 끼고 자기걸로 만든다오  
어떤 밭은 밭 하나에  
밭임자가 여럿이 있어  
도조를 물고물고 또 물어야 하지요  
큰물이 지든지 날씨가 가물어  
한해농사 흉년들면  
밭이랑은 묵어나고 잡초들만 우거진다오  
지주들 농민의 살점을 저며  
땅우에 열린것 말끔히 쓸어가니  
가지가지 관청의 세금들은  
무엇으로 물어준단말이요  
젊은것들은 몇천명씩 그리운 고향을 떠나가고  
늙고 병든 사람들만 남아 빈집을 지키고 살지요  
구렁에 몸을 던져 죽지도 못하고  
이렇게 산에 올라 도토리를 줏는다오》

시는 억울하고 기막힌 사연에 대한 늙은 농부의 하소연을 통하여  
량반, 토호들의 횡포한 토지수탈과 관가의 터무니없는 조세와 사정없는 부역등  
2 중 3 중의 착취로 말미암아 여지없이 황폐화되어가는 당대의 농촌현실과  
도탄속에서 신음하는 농민들의 참상을 진실하게 드러내고 이 참혹한 현실을

빛어내고있는 봉건통치배들과 토호들의 간악한 죄행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있다.

시의 마지막부분에서는 늙은이의 말을 듣고 너무도 기막혀 할말을 지 못하는 시인의 누를길없는 분노의 감정이 분출되고있다.

시 《도톨밤의 노래》는 이처럼 당대 사회에서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며 죽지 못해 살아가는 최하인민들의 처참한 생활모습을 생동한 사실주의적시형상으로 펼쳐보여주고 그 원인이 통치배들의 끝없는 탐욕과 가혹한 수탈행위에 있다는것을 직설적으로 밝혀내고있다.

그것으로 하여 시 《도톨밤의 노래》는 고려후반기 시문학의 사실주의적경향을 보다 뚜렷이 한 현실비판주제의 대표적작품의 하나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문학작품의 문학사적지위는 인간과 사회현실을 얼마나 진실하게 그려냈는가에 따라 규정되게 된다.

시 《도톨밤의 노래》는 당대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깊이있고 생동하게 보여줄수 있도록 장시형식의 7 언고시형식을 리용하고있으며 그 시적소재와 시적계기도 이전시기 시들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면모를 보이고있다.

이 작품의 직접적인 소재로 된것은 도톨밤을 짓고있는 늙은 농부들의참혹한 생활모습이다.

맛은 썸바귀보다 쓰고 빛같은 숯과 같이 새까만 도토리를 식량으로 대신하여야 하는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 그것마저도 험한 산밭, 가파로운 벼랑을 뚫으며 짓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수 없는 농민들의 가궁한 생활 모습을 시적소재로 삼으로써 작품은 통치배들의 토지점병과 2 중 3 중의 부역과 수탈행위로 말미암아 기아와 빈궁의 막바지에서 모진 고생을 겪지 않으면 안되는 당시 인민들의 비참상을 예술적으로 일반화하여 보여줄수 있었다.

물론 후기신라시기부터 고려후반기에 이르는 기간 여러 사람들에 의하여 인민들의 고된 생활을 소재로 한 현실비판주제의 시작품들이 적지 않게 창작되었다.

최치원의 《강남녀》, 김극기의 《농사집의 네절기》, 리규보의 시 《나라에서 농사군이 맑은 술과 흰쌀밥먹기를 금지하는 령을 내렸다는 말을 듣고》, 《며칠후에 다시 쓰노라》, 홍간의 시 《가난한 녀인의 노래》, 리곡의 《녀인의 기박한 운명》, 리책의 시 《누에치는 녀인》 등은 그 대표적작품들이다.

이 작품들에서 시적소재로 된것은 《도밤의 노래》와 마찬가지로 노동생활로 부를 창조하면서도 언제나 가난과 고역에 시달려야만 하는 인민들의 생활이지만 시적계기에 있어서는 《도톨밤의 노래》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작품들은 다같이 가난에 허덕이는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보여주는것을 통하여 당대의 불합리한 사회현실을 비판하고있는데 최치원의 《강남녀》, 리색의 《누에치는 녀인》, 홍간의 《가난한 녀인의 노래》 등의 작품들에서 시적소재와 계기는 대체로 잘사는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대조적인 생활과 그로부터 환기되는 시인의 사상감정이 기본으로 되고있으며 리규보의 시작품인 경우에는 봉건위정자들의 그릇된 정사를 시적소재로 하여 그에 대한 불만의 감정을 토로하고있다.

이 작품들과 달리 윤여형의 《도톨밤의 노래》에서의 시적소재, 시적계기는 이전시기의 작품들에서는 찾아볼수 없었던 새로운것이였다.

시에서 시적소재, 시적계기는 도톨밤이라는 자그마한 대상으로부터 시작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량식 아닌 량식인 도토리를 줏는 농민들의 고단한 생활에로 점차 확대시키면서 그에 대한 시인의 관점과 립장을 보다 뚜렷이 하면서 현실비판적기백을 높여나가고있다.

작품은 도토리와 그것을 줏는 농촌늙은이들의 생활 그자체를 시적소재,시적계기로 하고 점차 심화시켜 그들의 비참상을 생동하게 형상함으로써 그들이 왜 그러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는가 하는 심각한 사회적문제를 제기할수 있었으며 그 원인이 바로 통치배들의 그릇된 정사와 가혹한 수탈에 있다는것을 예술적으로 해명할수 있었다.

시 《도톨밤의 노래》는 생활반영의 예술적전형화에서도 이전 시기의 작품들과 구별되는 특성을 보이고있다.

사실주의는 현실에 실재하는 사실에 기초하여 그것을 생활자체의 형식으로 진실하게 그려내며 생동한 형상을 통하여 현실생활의 본질을 심도있게 천명한다.

현실에 대한 사실주의적반영은 인간성격과 생활에 대한 예술적전형화를 거쳐서 실현된다.

이 작품에서 생활반영의 예술적전형화는 늙은 농부의 대답을 그대로 인용하는 형식으로 되어있는 시의 두번째부분에서 뚜렷이 찾아볼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시의 두번째부분은 왜 고생스럽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시인의 물음에 로인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되어있다.

시에서는 시인이 한 늙은 농부의 목소리를 통하여 당시의 사회상을 그대로 보여주었으며 인민들이 불행을 겪는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밝혀내고있다.

로인의 말속에는 토지점병에 미쳐날뛰는 권세가들의 독단과 전횡, 통치배들의 거둬드는 수탈과 착취행위, 거기에 얹친데 덧붙여 자연재해까지 겹쳐들어 근로대중의 생활이 이루 말할수 없는 최악의 상태에 처하여있던 당대의 참혹한 시대상이 그대로 비껴있다.

무신정변이후 권세가들에 의한 토지점병은 하나의 엄청난 사회적풍조로 되었다.

특히 고려말기에 이르러 토지제도는 견잡을수 없을 정도로 문란해졌으며 통치배들의 착취약탈행위도 극도에 달하였다.

《고려사》의 《근래에 권체가들이 점병한 토지는 몇천, 몇백결에 이른다》(《고려사》 권 11 렬전 김숙명)라고 한 경효대왕때의 감찰대부 김숙명의 상소문내용 그리고 《…흉악한 무리들이 주, 군경계내의 전체 토지 또는 여러 주, 군에 걸쳐 토지를 차지하고 산과 강으로 경계표식을 삼고 서로 흠치고 빼앗으니 1 묘의 주인이 5~6 명을 넘으며 1 년에 도조를 8~9 번씩 받아내고있습니다.》(《고려사》 권 78 식화지 1 전제 록과전 공양왕 3 년 7 월)라고 한 조준의 상소문내용들은 당시 왕실족속들뿐아니라 권세가들의 토지점병책동이 어느 정도에 이르고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들이다.

그런가 하면 인민들이 1282 년초 경상도안렴사 민원이 허리에 두른 붉은 피를 보고 《요즘 원님들이 두른 붉은 띠는 생사람의 피로 물들었네》라고 야유한 사실(《고려 사절요》 권 20 경효대왕(충렬왕)8 년 정월)이라든가 경상도 왕지사용별감으로 되어 악랄한 수탈을 감행한 리먹손의 행위를 저주하여 《경상도백성들의 붉은 피를 짜내서 덕손의 3 품관복 물들었네》라고 규탄하는 글을 벽에 붙여놓은 사실(《고려사》 권 123 렬전 폐행 1 권위)

등은 량반관료들의 가혹한 착취약탈행위와 함께 그에 대한 인민들의 저주와 불만의 감정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당시 이와 같은 통치배들의 부패상과 그에 대한 인민들의 증오의 감정을 그대로 반영한 대표적작품이 바로 시 《도톨밤의 노래》이다.

시에서는 시인이 자신이 직접 들었던 한 농촌늙은이의 말을 그대로 시화함으로써 당시의 시대상을 예술적으로 재현하였을뿐아니라 농촌늙은이의

입을 통하여 당대의 전형적인 부정적폐단들을 폭로함으로써 인민들의 기아와 빈궁은 바로 그러한 폐단이 가져오는 필연적산물이라것을 명명백백히 밝히고있다.

작품은 이렇듯 농촌농민의 길지 않은 하소연을 그대로 옮겨놓는 방법으로 생활반영의 예술적전형을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보장함으로써 그의 사실주의적풍격을 높이고있다.

시 《도톨밤의 노래》는 이처럼 그 어떤 비유나 우회적인 수법을 쓰지 않고 농민들의 논밭을 강제로 빼앗아내며 농민들의 삶과 곱질을 벗기고 뼈를 깎아가면서 진치게 먹고 살아가는 권세있는자들과 이른 새벽부터 산벼랑에 올라 도토리틀 주어 근근히 목숨을 부지해가는 농민들의 판이한 두 세계의 대조적인 생활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보여주고 고려말기 농민들이 당하는 고통과 불행, 기아와 빈궁의 근원이 봉건지배층의 탐욕적인 토지점병과 착취약탈에 있다는것을 폭로하고 그에 예리한 비판을 가하였다.

참으로 시 《도톨밤의 노래》는 고려말기의 농민생활상과 그 사회의 불상용적모순을 진실하게 일반화한 시대의 축도라고 말할수 있으며 바로 여기에 이 작품이 고려시기사실주의시문학의 가장 우수한 대표작의 하나로 되는 근거와 문학사적지위가 있다고 말할수 있다. 동시에 이 작품의 작가인 윤여형을 고려시기 대표적인 사실주의시인의 한 사람으로 규정할수 있다고 본다.

시 《도톨밤의 노래》는 사실주의시문학창작의 귀중한 경험을 남기였으며 그 이후시기 김시습의 《산골농민의 고생》, 《농부의 항의》, 림제의 《두메사람들》, 권필의 《달구지군》, 《충주돌》, 정약용의 《적성촌의 오막살이》, 《굶주리는 백성의 노래》 등 현실비판주제의 사실주의적시문학창작에 긍정적인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작품에는 인민들이 기아와 빈궁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도를 제시하지 못한것과 같은 작가자신의 시대적 및 계급적제한성도 반영되어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선조들이 창조한 우수한 민족문학유산들을 과학성의원칙, 역사주의원칙에서 더 많이 발굴고증하고 그 사상예술적특성과 문학사적지위를 옳바로 해명함으로써 민족문학사를 풍부한 사료에 기초하여 과학적으로 체계화하는 적극 이바지해나갈것이다.



# 재일조선학생들의 글짓기현상모집 입선작품을 통해 보는 통일의식의 특징

김진미  
(조선대학교)

## 0. 머리글

헤림아. 할매는 네가 이 일본땅에서 부모결을 떠나면서까지 우리 민족 교육을 받고 조국을 사랑하고 통일을 마음속으로부터 바라는 <조선 사람>으로 자라난것이 정말로 행복해. 할매는 너무 나이가 들었지만 너는 통일조국의 새시대에 살수 있어. 그렇게 되면 이젠 치마저고리를 입고 당당하게 살아나갈수 있지. 할매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계시는 동포들에게 올해 뉴스의 보고모임을 해야겠다. 조미회담까지 열렸는데 허허허 -- 《통일은 어디까지 왔나요》(최\*\*, 도교조선중고급학교/고 2)<sup>1</sup>

어느 1 세대일조선인녀성은 자기 손녀가 《통일을 마음속으로부터 바라는 <조선사람>으로 자라나있는것을 가장 기쁘다고 했다. 한편 손녀인 3 세대일조선학생은 원래 《나에게 있어서 통일이란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아득하게 멀리에 있는 존재》였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식민지 반세기, 분단 반세기의 비극에 대하여 학교에서 배우면서 조선민족의 력사, 재일본조선인의 력사를 알게 되었고 동시에 그 모든것에 통일이라는 희망의 미래가 이어져있다는것을 절감하게 되었다.》<sup>2</sup>고 한다.

이글은 4.27 판문점선언발표 1 돛을맞이한지난 4 월 《꽃송이-우리는 조선학교 학생입니다》라는 표제를 달고남녘땅에서 처음으로 발행<sup>3</sup>된 재일조선학생들의 우리 글 문집

---

<sup>1</sup>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꽃송이》(시대너머, 2019) 229 페이지

<sup>2</sup>우의 책, 226 페이지

<sup>3</sup>조선신보 《<꽃송이>가 남조선에서 첫 출판/우리 학생들의 글과 사진, 미술, 노래가 한권

에 수록되어있는것이다.

일본에서재일조선인을위한중등교육이실시된지 70 여년,조선학교는조선반도의분단,미,일,《한》의정치적관계,일본의민족차별과탄압상황에서어떻게 《통일》을지향하고모색해왔는가, 본고에서는그런물음에대한단서를재일조선학생들의글을통해찾아보려고한다.

《꽃송이》라는 말은 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1978 년부터 진행되어 왔던 글짓기현상모집을 말한다. 재일조선인학생들의 세대가 바뀌어 학생수도 변화를 하였지만 조선학교 아이들이 모여가 아닌 우리 말로서 글을 짓고 자기 정서를 표현해 왔다는 사실은 40 여년간 다름이 없다.

본고는 40 여년간 진행되어온 《꽃송이》현상모집의 입선작품을 통해 재일조선학생들의 통일의식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이번 연구에서는 《꽃송이》현상모집 입선작품집 4 의 초급부 당선작품을 제외한 중고급부생의 작품을 연구대상(1978 년 ~2016 년까지)으로 하였다. 총 1,485 편중 통일문제와 관련된 작품은 209 편(14%)이 된다. 본고에서는 통일문제와 관련된 209 편의 작품을 주제의식에 따라 7 가지로 분류하고학생들의 통일의식에서 나타난 경향성과 시대적변화에 대해 주목을 해보았다.

## 1. 《꽃송이》현상모집에 대하여

제 1 회현상모집<sup>5</sup>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 돛을기념하여조선신보사가조청, 상공련합회, 교직동, 중앙교육회, 조신험, 문예동, 학우서방의후원밑에실시하였다.

제 1 집문집을보면이사업은민족교육의기본교과인국어교육에도움을주며학생들의건전한정서와문학적재능을자래워총련의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우월성을과시할목적으로시작하였다고한다.당시응모자격은조선학교의초급부 2 학년부터고급부까지였는바제 1 회에서는 1104 편이응모되고 53 편이입선작품으로뽑혔다고한다.제 1 회의심사위원으로서는리은식,박종상,김두권,정화흠,정화수라는대표적재일조선인문학작가들이진행했다.자료에의하

---

에》(2019 년 4 월 26 일)[<http://chosonsinbo.com/2019/04/26-7/>] (최종검색일:2019 년 6 월 8 일) 기사에 의하면 이 책은 2014 년부터 2018 년까지의입선작을 중심으로 남조선 독자들이 우리 학교와 재일동포에 대한 이해를 깊이는데 도움이 될만한 작품들을 골라 재편집했다고 한다.

<sup>4</sup>본고의 연구대상인 《꽃송이》현상모집 입선작품집은 1978 학년도부터 1984 학년도까지 조선신보사에서 발간했고 1986 학년도부터 2016 학년도까지는 《학우서방》에서 발간했다.

<sup>5</sup>당시 정식명칭은 《조선학생문학작품현상모집》이라 되어있었고 제 3 회부터 《재일》이라는 두글자가 보태여졌다. 원래 《꽃송이》라는 말은 입선작품집의 제목이었으나 2002 년의 제 24 회부터 《꽃송이》현상모집이라고 말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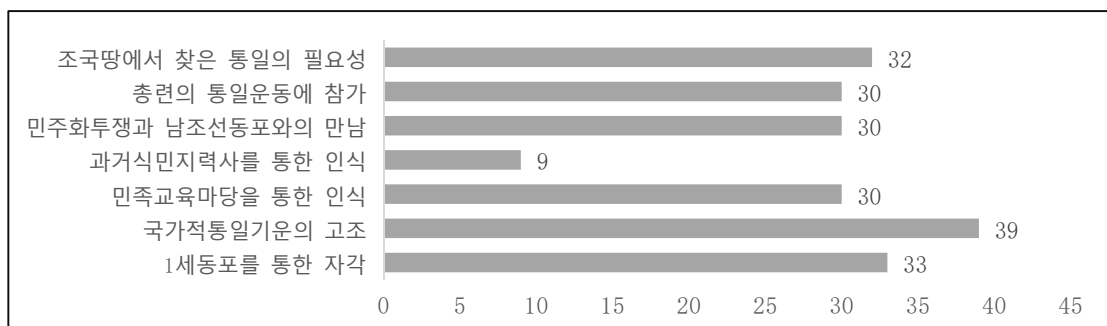
면거의 1 세대인 심사위원들은 일본에서나서 자란 아이들이 모국어로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작품을 고를 수 없어 심사가 좀처럼 앞에 가지 않았다고 한다.<sup>6</sup>

그이후로부터 《꽃송이》현상모집은 학교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말과 글을 올바르게 배우고 쓰는 운동의 하나로서 조선학교의 년중 행사로 정착되어 갔다. 해마다 1 천편가까운 작품들이 10 월경에 응모가 되어 새해 1 월초에 입선 작품들이 조선신보지면을 통해 발표가 된다.<sup>7</sup>

현재는 초급부 3 학년 작문 부문과 초급부 고학년, 중급부, 고급부 작문, 시 부문의 각각 15 부문으로 나누어지면서 1 차, 2 차, 3 차 심사를 거쳐 입선 작품이 선출되고 있다.<sup>8</sup>

## 2. 주제의식 및 연령별 특징

1978 년의 제 1 회 현상모집부터 조국통일문제를 다룬 작품들은 6 번을 제외<sup>9</sup>하고는 해마다 입선이 되어 있다. 다음 도표는 총 209 편의 통일주제 작품을 주제의식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표 1) 주제의식에 따른 분류

<sup>6</sup> 「始まりのウリハッキョ編 vol. 17 引き継がれるウリマル表現の営み-『コッソニイ』作文コンクール」、月刊『イオ』2016年、6月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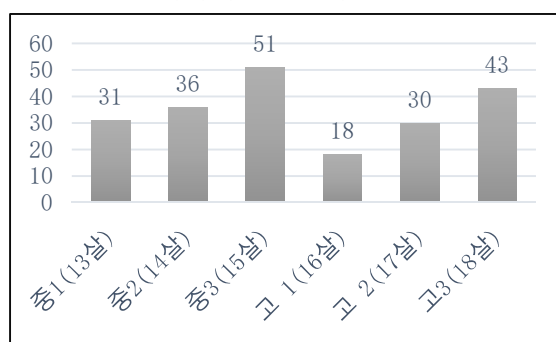
<sup>7</sup> 총련 한덕수 의장이 생전에 계실 때는 《꽃송이》현상모집의 수상식이 조선신보사 강당이 나 총련중앙회관에서 진행되었다. 1 등 수상자들에게는 계속 상품이 증정되어 있다.

<sup>8</sup> 2007년부터 1차심사에 협찬단체와 함께 학교교원들이 참가하게 되었고 2차심사는 조선신보사에서, 마지막 최종심사를 조선대학교 교원과 문예동맹원들이 진행하고 있다. 해마다 12월말에 조선신보사 회관에서 최종심사가 진행되어 있다.

<sup>9</sup> 문집의 발행년대로 보면 1997년, 1998년, 2000년, 2010년, 2012년이 없다. 6.15가 있는 해의 작품은 2001년에 발행(20편 입선)되고 있다.

<sup>10</sup> 테마분류에서 7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작품이 15편(7.1%) 있었다.

학생작품중가장많은소재선택은세계청년학생축전이나범민족대회,코리아타구팀,리산가족상봉,비전향장기수들의송환등국가적통일기운의고조와관련된 글들이다.다음으로 1세대동포들의경험과이야기를통해조국통일에대해생각을깊이게되는것들이었다.학생들은학교생활에서통일문제를생각하는마당이차레지면서그생각을정리하거나조국방문과총련의통일운동에참가한경험,그리고남조선동포들의민주화투쟁소식에접하면서통일의필요성을작품에담고있다.40여년간의총작품들을보았을때주제의식이어느것에서우치는경향은없었다.년대별로본다면 80년대는 71편, 90년대는 63편, 2000년대는 40편, 2010년대(~2016년까지)는 10편으로 80년대가가장많았다.



(표 2)년령별입선수

학년및년령마다의입선작품수를보면개개인의장래나인생설계로연결되는 3학년시기(15살과 18살)가가장통일에대한문제의식이높다는것을알수가있다.특히중급부 3학년시기는동포 1세들을비롯한선대들의고생스런이야기나경험을듣는것을통해학생자신이통일을자기대의사명으로여기는경향이있다.한편고급부 3학년시기는하기사회실천활동기간에총련에서벌리는조선사람되찾기운동에함세해나가면서재일조선인운동의사명을조국통일의문제와결부하고생각하고있다.또한고급부 3학년생들은조국방문을통해직접적으로분단상황을목격하고통일의필요성을느끼게되는경향도많았다. .

### 3. 재일조선학생들의 통일의식의 변화양상

#### 1) 창간(1978년)부터 1980년대

시대마다재일조선학생들의통일의식에서는일정한변화가있다.

《꽃송이》현상모집이시작된 1978년부터 80년대에걸쳐입선된학생들의작품을보면각

각조국땅과남녘땅을소재로한통일주제작품들이가장많고그중 80%가운문이다.다음으로 많았던 1 세대동포를통해통일에대한자각을가지게된작품들은거의산문이라는특징이있다.

조국과관련된운문들은 1978 년 79 년에걸쳐진행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평양학생소년예술단의일본방문공연<sup>11</sup>과 1979 년부터 겨우 실현된 재일동포조국방문단<sup>12</sup>을 배경으로 하고있다.당시많은 시작품에는조국에대한동경과리상이느껴지며 동시에 학생들은이역땅에서싸울결심을통해 통일의식을표출하고있다.70 년대까지만 하여도 민족교육마당에서는 《사회주의조국에이바지하는인재육성》이고려되어있었다면이시기에는명확히일본에서의생활을시야에둔교육이진행되어있었는바학생들의글도공화국의해외공민이라는아이덴티티에기초하여일본이라는립지조건에서통일에기여하는민족인재로살아나가야한다는지향성이보인다.

1982 년 《통일의그날위해역세계싸워나가리》(고 3/박\*\*/이바라기)<sup>13</sup>를 보면조국방문으로 간 군사분계선이라는비일상적공간에서학생은 미국을 《인간의탈을쓴양키놈들》, 《주인행세하는불구대천의원썬미제》, 《현대의야만인》, 《100 여년간의피맺힌원썬》, 《간악한파쇼교형리들아》 등의강한 정치성을 띤 말로표현하고있다.

한편학생들은남조선정세를예의로주시하면서군사파쇼도당들에대한분격을안고광주시민들의투쟁을지지하는시들을많이쓰고있다.레를들어 80 년 《분노의목소리메아리친다》(중 1/좌\*\*/도표제 1)에서는저녁이다기울어가는데도학교운동장에서계속되는전두환정권을반대하는성토모임을배경으로하면서 《같은피를이은한민족이/따사로운해빛을함께받아야할소년들이/어찌하여/차에깔려죽고충에맞아죽어야한단말인가》<sup>14</sup>고 거친 숨결로 남조선청년들의 항쟁에 당장 합세하고싶은 심정을 토로하였다.이렇게 당시 학생들이 남조선청년들이 받는 탄압과 소외에 예민한 감각과 감수성을 보인것은 그들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의한 타자화의 경험을 겪었기때문일수도 있다.

다음으로학생들은 1 세들의고향에대한그리움과 구체적인경험담을듣는과정에할아버지, 할머니를고향이 있는 남녘땅에모시고싶다는심정을하나와같이글에담고있다.1 세들은강

---

<sup>11</sup>《조선신보》에의하면 134 명의대규모로구성된예술단의일본방문공연은 11 개도시에서일반공연이 34 번,재일동포들을위한특별공연이 12 번진행되었다고한다.일본주재 42 개국외교관을포함하여 15 만여명이관람을하였다고한다.

<sup>12</sup>조국에로의배길은 65 년에한번열렸으나일본당국의방해로인해 15 년동안이나문이단힌상태에있었다.공화국에서는대형려객선 《삼지연》호를보내고재일동포들의조국방문의편의를도모할수있게하였다.

<sup>13</sup> 《꽃송이제 4 집》(조선신보사,1982 년) 390 페이지

<sup>14</sup> 《꽃송이제 3 집》(조선신보사,1980 년) 237 페이지

제련행과 강제노동, 일본에서 겪은 혹심한 고생과 차별, 그리고 자신이 떠나온 고향이 어떤 곳이었으며, 그 고향에 기여든 원수들의 만행에 대해 손자, 손녀들에게 정확히 전하고 있다. 그것은 가족이란 집단 속에서 반드시 전해가야 할 이야기로 학생들의 조선반도에 대한 귀속의식을 강화해 유지시키는 역할로 작용했다. 주목할 것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고향땅은 진정한 의미에서 해방을 하지 않고 있다는 원칙적 입장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루빨리 외세를 몰아내고 고향이 해방되었을 때 찾아가겠다는 결백성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한국》 정부가 《조선》 국적 소유의 재일조선인에게 《총련계=친북》이라는 이데올로기적 낙인을 찍고 그들이 디아스포라로서 가지는 《이동권》, 《귀환권》을 방해해 왔다는 배경과도 관련된다. 이렇게 재일조선인은 북남대결의 지속적인 희생물이 되어왔으니 조국의 통일은 자신들의 운명과 관련되는 정치적이며 윤리적 과제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소재가 《남조선으로부터 미군 철거와 핵무기 철거 요구, 조선의 자주적 평화 통일 총진도보 행진과 서명운동》(82.6.25-7.27)이나 《팀스피리트》 군사연습을 반대하는 서명, 《미제의 핵전장도발책동을 반대하며 공화국이 제기한 3 자회담 실현을 지지하는 500 만명 서명운동》(84.3.1-7.27) 등 총련에서 벌리는 각종 집회와 시위 행진, 서명운동에 합세해 나선 학생들의 작품들이다.

89 년 《조국통일을 위한 나의 첫 걸음》(고 2/김\*\*/도쿄/)에서는 8.15 남북학생회담 실현을 위한 100 만명 서명운동과 남북청년들이 국토종단대행진 때 입을 티샤츠를 만들기 위해 금금운동을 벌린 것이 조국통일을 위한 첫 걸음이었다고 했다. 실지 학생들이 만든 《통일을 위하여, 만나자 판문점에서!》라는 글발이 새겨진 티샤츠를 남조선청년들이 입고 투쟁하는 모습을 필자는 텔레비화면에서 확인하고 있다. 당시 총련에서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을 광범한 동포들과 일본 시민들에서 이해와 지지를 받기 위해 사업하는 것을 자신들의 나선 《가장 영예롭고 중요한 과업》(80 년 11 월에 개최한 총련제 12 차 전체대회)으로 제기하고 있는바 청년학생들은 이에 맨 앞장에서야 한다는 사명을 자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학생의 글을 보면 《싸우는 남조선청년들을 위하여 우리 말을 잘 쓰자》, 《그들을 지원하는 마음으로 학습을 잘 하자》는 구호를 내걸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모자라니 남조선청년들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을 뚜렷한 무슨 형태로 바꾸어서 그들에게 보내고 싶다》<sup>15</sup>고 하고 있다. 이런 학생들의 통일의식은 오랜 기간 교육과 운동에서 구축해 온 보편적인 권의식에 기초한 반차별운동에 대한 숙련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 2) 1990 년대

<sup>15</sup> 《꽃송이제 11 집(중고급부편)》(조선신보사, 1989 년) 137 페이지

1990 년대전반기는제 13 차세계청년학생축전(89 년), 범민족대회(90 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91 년), 비전향장기수리인모동지의송환(93 년)등의국가적인통일기운의고조로 하여학생들은홍분과감격에넘쳐통일의식을드러내고있다.

90 년 1 등을받은 《하나된조국을위하여》(고 3/김\*\*/도표)을보면재일조선청년학생대표단이림수경과함께백두산정부터진행한통일대행진, 판문점에서벌린단식통성의경험을 그리면서통일세대청년들로서투쟁을멈추지않겠다고했다.이글에서는림수경에게부칠편지에서 《언니와같은눈,언니와같은뜻을가지고하나의피를나눈저인데어찌하여언니가가는길을저라고못갈리가 있나요.》<sup>16</sup>라고 하면서 학생이 림수경과 함께 판문점을 건너갈 결심을 다지고있었다는것을 알수 있다.이 축전에는재일조선청년학생대표단,녀성동맹과 청년상공인들을 비롯한 대외봉사단,기자단,참관단 등 3043 명<sup>17</sup>이 참가하였다고 한다. 특히 15 만군중을향해림수경학생이추켜든주먹은당시학생들에게는일상을깨는큰충격적사건이었으니그작품수도한해에 12 편이입선하고있다.많은작품들이림수경을하나의정신적 상징으로보고그에게자신의모습을투영해보고통일을위해무엇을해야겠는가하는자문자답을하였다.

한편학생들은조선학교의독자적인문화속에서조국통일인식을갖게된다.노래를하나불러도연극활동을하도운동회의간판을그려도조선학교에는조국통일과관련된주제들이많기때문이다.이런조선학교특유의문화는또한측면에서는사회에서그존재를무시당해왔던마이너리티가자기를스스로표현하고사회에그존재를과시하는의미도있다.체육소조생이쓰글을 보면 국제시합에참가하니타자하고의심리적 《구별》속에자신의아이덴티티를모색하고있으며장차통일팀의선수가될것을꿈꾼다. 학생들의 아이덴티티가승화된 결과 량만적공간이라 할수 있는통일된조선에귀속하려고 했음을 알수 있다.

한편학교에서일제식민지시기동포들이겪은피의력사를학습하고, 현지답사등을하는과정에일본정부에게과거청산을요구하는투쟁이바로조국통일에이어진다는생각을깊이고있다.1990 년 《봉선화필때면》(중 3/박\*\*/도표제 5)에서는 《간또대진재때거치른남의나라 땅에서숨진우리동포들을생각할때그들의넋이라도통일된조국에 데려다주어야하지않는가.》

18고하면서지금도일본정부가실태조사도안하고그책임도회피하고있다는심각한력사은폐 문제를가지고조국통일의필요성을절감하고있다.이렇게보면재일조선인들의과거력사를집

---

<sup>16</sup> 《꽃송이 제 11 집(중고급부편)》(조선신보사,1989 년) 123 페이지

<sup>17</sup> 오규상 《반세기의 로정을 더듬으며-35 조국통일운동》, 조선신보

<sup>18</sup> 《꽃송이 제 12 집(중고급부편)》학우서방,1990 년, 15 페이지

단적기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민족교육의 공간에서는 일관하게 분단을 《동서대립》의랭전구조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제잔재를 놓고 생각해 왔으며 식민지주의 극복의 문제로 규정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90년대 작품들은 1세대 동포들이 애족애국사업에 바치시다가 고령이 되어가면서도 아직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억울함과 초조가 가정 내에서 계속되어 왔다는 것도 특징적이다. 이 시기 학생들 거의 대부분이 3,4세였으니 1세분들의 체험을 듣는다는 것은 자신들의 존재 인식과 함께 통일의식을 현실적 문제로 여기는 데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니 총련에서 벌리는 조국통일 운동에 학생들이 큰 몫을 맡는 과정에 학생 스스로가 정신적 계승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

### 3) 2000년대

다음으로 2000년대 초기는 6.15 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된 것을 계기로 학생들의 통일의식도 새로운 변화를 보인다. 통일을 기대하는 동포들의 흥분된 심정이 그려진 작품이 많았으며 《〈한>일 월드컵》 축구시합이나 부산아시아대회, 조선학생들의 남조선 《서울·전주》 방문 공연, 그리고 학교에서 진행된 문화제나 운동회, 창립행사나 예술경연대회 등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참가하는 곳곳에서 동포들의 들끓는 통일분위기를 실감하고 있다.

2000년대가 가장 많았던 작품들은 6.15 북남공동선언 발표를 계기로 고향땅을 처음으로 밟아 혈육들과 상봉한 1세대 19의 감격과 기쁨을 목격하면서 통일이 가지는 절박성에 공감한 글들이다. 이 고향방문 사업은 지난 시기 《한국》 당국과 민단이 제일 조선인 사회의 분열과 북측과의 체제 경쟁에서 우위에서 있음을 과시하기 위해 실시한 《모국방문》 책동을 박치고 마침내 총련 1세대가 가고 싶었던 고향땅을 몇몇이 방문하게 되었다는 데서도 각별한 의미를 지녔을 것이다.

반면 역사적인 북남 수뇌 상봉의 날을 못보시고 세상을 떠나신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하는 작품들도 많았다. 2003년 《패스포트의 사진》(중 3/손\*\*/히가시오사까)에서는 새로 만든 패스포트를 배개 밑에 베고 고향방문의 날을 애타게기 다리신 외할아버지가 방문을 앞둔 2달 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것을 계기로 학생이 1세대 이 밭고기 다리진 조국통일에 대해 심각하게

---

<sup>19</sup> 공동보도문 4항에는 《북과 남은 총련의 동포들이 방문단을 구성하여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명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제 1차 총련 동포 고향방문단이 남조선을 방문(9.22-27)하게 되었다.



생각하고 외할아버지의 유골을 안고 고향땅을 찾을 것을 결의하고 있다. 20세의 마지막 순간까지 통일을 바라고 총련 활동에 열성적으로 합세한 1세의 모습은 회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송고한 모범》이 되어 학생의 비장한 결심의 기반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 시기 통일의식에서 일정한 변화가 보인다.

북남교류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속에서 학생들은 통일을 보다 광범적인 것으로, 꿈이 아닌 가까운 현실 문제로 실감하게 된다. 80년대처럼 통일 운동에서 대적인식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출판이나 나뭇기는 통일이 발이 하나의 광범적 상징이 되고 있으며 만남이 곧 통일이라는 낙관성이 보인다. 통일기의 파란색이 하늘과 꼭 같기에 《파란하늘이 나는 좋아라》<sup>21</sup>고 표현하거나 학교 창립 행사 날에 펼쳐진 출판물 《1, 2, 3 세 세대는 달라도 조국 통일 바라는 마음 큰 하나를 이루었네》<sup>22</sup>라고 형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어떤 의미에서는 통일이 추상적 의미로 변해 버리고 새로운 형태로 관념화했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80년대, 90년대가 조국 통일 운동의 주체가 되어 투쟁에 나선다는 의식이 뚜렷했다면 2000년대는 국제적인 무대, 특히 일본과 남조선, 그리고 공화국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세대라는 인식에서 통일을 말하고 있다. 그런 경향의 작품들의 비교 대상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이 재일 동포 3세프로 체육 선수들이다. 2001년 《<재일>로서》(고 3/구\*\*/교또)를 보면 홍창수 선수가 차별 속에서도 조선 사람임을 밝혀 민족의 통일을 이룩할 일념으로 몇몇하게 싸우는 모습을 통해 나도 조선 사람으로서, 조선 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몇몇이 살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링그우에서 《조선은 하나다》를 웨치는 홍창수가 자기 《근본》을 밝혀<sup>23</sup> 싸웠다는 것이 당시 엄혹한 정세 하에서 학생들의 상징적 희망이 되었다고 본다. 학생은 《재일》이란 말이 《일본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보다도 《조선 사람》이란 의미가 더 강조되어야 한다<sup>24</sup>고 주장한다. 이렇게 보면 당시 재일 조선 학생들의 글이 강한 억압 상황에 대항하기 위해 아이덴티티의 본질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동질성으로의 강조가 보이기도 한다.

반면 이런 글들에는 일본 사회에서 조선 사람이라고 말하는 데서 저항, 망설임이 강하게 보인다. 90년대 말로부터 총련과 조선 학교에 대한 범죄적 탄압과 박해 책동이 연이어 일어났고 2002

---

<sup>20</sup> 《꽃송이제 25 집(중고급부편)》(학우서방, 2003년) 132 페이지

<sup>21</sup> 리\*\* 《파란하늘이 나는 좋아라》(지바/중 2), 《꽃송이제 23 집(중고급부편)》(학우서방, 2001년) 141 페이지

<sup>22</sup> 최\*\* 《어깨》(도표/고 1), 《꽃송이제 30 집(중고급부편)》(학우서방, 2008년) 198 페이지

<sup>23</sup> 구\*\* 《<재일>로서》(교또/고 3), 《꽃송이제 23 집(중고급부편)》(학우서방, 2001년) 239 페이지

<sup>24</sup> 우의 책, 240 페이지

년에는 이른바 《일본인랍치문제》가 표면화되고 일본이 벌린 광란적인 반공화국, 반총련, 반조선인소동의 영향이 가장 커졌던 시기이다. 다른 시대와 달리 글을 보면 학생들이 학교 외공간에서 인간관계를 맺어야 할 때 일정한 공포심이 동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0년대에는 이제까지 없었던 소재로서 남조선의 문화인과 기자, 재미동포와의 인적 교류를 통해 자신들의 정신적 소외감을 메우고 있는 것 같은 글들도 보인다.

#### 4. 맺는 글

최근 이른바 재일조선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그들을 《대변》하는 것으로 오히려 타자화하는 폭력 구조가 곳곳에 보인다. 반면 내부에 있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논하는 것 자체가 아주 힘든 작업이기도 한다. 사실 식민주의와 분단의 폭력, 그리고 가부장제 폭력의 다층적인 구조 속에 놓인 우리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문화에 너무 관심을 기울여 오지 않았다.

필자는 《꽃송이》가 남녘 땅에서 발행된 것을 계기로 하여 이제까지 어린 학생이 쓴 글이라 연구 대상에도 해오지 않았던 사실을 반성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문화》로서 착실하게 기록에 남겨가는 작업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했다.

또한 《꽃송이》는 3, 4 세 재일조선 학생들이 조선어로 써 놓은 글들이다. 모국어인 조선어는 조선학교 학생들에게 있어서 조선인으로서의 심리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하는 민족교육의 핵심적 부분이다. 반면 일본 사회의 안에서 민족을 지킨다는 일상화된 위기의식이 《조선인》으로서의 강한 자각을 보장하기에 《꽃송이》 현상모집은 모어인 일본어의 작문 짓기보다도 정치성과 집단 의식이 강해진다. 하지만 필자는 당사자인 학생들의 경험에 숨겨진 저항의 가능성이, 일상적 경험과 언어 실천이 하나의 《목소리》로서의 지위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과 조선반도의 주류 언설 공간에 닿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이 글을 맺으면서 2017년에 입선된 중학생시를 소개하려고 한다.

《나는 일본 마찌다에 살고<조선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고향을 제주도  
에 둔 한 청년이다/차분히 생각해 보니 내 신세가 참 신기하다//남들이 나  
를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고는 <넌 도대체 누구냐?!>고/묻는 것도 당연하다  
//그럴 때면 나는/좀 귀찮기는 해도/자신의 이 <신기한 신세>를 얘기해주  
군 한다//아직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겐/내가 차근차근 설명해주어야  
지/어찌 그들<탓>이냐/<우리>를 마음대로 다루려는 사람들에게겐 내가 툭  
툭히 말해주어야지/세금 징수 할 땐<일본사람>, 배움의 돈 안 줄려고 <조  
선사람>/진짜 어이가 없지//그래서 나는 내 신세/차근차근, 툭툭히, 고스란  
히/이야기하지//나는/내가 사는 자연 풍요로운 마찌다를 사랑하고/닭알모

양, 3 다 3 무의 섬 제주도를 그리며/나날이 발전하는 우리의 수도 평양을  
언제나 마음에 두는/<조선사람이다!>고//마찌다에 살면서/평양-제주도사  
이 통일렬차 달리는 그날 위해/조선학교에서 당당히 배우는/<조선사람이  
다!>고//나는 앞으로 얼마나 말해야 될가?/내가 누군지를 남들이 날 보고  
/<넌 도대체 누구냐?!>하지 말고/손부터 다정히 내미는 그날까지/계속 계  
속 말해야지》(<계속 말해가자>/고\*\*/니시도쿄제 2/중 2)<sup>25</sup>

많은재일동포 1,2 세들의일상적인피차별경험은령등의식보다민족적자각으로나타난 측면이 많았다.한편 3 세들은부모세대에비해더깊게일본문화에동화해왔으니자신속에형성되는일본적인가치관으로 인하여자신을이질적인존재로서발견하는모순이더러 있다.그런 상황속에서도 이 글에 있는것처럼 조선학교 학생은 오히려 《평양-제주도사이 통일렬차 달리는 그날 위해》 내가 조선사람이라고 계속말해나가야 한다고 한다.

일본에서계속되는식민주의정책과분단구조속에서학생들이자기존재에대해문제의식을가지게 되었을 때필연코분단과통일은생각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또한일본의조선반도인식에있어서북남조선을각각별개의것으로인식하는틀거리가강화되는속에서도재일조선학생들의시선은언제나통일된 조선을바라보고있었다.그것은항상구구세력속에서통일운동을벌리고온총련과민족교육공간에서통일의필요성을 곧자주적삶의문제로간주해왔기 때문일것이다.

마지막으로조국의통일을내다보고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실시해온조선학교에서탄생하고오늘까지 어렵게 지탱해온 《꽃송이》가앞으로우리겨레의유산으로그가치를더욱빛내여주기를바라마지않는다.

<sup>25</sup>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꽃송이》 시대너머, 2019, 206-208 페이지



# 해방 후 중국 조선족 지역의 정보문화와 매체발전의 동향

최향단

(연변대학교 조한문학원 신문방송학부)

## I. 들어가면서

현재의 중국 조선족은 조선반도에서 단일민족이 형성된 다음 1840년대부터 1940년대말까지 조선반도에서 이주, 정착한 조선인 이주민과 그들의 후예로 구성된 민족집단이다. 우리 민족의 중국으로의 대거이동은 1910년 일본이 조선정부를 강박하여 ‘한일합병’조약을 체결하고 조선을 강점하여서부터 더욱 활발해졌다. 이런 이주민들은 고향을 떠나서도 논농사, 교육방법을 그대로 답습하여 왔다. 특히 1905년 이후부터는 조선본토에서 일어난 애국문화운동을 그대로 옮겨오다시피 하여 서당에 이어 사립학교에 까지 반일단체들을 묶고 항일투쟁에서 그 어느 민족보다 앞장서 싸워 많은 피를 흘렸다. 하여 이러한 대가로 어엿한 이 땅의 주인이 되었다. 1952년 9월 3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민정부가 수립되면서 ‘조선족’이라는 호칭이 정식으로 생겼다. 이때부터 조선족은 중국 소수민족의 일원으로 다른 토착 민족과 더불어 중국대륙의 주인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조선족은 중국정부로부터 소수민족정책의 혜택을 받으며 유교적 문화배경 속에서 한글을 사용하며 민족학교를 설립하는 등 민족 문화를 잘 유지하며 살아왔다. 중국 경제건설과 문화발전에 큰 공헌을 하여 사회적으로 우월한 민족으로 인정받아 왔다.

애국문화운동의 앞장에 선 조선족 집단은 신문간행물 발간으로 반일민족독립운동을 준비하였다. 1909년 간민교육회를 설립한 이동춘 등은 반일활동이 목적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연길시 국자가에서 <월보>를 발간하였고 1910년에는 <대성단보>를 발간하였다. 뒤이어 길림성 류하현 삼원포에서도 <한족신문>이 발간되었다. 이렇게 서막을 연 중국 조선족 신문의 역사는 조선족 사회의 우여곡절과 함께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맥이 100년 넘게 이어진다<sup>1)</sup>. 해방 전 조선문 신문은

민중계몽을 위한 정보전달과 교도기능, 일제의 침략만행에 저항하고 일제와 싸울 것을 호소하는 민중동원기능에 주력하였다. 해방 후 조선족 신문은 민족언어규범화를 이끌어 나가면서 당의 방침정책을 선전하고 언론으로서 매 역사시기에 당과 인민의 후설로서 다양한 기능을 하여 왔다. 정보전달에 주력하는 한편, 여론감도의 기능, 문화 교육적인 기능, 사회봉사의 기능, 오락 기능을 가미하고자 애썼다.

주지하다시피 매스미디어는 환경감시, 사회통합, 문화전승 및 오락기능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매스 미디어는 매일 대량의 정보를 전달한다. 사람들은 주로 매스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에 의존하여 사회의 여러 분야들을 인지하고 정보의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사회가 지향하는 규범과 가치를 이해하고 배우게 된다. 현대와 같은 산업화, 도시화된 사회의 사회구성원들은 모든 정보, 뉴스, 사회적 관계 및 가치지향적 등에 관한 욕구들을 과거의 전통사회와 같이 긴밀한 대인관계에 의존하지 않고 모두 매스미디어에 의존하여 충족시킨다. 따라서 현대인들의 매스 미디어에 대한 이러한 의존도는 결국 그들의 가치관이나 신념, 태도, 행동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 인간의 사회화환경을 지배하는 다양한 조작기구들이 존재한다. 우리는 가정, 학교, 직장 등의 다양한 사회화의 기구들을 갖고 있으나 현대사회에서 매스 미디어는 여타 사회화기구들보다도 인간의 사고와 행위의 방식 뿐만 아니라 가타의 규범의식을 매개하는 사회화의 핵심적 요체로서 사회화의 환경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런 이론(異論)이 없을 것이다<sup>2)</sup>. 해방이후 중국 조선족 언론매체는 시종일관하게 당과 국가의 로선, 방침, 정책과 민족이론을 선전하는 동시에 여론을 인도, 감독하고 민족단결을 수호하며 민족문화와 교육의 발전에 정진하고 있다. 또한 사회약자를 관심하는 민생문제에 접근하고 광범한 조선족대중의 사회, 문화생활 관련 정보습득욕구를 충족하는 등 역할을 해왔다. 본고는 중국 조선족 언론매체의 발전역사와 현황을 통해 조선족의 사회문화발전에서 언론매체가 기능한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을 고찰하였고 민족언어매체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 II. 중국 조선족 언론매체의 역사와 현황

1) 박문봉(2002), <중국 조선문 신문의 기능변화에 대한 역사적 고찰>, 서강대학원, p31~33.

2) 이정춘(1990), <현대사회와 매스미디어>, 나남, p94.

### 1. 중국 조선어 신문출판사업의 발전현황

중국 조선족 출판사업은 1882년 봉천(심양)문광서원에서 조선문으로 <예수성교 누가복음서>를 출판, 발행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1909년 조선족의 첫 신문인 <월보>가 연길에서 발간되었고 1938년 연길방송국이 조선말방송을 개시하였다. 이렇게 중국 조선족 언론은 전면적인 생성, 발전의 길을 걷게 되었다. 광복 전 수십년 간 동북 각지는 물론 관내의 북평(북경), 천진, 상해, 항주, 남경, 장사, 무한, 중경, 광주, 계림, 서안 등 중국의 광활한 지역에서 백수십종에 달하는 조선문신문 간행물이 발행되었다. 그중 절대 대부분은 진보적이고 혁명적인 신문간행물로서 중국의 항일혁명에 선전무기의 역할을 하여 왔다.

1948년 말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인민해방군이 동북전역을 해방하자 1949년 4월 1일, 중공중앙동북군은 할빈의 <민주일보>, 연변의 <연변일보>, 남만의 <단결일보>를 통합하여 <동북조선인민보>를 창간하고 연변에서 출판하게 하였다. 이 신문은 1949년 11월 7일부터 1952년 4월 20일까지 4절지 4개면으로 주6기의 농촌판도 발간하였다. <동북조선인민보>의 초기 사장은 최채였다. 1954년 9월 9일 연변주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사장제를 총편집제로 하고 그때 총편집은 리희일이였다. <동북조선인민보>는 중국 공산당 연변지구위원회의 기관지인 동시에 전 동북의 조선족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으로 남북만에 각각 주재기자를 두고 자체의 통신보도망도 건립하였다. 1951년 3월에는 동북삼성대표들이 참석한 제1차 통신원대표대회를 연길에서 소집하기도 하였다. 동북국이 취소됨에 따라 1955년 <동북조선인민보>가 <연변일보>로 개제, 발간되었다<sup>3)</sup>. 이 신문은 1952년 4월 24일부터 한자를 사용하지 않았다. 1956년 3월 1일부터는 신문제호까지 조선문으로 바꾸고 4개면으로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초기 <연변일보>는 조선문 뿐이었으나 1958년 1월 1일부터 한문판도 발간하였다. 이것은 연변의 조선족인민이 한족을 비롯한 형제민족 인민들과 단합하여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 나간다는 의미이기도 하겠다. 한문판은 4절지 4개면으로 한 주일에 3기씩 발행하였다. 그리고 잡지 <통신원의 벗>도 조, 한문으로 발행하였다.

해방 후 흑룡강성에서 발간한 조선문보는 <목단강일보>, <흑룡강신문>이었다. <목단강일보>는 1957년 3월 1일 중국공산당 목단강지구위원회 기관지의 한 조성

3) 최상철(2007). 중국조선족신문출판연구, 향향아주출판사, p316.

부분으로 발간되었다. 이 신문은 1961년 1월말까지 4절지 4개면으로 발간되었다. 총편집은 김강이고 독자층은 흑룡강성의 조선족, 특히는 목단강지구의 조선족이었다. 신문의 대부분 원고는 본보 한문판의 역본이었다. <흑룡강신문>은 1961년 6월 1일에 창간되었다. 창간 초기 신문제호는 <흑룡강일보(조선문주보)>로 정하고 책임자는 김강, 김호봉이었다. 4절지 4개면으로 발행하고 1963년부터 주 2기 발행하였다. 1983년 1월 1일부터 흑룡강일보사에서 나와 따로 조선문신문사를 세웠다. 그해 7월 1일부터 신문제호를 <흑룡강신문>으로 바꾸고 2절지 4면으로 지폭을 늘였다.

<료녕신문>이 나오기 앞서 1958년 8월 1일 심양에서 <료녕농민보(조선문판)>이 창간되었다. 이 신문은 4절지 4개면 주2간이었다. 실제로 <료녕농민보>의 조선문 번역판이었다. 이 신문이 정간되고 1961년 1월 1일에 <료녕신문>이 창간되었다. 이 신문은 중국 공산당 료녕성위원회의 기관지의 한 조성부분이다. 초기 신문제호는 <료녕일보(조선문농촌판)>으로 주로 <료녕농민보>한문판을 번역하였다. 그때 조선문부 주임은 허경룡이었다. 이 신문은 1968년 5월 27일 십년동란에 의해 정간되고 말았다. 1979년 1월 1일에 복간되었는데 <료녕일보(조선문판)>으로 개칭하고 4절지 4개면 격일간으로 발행하였다. 복간된후 조선문부 주임은 황순명이었고 1982년 6월부터 신문제호를 <료녕조선문보>로, 1986년 1월부터 <료녕신문>으로 하였다.

건국 이래 길림성에는 <연변일보>외에 <길림신문>,<중국조선족소년보>, <연변청년보>, <장백보> 등 적지 않는 조선문신문들이 발간되었다. <길림신문>은 1985년 4월 1일 연길시에서 창간되었다. 성급 신문으로서 2절지 4개면 격일간으로 발간하였다. 창간시 총편집은 <연변일보>총편이었던 오태호가 겸하였다. 독자층은 길림성 백여만 조선족 대중이었다. <중국조선족소년보>는 1957년 7월 1일 연길시에서 창간되었다. 이 신문은 4절지 4개면 주간으로 전국 조선족어린이들을 독자층으로 삼았다. 초기의 명칭은 <소년아동>이었는데 1966년 1월부터 <연변소년보>로 개칭되었으며 그해 7월에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정간되었다. 1982년에 복간되고 1986년 1월 <중국조선족소년보>로 제호를 정하였다. 이 신문은 창간 이래 조선족 어린이들의 학습과 생활의 좋은 스승으로, 길동무로 되었다. 신문사의 편집부는 여러 차례 작문콩쿨을 조직하여 조선족 아동들의 글짓기 능력을 제고하는 데 좋은 무대를 제공하였다. <연변청년보>는 중국공산주의청년단 연변조선족자치주위원회의



기관지이다. 이 신문은 1959년 1월 발간되었다. 또 1958년부터 1961년 사이에 <장백보>, <훈춘보>, <왕청보>, <연길보>, <화룡보> 등 지방신문들이 발행되었다. 1982년 연변과학기술협회에서 발간한 <과학기술보>, 1971년 연변농업과학연구소와 연변지구 농업과학기술정보중심소에서 발간한 <연변농업과학기술보(보급판)>, 연변위생선전교육소에서 1970년에 발간한 <위생선전>, 연변라디오텔레비존 방송사업국에서 1984년에 발간한 <라디오텔레비존신문>등 이 있다.

1978년 중국 공산당 제11기3중전회는 중국언론사업의 발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시장경제의 건립은 집단경제식의 언론경영에 새 기회를 마련해주었다. 개혁개방 물결에 적지 않는 언론 매체들에서 경영활동에 중시를 돌리기 시작하였지만 계속 국가재정에 힘입으며 신문사, 방송국, 출판사를 운영해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1992년 중국 공산당 제14차대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건립할 데 대한 목표를 제기한 후 언론사업은 계획경제조건하에서의 발전모식으로부터 시장경제조건하에서의 발전모식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전환은 언론사업의 발전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보도개혁을 진행하여 보도내용과 형식이 새롭고 풍부해졌고 보도영역이 확대되었다. 신문분야에서 신문의 상품성이 강조되면서 경영과 봉사에 주목하게 되었다. 정보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사람마다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가지게 되면서 언론매체에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되었고 언론매체에 대해 수용자의 독자적인 선택권도 그 범위가 커졌다. 신문의 경영주권이 점차 확대되고 신문매체가 <기관형>으로부터 <봉사형>,<기업형>으로 전환되면서 규모화, 그룹화의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1996년5월 광주일보언론그룹이 탄생으로 전국적으로 언론그룹화의 경영모식을 따르게 되었다. 북경의 조선족언론매체들은 중앙의 언론그룹들에 편입되었고 <료녕신문>은 료녕일보신문업그룹에, <길림신문>은 길림일보신문업그룹에 편입되었다.

시장경제체제 정립에 따른 수용자들의 이런 요구에 따라 신문, 잡지 등 종이매체들에서는 판면을 확대하고 방송계에서는 시간을 늘이는 데 열을 올리게 되었고 이런 판면과 시간은 경제뉴스와 사회뉴스로 충당되었다. 당시 전국의 대부분의 당신문들은 판면을 늘이고 주말판을 발행하였다. <흑룡강신문>은 주6간 8면으로 발행되었고 <료녕신문>은 8개면으로 발행되었으며 <연변일보>는 월요일과 수요일에 8개면으로 발행하였다. <연변일보>는 또한 주말판을 만들었고 1993년에는 일요경제주간을 증간하였다. 북경, 청도, 서울에 지사를 두고 주재기자를 파견하였다. 흑룡

강신문사도 <흑룡강신문 서울판>을 제작하여 발행하였고 료녕신문사도 <금일료녕>을, 길림신문사도 <동북저널>을 발간하였고 북경과 서울에 지사를 두었다. 이는 모두 독자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어 경제발전의 무대를 넓히는 데 취지를 두었다. 그 결과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각지 신문들은 주말판을 발행한 외 또 <석간>과 <도시보>를 제작하여 대량의 사회정보를 제공하였다. 개혁개방 후 연변일보사에서 발행한 <종합참고>, <중학생신문>, 흑룡강신문사에서 발행한 <치부정보신문>외에도 <라디오텔레비죤신문>, <동북과학기술신문>, <현대가정>, <건강신문>, <생활안내>, <스포츠>, <연변공안보>, <연변공상보>등 많은 작은 신문들이 발간되어 조선족 신문매체의 전성기라 할만큼 급격한 성장을 경험하였다.

개혁개방이후 중국 조선족은 민족대이동을 시작하였고 조선족거주판도는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조선족들은 도시로, 관내로, 해외로 진출하여 그 활동범위가 놀랄만큼 넓어졌다. 한국, 일본은 물론 아메리카, 유럽, 중동,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지구촌 방방곡곡에 중국 조선족의 발자국이 찍히고 있다. 따라서 조선족농촌은 점점 위축되어 가고 도시의 조선족인구는 점차 늘어났다. 이에 따른 조선족 언론매체의 수용자의 욕구도 달라지게 되었다. 조선족의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 조선족 언론은 동북삼성을 기반으로 북경, 상해, 산둥, 화남 등 지구로 진출하여 그 분포범위를 넓혔던 적도 있다. 예하면 상해에서 <상하이 저널>,<상하이 타임>,<상하이 에드뉴스>,<좋은 아침>등 신문, 잡지가 발행되었고 <벼룩시장>,<진달래>등 다양한 광고정보지들도 많았다. 북경, 산둥, 화남지구에서 발행된 신문, 잡지들까지 합한다면 관내에서 발행된 신문, 잡지 수는 수십 종에 달하였다.

## 2. 중국 조선어 방송사업의 발전현황

연변인민방송국은 1948년 11월 1일에 창건되었다. 이 방송국은 해방 후 중국에서 제일 먼저 조선말로 방송한 방송국일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제일 먼저 소수민족언어로 방송한 방송국이다.

1938년 일제가 연길에 연길방송국을 세우고 1943년에 간도방송국으로 개칭하였다. 그때 방송언어는 일본어, 조선어, 한어였다. 1945년 11월 소련홍군이 연길에 들어온 후 간도방송국을 군사관제하여 올라지보스도크의 러시아어방송을 중계하였다.

1946년 4월 소련홍군이 철거하고 연변행정독찰전원공서에서 접수하여 연길방송국이라 이름하고 연안방송국의 프로그램을 중계하였다. 그해 6월 중국 공산당 길림성위원회가 길림시로부터 연길시로 옮겨오면서 연길방송국을 연길신화방송국으로 이름을 고치고 중국 공산당 길림성위원회의 직접적인 령도를 받았다. 조선어와 한어 두 가지 언어로 방송하였는데 당시 조선어방송시간이 50분좌우였고 주로 번역방송이었다. 이는 중국에서 가장 일찍 소수민족어로 방송한 것으로 된다.

1948년 중국 공산당 길림성위원회가 길림시로 옮겨가자 연변행정독찰전원공서에서 11월 1일 연길신화방송국을 연길방송국으로 개칭하고 최재를 국장으로 임명하였다. 이렇게 연변인민방송국이 창건되었다. 1951년에 연길방송국은 연변인민방송국으로 개칭되었다. 당시 이 방송국은 중앙인민방송국 프로그램을 중계하는 외에 모두 조선말로 방송하였다. 1956년 6월부터 한어로 지방소식을 방송하기 시작하였다.

연변인민방송국은 창립초기에 편집원, 방송원을 비롯한 모든 직원이 총 20명밖에 안되었는데 그 규모를 부단히 확대하여 1956년에는 80여명으로 늘어났다. 방송프로그램도 뉴스, 지방소식, 교육, 문예, 중앙인민방송국의 중계프로 등 자체 프로그램이 많았다. 1952년 10월에 첫 조선말방송극 <조옥희>를 창작, 방송하여 조선말방송극 방송의 첫 막을 올렸다. 개혁개방 초기에는 일본어, 영어 외국어방송 강좌를 설치하고 “대중가요무대”를 신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광고실무를 확장하기에 힘썼다.

1950년에 중국 국제방송국에서 조선어방송을 시작하였다. 주요 청취자는 세계 각지의 조선족이었다. 1960년대부터는 “오늘의 중국”, “중국청년”, “중국농민” 등 전문성을 띤 프로그램을 편성하였다.

1963년 2월 20일 흑룡강인민방송국에서 조선어방송을 증설하였다. 안학재를 책임자로 하고 흑룡강성의 조선족을 청취대상으로 뉴스시사방송, 농업지식방송, 문예방송등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1965년 8월 1일에 길림인민방송국에서도 조선어방송을 시작하였다. 길림성내 조선족을 청취대상으로 방송하였다. 중앙과 지방의 조선어방송은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 문화대혁명의 십년동란을 겪게 되면서 자체 개성이나 민족성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고 대체적으로 저조기에 처해있었다. 길림인민방송국 조선어방송은 1975년에 방송을 정지하게 되는 직면에 달했다.

중국 공산당 제11기3차전원회의를 맞아 중국 조선어방송은 다시 생기를 띠게 되었고 새로운 번영기를 안아왔다. 연변인민방송국, 국제인민방송국, 중앙인민방송국, 흑룡강인민방송국의 조선어방송시간이 늘어났으며 프로그램도 증가되었다. 뉴스, 시사 등 프로그램을 기초로 민생에 접근하고 대중의 생활에 접근하는 자편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형식으로 증설되었다. <행복한 퇴근길>, <주부클럽> 등 프로그램들은 정보성과 취미성을 가해주면서 수용자들의 동반자로 활약해왔다. 시대의 발전과 함께 2000년대부터 디지털 설비로 업그레이드하여 위성방송과 인터넷방송을 개시하였다. 70여년래의 세월과 함께 한 중국 조선어방송은 민족언어방송사업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 3. 중국 조선족 텔레비전방송 사업의 발전현황

1973년 12월 1일에 연변인민방송국에서 중국 최초의 조선어 텔레비전방송을 시험하는데 성공하였다. 1974년 10월 1일 연변인민방송국에서는 연변텔레비전방송국을 창립하고 정식으로 방송하기 시작하였다. 첫 조선어텔레비전방송국이기도 하다. 첫 책임자는 김윤송이고 방송초기에는 중앙TV방송을 중계하는 역할이 대부분이었다. 1977년 말부터 자체 프로그램을 제작, 송출하였다. 1982년에 첫 드라마 <어머니 시름놓으세요>를 성공적으로 제작한 뒤를 이어 <민들레꽃> 등 몇 부의 드라마를 제작하여 조선족 시청자들의 환영을 받았다<sup>4)</sup>. 1983년에 방영된 드라마 “어머니, 시름놓으세요”는 조선족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려 많은 인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한어로 번역되어 길림성TV방송국과 중앙TV방송국에서도 방영되었다. 연변TV방송국은 중앙과 길림성TV방송국의 프로그램과 드라마를 번역하여 전국 각지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생활을 제때에 조선족 시청자들에게 전파하고 정보의 전문성과 정보획득의 욕구를 충족시켰다.

연변텔레비전방송국은 현재 YBTB-1채널은 조선어종합방송, YBTB-2채널은 한어종합방송, 연변위성방송 등 채널로 방송되고 있다. 프로그램내용을 보면 뉴스, 다큐멘터리, 교육프로, 정보프로그램 등 다양하다. “연변뉴스”, “국내외뉴스”, “심층취재”, “지구촌뉴스”, “우리 사는 세상”, “최적의 관광명소 연변”, “사랑으로 가는 길”, “TV문화를 품다”, “건강메신저”, “요청한마당”, “아리랑 극장”, “우리 말 대잔치”, “우

4) 중국사회과학원 신문연구소(1989). <신문연구자료>총 제45집, 중국사회과학출판사.

리네 동산”을 비롯한 보도, 사회교양, 청소년, 연예오락, 번역제작 등 유형의 20여 개 자체제작프로그램과 음력설문예야회, 소년아동인터넷음력설야회, 드라마, 퀴즈, 스포츠경기 등 비정기적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고 있다. 그 중 “사랑으로 가는 길”은 올해 방송 20년째로 중국 국내에서 가장 일찍 개설한 공익방송프로그램이다. “국내외뉴스”는 당일로 중앙TV방송국의 7시뉴스를 역제, 방송하는 프로로서 중국 국내 여러 소수민족방송가운데서 시효성이 가장 빠르다. 매 역사적 시기마다 내용면에서도 다양한 기획보도와 계열보도의 형식으로 당과 정부의 새로운 정책을 선전하고 해석하는데 여론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매년 3월에 열리는 중국 양회 보도, 정부사업보고를 다시각, 다매체로 특집보도하여 국가정책과 민생을 이어놓는 교량역할, 사상적 도덕적인 여론감독역할, 여론인도기능을 수행하였다.

중국에서 1999년에 CBTW 위성생방송플랫폼공정을 시작하였는데 연변조선어방송이 2004년에 정식으로 가입하여 2006년 8월 10일에 연변위성방송을 시작하였다. 이 또한 중국국내서 유일한 조선어위성채널로 되었고 연변텔레비전방송국은 중국 첫 지구급(地区级) 위성매체였다. “신노4호”위성을 이용하는 연변위성방송은 중국 전역 나아가서 아시아, 유럽, 대양주의 50여개 나라와 지역에서 시청할 수 있다. 위성방송의 개시로 연변TV방송국은 시청자범위를 확대하고 연변을 세계에 알리고 중국특색의 조선족문화를 교양하는데 매스컴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잘 발휘하고 있다.

### Ⅲ. 융합매체시대 조선족 언론의 새로운 발전모식

잇달아 인터넷의 출현으로 신문매체는 위기와 도전에 처해있었다. 신문위기로, 신문멸망론이 현실로 될 정도로 많은 인쇄매체들은 정간을 발표하고 매체의 무대에서 퇴장하게 되었다. 100년을 함께 해온 조선족신문매체도 예외는 아니었다. 홍수처럼 밀려오는 인터넷 정보앞에서 전통신문매체는 무뎠해지고 수용자들한테 더는 매력을 느끼지 못하였다. 게다가 조선족사회의 거주이동으로 동북삼성에 집거해 있던 조선족 수용자집단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신문, 잡지 등 물리적 공간에만 의존하던 인쇄매체는 점점 독자들을 잃어가게 되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소셜 미디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소셜 커뮤니케이션이 매체의 생태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소셜 미디어는 인간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한 사회적 확산에 의해서 변화를 일으키고 실제로 SNS에서 사회적인 문제를 전파해 사회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일으킨 사례도 적지

않다. 게다가 우후죽순마냥 일어나는 인터넷매체 또한 전통매체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러한 경쟁과 위기에 직면하여 연변일보, 연변텔레비전방송국, 중국조선어방송을 비롯한 매체들은 인터넷환경에 합류해 새로운 생존법을 모색해냈다.

2016년부터 중국 전역은 전통매체 융합발전의 열기에 들끓었다. 오프라인에서 활약적이던 전통매체들이 인터넷플러스행렬에 합류하였다. 즉 이름하여 융매체(融媒体)라고 한다. 중앙과 지방의 주류매체들이 2000년대에 보류하던 인터넷판을 포함하여 위챗, 웨이버, 어플리케이션등 서비스들을 통합하여 융매체를 이룬 것이다. 주류매체+인터넷판+SNS서비스(主流媒体+网络版+两微一端)의 융합매체 모식을 강구하였다. 또한 각 지방의 인민정부와 협력하여 주류매체어플리케이션은 방송서비스와 정부(政务)서비스의 통일체를 이루었다.

#### IV. 나오면서

중국 조선족 지역언론의 발전은 민족단결을 수호하고 정치, 경제, 사회의 발전을 촉진한다. 백 여년래 조선족 언론매체는 민족특색을 살리고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조선족지역의 사회발전과 조선족 수용자들의 정보습득욕구를 만족시키고 정치참여의식을 제고시켰다. 소수민족언어매체로서 조선족 언론매체들은 정보전달, 여론인도, 민족문화전파의 사명을 짊어지고 조선족 사회의 영향력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조선족을 포함한 현대인들은 모든 정보, 뉴스, 사회적 관계 및 가치정향(价值定向) 등에 관한 욕구들을 모두 대중매체에 의존해서 충족시키며 더 이상 과거의 전통사회와 같이 긴밀한 대인관계에 의존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선족 사회의 대중매체에 대한 의존도는 결국 그들의 가치관이나 신념, 태도, 행동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지방당보(地方党报)로서의 4대신문(연변일보, 료녕신문, 길림신문, 흑룡강신문)와 3대 조선어방송매체(연변방송국, 중국조선어방송, 연길융매체)는 발전모식을 부단히 개혁하여 사회발전에 적응하는 매체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조선족 언론 매체들은 정보전달기능, 사상적 도덕적인 여론감독기능, 여론인도기능, 문화전파기능을 수행해왔다. 융매체시대 정부와의 협력을 통하여 정부정보와 방송서비스를 통합하여 대중들의 정보이용이 더 편리하고 다양하게 나아가고 있다.

## 참고문헌

- 白润生 (2008) . 探索中前进：少数民族新闻事业三十年，中国报业，2008 (9) ， p17~19.
- 别力克·乌哈拜 (2018) . 加快推进少数民族媒体融合发展路径探索，中国地市报人，2018 (4) ， p12~13.
- 李逢雨(2012). 中国朝鲜族新闻传媒与和谐社会建设. 人民出版社.
- 谭天 (2017) . 社交媒体给少数民族带来的发展机遇. 新闻论坛，2017 (6) ， p47~50.
- 王军 (2017) . 少数民族地区党报发展新媒体探索，中国地市报人，2017 (11) ， p33~35.
- 姚卫坤 (2015) . 新疆少数民族语种新媒体发展的思考，实事求是，2015 (6) ， p63~65.
- 郑保卫 (2015) . 中国少数民族地区信息传播与社会发展论丛. 经济日报出版社.
- 中南民族大学民族文化传播研究中心编 (2015) . 民族文化传播研究，湖北人民出版社.
- 박문봉(2002), 중국 조선문 신문의 기능변화에 대한 역사적 고찰, 서강대학원.
- 오태호(1997). 중국조선민족언론사,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정춘(1990), 현대사회와 매스미디어, 나남.
- 주현남(2001). 중국 흑룡강성 조선족언론의 현황과 역할,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제학술회의발표논문.
- 중국사회과학원 신문연구소 (1989) .<신문연구자료>총 제45집, 중국사회과학출판사.
- 최상철(1996). 중국조선족언론사. 경남대학교 출판부.
- 최상철(2007). 중국조선족신문출판연구, 향향아주출판사.





## 민요 《아리랑》의 유래설화에 대하여

김광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요 <아리랑>은 지난날 우리 인민들이 즐겨부르던 노래입니다. 민요 <아리랑>이 나온지는 오래되었지만 오늘도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조선사람치고 민요 <아리랑>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해외에 살고있는 동포들도 민요 <아리랑>에 대하여서는 다 알고있습니다. 그것은 이 노래에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적정서가 담겨져있기때문입니다.》 (《김정일전집》 제4권 372 페이지)

민요 《아리랑》이 나온지는 비록 오래되었지만 오늘도 조선사람이라면 이 노래를 모르거나 부르지 않는 사람이 없으며 조선사람들이 살고있는 곳이라면 이 세상 그 어디서나 들을수 있는 우리 민족의 노래이다.

하여 세상사람들은 민요 《아리랑》이라고 하면 조선민족을 대표하는 노래로 조선민족을 《아리랑민족》이라고 하고있다.

민요 《아리랑》은 창조되어 우리 인민들속에서 널리 전파되는 과정에 그 유래와 관련한 설화들도 많이 창조, 전승되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아리랑》의 유래설화를 통하여 민요 《아리랑》이 어떤 노래인가에 대하여 밝혀보려고 한다.

우리 인민들속에서 전해내려오고있는 《아리랑》의 유래설화로는 《성부와 리랑》전설, 《정선아리랑》의 유해설화, 《곱게와 리랑》전설, 《밀양아리랑》의 유래설화 등을 들수 있다.

### ① 《성부와 리랑》전설

이 전설은 평안도, 황해도지방인민들속에서 전해지고있는 설화로서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 옛날 어느한 마을에 좌수벼슬을 하고있는 김가놈의 집에서 리랑이라고 하는 총각과 성부라고 하는 처녀가 머슴을 살고있었다. 어느해인가 마을사람들이 김가놈의 착취에 항거하여 폭동을 일으켰을 때 이 싸움에 참가하였다가 간신히 살아남은 그들은 수락산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 초막을 짓고 살았다. 함께 싸우다 억울하게 죽은 마을사람들의 복수를 위하여 리랑이 싸움터로 떠나자 성부는 흐느껴 울면서 《아리랑 아리랑》 노래를 불렀다. (성부와 리랑이 수락산에 몸을 피해있다가 리랑이 다시 싸움터로 떠났을 때 관군이 달려들어 성부를 죽였는데 이때 성부가 리랑을 찾으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것으로 이야기가 엮여져있는 전설도 있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 그렇게도 그리던 리랑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언제인가 사냥나왔다가 성부의 미모에 혹한 백상도놈이 방으로 들어왔다. 난데없는 사람이 주인도 찾지 않고 들어서있는것을 본 리랑은 성부에 대한 의심을 감출수 없어 그 자리에서 백상도놈을 죽이고 다시 길을 떠났다. 성부는 《아-리랑, 아-리랑》하며 울면서 리랑을 따라 나섰으나 그는 보이지 않았다. 산속에 홀로 남은 성부는 자기의 청백함을 몰라주는 리랑을 원망하면서 혹 그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가 하여 노래를 불렀다. 노래 소리는 밤새껏 울리더니 새벽이 되여오자 그치고 말았다. 한편 집을 떠난 리랑은 성부가 자기를 배반할 녀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다시 돌아와보니 그를 맞이한것은 가슴에 칼을 박고 쓰러져있는 성부였다. 리랑은 성부를 부여안고 몸부림치며 통곡하다가 그의 시체를 고개마루에 묻고 다시 싸움터로 떠나버렸다. 그후 사람들은 성부의 무덤이 있는 고개를 《아리랑고개》로 부르게 되었고 성부가 밤새껏 리랑을 찾으며 부르던 노래를 《아리랑》으로 부르게 되었다.\*1

## ② 《정선아리랑》의 유래설화

강원도 《정선아리랑》의 유래설화는 세가지가 전해지고있다.

첫번째설화는 《울치와 아리》전설로서 그 내용을 보면 먼 옛날 강원도 정선지방에 살고있는 울치라는 총각이 어느날 산에 갔다가 높은 벼랑에서 떨어졌는데 아리라고 하는 처녀의 구원을 받게 되었다. 아리와 그의 아버지의 극진한 간호에 의하여 울치가 자리를 털고 일어났을 때 지주놈이 찾아와 이달까지 빚을 물지 못하면 빚대신 아리를 지주집에 들여보내든가 아니면 아버지가 부역에 나가야 한다고 울러메는것이였다. 옆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울치는 아리의 아버지대신 자기가 부역에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아리는 울치의 어진 마음과 의리를 귀중히 여기는 고의 소행에 감동되어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멀리까지 보내주었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 부역에 나갔던 울치가 돌아오게 되었는데 남쪽바다가에 왜적이 쳐들어왔다는 소문이 돌았다. 애국심이 강하였던 울치는 아리와 정든 회포도 나누지 못하였지만 싸움터로 떠났다. 울치가 싸움터로 떠나자마자 기회만 노리고있던 지주놈의 아들 무쳐놈은 이때라고 생각하고 아리에게 끈덕지게달라붙었다. 녀색에 환장이 된 이놈은 자기의 음흉한 목적을 달성하는데서 아리의 아버지가 방해된다고 생각하고 그를 죽여버리고도 모자라 며칠후 어느날 밤 집에 뛰어들었다. 무쳐놈이 아리에게 달려드는 순간 집으로 돌아온 울치는 그놈을 단매에 쓸어눕혔다. 울치는 이런 깊은 밤에 아리가 무쳐놈과 함께 있는것을 보고 그를 의심하더니 그길로 지주놈의 집에 불을 지른 다음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말았다. 아리는 자기의 말을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고 떠나버린 울치를 원망하며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매일 고개길에서 노래를 불렀다. 며칠후 떠나간 님을 애타게 그리며 그 고개길에서 매일 노래를 부르는 처녀가 있다는 말을 전해들은 울치는 자기가 경솔하게 행동했다는것을 깊이 뉘우치고 급히 돌아왔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것은 고개길 한옆에 자기의 깨끗하고 순결함을 이야기하는듯 흰 치마저고리를 입은채 숨겨있는 아리의 모습이였다. 그제서야 울치는 자신을 원망하며 아리를 그러안고 눈물을 흘리며 목매며 부르고 또 불렀다.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속에 전해지면서 울치가 《아리아리》하고 목매여 부른것이 《아리랑》으로 되었다는것이다.\*2

두번째설화는 《새색시》전설로서 그의 내용을 보면 먼 옛날 강원도 정선지방에는 20 살 한창나이의 처녀가 이제 겨우 10 살밖에 안되는 어린 신랑에게 시집왔다. 새색시는 시집에 온 첫날부터 철부지인 어린 신랑의 온갖 시중을 들어 매일 빨래하고 옷단장을 시키고 하루에 세번씩 때식을 끓여 대접하였다. 《정성이 지극하면 돌우에도 꽃이 핀다》고 랑군을 위해 정성을 다하였지만 어린 신랑에게서 사랑은 고사하고 날이 갈수록 투정질을 받기가 일쑤였다. 그늘진 얼굴로 날을 보내던 새색시는 바라던 사랑과 오בות한 새생활의 기쁨을 누릴수 없게 되자 가슴속에 멎든 사연을 안은채 어느날 이 세상을 하직하려는 모진 마음을 먹고 정선강으로 달려나갔다. 그가 다달은 정선강가의 옷여울에서는 태평스레 물방아가 돌고돌며 쌀방아를 찧고있었다. 북받치는

설음을 안고 비오듯 눈물을 흘리던 그는 문득 울리는 방아소리에 물방아도 저렇게 돌고돌며 쌀을 찼는데 세월이 흐르느라 내님도 자라게 될것이고 그때에 가면 자기가 바라는 사랑도 찾게 될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으며 이런 심정을 담아 슬픔의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정선아리랑》으로 되었다는것이다.\*3

세번재설화는 《되돌이》전설로서 그 내용을 보면 옛날에 강원도 정선지방에는 되돌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살았는데 그는 늘 안해가 보기 싫다고 나무라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안해와 더는 살수 없다고 하면서 집을 뛰쳐나온 되돌이는 30 리도 채 못 가서 나무그늘밑에 누워 잠들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깨어나니 그의 앞에는 난메없는 보따리가 하나 놓여있는것이였다. 보따리에는 갈아입을 옷과 몇컬레의 버선이 있었으며 얼마간의 엽전이 들어있는 빨간 비단주머니도 있었는데 그것은 안해의 숨씨가 분명하였다. 되돌이는 안해의 소박하고도 진정이 어린 사랑이 가슴뜨겁게 안겨와 그만 집으로 걸음을 돌렸다. 황혼이 짙어가고 있을 때 되돌이가 집에 들어서니 안해가 반가이 맞으면서 《아니, 나를 버리고가신다더니 춘천 80 리도 못가고 되돌아왔소?》하면서 가볍게 나무랐다고 한다. 이 소문이 마을에 퍼지면서 사람들이 아리랑곡조에다 되돌이네 집에서 있었던 일을 사설조의 가사로 담아부른것이 지금의 《정선아리랑》이 되었다고 한다.\*4

### ③ 《곱게와 리랑》전설

《곱게와 리랑》전설은 함경도지방에서 전해내려오던 설화로서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 옛날 함경도 단천지방의 어느 한 바다가마을에는 곱게라고 부르는 어부의 딸과 리랑이라고 부르는 어부총각이 서로 사랑하고있었다. 인물이 곱고 마음이 착한 곱게를 자기의 첩으로 삼으려고 하던 선주놈은리랑을 없애버릴 기회만 엿보고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선주놈은 리랑 고기를 잡아 가지고 돌아오자마자 앞바다에 큰 고기떼가 몰려왔다고 하면서 그자리에서 다시 바다로 내몰았다. 리랑이 떠난 그날부터 갑자기 사나운 풍랑이 일어나고 바다기슭으로는 깨여진 배조각들이 밀려 들어왔다. 곱게는 매일 바다가의 도래굽이에 나와 리랑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렸지만 그의 소식은 알수 없었다. 어느날 선주놈이 곱게의 집에 달려들어 운신도 못하고있는 아버지에게 빚을 당장 물지 않으면 곱게를 자기의 첩으로 끌어가겠다고 위협을 하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였으며 나중에는 그를 뒤방 한구석에 가두어놓았다. 골방에 갇힌 곱게는 선주님을 저주하며 생사를 알수 없는 리랑만 에타게 불렀다. 한편 풍랑을 만나 바다물에 떠내려가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리랑은 마을사람들로부터 곱게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는 그날밤 선주님을 정벌하고 곱게와 다시 만나게 되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담아 사람들속에 불리워진 노래가 <아리랑>으로 되었다는것이다.\*5

#### ④ 《밀양아리랑》의 유래설화

《밀양아리랑》의 유래설화는 일명 《아랑》 전설이라고도 하는데 경상도 밀양지방에 있는 아랑각과 관련하여 전해내려오는 설화로서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옛날 밀양부사에제는 아랑이라고 부르는 인물고운 외동딸이 있었다. 아랑의 자태에 눈독을 들이고있던 통인 정가놈은 어느날 아랑의 유모를 꺾여령남루로 아랑을 데려오게 한 다음 그의 손을 붙잡고 사랑을 애원하였다. 아랑은 정가놈을 꾸짖으며 유모를 찾아 구원을 바랬으나 그는 그 자리에 없었다.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게 되자 정가놈은 칼로 아랑을 찔러죽인 다음 그의 시체를 대나무숲속에 감추어 버렸다. (어떤 전설에서는 통인놈이 칼을 빼여들고 달려들자 아랑이 자기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령남루밑으로 흐르는 남천강물에 몸을 던져죽은것으로 되어있는것도 있다.) 오래동안 딸의 행처를 찾지 못하여 속을 태우던 그의 아버지는 부사직을 사임하고 밀양을 떠나버렸다. 그런데 새로 부임 0 해오는 밀양부사는 이상하게도 하루밤을 자고나면 죽으니 누구도 밀양부사로 가려고 하지 않았다. 이때 대담한 젊은 선비가 자청하여 나섰다. 첫날밤 그는 전례를 생각하여 대청과 방안에 불을 환하게 켜놓게 하였다. 밤은 깊어 자정이 좀 지날가 말가한테 피묻은 흰 치마저고리를 입고 긴머리를 풀어헤친 처녀가 부사앞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부사앞에 다가온 처녀는 머리를 숙여 절을 하더니 자기가 죽게 된 억울한 사연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신임부사는 다음날 정가놈과 유모를 잡아들여 처형한 후 처녀의 시체를 찾아내어 묻어주었다. 그후 사람들은 자기의 깨끗한 정조를 지켜 억울하게 죽은 아랑의 넋을 위로하여 처녀의 시체가 있던 자리에 사당을 짓고 명절때마다 그곳에 모여 <아랑 아랑>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는데 그 말이 점차 변하여 <아리랑 아리랑>으로 되었다는것이다.\*6

민요 《아리랑》의 유래설화를 통하여 알수 있는것은 무엇보다 먼저 민요 《아리랑》이 남녀간의 리별을 주제로 하고있지만 여기에는 리별의 서러움과 슬픔만이 아니라 밝은 세상에서 다시 만나 행복하게 살아가려는 우리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이 진실하게 반영되어있다는것이다.

그것은 우선 민요의 노래제목을 통하여 잘 알수 있다

《아리랑》의 유래와 관련한 설화 6 계중에서 《아리랑》이란 노래이름에 대하여 설명하고있는 설화는 5 개이다.

《성부와 리랑》전설에서 성부가 리랑을 바래우면서 그리고 자신을 오해하고 떠나가는 리랑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며 《아-리랑》, 《아-리랑》하면서 노래를 부른것이 《아리랑》으로 되었다고 한것, 《꿈계와 리랑》전설에서 생사를 알수 없는 리랑을 그리며 애타게 찾은것이 《아리랑》으로 되었다고 한것, 《울치와 아리》전설에서 자기를 잘못 리해하고 떠나간 아리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 다시 만나기를 바라며 《아리아리》 목매여 부른것이 《아리랑》으로 되었다고 한것, 《아랑》전설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여 부모, 인간세상과 리별한 아랑의 넋을 위로하여 《아랑각》을 짓고 명절때마다 그곳에 모여 《아랑 아랑》하면서 노래를 부른것이 《아리랑》으로 되었다고 한것은 바로 노래제목이 리별의 서러움, 떠나간 님에 대한 원망만이 아니라 떠나간 님과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지향과 념원을 반영한 부름소리에서 유래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것은 또한 설화의 이야기 줄거리를 통하여 잘 알수 있다.

민요 《아리랑》유래설화들을 보면 리별만 아니라 상봉도 있다.

설화들에서 리별은 청춘남녀사이에 생긴 문제로 인한것이 아니라 봉건통치배들의 학정, 봉건적인 가족제도, 혼인제도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지만 종당에는 상봉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청춘남녀의 상봉에는 리별당하였던 안해와 남편이 반가운 상봉을 하는것이 있는가 하면 남편이 죽은 안해를 만나는 비극적인 상봉도 있다.

이것은 지난날 봉건통치배들의 학정속에서 남녀간의 진실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리별하지 않으면 안되던 고통과 불행, 착취와 억압, 리별이 없는 새 세상에서 사랑하는 님과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던 우리 인민들의 소박한 지향과 념원을 반영한것이다.

민요 《아리랑》의 유래설화를 통하여 알수 있는것은 다음으로 민요 《아리랑》에는 사랑에 순결하고 불의에 항거할줄 아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사상감정이 반영되어있다는것이다.

유래설화들에서는 처녀의 순결성을 짓밟는자들에게 끝까지 항거하여 자기를 지켜내는 녀주인공들의 형상과 녀성들의 정조를 유린하려는 자들에게 징벌을 가하는 남주인공들의 형상을 통하여 사랑에서 순결하고 그것을 짓밟는 자들에 대하여 용서치 않고 투쟁해오던 우리 인민들의 고상한 사상감정을 잘 보여주고있다.

민요 《아리랑》의 유래설화를 통하여 알수 있는것은 다음으로 민요 《아리랑》이 전파되는 과정에 부단히 세련되고 또 지방에 따라 수많은 변종들이 생겨나게 되였다는것이다.

우선 민요 《아리랑》의 유래설화들은 리별을 주제로 하고있지만 내용에서나 이야기의 결속에서는 차이를 가지고있다.

《성부와 리랑》전설, 《울치와 아리》전설과 같이 사랑하는 청춘남녀가 리별을 당하는것으로 이야기가 결속되는것도 있고 《곱게와 리랑》전설과 같이 청춘남녀가 리별은 당하지만 종당에는 반가운 상봉으로 이야기가 결속되는것도 있다. 그리고 《새색시》전설, 《되돌이》전설과 같이 봉건적인 가족제도와 조혼으로 인하여 가정생활에서 당하던 녀인들의 고통을 보여주지만 종당에는 다시 상봉하는것으로 이야기가 결속되는것도 있다. 그리고 《밀양아리랑》의 유래설화에서와 같이 처녀의 순결성을 지키다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여 부모와 인간세상과 리별하는것으로 이야기가 결속되는것도 있다.

또한 같은 지방의 유래설화라고 하여도 이야기결속에서는 차이를 가지고있다.

《성부와 리랑》전설에서처럼 리랑이 싸움터로 떠난 다음 성부가 관군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는것으로 이야기가 결속되는것도 있고 또 자기의 억울함을 알아주려고 하지 않고 또다시 떠나는 님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 자기의 순결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결하는것으로 이야기가 결속되는것도 있다.

《밀양아리랑》의 유래설화에서처럼 아랑이 스스로 령남루밑으로 호르는 강물에 몸을 던져 죽는것으로 이야기가 결속되는것도 있고 통인놈에 의하여 죽는것으로 이야기가 결속되는것도 있다.

또한 한 지역안에서도 민요의 유래와 관련한 설화가 여러개 전해지고있는것도 있다.

강원도 《정선아리랑》의 유래설화만 보아도 《울치와 아리》전설, 《되돌이》전설, 《새색시》전설과 같이 세가지가 전해지고있다.

이것은 민요 《아리랑》이 리별의 서러움과 슬픔, 청춘의 사랑을 짓밟는 자들에 대한 반항, 언제인가는 리별이 없는 세상에서 다시 만나게 되리라는 기대와 희망이 반영되어있는것으로 하여 널리 전파되었으며 그 과정에 해당 지방 인민들의 감정정서에 맞게 보충윤색되면서 새로운 변종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다시말하여 창작초기의 민요에는 청춘남녀의 사랑과 리별의 서러움, 청춘의 사랑을 짓밟는 자들에 대한 반항, 착취와 압박이 없는 세 세상에서 사랑하는님과 반가운 상봉을 하고 행복하게 살려는 기대와 희망이 반영되어있었다면 그것이 전파되는 과정에 새로운 변종들이 생겨나게 되면서부터 봉건통치배들의 학정속에서, 봉건적인 가족제도와 남존녀비와 같은 반동적인 룰리도덕에 의하여 단순히 청춘남녀들사이의 사랑과 리별만이 아니라 우리 인민들이 겪어온 온갖 불행과 고통, 슬픔, 착취자들에 대한 원한과 반항, 언제인가는 착취와 압박이 없고 리별이 없는 새 세상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될 날은 반드시 오리라는 기대와 믿음이 반영되게 되었다.

민요는 일정한 역사적시대에 나온 사회적산물로서 그중에는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면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점차 사라지는것이 적지않다.

하지만 민요 《아리랑》은 이 창작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세월 조선사람들속에서 널리 불리워지고있다.

그것은 민요 《아리랑》이 지난날 우리 인민들이 당하던 온갖 고통과 불행, 착취자, 침략자들에 대한 원한과 반항, 착취와 압박이 없고 리별이 없는 새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기대와 희망을 반영하고있기때문이다.

바로 이런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은 세계 각지 그 어디에서 살아도 이 노래를 부르며 곡절도 많고 시련도 많은 어렵고 힘든 생활의 고비들을 넘어왔던것이다.

지난날 리별의 불행과 고통을 하소연하고 행복한 생활에 대한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여 불리워지던 《아리랑》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빼앗겼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인민들을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내세워주 시였으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여주심으로써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고 강성번영하는 태양민족의 궁지와 자부심을 노래하는 기쁨과 행복의 아리랑으로 불리워지고있다.

\*1 《조선의 민요 아리랑》 문학예술출판사 주체 100 (2011) 년 88~89 페이지

\*2 《조선의 민요 아리랑》 문학예술출판사 주체 100 (2011) 년 89~91 페이지

\*3 《조선의 민요 아리랑》 문학예술출판사 주체 100 (2011) 년 64 페이지

\*4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보관자료

\*5 《조선의 민요 아리랑》 문학예술출판사 주체 100 (2011) 년 91~92 페이지

\*6 《조선민요의 유래》 2 예술교육출판사 1995 년 29~30 페이지



# 코리언 민속을 통해 본 사후세계(死後世界)의 인식 연구

김종균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교수)

## 1. 서론

‘죽음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죽은 후에는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인가’라는 물음은 인류의 오랜 관심거리였고 아직까지 아무도 대답을 못한 미지의 문제로 남아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가장 평범하고도 엄숙한 진리를 수궁하면서 인류는 사후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의문을 품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원시시대로부터 현대까지 여러 철학과 종교를 통해서 나름대로 사후세계를 설정하였다. 이것이 우리의 의식 속에 자리 잡게 되면서 생활 속으로 뿌리 내리게 되고 그에 따라 인류는 죽음을 맞고 또 망자를 떠나보내는 절차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사후세계의 명칭인 저승은 이승의 대칭(對稱)으로, 이승은 생존해 있는 현실이고 저승은 죽어서 가는 또 다른 세계인 것이다. ‘저’는 ‘피(彼)’의 뜻으로 통칭 피안의 세계가 저승인 것이다. ‘황천(黃泉)’, ‘유계(幽界)’, ‘타계(他界)’라고도 하며,<sup>1</sup> 불교에서는 ‘명부(冥府)’, ‘지옥(地獄)’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무속에서는 귀신들이 들끓는 곳으로서 ‘명부’, ‘지하’, ‘저승’으로 불리는 세계<sup>2</sup>라고 사후세계를 규정하고 있다.

저승의 개념과 그 개념설정의 변모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불교 전래 이전에 자연발생적인 내세의 존재개념이 있었으니, 곧 순장(殉葬)과 무덤 속의 벽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불교 전래 이후에는 사후심판의 성격으로 저승이 있었다. 여기에는 선인(善人)은 극락(極樂)으로, 악인(惡人)은 지옥으로 간다는 이분의 과정이 있었음을 사찰의 명부전이나 시왕전의 불화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 바리공주가 등장하는 오구굿, 지노귀굿 등의 무속의 망자굿에도 저승이 나타나며, 유교가 왕성한 시대에는 충, 효, 열, 우애, 선 등 도덕적인 품성을 교육하기 위하여 저승이 거론되었다. 한편, 전래 민속이나 언어현상에서 어른이 죽으면 ‘돌아가신다’라는 말에서 저세상이 반드시 있고, 금생(今生)이 나그네 길이요, 저승이 본향(本鄉)이라는 의식<sup>3</sup>이 작용하였다.

<sup>1</sup>장덕순, 『한국문학의 연원과 현장』, 집문당, 1986, 47쪽.

<sup>2</sup>장덕순 외 3명,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88, 142쪽.

<sup>3</sup>박계홍, 「한국인의 죽음의식-설화, 무속」, 『전통문화』, 1986, 57쪽.

근래에는 19세기부터 전래된 기독교의 보급에 따라 새로운 내세관이 형성되면서 이에 따른 신의 심판을 담은 저승세계가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저승은 고대에서 현재까지, 민족의 고유종교에서 외래종교까지 모두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sup>4</sup>. 이렇게 저승의 설정과 인식은 종교의 수용에 따라 변화, 발전하였고 인간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예로부터 인간의 정신생활과 일상생활을 유지, 발전시켜오는 데는 종교와 민속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종교는 현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번뇌를 해결하기 위해, 즉 인간이 지배할 수 없는 자연의 신비로운 위력에 대한 공포에서 오는 괴로움, 인간 자신의 욕구불만에서 오는 괴로움, 사후의 세계에 대한 불안에서 오는 괴로움 등을 자력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타력에 의지하려고 할 때에 발생하여<sup>5</sup> 인간생활의 윤리적 기반을 제공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종교적 신념체계에 따라 일상생활의 의례와 절차가 마련되는데, 이것이 민간의 풍속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 내면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종교와 이를 현실의 생활문화로 수용한 민속이 매우 밀접한 연관을 맺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곧 인간의 내세에 대한 인식은 종교의 체계, 교리 안에서 형성되었지만 종교의 포교를 통해 사회각층의 사람들에게 의식화되고 이것은 생활의 각처에 뿌리내려 민속이 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역사적으로 우리사회에 영향을 끼친 원시신앙을 포함한 각종 종교에서 기인하여 우리의 생활문화인 민속과 무속에 투영된 사후세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 민족의 저승관은 전통적인 민족문화 속에서 서서히 형성되어 왔음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원시종교에서부터 터 잡은 저승의 개념을 먼저 우리의 민속, 특히 장제(葬制)를 통하여 살펴보고, 우리 종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무속<sup>6</sup>에 나타나는 저승관을 고찰할 것이다. 민속적인 부분에 나타나는 저승관은 장제, 특히 유교가 팽배하던 조선시대의 예서인 『사례편람(四禮便覽)』 보다는 관행으로 행해지던 장제<sup>7</sup>를 중심으로 살피고, 상여소리에 나타나는 저승관<sup>8</sup>도 아울러 고찰하도록 하겠다. 무속에서는 망자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오구굿, 셋김굿, 진오귀굿<sup>9</sup>을 중심으로 살피고, 특히 제주도 무가<sup>10</sup>를 중심으로 저승 인식을 개관하도록 하겠다.

<sup>4</sup>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19권, 웅진출판사, 1991, 10쪽.

<sup>5</sup> 김기동, 『국문학의 불교사상 연구』, 아세아문화사, 1976, 10쪽.

<sup>6</sup>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적 사고의 원형』, 고려원, 1988, 87쪽.

<sup>7</sup>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 전통사회의 관혼상제』, 고려원, 1991, 66-103쪽.

<sup>8</sup> 신찬균, 『한국의 만가』, 삼성출판사, 1991, 217-232쪽.

<sup>9</sup> 김태곤, 『한국의 무속신화』, 집문당, 1989.

<sup>10</sup> 현재 제주도에 행해지고 있는 무속제의 중 큰굿 속의 <시왕맞이제>의 내용은 무속의 저승관을 고찰하는 가장 우선적인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료이다. 시왕맞이제는 큰굿 열두거리 중 여섯 번째로 행해진 굿으로, 섬 지방에 흔히 고문화가 잔존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한다면 제주도의 큰굿은 매우 고형(古形)의 문화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속을 연구하고자 할 때에는 제주도의 무속을 먼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이수

지금까지 사후세계에 관한 연구는 민속학적인 측면<sup>11</sup>과 종교적인 측면<sup>12</sup>에서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가 불교와 문학 사이의 전반적 접촉의 시도를 통하여 작품 속에서 불교사상을 추출해 보려는 개괄적 연구<sup>13</sup>가 주류를 이루었고, 특히 저승관을 순연히 불교적 차원에서만 고찰하고 있어서<sup>14</sup> 우리의 원시종교에서 설정된 사후세계 인식과 민속(장제)이나 무속에 투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마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살필 사후세계 인식에 대한 연구는 불교사상의 한 부분으로서의 내세사상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우리의 삶속에 내재해 있는 민족 정서의 일부분으로서 저승관을 고찰하여 민족의 통합에 기여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일환으로 삼고자 한다.

## 2. 민속에 나타난 사후세계

민속은 그 민족의 오랜 생활 문화 전통 속에서 형성된다. 같은 풍토 . 역사 . 사회적 조건 속에서 생활 문화를 영위하는 가운데 같은 민속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 중 우리의 장제 역시 풍토적, 역사적, 사회적 동일 조건 속에서 형성되어 온 것으로, 민족정서의 한 부분인 저승관을 살피는 데는 매우 적절한 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운구 때 불린 만가는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구비전승의 형태로 전해지는 가사 내용 속에서 우리 조상들의 저승관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 2.1. 장제에 나타난 저승

장례풍속에서 보이는 저승을 살피기에 앞서 먼저 우리 전래의 신(神) 개념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은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땅에 남고 영혼이 저승으로 가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인식하는 영혼관은 다양한 이견으로 존재한다. 먼저 유학자들의 관념을 살펴보면, 사람의 영혼은 살아있을 때는 한마디로 신(神, + 요인)이라 칭하고, 죽었을

---

자 외, 『죽음이란 무엇인가』, 도서출판 窓, 1990, 47-49쪽).

<sup>11</sup> 김태곤, 『황천무가연구』, 창우사, 1966; 김태곤, 『한국의 무속신화』, 집문당, 1989.

<sup>12</sup> 노현석, 「불교의 지옥 고찰」,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85.

<sup>13</sup> 김기동, 『국문학의 불교사상 연구』, 아세아문화사, 1976; 김기동, 「이조소설에 나타난 불교윤리사상」, 『불교사상』 제12, 13호; 김동욱 외 3명, 『한국의 전통사상과 문학』, 서울대출판부, 1982; 김운학, 『불교문학의 이론』, 일지사, 1981; 김의숙, 「고전소설의 불교사상 연구」, 『동악어문논집』, 제12집, 1980.

<sup>14</sup> 김석이, 「고대소설에 나타난 지옥관에 관한 고찰」,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1988; 이현수, 「고전소설에 나타난 명부설화 고구」, 『한국문학연구』, 제4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1981.

때는 귀(鬼, -요인)라고 칭한다. 이 신과 귀도 다시 이분되는데, 산 영혼인 신은 정(精, -요인)과 기(氣, +요인)로 나뉘고, 죽은 영혼인 귀도 혼(魂, +요인)과 백(魄, -요인)으로 나뉜다. 정은 영혼의 실체로서 침잠하여 움직이지 않는데 비해, 기는 우리가 살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일체의 심리적·육체적 에너지와 활동상을 말한다. 죽은 영혼인 혼과 백도 그 실체를 달리 설정하여, 혼은 사람이 죽으면 육체에서 이탈하여 공중에 부상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흔히 혼불로 표상되기도 한다. 이 실체는 가벼운 존재로 자유 자재하므로, 흔히 말하는 저승을 오가고 구천을 떠돌고 하는 모든 것이 이 혼의 작용으로 본다. 그에 비해 백은 사람이 죽어도 육체에서 빠져 나오지 않고 시신에 붙어 있다가, 입관을 하면 관에 담기고, 운구를 하면 상여에 실려 그대로 땅에 묻히는 존재로 보았다. 결국 살아 있는 인간이 죽은 인간인 귀를 섬길 때는 이 혼과 백을 오롯이 모셔야 하므로 이러한 영혼관에서 제례의 절차가 마련되기도 한다.

이와 유사한 관념으로,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은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곧 혼(魂)과 귀(鬼)와 백(魄)이라고 보았다. 혼은 하늘로 올라가는데, 곧 저승으로 가는 것이다. 백은 땅에 귀의하고, 귀는 공중에 존재한다. 이 귀가 일반적으로 신주로서 영접되어 인간에게서 제사를 받는다. 곧 인간은 사후에도 그 생명은 천지인으로 분류되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셋 중 귀와 백이 지상의 산 인간과 끊임없이 관계를 갖는다. 백은 풍수상 자손과 직접 중대한 관계를 갖는다고 믿고 있다. 만일 망자가 후에 자손이나 인연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잘 모셔지면 이들 귀도 백도 만족해서 흠어지게 된다. 백은 묘에서 삼년 제사를 받고 귀는 사당에서 자손 사대까지 제사를 받게 된다. 그리고는 흠어져 없어져 버린다<sup>15</sup>고 보기도 한다.

한편, 하늘의 신은 영(靈)이고, 땅의 신은 기(祇)이고, 사람의 신은 귀(鬼)라고 보고 영혼은 천신과 인신의 혼합이라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육체와는 대치되는 말이며, 인간의 생명 자체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민족들은 흔히 영혼이, 육신이 죽은 후에 새로운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나거나, 내세인 저승으로 들어가서 영생하는 불멸의 존재라고 막연히 믿고 있다<sup>16</sup>.

장제에서 저승관을 엿볼 수 있는 과정은 초혼(招魂)과 사자밥, 반함(飯含), 반곡(反哭) 등이다. 초혼이란 고복(皁復)이라고도 하는 과정으로 사람이 죽으면 즉시 죽은 사람의 속적삼을 가지고 앞 처마로 해서 지붕에 올라가 북쪽을 향하여 적삼을 휘두르면서 죽은 사람의 이름을 세 번 불러 복(復, 돌아오라), 곧 초혼을 하고 뒤 처마로 해서 내려온다.<sup>17</sup> 이 초혼의식은 예서에서나 관행에서나 행해지는 것으로, 관행에서는 혼을 저승으로 안내하는 사자에게 소개시켜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저승도 이승도 아닌

<sup>15</sup> 신태웅, 『한국 귀신 연구』, 로고스문화사, 1989, 46쪽.

<sup>16</sup>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적 사고의 원형』, 고려원, 1988, 94-95쪽.

<sup>17</sup> 復 侍者以死者之上服嘗經衣者 自前榮升屋中 左執領右執要 北面招以衣 三呼曰某人復畢卷衣降 (이재, 『사례편람』, 보경문화사, 1991, 30쪽).

곳에서 떠돌지 말고, 저승사자를 따라 저승으로 가라는 의미인 것이다. 그러나 예서, 곧 유교에서는 육체를 떠난 혼을 다시 불러 살아나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니, 곧 효심인 것이다<sup>18</sup>. 이 초혼의식은 전통 장제에서는 필수의 의례로 행해진 것을 남측은 물론이고 1960년대 북측의 민족조사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sup>19</sup> 중국 조선족의 조사 자료에서도 다른 의례절차에 비해 긴 생명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sup>20</sup>

사자밥은 사람이 죽은 후 곧 지어서 대문 밖에 차려 놓는데, 지방에 따라서 다르지만 밥, 동전, 짚신 등을 상이나 키에 세 개씩 놓는다. 이러한 의식은 예서에서는 행해지지 않던 부분으로 관행에서는 널리 행해진다. 일반인들의 설명에 의하면 저승사자에 대하여 죽은 사람을 잘 데리고 가 달라는 의미에서 차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세 개씩 놓는다는 데서 우리는 저승사자 세 명이 망자를 데리러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밥과 돈과 짚신을 놓는다는 데서 저승이 먼 거리에 있어서 왕래하는데 힘이 들고 고생하는 것으로 여겨 배가 고플까 밥을 차리고, 먼 거리를 걸어왔으므로 신발이 해졌을 것으로 생각하고 짚신도 놓으며, 노자에 보태라고 돈을 놓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여기에서 우리 조상들은 저승사자들을 인간세상의 관원정도로 인식하고 있어서 그들을 잘 접대하여서 망자를 고이 저승으로 인도할 것을 희망하였고, 저승사자들도 뇌물로써 청탁할 수 있는 속세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사자들을 대접하여 죽음을 연기하거나, 대리인을 잡아가게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설화와 고소설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장제에서 저승과 관계되는 것은 반함<sup>21</sup>이다. 습(襲, 시신에 옷을 입히는 것)이 끝나면 염(殮, 시체를 묶는 것)을 행하기 전에 반함을 한다. 이는 쌀을 물에 불려서 사발에 담아가지고 버드나무 숟가락으로 떠서 시신의 입에 세 번 넣으며 “천석이요, 이천석이요, 삼천석이요” 하면서 외친다. 이것을 ‘양식(糧食)’이라고 하는데 저승까지 갈 때의 식량이라고 풀이된다. 실제로 세 숟가락이지만 이는 쌀 만석을 상징하고, 쌀을 넣은 후에는 동전을 역시 세 번 넣는데 이것도 만 냥을 상징한다. 이 돈은 저승까지의 노자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승에서 저승까지의 거리는 상당히 먼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염할 때에 효포(絞布)라고 하여 시체를 다섯 혹은 일곱 매듭으로 묶고 그 매듭에 창호지로 고깔을 만들어서 씌운다. 이것은 저승의 열두 대문을 들어갈 때 그 문지기에게

<sup>18</sup>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전통사회의 관혼상제』, 고려원, 1991, 96쪽.

<sup>19</sup> 조선사회과학원, 『민속조사자료』(미발간, 복사본), 1949~1968.

<sup>20</sup> 천수산, 『중국 조선족 풍속』, 민족출판사, 2008, 241쪽.

<sup>21</sup> 이재의 『사례편람』에는 반함에 쓰이는 제구(諸具)로 구슬(貝)로는 금, 옥, 전패(錢貝)를 갖추는 것이 가하다 하였고, 민간에서는 무공주(無孔珠)를 사용한다 하였다. 쌀(米)로는 멥쌀(稻米)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재, 『사례편람』, 보경문화사, 1991, 35쪽).

인정이라고 하는 통행료로 씌워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sup>22</sup>. 여기에서 저승은 들어가는 데 열두 대문이 있는 엄중하고 먼 거리에 위치함을 알 수 있고,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 역시 저승사자들과 마찬가지로 인정을 요구할 정도로 사사로운 정에 끌리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시신과 혼이 모두 저승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 중 어느 것만 가느냐 하는 것이다. 치장(治葬)하고 장지에서 영거(靈車)를 모시고 집에 이르러 신주(神主)와 혼백(魂帛)을 영좌(靈座)에 봉안하고 상주 이하 모두 모여 곡을 하는 반곡<sup>23</sup>이라는 의식이 있다. 이것은 반혼(反魂) 의식으로, 이렇게 되면 땅 속에는 시신만이 있고 혼은 집에 모셔 왔으므로 각각 따로 있는 셈이 된다. 이 때 사당이 있을 때는 사대조까지 모시고 사당이 없으면 적어도 대상(大祥)까지는 혼백을 집에 모셔둔다. 그렇다면 그 후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산소인가 아니면 저승인가? 결국 우리의 장제에는 영혼의 안식처인 저승의 개념이 명확치 않은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sup>24</sup>

이상에서 살핀 장제를 보면 현세의 삶을 다분히 중시하는 유교사상에서 비롯된 장제이므로 뚜렷한 저승의 모습을 찾을 수는 없으나 관행으로 행해지는 장제에는 예서의 절차에다 기존의 전래신앙에서 연유한 사자밥과 같은 절차를 포함시킨다든지, 동일한 절차도 예서에서는 효의 개념으로 규정한 바를 관행에서는 망자를 떠나보내는 의미로 규정함으로써 민족 고유의 저승관을 불투명하게나마 나타내고 있다.

## 2.2. 만가에 나타난 저승

만가에는 저승에 대한 언급이 많은 편이나 저승관은 모호하게 나타나고 있다. 죽음이 주는 단절감과 공포에 의해 죽음을 무한히 한스러워하고 슬퍼하지만 죽음을 극복하게 해주는 행복한 내세를 설정한 경우는 거의 없다. 이것은 아마도 유교사상의 현세 중심적 사고에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죽음이 단절을 말한다고 해서 사후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단절은 ‘이 세상’과의 단절을 말함이지 죽음이 곧 인간 존재를 무화(無化)시키는 것으로 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곧 영혼불멸의 믿음, 죽음을 삶의 연속으로 여긴 계세사상(繼世思想)이 만가에는 있는 것이다. “내년 이 때 돌아온다”든지 “제사 때나 와서 이내 나를 만나볼까” 하는 가사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현세 중심적 사고 때문에 모호하고 막연하게 저승은 인정되고 따라서 저승은 막연히 인간이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고, 내세에 대한 생각보다는 현세를 떠나는 슬픔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북망산, 황천, 저승, 극락 등의

<sup>22</sup>장덕순, 『한국문학의 연원과 현장』, 집문당, 1986, 49쪽.

<sup>23</sup> 反哭 主人以下奉靈車在塗徐行哭 至家哭 祝奉神主入置于靈座 (이재, 『사례편람』, 보경문화사, 1991, 87쪽).

<sup>24</sup>장덕순, 앞의 책, 49쪽.



내세를 의미하는 단어가 여기저기 나타나기는 하나 이런 단어들이 관념적으로 구체성을 지닌 내세를 의미하지는 않는다.<sup>25</sup>

만가에서의 모호한 저승은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 하나는 북망산천 등으로 묘사되는 사실적인 공간인 무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완전히 관념적 공간인 극락의 개념이 첨부된 저승이다.

### ① 무덤 = 저승

천추 만년     살을 되를  
너는 어서     묻저 가자

천추 만년     살을 되를  
오늘     룰에     아다 주마

천추 만년     살을 집을  
봉분으로나     짓어 주마<sup>26</sup>

무덤이 저승이라고 보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죽어서도 함께 한다는 영육 불가분의 관계를 믿는 사고에서 나온 것으로, 운상을 마치고 상여를 묘지에 내려놓기 전에 북망산천, 황천에 다 왔다고 하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북망산은 본래 중국 상고시대 왕조의 수도였던 낙양 북쪽의 산 이름인데 한나라 이후 이 산을 묘지로 사용한 후부터 공동묘지의 뜻으로 바뀌었고, 이것이 다시 저승의 개념을 갖게 되었다. 황천은 노토(勞土)로서 죽어서 가는 곳인데 이 또한 땅 속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서 시신이 묻혀 있는 그곳에 망자의 혼도 함께 있을 것이라는 속신이 상식처럼 되어 전해오고, 그 시신이 묻힌 무덤이 저승이라는 생각이 보편화 된 듯하다.

이렇게 무덤으로 제시된 저승은 누구도 찾지 않는 외롭고 쓸쓸한 곳으로 묘사되고 있다. “송죽으로 울을 삼고 뗏장으로 이불 삼는” 그곳은 혼자만이 있어야 하는 외로운 곳으로 만가에서는 그려지고 있다.

### ② 저승 = 극락

저승을 극락으로 보는 견해는 앞에서 말한 무덤을 저승으로 보는 것보다는 고등의

<sup>25</sup>강문순, 「상여소리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2, 65-66쪽.

<sup>26</sup>김영돈, 「제주도 민요에 드러난 생활관」,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1977, 358쪽.

사고 체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후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영혼은 저승[극락]으로 가고 육체는 땅에 남는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러한 극락은 확실하고 구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고 막연히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곧 만가에는 지옥이라는 고통스러운 개념이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죽음에의 두려움이 사후세계에서 있을 고통의 인식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직 현세와의 단절이라는 점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sup>27</sup>.

극락이라      하는 곳은  
 고통근심      전혀 없고  
 황금으로      땅이 되어  
 연꽃으로      줄을 이어  
 아미타불      주인 되고  
 관세음      주인 되야 <sup>28</sup>

위의 예에서와 같이 극락은 구체적으로 묘사되지 않고 ‘극락세계 찾아가자’ 또는 ‘극락세계로 모시기를 전망 측원에 바랍니다’ 라고 극락왕생의 기원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막연한 가운데서도 저승에 대한 표현을 찾아보면 망자가 저승에 가는 도중 다리가 아파 못가겠다고 노자를 요구하고, 저승에 들어가서 인정을 써야 통과된다는 가사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저승은 걸어서 가는 곳, 저승 삶의 형태가 이승의 그것과 유사한 세속성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사당에	참려하고	신사당에	배려하고
동반하면	어떠한가	인정사정	없는 사자
천둥같이	몰아치며	문밖을	썩 나서니
없던 곡성	낭자하다	승명삼자	불러가며
앞에다	몰아시니	풍우같이	달려가서
저승문다달으니	문지기	하는 말이	
인정 달라	호소허네	인정줄것바히	없어
허허 별판	이로세네	에히하라달	호오
그럭저럭	들어가니	염라대왕	하는 말이
나라에	충신하고	부모에게	효자한 놈
너는야	이세상에	부자가	부러우나
알성급제	도장원이	뉘라두	부러우면

<sup>27</sup>강문순, 앞의 논문, 67쪽.

<sup>28</sup>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구비문학대계』 6-2, 전남 진도군편, 1986, 481쪽.

글러루          점지하고      부모에게      불효한 놈  
 국가에          불충한 놈      엄벌에          처하는데  
 기름가마      끓여놓고그속에다잡아느니  
 명령이          불쌍일세에이하라달호오<sup>29</sup>

또한 자식들에게 마지막이지만 노잣돈을 달라는 응석과도 같은 현실 감각은 죽음의 비장감을 오히려 느끼게 하는 구절로서 저승으로 떠나는 망자와 보내는 자식 사이의 마지막 나눔의 시간으로 그려지고 있다. 곧 떠나는 망자나 보내는 상주들이나 저승은 힘들게 걸어가야 하는 먼 길로 도중에 주막도 있을 듯하고, 강을 건너는데 배 샅도 주어야 할 것이라는 이승의 공간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자식자식      내자식아      노자돈을      좀 나뉘고  
 만상주가나올란가돌째상주나올란가  
 끝에 상주      호강상주가      이내몸에      돈을 걸어도고<sup>30</sup>

만가에 나타나는 저승의 행로는 결코 쉽게 갈 수 있는 행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한정 없는 길, 애달프고 서러운 길, 머나먼 길, 태산을 넘어가는 길, 좁은 길도 넓어지는 길, 주막이 있고 신발 의복 등을 갈아가며 가는 길, 여러 날이 걸리는 길, 노잣돈이 필요한 길, 배를 타고 가는 길, 수록 천리 길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만가에는 영혼의 존재여부나 양상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 않은 것 또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그 영혼이 간다는 곳, 곧 저승의 행로, 위치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어법으로 노래하고 있다. 『한국구비문학대계』 속에 들어있는 만가 182 수에서 가려낸다면 중복되는 것이 많으나 내세, 곧 저승세계는 대체로 고정되어 있다.

- ① 저승길이 멀다드니      대문 밖이 저승일세  
 황천길이 멀다드니      앞산인 줄 왜 몰랐나 (구비, 1-2, 여주 가남)<sup>31</sup>
- ② 북망산천 머다드니      건네 안산이 북망이로구나 (구비, 6-4, 승주 쌍암)
- ③ 황천이라 하는 길은      한번 가며는 못 오는길 (구비, 1-2, 여주 점동)

이상의 예와 같이 저승은 ‘대문 밖’ ‘앞 안산’ ‘문전’ ‘방문 앞’ ‘뒷동산’ ‘건너 앞산’ 등에 위치한다. 장덕순 교수는 이 가사는 “초로(草露)같은 짧은 인생이란 뜻”<sup>32</sup> 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현실공간과 의식공간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승의

<sup>29</sup>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구비문학대계』 2-7, 강원도 횡성군편(2), 1984, 493쪽.

<sup>30</sup>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8, 경남 밀양군편 (2), 479쪽.

<sup>31</sup> ‘구비’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발간의 『한국구비문학대계』 이고, 1-2는 지역과 권수이다.

<sup>32</sup> 장덕순, 앞의 책, 48쪽.

삶과 저승의 삶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먼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듯하지만 실제로 죽음이라는 상황에 직면하여 그 순간에 이승과 저승의 삶은 연결되어 밀착되고 이승의 삶은 저승의 삶으로 전환된다. 이에 이승과 저승은 거의 간격 없이 붙어있는 공간이 되고, 따라서 이승의 주 공간이던 집이나 방에서 순간의 거리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 곧 문턱을 넘어선 곳, 대문 밖, 뒷동산 등이 저승의 공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표 1> 만가에서의 저승인식

이상에서 우리의 민속학적 자료인 장제와 만가에 나타난 저승관을 살펴보았다. 장제에서는 고복, 사자상, 반함, 염 등의 절차를 통해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저승을 도출할 수 있었다. 곧 저승은 망자의 영혼이 가는 곳이며, 그곳이 하늘인지 땅속인지 정해지지 않는 곳으로 걸어서 힘들게 가는 길이고, 그 저승 행로는 세 명의 저승사자와 동행하게 된다. 가는 도중에 열두 대문이 있다고 하였으나 그 이후의 저승의 상황은 장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 저승의 인물들과 저승 세계의 면모는 이승과 동일한 세속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정을 요구하는 존재, 좋은 음식, 신발, 옷으로 청탁이 가능한 존재, 노자를 줌으로써 망자를 조금은 편하게 인도하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

만가에서의 저승 역시 이와 유사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승의 확대된 공간으로 하늘, 산, 땅 밑은 이승이 되 저승이고, 저승이 되 이승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죽음을 계기로 할 때, 비로소 이승은 저승과 다른 곳이 되고 저승은 이승과 이어져 있으나 끊어진 ‘저편’이 된다<sup>33</sup>고 인식하고 있다.

### 3. 무속에나타난사후세계

앞서도 언급했듯이 우리 민족의 기층문화의 저변을 흐르면서 그 핵을 이루고 있는

<sup>33</sup>정진홍, 『한국종교문화의 전개』, 집문당, 1986, 96쪽.

종교, 사상은 무교(巫敎)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의 저승관을 가장 확실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이 무가일 것이다. 흔히 우리 무속에서는 저승의 개념은 독자적인 것이 없고 불교가 들어온 이후에는 완전히 불교의 저승과 융합되어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것은 무가가 구비전승을 통하여 현존하는 사실에 중점을 두어, 구비전승되어 오는 과정에 고등의 종교인 불교의 내세관을 수용했을 것이라는 견해이나 구비전승되는 동안의 변모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먼저의 내용이 변모되었을 것이라는 선입견은 배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기존의 저승[지옥] 연구가 불교의 입장에서 행해진 것도 그 수용의 선후문제에 있어서 고등의 체계인 불교에 중점을 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원래 무속 고유의 것으로 이해되는 저승관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 동일 유형으로 산재한 무가를 자료로 하여 저승의 행로, 저승의 인물, 저승의 형벌 등의 저승 모습을 살피고, 그 이전에 천지개벽 후에 이승, 저승이 생긴 저승 창생 설화를 살핌으로써 우리 민족 고유의 저승을 찾도록 하겠다.

무교에서는 죽음을 한스러운 것으로 보아 죽음 자체를 원한 관계로 파악하였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는 죽음의 살(煞)이 끼어 있다고 믿었다. 그 믿음 때문에 살풀이를 해서 망령을 저승으로 보냄으로써 후환이 없도록 하자는 사령제(死靈祭)가 생겨난 것<sup>34</sup>이다. 지금도 무교에서 행해지는 사령굿으로는 남부지방의 씻김굿과 오구굿, 중부지방의 지노귀굿이 대표적인 것이다. 씻김굿이란 죽은 자의 살풀이를 해서 망령을 저승으로 보내려는 굿이요, 지노귀도 같은 의미를 가진 종교 행사로서 죽은 지 석 달 이내에 치르는 굿을 지노귀라 하고, 일 년이 넘은 후의 굿을 오구굿이라 한다. 이와 같은 굿을 통하여 못다 산 억울함을 풀어줌으로써 죽음이 완성되고 저승으로 갈 수 있다<sup>35</sup>고 믿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무가는 무속에서의 저승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제주도의 <시왕맞이제>도 저승에 있는 여러 왕들 및 망자를 저승까지 데려 갈 차사(差使)를 불러 모시고 행하는 제의로, 무속 집단이 인간이 사후에 저승까지 편안히 가고, 그곳에서 다시 새롭게 잘 살 수 있기를 기원했던 것으로, 이 제의의 언어 속에는 인간의 죽음 및 사후세계인 저승의 모습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어서 무가의 저승관을 살피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 3.1. 저승창생신화

무교에서는 삶의 세계는 이승으로, 반면에 죽음 후의 세계는 저승으로 표현하였다. 삶과 죽음의 세계를 이처럼 따로 ‘이승 / 저승’으로 대별하여, 존재론적 차원에서의

<sup>34</sup> 유동식, 『한국무교의 역사와 구조』, 연대출판부, 1975, 303-304쪽.

<sup>35</sup>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적 사고의 원형』, 고려원, 1988, 92쪽.

우주체계를 이원론적으로 인식한 것을 통해서 무교가 인간의 생사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기울였나를 알 수 있다. 이러한 큰 관심으로 무가에서는 천지개벽 후 곧 이승 저승의 생성과정을 언급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천지왕본풀이>에 잘 나타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이승과 저승을 다스리는 신의 근원을 밝히는 내용으로 두 신이 이승과 저승을 차지하고자 다투는 쟁탈 신화이다. 이야기의 줄거리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천지개벽 후 인간 세상에 수명장자라는 극악무도한 사람이 살면서 천지왕에게 대항하였다.
- ② 천지왕은 일만 군사를 거느리고 정벌에 나서서 징계를 한다.
- ③ 천지왕은 귀천(歸天)중에 백주할멈 집에서 유숙하여 노파의 딸과 인연을 맺고는 증표를 주고 승천한다.
- ④ 일 년 후 대별왕, 소별왕 아들 형제를 낳고, 그들이 성장 후 박씨를 심어서 타고는 부친과 상봉한다.
- ⑤ 천지왕은 두 아들에게 인간계와 지옥계를 다스리는 신직을 부여키 위해 은대야에 꽃을 심어 잘 키운 쪽이 인간계를, 못 키운 쪽이 지옥계를 다스리게 한다.
- ⑥ 소별왕은 속임수로 대별왕을 속여 자신은 인간계를 맡고, 대별왕은 지옥계를 맡게 된다.

창세신화의 신화소 중 인세차지 경쟁 화소인데, 이를 통해 보면 무교에서는 저승을 맑고 깨끗한 곳으로 인식하고, 인간이 사는 이승 세계를 부정한 곳으로 보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곧 동생인 소별왕이 거짓과 속임수로 형을 이기자 형인 대별왕은 저승으로 가면서 이승이 부정이 가득하고 살인, 간음, 도적 등등이 만연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데, 이것은 현존하는 이 세상을 부정한 곳으로 보았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또 여기에서 저승을 처음 설정할 때 지하에 있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인 천지왕은 천상을, 두 아들은 이승계와 저승계를 각각 나누어 다스림에 여기에도 천상, 지상, 지하의 공간의 구분으로 이계관을 보이고 있다.

### 3.2. 저승의노정(路程)

천지개벽 후 저승이라는 공간을 설정한 무교에서는 인간의 사후에 망자의 혼이 가는 저승의 길목 행로를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람이 죽은 후 그 망자를 데리러 오는 저승사자와 저승사자가 망자를 데리고 가는 저승의 길목은 매우 험난하게 그려지고 있으며, 또 여타의 종교에서 볼 수 있는 통과제의(initiation)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만 저승문에 도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저승의 행로를 제주도 <시왕밧이제>의 일부인 <차사본풀이>와 안동지역의 <오구굿>, 서산지역의

<황천해원본풀이>, 함경도의 <방목굿> 중 타승굿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 ① 차사본풀이

이 무가는 죽은 자를 저승까지 데리고 가는 저승차사강님도령의 내력담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먼저 강님이 저승사자가 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강님이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내용을 통하여 저승까지의 노정을 살펴기로 하겠다. 강님이저승차사가 되는 경위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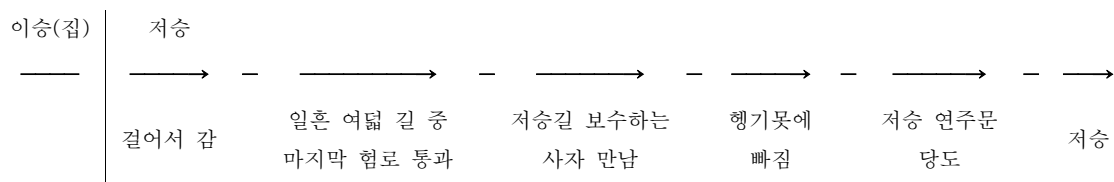
㉠ 동정국 범을 황제의 세 아들이 과양생이의 처에게 죽임을 당한다.

㉡ 그 후 과양생이 처가 삼형제를 얻어 고이 길렀으나 하루아침에 죽게 된다. 이에 원님에게 소송을 제기한다.

㉢ 도사령강님을 저승에 보내 염라대왕을 잡아오게 한다.

㉣ 염라대왕의 도움으로 동정국 범을 황제 세 아들이 살아나고 염라대왕이 강님의 용맹을 탐내어 그 혼을 빼서 저승차사로 데려간다.

강님이 염라대왕을 잡으러 저승으로 가는 과정을 통해 무가에서 생각하고 있는 저승의 노정을 찾을 수 있으니 다음과 같다.



<표 2> 차사본풀이의 저승 행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저승은 혼만 갈 수 있는 곳이고, 저승 행로는 매우 험난하고 행기뭇을 거쳐야 비로소 저승문에 도착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 ② 오구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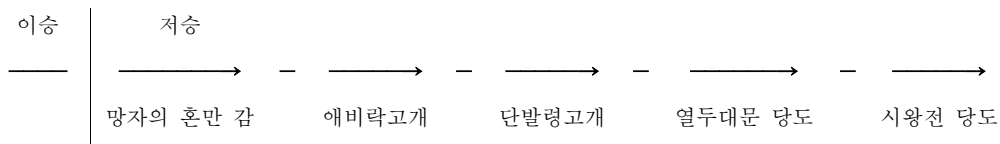
이 이야기는 안동지역에서 행해지는 망인의 영혼을 저승으로 보내는 곳으로 여기에도 저승사자의 모습과 저승의 행로가 나타나 있다. 먼저 저승사자의 모습을 살펴보자.

㉠ 짚신 감발하고 육갑책을 손에 들고 청사슬과 홍사슬을 걸머지고 수명 다된 사람을 잡으러 온다.

㉠ 골매기 수문장, 서낭님, 지신, 조왕님, 성주님, 삼신할머니가 막아서 되돌아간다.

㉡ 다른 용기 있는 사자가 나와서 잡아갈 사람을 쇠사슬로 손목, 발목, 목을 묶어 당기고 목에다 꺾쇠를 채우고 입을 함봉하고 눈에는 긴 정을 박아 손발에 쇠사슬을 채워 끌고 저승길을 간다.

그 후 저승의 행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3>오구곳의 저승 행로

여기서도 저승 행로는 매우 험난하고 먼 길을 걸어야 도달할 수 있는 곳으로 설정되었다. 그리고 저승문지기는 인정을 요구할 정도로 지극히 세속적이고 인간과 동일한 성격으로 묘사되고 있다. 저승사자 역시 먼 길을 짊신으로 걸어 다니며, 차사이면서도 마을 수호신인 동신(洞神)이나 집안의 수호신들인 가신(家神)에 대항하지 못하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망자는 온몸에 육체적 고통을 당하며 저승길을 끌려간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 ③ 황천해원풀이

이 무가는 충남 서산지역에서 망자의 저승길을 닦아 줄 때 부르는 것으로, 저승의 노정이 구체적이고 장황하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죽음의 과정과 저승사자의 모습을 살펴보자.

㉠ 수명이 다 된 사람을 시왕이 저승사자에게 잡아오도록 명령한다.

㉡ 연직사자, 월직사자, 시직사자, 칙호사자, 병부사자가 앞을 다투어 잡으러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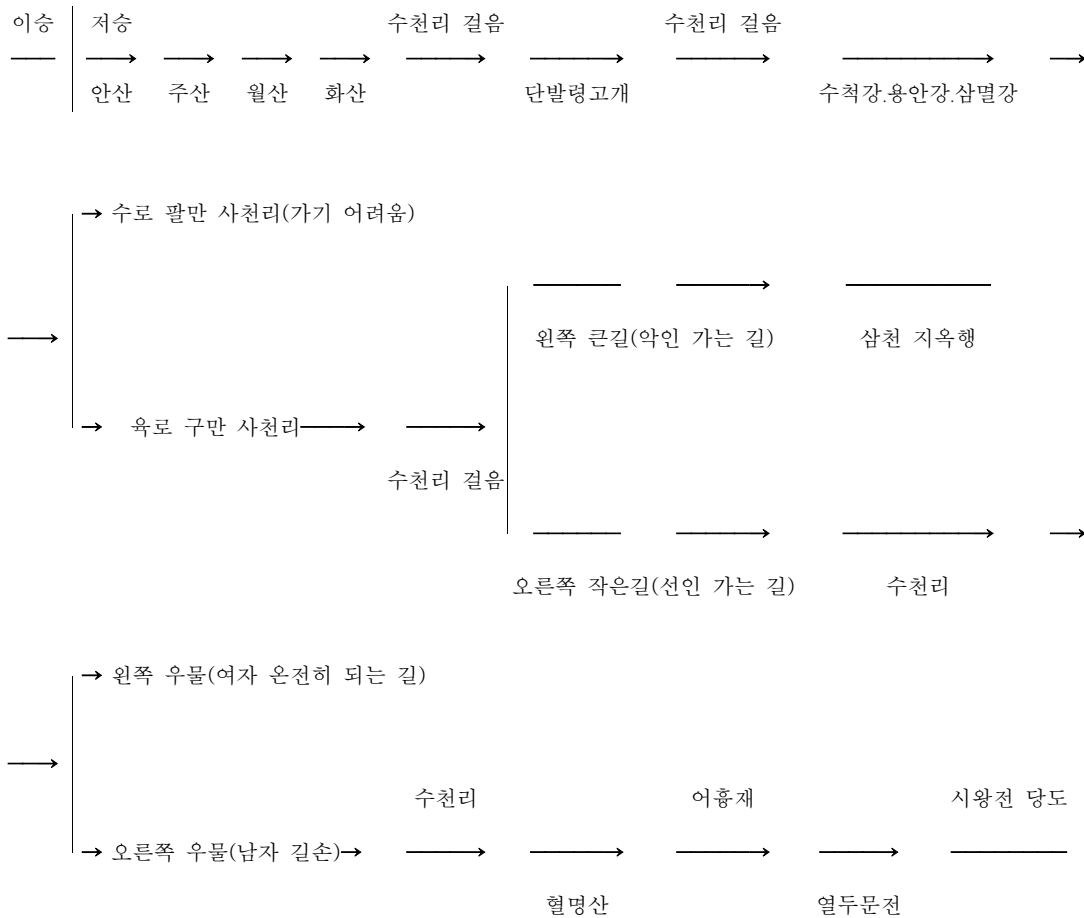
㉢ 성주신, 조왕신, 토지신 등의 가신이 가로막자 시왕의 서찰을 보여서 허락을 얻는다.

㉣ 저승사자들은 문밖에서 서있고 이승사자인 강림도령이 영문 안에 들어가 쇠사슬로 목을 묶어매고 철퇴로 두드려 혼과 육체를 분리시킨다.

㉤ 망자는 사당과 가족에게 이별하고, 저승사자들은 신발, 노자를 요구하고 끌고 간다.

저승의 길목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표 4> 황천해원풀이에서의 저승 행로

이상 장황하게 펼쳐진 저승 행로에서 망자가 시왕전에 당도하기까지의 저승 길목은 지극히 험난하고 어려운 관문이 많이 설정되어 있다. 특히 다른 무가와 달리 저승사자는 망자를 단발령고개까지만 인도하고 그 이후는 망자가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야만 시왕전까지 당도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각 통과 관문에서의 도움은 이승에서 선한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특혜이고, 두 갈래 길이나 두 우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도 역시 같은 경우에 도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무가에서도 저승에의 통과 의례는 단발령을 넘고 큰 강을 건너고 열두 대문을 통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그려지고 있어 그 노정의 험난함과 통과 의례의 어려움을 잘 보이고 있다.

#### ④ 방목굿

이 무가는 함경도 지역에서 망자의 영혼을 저승으로 보내는 곳으로,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환자가 백약이 무효하자 저승사자인 급사사자, 검은사자, 푸른사자가 집 대문에 들어서고자 한다.

㉡ 수문장이 가로막아 거미의 뱃으로 변해 환자 곁에 가서는 환자 주위에 빙 둘러앉아 환자의 죽음을 재촉한다.

㉢ 망자는 사자를 따라 높은 데는 낮아지고, 낮은 데는 높아지는 길을 굽어가면서 걸어 꼬박 열나흘에 걸쳐 저승문에 당도한다.

여기에서는 저승사자는 변신능력이 있는 존재로 등장하고, 야비하고 몰인정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저승 길목에 대한 상세한 언급이 없이 굽어가며 꼬박 열나흘을 걸어야 하는 험난한 길로만 그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함경도에서 제주도까지의 망자굿을 통해 나타나는 저승사자와 저승의 노정을 살펴보았다. 저승사자는 각기 그 이름은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 성격과 위력은 비슷하게 그려지고 있다. 시왕의 명을 받아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차사로서 명을 수행하기 위해 몰인정하고 잔인하게 망자를 끌고 가며, 사자밥이나 노자를 요구하는 몰염치한 성격도 보이고 있다. 그 위력은 변신은 할 수 있으나 가신이나 동신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죽은 자는 그 육신은 남기고 그 혼만이 분리되어 저승길을 따르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승 행로는 한마디로 대단히 험한 길로서 저승에 당도하기 위한 통과례로 생각하여 수천 수만리를 걷고 또 강을 건너는 단계를 거쳐야 하며, 장제에서 살핀 반함이나 염의 과정에서 자신의 소유로 있던 지전(紙錢)이나 옷, 쌀 등을 문지기에게 인정으로 바쳐야 하는 어렵고 고통의 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승과 저승 사이에 큰물이 가로지르고 있고 망자의 영혼은 이곳을 건너야만 저승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고는 세계 보편적인 것이라 하는데 무속에 나오는 바도 그와 유사하다.

### 3.3. 저승의형상

험로를 거쳐 저승 문전에 도착 후 망자의 혼은 시왕전에 당도하여 생전의 지은 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 곧 악업을 지은 자는 지옥으로, 선업을 쌓은 자는 극락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원시종교에는 저승의 개념은 있었으나 지옥, 극락의 이분된 개념은 없었다<sup>36</sup>는 전제에서 본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 무속이 불교의 내세관을 수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지옥에서의 형벌을 저승에 안착할 수 있는 한 과정으로 볼 때, 지옥이란 곧 저승에서 재생하기 위한 통과례적 성격을 가진 공간이라

<sup>36</sup> 박용식, 『한국설화의 원시종교사상 연구』, 일지사, 1984, 157쪽.

할 수 있다. 사국(死國)에서의 재생을 위해, 최후의 관문을 통과하면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 재판을 받는다는 모티브는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이라 하는데 무속 집단도 동일하게 사고했음을 알 수 있다<sup>37</sup>. 여하간 무교와 불교의 상호수용 관계의 선후를 따지는 문제는 이 주제와 약간 거리가 있으므로 논외로 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앞서 살핀 전국 각지의 무가에 나타난 저승 지옥의 형상과 시왕의 성격, 형벌 내용 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① 시왕맞이제

망자가 저승차사인강님도령과 함께 저승문에 당도하여 가야할 지옥의 양상과 시왕, 형벌, 징죄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시왕의 순서와 이름	소관 지옥과 형벌 내용	해당되는 사람의 생갑	치죄 내용
제 1 진광대왕	도산지옥 칼선 다리 타기	갑차지 : 갑자, 갑인, 갑진, 갑오, 갑신, 갑술	깊은 물에 다리 놓기(월천공덕) 배고픈 사람 밥 주기(급식공덕)
제 2 초강대왕	화탕지옥 끓는 물에 담그기	을차지 : 을축, 을묘, 을사, 을미, 을유, 을해	벗은 사람 옷 주기(착복공덕) 목마른 사람 물주기(급수공덕)
제 3 송제대왕	한방지옥 얼음 속에 묻기	병차지 : 병자, 병인, 병진, 병오, 병신, 병술	부모에게 효, 일가 화목, 동네 어른 존대
제 4 오관대왕	검수지옥 칼로 몸 베기	정차지 : 정축, 정묘, 정사, 정미, 정유, 정해	함정에 빠진 사람 구출
제 5 염라대왕	발설지옥 집게로 혀 빼기	무차지 : 무자, 무인, 무진, 무오, 무신, 무술	어른 말에 걸대답
제 6 변성대왕	독사지옥 독사로 몸 감기	기차지 : 기축, 기묘, 기사, 기미, 기유, 기해	역적도모, 살인강도 고문, 도적
제 7 태산대왕	거해지옥 툭으로 뼈 켜기	경차지 : 경자, 경인, 경진, 경오, 경신, 경술	되나 말을 속여서 남의 눈 속이기
제 8 평등대왕	철상지옥 쇠판에 올리기	신차지 : 신축, 신묘, 신사, 신미, 신유, 신해	남의 남편이나 가족 우러러 바라보기
제 9 도시대왕	풍도지옥 바람 길에 앉히기	임차지 : 임자, 임인, 임진, 임오, 임신, 임술	혼인식 못한 죄
제10 전륜대왕	흑암지옥 암흑 속에 두기	계차지 : 계축, 계묘, 계사, 계미, 계유, 계해	남녀 구별 몰라 자식 못 낳는 죄

<표 5><시왕맞이제>에 나타나는 시왕과 저승 형상

제주도 무가에서도 저승의 개념을 정립하는데 불교의 시왕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왕의 형상은 제주도를 비롯한 진도 씻김굿, 육지의 망자굿에 거의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왕사상이 반드시 불교에서 기인한 것으로 단정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다. 시왕사상은 불교가 발생한 인도에서

<sup>37</sup>왕 빈, 『신화학입문』, 금란출판사, 1980, 151-152쪽.

발생하기보다는 티베트를 지나면서 습합된 양상으로 볼 여지가 많다. 그렇다면 우리의 무속에서도 불교 전래 이전부터 저승의 형상 속에 시왕의 개념이 자리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만은 없다.

불교의 시왕사상을 그대로 수용했다면 체계화된 인물 구조에 다음과 같은 추가 신직을 부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장대왕까지는 불교의 지장보살을 차용했다고 하더라도, 생불대왕은 제주도 지역의 독특한 저승관에서 비롯된 신직이고, 좌도대왕 · 우도대왕 · 동자판관 역시 불교에서 등장하는 신직들은 아니다.

시왕의 순서와 이름	주요 직무
제11 지장대왕	
제12 생불대왕	인간 세상에 아이 못 낳은 사람에게 아이를 마련해 주는 대왕
제13 좌도대왕	앞서의 일들을 심사함
제14 우도대왕	문서의 정리
제15 동자판관	문서를 건어보고 망자에 대하여 최후의 심판을 함

<표 6><시왕맞이제>에 나타나는 기타 인물과 주요 직무

시왕전에서 최후로 동자판관에게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역시 불교에서 관념화된 절차가 아니다. 먼저 이승에서의 죄가 많아서 지옥의 형벌로도 안 될 때는 소나 말 · 흑구렁이 · 지네 · 만물푸십새로 환생하게 하고, 이승에서 죄가 없고 공덕을 쌓은 사람은 저승의 상마을 · 중마을 · 하마을 · 줄럼당 · 발럼당 · 색효당 · 노상대 · 죽성도 · 상시당과 같은 곳으로 보내 영생하게 하거나 새나 나비로 이승에 환생하게 한다. 이러한 구조는 불교에서 시왕 중 마지막인 제 10 전륜대왕이 최종적으로 육도 환생을 명하는 것과 크게 차이 나는 점이다.

## ② 오구굿

여기에는 저승의 형상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망자가 열두대문을 통과하고 시왕 앞에 이른 후의 상황은 대강 아래와 같다.

- ㉠ 집장사자가 형틀에 매고 참나무 곤장으로 열대를 치고 한대로 세는 셈법으로 매를 친다.
- ㉡ 성복제 . 발인제 . 평토 . 반혼 . 삼우제 등 모든 제사를 사자에게 받치기로 약속하고 풀려난다.
- ㉢ 사자는 열씨 . 담배씨 심기, 물 먹이기, 깊은 소에서 돌 건지기 등의 시험을 거치게 한다.

㉔ 시키는 대로 다 하자 시왕은 망자를 쫓피는 극락세계로 들어가라고 인도한다.

### ③ 황천해원풀이

저승의 노정이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이 무가에서는 시왕전에 도착하기 전에 망자가 열두대왕전 열두대문을 지나는 것으로 비로소 저승에 당도하게 된다. 시왕의 명칭은 시왕맞이제와 유사하나 제십일대왕과 제십이대왕이 승관대왕, 왕비대왕으로 나타나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왕전의 모습은 누각들이 공중 높이 솟아 있는 것이 과연 신선이 사는 곳과 같다고 하였고, 망자가 시왕전에당도하자마자 연직사자, 일직사자, 월직사자, 흑해사자 등의 저승사자들이 달려들어 묶어서 시왕 앞에 꿇어앉히고, 시왕은 용상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체판관이 문서로서 문책을 시작한다. 그 심문 내용은 이승에서의 세상 구경을 한 것을 먼저 묻고, 부모공양과형제간의 우애, 일가간의 화목을 모두 물은 다음, 헐벗은 자에 옷을 준 무량공덕(無量功德)과 배고픈 자에 밥을 준 급수공덕(給水功德)을 묻는다. 이에 그렇다고 대답하면 시왕은 극락행을 관정하고 당상(堂上)에 올리고 어주삼배(御酒三盃)를 내리며 월계화를 머리에 꽂아 주고 곤룡포를 입혀서 천리마를 태워 극락세계로 보낸다.

### ④ 방목굿

이 무가에는 저승의 노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십대왕의 이름도 자세히 언급되지 않는다. 망자가 저승문에 당도하면 우두나찰(牛頭羅刹), 마두나찰(馬頭羅刹)이 달려들어 죄명을 묻고 통과시키면 염라대왕 앞에서 문초가 시작된다. 그 문초 내용은 남을 해친 적이 있는가, 부모에게 말대꾸하였는가, 남의 여자를 욕심 내었는가, 유부녀 통간하였는가 묻고 명부 십대왕전 열두대문에 인정을 쓰라고 요구한다.

이상 전국 각지의 무가에 나타난 저승의 형상을 살폈는데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인 저승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곧 무가에서 말하는 저승은, 열두대문을 통과하면서 이승에서 지은 죄업에 따라 각기 정해진 지옥에서 벌을 받고 최후로 시왕전에 당도하여 시왕 앞에서 최판관(崔判官, 체판관)의 심문을 받은 후 극락행이나 이승으로의 환생이 결정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불교에서 말하던 지옥을 무교에서는 저승의 한 노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저승의 인물은 시왕이라 하여 각기 열두 명 또는 열다섯 명으로 설정되는데, 이 시왕들이 망자가 이승에서 지은 죄를 심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각 전 아래에는 사자가 있어 이를 맡아 보고 있다. 시왕은 불교에서는 십대왕이라 하여 열 명을 말하고 있으나,

무가에서는 열두 명이나 열다섯 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시왕(十王)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시왕(屍王, 尸王)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저승의 형상은 그 건물이 이승의 궁전과 같이 높은 전각을 세워 놓고 그 아래에 여러 사자들이 시중을 들고 있는 것으로, 이승의 관가와 비슷하다. 곧 우리 무교에서는 저승을 이승의 투사물로써 관념화하여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결론

원시로부터 현재까지 우리 민족이 신앙대상으로 삼고, 그에 따라 생활양식과 문학에 수용되었던 종교나 사상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였다. 가히 종교, 사상의 백화점이라 할 만큼 고유사상부터 외래사상까지 다양하게 접해왔던 것이다. 그 가운데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미지세계에 대한 의구심으로 지대한 것이었다. 원시시대부터 영혼불멸의 사상이 있었기에 순장과 같은 장례풍속이 있었고, 내세사상을 가진 불교 등의 종교가 전래되면서 고등의 이론 체계에 고유의 상상력이 첨가되어 매우 구체적으로 저승이 그려진 것이다.

장제에 나타난 저승인식은 초혼, 사자상, 반함, 염, 반곡 등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 현세중심적 유교사상에서 그 기본적인 틀이 마련된 절차라서 구체적인 저승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불투명하게나마 그려진 저승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망자의 영혼이 저승으로 가는 것으로, 가는 길은 걸어서 가야하고 저승차사 세 사람이 잡으러 와서 끌고 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저승의 위치는 땅속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만가에서의 저승은 무덤을 저승으로 인식하는 것과 극락을 저승으로 인식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었으나, 역시 그 위치와 양상은 뚜렷하지 못하고 단지 걸어서 힘들게 가는 길이 저승 행로임을 말하고 있다. 또 저승을 멀지 않은 곳, 죽음이라는 시점을 통해 이승의 삶과 순간적으로 구분되는 한 점으로 생각하여 ‘대문 밖’, ‘앞산’, ‘문전’을 저승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저승의 인물들은 이승의 인물들과 유사한 성격으로, 뇌물이나 접대로서 청탁이 가능한 세속적인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무가에서의 저승은 불교사상과의 상호 수용, 습합의 선후문제가 선결조건으로 남아 있지만, 표면상으로 구연되고 구전되는 무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저승관은 장제에 비해 체계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첫째, 무가에는 이승, 저승의 창생설화가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저승은 인간계의 아래인 지하계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저승에의 도정은 걸어서 열나흘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어서 큰 고개를 몇 개나

넘고 큰 강을 건너서 도달할 수 있는 곳으로 나타난다.

셋째, 저승의 인물들은 저승차사가 있고, 시왕이라는 심판관이 있어서 이승에서의 선악을 심문하고는 이승으로의 환생이나 극락으로의 영생을 판결해 준다. 이것은 불교의 시왕신앙과 유사한 사유방식으로, 무가에서의 불교수용의 예로 삼고 있으나 시왕의 수가 불교에서보다 많고, 최판관이라는 무가 특유의 인물이 있어서 앞으로 더 연구해 볼 부분이다. 그리고 이들 인물들 역시 이승의 관리나 왕과 같이 세속적인 인간미를 가진 존재들로 묘사되고 있다.

넷째, 저승의 모습은 이승의 관가나 궁궐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무가에서는 저승을 이승의 투사물로 관념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우리 민족에게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끼친 사상과 종교를 통해 저승관을 도출했는데, 대체로 그 인식은 공통적이라 할 수 있고, 점차로 발전되고 체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무가에 나타난 저승관과 불교에서의 저승관을 비교 연구하여 그 상호수용의 선후를 고찰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구비문학적 측면에서 고유의 무가가 반드시 고등의 외래종교인 불교의 사상을 수용했다는 주장은 다소 회의적인 부분이 있다. 외래종교로서 불교가 민중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위해 무가의 시왕사상이나 저승 체제를 수용했을 가능성도 다분히 내재하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강문순, 「상여소리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2.  
김기동, 『국문학의 불교사상 연구』, 아세아문화사, 1976.  
김기동, 「이조소설에 나타난 불교윤리사상」, 『불교사상』 제12, 13호.  
김기동, 『국문학의 불교사상 연구』, 아세아문화사, 1976.  
김동욱 외 3명, 『한국의 전통사상과 문학』, 서울대출판부, 1982.  
김석이, 「고대소설에 나타난 지옥관에 관한 고찰」,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1988.  
김영돈, 「제주도 민요에 드러난 생활관」,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1977.  
김운학, 『불교문학의 이론』, 일지사, 1981.  
김의숙, 「고전소설의 불교사상 연구」, 『동악어문논집』, 제12집, 1980.  
김태곤, 『한국의 무속신화』, 집문당, 1989.  
김태곤, 『황천무가연구』, 창우사, 1966.  
노현석, 「불교의 지옥 고찰」,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85.  
박계홍, 「한국인의 죽음의식-설화, 무속」, 『전통문화』, 1986.  
박용식, 『한국설화의 원시종교사상 연구』, 일지사, 1984.  
신찬균, 『한국의 만가』, 삼성출판사, 1991.  
신태웅, 『한국 귀신 연구』, 로고스문화사, 1989.  
왕 빈, 『신화학입문』, 금란출판사, 1980.

- 유동식, 『한국무교의 역사와 구조』, 연대출판부, 1975.
- 이 재, 『사례편람』, 보경문화사, 1991.
- 이수자 외, 『죽음이란 무엇인가』, 도서출판窓, 1990.
- 이현수, 「고전소설에 나타난 명부설화 고구」, 『한국문학연구』, 제4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1981.
- 장덕순 외 3명,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88.
- 장덕순, 『한국문학의 연원과 현장』, 집문당, 1986.
- 정진홍, 『한국종교문화의 전개』, 집문당, 1986.
- 조선사회과학원, 『민속조사자료』 (미발간, 복사본), 1949~1968.
- 천수산, 『중국 조선족 풍속』, 민족출판사, 2008.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구비문학대계』, 1986.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19권, 웅진출판사, 1991.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적 사고의 원형』, 고려원, 1988.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전통사회의 관혼상제』, 고려원, 1991.



## 조선반도연구 국제학술회의 2019 참석자 명단

### 대표단 단장

	성명	소속
1	김웅	중국 연변대학교, 총장
2	박찬규	중국 연변대학교 조선반도연구원, 원장
3	범은실	중국 사회과학원 변강연구소, 연구원
4	송현원	북측 사회과학원, 부원장
5	강성은	북측 일본 조선대학 조선문제연구센터, 센터장
6	김우철	남측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7	김성민	남측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 연구단, 단장
8	유정복	남측 교통연구원, 부원장
9	이갑영	남측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원장

### 역사 분과 참석자 명단

	성명	소속	역할
1	정경일	중국 연변대학교, 교수	좌장
2	김성호	중국 연변대학교, 교수	발표
3	리홍석	중국 연변대학교, 교수	발표
4	최봉춘	중국 절강사범대학교, 교수	발표
5	방민호	중국 연변대학교, 교수	토론

6	이용식	중국 연변대학교, 교수	토론
7	고승룡	중국 연변대학교, 교수	토론
8	위광남	북측 사회과학원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소, 실장	발표
9	한경림	북측 사회과학원, 김일성-김정일 토지혁명 력사연구소, 연구사	발표
10	강성은	북측 일본 조선대학 조선문제연구센터, 센터장	발표
11	정영수	북측 일본 조선대학, 교수	발표
12	리정희	북측 사회과학원 대외사업처, 책임부원	토론
13	배항섭	남측 성균관대학교, 교수	발표
14	홍동현	남측 연세대학교, 교수	발표
15	이용기	남측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발표
16	장용경	남측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토론
17	이상록	남측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담당자
18	이동현	남측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진행협조
19	김광일	남측 국사편찬위원회, 주무관	진행협조
20	안자코 유카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교수	발표
21	니시무라 나오토	일본 도우시샤대학, 교수	발표
22	신주백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소장	참관

23	한동훈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원	참관
----	-----	----------------------	----

### 문화분과 참석자 명단

	성명	소속	역할
1	허명철	중국 연변대학교, 교수	좌장
2	장수	중국 연변대학교, 교수	발표
3	이용식	중국 연변대학교, 교수	발표
4	최향단	중국 연변대학교, 교수	발표
5	리홍군	중국 연변대학교, 교수	토론
6	서옥란	중국 연변대학교, 교수	토론
7	김성희	중국 연변대학교, 교수	토론
8	리순범	북측 사회과학원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 소장	좌장, 발표
9	김진국	북측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실장	발표
10	김광조	북측 사회과학원, 민속연구소 연구사	발표
11	김진미	북측 일본조선대학, 교수	발표
12	김철수	북측 일본조선대학, 교수	토론
13	박영균	남측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	좌장
14	박민철	남측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 연구단, 교수	발표
15	도지인	남측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 연구단, 교수	발표
16	김종균	남측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 연구단, 교수	발표

17	조배준	남측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 연구단, 연구교수	토론
18	남경우	남측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 연구단, 연구교수	토론
19	전영선	남측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 연구단, 연구교수	토론
20	김종곤	남측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 연구단, 연구교수	토론
21	박재인	남측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 연구단, 연구교수	토론

### 경제분과(1) 참석자 명단

	성명	소속	역할
1	백성호	중국 연변대학교, 교수	좌장
2	안국산	중국 연변대학교, 교수	발표
3	동려민	중국 연변대학교, 교수	발표
4	최철호	중국 연변대학교, 교수	토론
5	장동명	중국 료녕대학교, 교수	발표
6	김미화	중국 길림성사회과학원, 연구원	토론
7	장춘철	북측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실장	발표
8	리창혁	북측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연구사	발표
9	김영	북측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연구사	발표
10	안병민	남측 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좌장
11	김상태	남측 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
12	최장호	남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발표
13	이호	남측 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14	안승현	남측 해양수산개발원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15	백승걸	남측 도로교통연구원, 수석연구원	발표
16	진장원	남측 교통대학교, 교수	발표
17	조진행	남측 한라대학교, 교수	발표
18	서종원	남측 교통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19	양하은	남측 교통연구원, 연구원	토론
20	김은수	남측 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토론
21	이성우	남측 해양개발수산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22	이창희	남측 중소기업중앙회, 센터장	토론
23	이상원	남측 중소기업중앙회, 대리	진행협조
24	이정균	남측 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토론
25	이백진	남측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26	조건식	남측 한라대학교, 교수	토론
27	손진국	남측 한라대학교, 교수	토론
28	박충환	남측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팀장	토론

## 경제분과(2) 참석자 명단

	성명	소속	역할
1	박찬규	중국 연변대학교, 교수	좌장
2	권철남	중국 연변대학교, 교수	발표
3	최성우	중국 연변대학교, 교수	발표
4	전 영	중국 연변대학교, 교수	토론
5	현동일	중국 연변대학교, 교수	토론

6	범은실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연구소, 연구원	발표
7	달지강	중국 홍콩강성사회과학연구원, 연구소장	발표
8	장혜지	중국 길림대학교 동북아연구원, 교수	발표
9	석철원	북측 사회과학원 인권연구소, 소장	발표
10	조순희	북측 대외경제성 합영투자개발국, 책임부원	발표
11	한금희	북측 대외경제성 합영투자개발국, 부원	발표
12	리준식	북측 일본 조선대학, 교수	발표
13	김은철	북측 사회과학원 과학지도국, 부원	토론
14	김선일	북측 사회과학원 과학지도국, 부원	토론
15	이갑영	남측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원장	발표
16	이정희	남측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교수	발표
17	김지환	남측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교수	발표
18	조형진	남측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교수	발표
19	송승석	남측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부원장	토론
20	김남희	남측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교수	토론
21	박재욱	남측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행정실장	진행협조
22	하유정	남측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행정직원	진행협조
23	김재신	남측 GTI , 수석고문	발표
24	이현주	남측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 기타 참석자 명단

	성명	소속
1	김홍배	중국 연변대학교 사회과학처, 처장
2	담일초	중국 연변대학교 조선한국연구중심, 부주임
3	김금자	중국 연변대학교, 교수
4	조우연	중국 연변대학교 조선반도연구원, 연구원
5	리금희	중국 연변대학교 조선반도연구원, 연구원
6	장박원	중국 연변대학교 조선반도연구원, 연구원
7	석길매	중국 연변대학교 조선반도연구원, 행정실장
8	림기경	중국 연변대학교 조선반도연구원, 행정직원
9	전복희	중국 북경시 SK 행복공익기금회, 비서장
10	김재열	남측 SK 그룹, 고문
11	박종철	남측 경상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12	정은이	남측 통일연구원, 연구원
13	조영주	남측 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4	문희영	남측 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15	서유석	남측 호원대학교, 부총장
16	염규현	남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홍보팀, 부국장
17	김태우	남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간사
18	문광희	북측 일본 조선대학(재일교포)